

국토연 2002-2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Local Industrial Linkag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in Korea

●
차미숙 · 정윤희



연구진

연구책임·차미숙 책임연구원

연구반·정윤희 연구원

국토연 2002-21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연구

글쓴이·차미숙, 정윤희 / 발행자·이규방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2년 12월 27일 / 발행·2002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031-380-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7,000원 / ISBN·89-8182-217-4

<http://www.krihs.re.kr>

©2002,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서 문

세계화 시대의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수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급격한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시책의 추진으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1991년 14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2000년에는 157억 달러에 달해 이 기간동안 무려 11.2배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선별적인 지역내 유치와 지역경제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특성을 분석하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에 관한 광범위한 이론과 실증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론적인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둘째, 국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8,335개소의 자료를 토대로 업종, 투자진입방식, 투자시기, 조직구성 등 조직 및 투자실태를 분석하고, 이들 조직 및 투자특성에 따라 권역별, 대도시별, 그리고 시·군·구별로 ArcView GIS 등

을 활용해 공간분포실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중심지 및 대도시 분포선호가설(core tendency hypothesis)을 입증하였다. 셋째,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면담사례조사(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결정요인과 입지행태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단계별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 계획입지 선호경향 등 다양한 입지행태 특성을 밝혔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지역산업연계와 지역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낮은 지역내 구매연계, 제한적인 기술이전효과 및 지역사회교류 등 의존적인 지역연계모형(dependency model)의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조직, 생산 및 투자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별로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향후 동북아경제 중심국가의 건설 등 외국인직접투자자와 관련한 국가 및 지역정책의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정책적인 의의가 크다. 이에 외국인투자유치에 관련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실무자와 학계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책임지고 성실히 수행한 차미숙 박사와 정윤희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 연구를 위해 면담 및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체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

2002년 12월
원장 이 규 방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생, 입지특성 및 지역연계에 대한 기존이론과 실증연구를 검토하여 연구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를 살펴본 다음,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의 조직, 생산 및 투자특성에 따른 유형별 입지결정요인과 입지행태를 밝혔다. 넷째, 유형별로 지역산업연계 및 지역고용창출효과, 지역사회교류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연구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생관련이론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지역연계에 관한 해외 실증연구와 국내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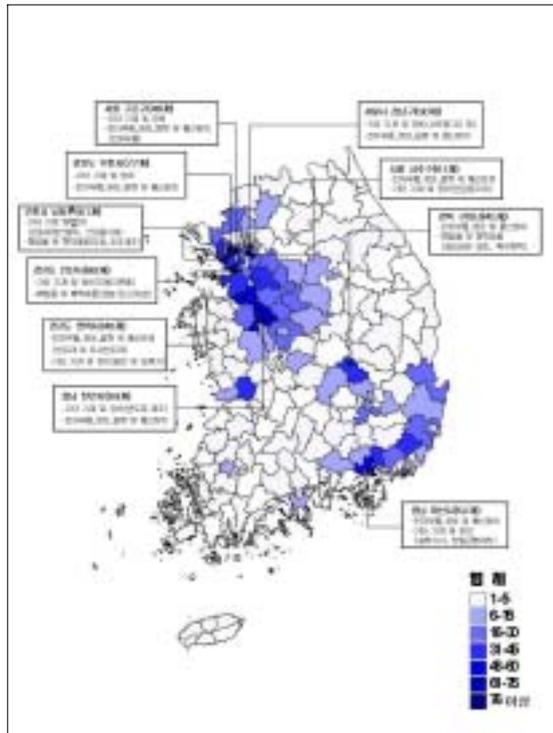
제3장에서는 국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 입지분포 및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속한 투자증대와 투자동기의 변화이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이 전

환되었으며, 적극적인 유치시책의 영향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63.4%, 투자액의 62%가 1998년 이후에 집중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업 위주의 현저한 투자유치업종 증대와 구조변화이다. 이는 산업구조 전반의 서비스경제화 현상이라 일컫는 서비스업의 증대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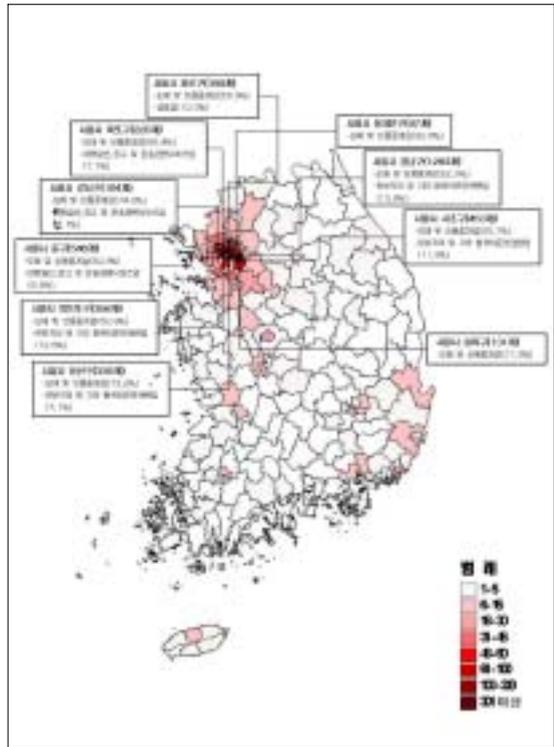
셋째, 수도권 및 대도시의 집중경향과 수도권-지방의 분포격차 심화이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87.8%, 투자액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해 있다. 투자시기별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지방을 1.0개소로 할 경우, 1990~97년은 5.19개소에서 1998년 이후는 수도권이 7.12개소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여타 지방과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일반적인 입지분포가설 중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특성은 중심지 및 대도시 분포선호 가설(core tendency hypothesis)에 의한 설명력이 높음을 밝혔다.

넷째,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집적 현상과 계획입지 선호경향이다. 업종별로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투자비중이 높으며 국내의 유사·동종업체의 입지분포와 유사한 입지분포 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지역별 집적양상에 있어서 외국



<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도 >

인직접투자기업의 상위집적지역내 투자가 지속되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상 자기강화현상(self-reinforcing hypothesis)을 어느정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외국인기업 전용산업단지 및 계획입지 선호경향이 뚜렷하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체의 1/4인 23.5%가 계획입지 내에 분포하여 국내 제조업의 계획입지 분포비중인 13.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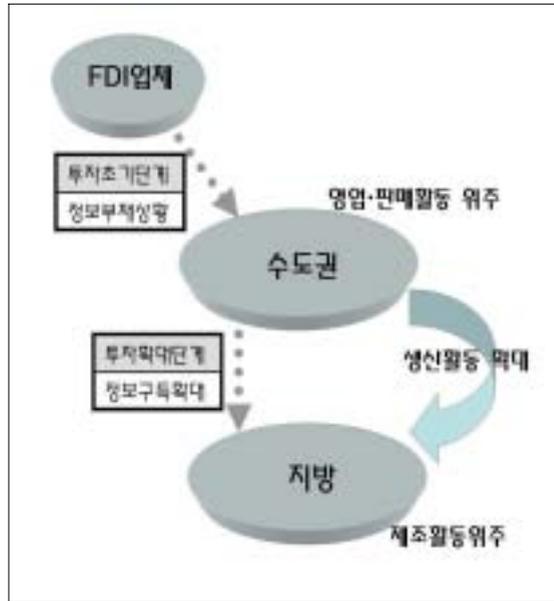
<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도 >

제4장에서는 제조업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면담사

례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 생산 및 투자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입지행태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입지행태에 있어서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의 지방입지경향 이외에 기타 유형별로는 유의적인 입지행태상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대부분 집적경제의 이점이 크고, 정보획득이 용이하고, 해외 모기업과 교류가 용이한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수도권의 집적이익이 너무 커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차이로 인한 입지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입지이동 경로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기업들은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

접근성 등을 주요 입지결정 요인으로 꼽고있다. 그리고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에 있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입지이동패턴을 띤다. 투자초기단계에는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재와 위험최소화를 위해 서울 등 중심지역 내 입지를 선호하다가, 생산활동을 확대하면서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중부권으로 이전하는 입지행태를 보이고 있다.



<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이동경로 >

제5장에서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면담사례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조직, 생산 및 투자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지역산업연계와 지역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첫째, 물자조달 구매율에 있어 낮은 지역연계와 높은 해외의존 연계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물자조달 및 구매비율의 공간지리적 분포를 보면, 지역(해당 시·도) 15.2%, 국내 타 시·도 51.2%, 해외 33.6% 등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의 지역적 연계수준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판매연계의 공간지리적 분포를 보면, 지역(해당 시·도) 42.4%, 국내 타시·도 28.6%, 해외 29.0% 등이다. 이는 시장 및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증대 경향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기업활동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지원서비스를 수도권 소재의 전문서비스업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수도권 업체의 약 98%가 수도권내 서비스 업체를 활용하는 반면, 지방업체는 약 1/3만이 해당지역내의 서비스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외국인직

접투자기업들은 기업정보를 주로 해외모기업으로부터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약 1/3이 기술개발 및 생산부문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제휴활동은 기업의 조직성숙도나 제품특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기술교류형 업체일수록 전략적 제휴연계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고용 창출효과를 나타낸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고용규모는 117명으로 투자당시에 비해 평균 4.6%의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방 업체가 수도권 업체에 비해 약 1.8배나 높은 고용규모를 나타낸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와 고용효과간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곤란하나, 투자업종이나 생산품 특성 등이 고용규모와 보다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기술이전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이다. 그리고 기업활동과정에서 지역사회기관이나 동종·유사기업 등과 긴밀한 교류 및 네트워크를 맺지 않으며, 교류 내용도 대부분 단순친목교류에 그쳐 기업 입지에 따른 지역효과의 한계를 제기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연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무차별적이고 총량적인 유치시책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경제효과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유치전략의 추진이다. 둘째, 신규기업 유치와 함께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투자확대 유도를 통해 기업의 지역내 정착과 지역효과의 제고이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 생산 및 투자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차등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의 필요성 등이다.

차 례

서 문	i
요 약	iii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 범위	4
2) 연구의 방법	6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개념의 정립	9
1) 외국인투자의 유형	9
2)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정립	10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4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와 행태	14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와 지역화	23
3)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31
3. 본 연구의 분석틀 설정	34

제3 장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와 입지분포 분석

1. 분석 개요	37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 분석	38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증가와 변화추이	38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와 조직구성	39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실태분석	46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별 입지분포 분석	46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산업별 집적실태와 추이 분석	52
4. 주요 분석결과	69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	69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실태	69

제4 장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특성과 유형별 입지행태 분석

1. 조사 설계	73
1) 조사목적 및 방법	73
2) 주요 조사내용	74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 및 투자특성	75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특성	75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특성	82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분류	86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 분석	87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 특성	87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결정요인 및 이동경로	97
4. 주요 분석결과	106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투자특성	106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분석	108

제5 장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지역연계 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 분석	112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물자조달 및 구매연계	112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판매연계	120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유형화	123
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서비스 및 정보연계	126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협력 및 전략적 제휴연계	127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협력연계	127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전략적 제휴연계	130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고용창출효과 및 지역사회활동	133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고용창출효과	133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136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사회기관과 교류 및 지역효과 전망	140
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및 지역화 종합특성	143
4. 주요 분석결과	144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	144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과급효과	147

제6 장 결론 및 정책 과제

1. 요약 및 결론	149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및 행태특성	150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특성	152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157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유치제도 및 지원시책 현황	157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160
3. 향후의 연구과제	163

참 고 문 헌	165
SUMMARY	175
부 록	179

표 차 례

<표 2-1> 외국인투자의 유형: 외국인직접투자와 외국인간접투자 비교	10
<표 2-2>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직접투자 범위	12
<표 2-3> 투자전략 및 투자동기에 의한 유형구분	13
<표 2-4>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접근방법과 연구동향	14
<표 2-5>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생산유형과 결정요인	16
<표 2-6>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지결정요인의 효과: 투자국 결정요인	20
<표 2-7>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지결정요인 해외실증연구결과: 지역단위선정	21
<표 2-8> 기업활동과 지역산업연계 관련이론체계	23
<표 2-9> 제조업 업종별 지역산업연계 수준 비교연구	25
<표 2-1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물자조달과 구매연계 실증연구 결과	26
<표 2-1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가설적 지역연계 유형	28
<표 2-1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규모 및 투자진입방식 유형별 경제성장효과	30
<표 2-13>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과 방법론 검토	33
<표 3-1> 분석대상 업체수	37
<표 3-2>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와 성장추이	38
<표 3-3>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 현황과 변화추이	39
<표 3-4>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투자규모 현황	41
<표 3-5>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산업별 현황과 연도별 변화	42
<표 3-6>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비율 현황과 연도별 추이	43
<표 3-7>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국 현황과 변화	44
<표 3-8>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조직구성 현황과 변화	46

<표 3-9> 국내 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분포비중	47
<표 3-1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도	47
<표 3-1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권역별·산업별 분포실태와 추이	48
<표 3-1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대도시 집중도	49
<표 3-1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대도시별·산업별 분포현황과 변화	50
<표 3-14>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공장기준) 집적 상위10위지역 현황	53
<표 3-15> 국내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업종비중 분포	57
<표 3-16> 권역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분포우위업종	58
<표 3-17> 권역별 국내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상위분포 업종	60
<표 3-18>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장소재지 분포실태와 변화	61
<표 3-19> 국내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업종유형별 권역분포현황	62
<표 3-20> 계획입지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별·년도별 분포실태	63
<표 3-21>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운영현황	65
<표 3-22>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집적 상위10위지역의 변화추이	66
<표 4-1> 기업체 설문조사 및 면담업체 분포	74
<표 4-2>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대상의 조사설계 개요	75
<표 4-3> 조사업체의 고용규모 분포	76
<표 4-4> 조사업체의 연간매출액 규모 분포	77
<표 4-5>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시기별 분포	78
<표 4-6>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조직구성 형태	78
<표 4-7> 조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79
<표 4-8> 면담사례업체의 조직특성	81
<표 4-9> 조사업체의 투자진입방식과 시기별 분포	82
<표 4-10> 조사업체의 투자동기 변화추이	83
<표 4-11> 조사업체의 투자국 분포와 추이	85
<표 4-12> 조사업체의 투자율별 분포와 추이	85
<표 4-13> 면담사례업체의 투자특성별 유형화	86
<표 4-14> 조사업체의 조직·투자특성별 유형화	87
<표 4-15> 조사업체의 기업규모별 입지행태와 특성	88

<표 4-16> 면담사례업체의 기업규모별 입지행태와 특성분석표	89
<표 4-17> 조사업체의 조직성숙도별 입지행태 특성	90
<표 4-18> 면담사례업체의 투자연한별 입지행태	91
<표 4-19> 조사업체의 생산품 특성별 입지행태	92
<표 4-20> 면담사례업체의 생산품 특성별 입지행태	93
<표 4-21> 조사업체의 투자진입방식별 입지행태 특성	94
<표 4-22> 조사업체의 투자동기별 입지행태 특성	95
<표 4-23> 조사업체의 투자비율 및 투자국별 입지행태 특성	96
<표 4-24> 제조업의 입지선정요인	97
<표 4-25> 조사업체의 입지결정요인 분석표	99
<표 4-26> 조사업체의 유형별 입지결정요인	101
<표 4-27> 조사업체의 기업규모·조직·생산특성별 입지정보구득 및 투자선호지역	104
<표 4-28>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입지정보구득 및 투자선호지역	105
<표 5-1> 조사업체의 평균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수준	113
<표 5-2> 조사업체의 조직자율성 수준	114
<표 5-3>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 구매비율	119
<표 5-4> 조사업체의 판매연계	121
<표 5-5>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별 판매연계	122
<표 5-6> 조사업체의 투자진입방식·투자동기별 판매연계	123
<표 5-7> 조사업체의 구매 및 판매연계 유형	123
<표 5-8> 면담사례업체 및 조사업체의 지역연계 유형	124
<표 5-9> 조사업체의 서비스 연계	126
<표 5-10> 조사업체의 정보연계(정보구득처)	127
<표 5-11> 조사업체의 기업협력연계	128
<표 5-12>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별 기업협력연계 비교	129
<표 5-13>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기업협력연계 비교	130
<표 5-14> 조사업체의 전략적 제휴연계 행태	131
<표 5-15>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별 전략적 제휴연계	132
<표 5-16>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전략적 제휴연계 행태	133

<표 5-17> 조사업체의 업체당 평균고용규모	134
<표 5-18>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 및 고용기여도	134
<표 5-19> 국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업종별 고용현황(2001)	136
<표 5-2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연구소 보유현황(1999)	137
<표 5-21> 조사업체의 기술이전 실태	138
<표 5-22>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별 기술이전 경험	139
<표 5-23> 조사업체의 정부시책 수혜여부	143
<표 5-24> 조사업체의 지역연계 및 지역화 종합특성	144
<표 6-1> 주요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156
<표 6-2>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주요내용과 관련법률	157
<표 6-3>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지원시책	158

그림 차례

<그림 1-1> 외국인투자 절차도	5
<그림 1-2> 연구의 방법	7
<그림 2-1> 외국인직접투자 발생원인에 관한 절충이론	16
<그림 2-2> 공간단위별 입지선정을 위한 잠재적 결정요인	19
<그림 2-3> 산업연계의 유형	24
<그림 2-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화 및 지역과급효과 경로	29
<그림 2-5>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분석틀	35
<그림 3-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분화형태 추이	45
<그림 3-2>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본사의 권역별 분포도	51
<그림 3-3>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도	54
<그림 3-4>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변화추이(공장 기준)	55
<그림 3-5> 권역별 국내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상위업종 분포비교 ...	59
<그림 3-6>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도	67
<그림 3-7>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변화추이	68
<그림 4-1> 사전조사 및 면담사례업체의 생산품성격과 기업조직구성 관계	81
<그림 4-2> 사전조사 및 면담사례업체의 투자진입방식과 투자동기간 관계	84
<그림 4-3> 사전조사 및 면담사례업체의 투자동기와 입지선호관계	102
<그림 4-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	103
<그림 4-5> 조사업체의 입지여건 만족도	106

<그림 5-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다층적 지역산업연계 형태	112
<그림 5-2> 소재지역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비율 비교	115
<그림 5-3> 기업규모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비율	116
<그림 5-4> 조직성숙도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비율	117
<그림 5-5> 생산품 특성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수준	118
<그림 5-6>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연계형태	125
<그림 5-7> 조사업체의 지역입지에 따른 파급효과 인식	142

부 표 차 례

<부표 3-1>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도(본사 기준)	181
<부표 3-2>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변화추이(본사 기준)	182
<부표 3-3>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도(공장 기준) ·	183
<부표 3-4>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 변화추이(공장 기준) ·	184
<부표 3-5>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도(본사 기준) ·	185
<부표 3-6>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 변화추이(본사 기준)	186
<부표 3-7>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도	187
<부표 3-8>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 변화추이 ...	188
<부표 5-1> 조사업체 유형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수준 비교	248
<부표 5-2>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 · 생산특성별 물자조달수준	249
<부표 5-3> 조사업체의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별 서비스 및 정보연계	250
<부표 5-4> 조사업체의 투자국 및 투자비율별 서비스 및 정보연계	251
<부표 5-5> 제조업체의 투자국 및 투자비율별 기업협력연계 비교	252
<부표 5-6>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정부시책 수혜여부	253
<부표 5-7>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기술이전 경험	253
<부표 5-8> 조사업체의 유형별 교육훈련 형태	254
<부표 5-9> 조사업체의 지속적 교류기관 및 모임 참여	255
<부표 5-10>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교류기관 및 모임 참여여부	255
<부표 5-11> 조사업체의 지역입지에 따른 과급효과 인식정도	256
<부표 5-12> 조사업체의 입지여건 만족도	256

CHAPTER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 성장과 규모 확대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의 진전으로 자본과 기술의 지역간 이동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가와 지역발전 차원에서 해외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 조정이 필요하거나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을 경우 해외자본의 유입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에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규모가 현저하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1980년대 중반이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을 필두로 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1990년 2,038억 달러에서 2000년 12,708억 달러로 10년간 약 6.2배가 증대하였다.¹⁾

1) 이 가운데 79.1%인 10,052억 달러는 선진국에서, 18.9%인 2,402억 달러는 개발도상국에서 투자활동이 이루어졌다. 이 기간 중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이는데 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커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도 크게 증대하였다. 1962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 활동이 처음 시작된 이래, 차관위주의 외국인자본 활용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활동이 극히 미미하여 1991년까지 14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 현재는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157억 달러로 1991~2000년 기간동안 약 11.2배에 달하는 현저한 성장을 기록하였다.²⁾

(2)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노력 및 정책적 관심증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사회간접 자본시설의 확충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재원 확충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주민의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 뿐만아니라 외국자본의 유체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정부는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³⁾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입지여건이 유리한 수도권과 여타 지역간의 격차심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약 8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새로운 지역 격차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정책 뿐만 아니라 지역정책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각각 17.8%와 19.6%로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경제발전 수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UNCTAD, 2002).

2) 우리나라는 외국인직접투자규모의 국민경제비중, 즉 국내총생산(GDP)대비 외국인직접 투자규모가 1997년 3.4%에서 1999년 7.0%, 2001년 9.7%로 높아졌다. 한편 전세계의 평균투자규모는 17.3%이다 (산업발전전략기획단 2002, 169).

3) 시·도지사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개발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대해 고용보조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촉진하였다(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2001).

외국인 투자유치는 국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뿐만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과 선진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이며 세수증대, 고용창출에 의한 경제안정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주요한 지역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⁴⁾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연계에 대한 실증연구 미흡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래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거시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의 발생원인 규명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투자유치 촉진 및 입지행태 차원의 실증적인 연구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와 양적 증대를 위한 투자유치촉진과 제도개선방안에 치중하는 반면,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과 이들의 입지행태 및 지역연계 행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과 지역경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동기, 입지결정요인 및 지역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업종, 규모, 기술수준 등 조직특성 및 투자유형에 따라 다양한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조직 및 생산유형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입지행태

4) 선진 외국의 외국인투자유치 시책은 각 국의 경제여건 및 투자유치 배경 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대체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투자인센티브와 지원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지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범위가 넓은 편이다. 이에비해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도모를 목적으로 하여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 위주의 인센티브제를 채택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역내 유치로 인한 지역기여도와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은 산업정책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치중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밝힌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역경제와의 연계 촉진을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유형화하여 입지특성과 지역연계효과를 밝히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특성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투자실태를 밝히고, 이들의 공간분포실태를 권역별, 대도시별, 시·군·구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결정요인 및 입지행태를 조사·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선별적 유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지역연계와 지역화 등 지역경제와의 연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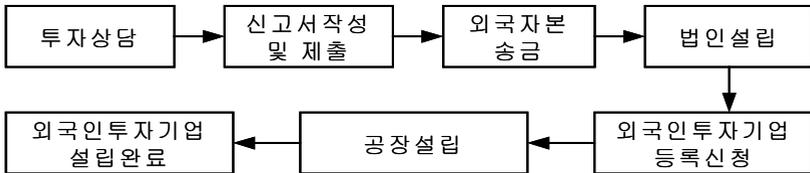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 및 입지분포 분석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경영통제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국내의 실무자산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실질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투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체”에 한정하였다.⁵⁾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절차는 신주취득, 기존주식 취득, 장기차관 등 투자형태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투자상담, 투자신고, 외국자본송금,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등록, 공장설립,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완료 및 생품생산·판매활동의 순으로 이루어진다(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실태와 지역별 입지분포 분석에서는 전체업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개괄적인 투자실태 분석 뿐만아니라 업종별로 권역별, 대도시별, 시·군·구별 집적분포와 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해 세분류 단위의 업종별로 권역별, 대도시별, 지역별(시·군·구) 입지분포를 ArcView GIS를 활용하여 도면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1-1> 외국인투자 절차도 (신주취득의 경우)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분석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분석대상은 제조업체에 한정하였다. 실증조사 분석에서 서비스업 및 농업부문을 제외한 이유는 첫째,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약 92%가 수도권내에 입지하고 있어 수도권과

5) 산업자원부의 「외국인투자기업현황」에 의하면 2001년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업체는 11,515개소이며, 이 가운데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8,335개소로 투자신고업체의 72%만이 등록을 마치고 투자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 추진과정에서 등록업체에 대한 전화조사결과 등록완료업체 중에서 폐업, 업종전환 등 변경된 업체들이 상당수 나타나 실질적인 투자활동을 하는 업체는 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타 지방소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비교분석이 곤란하여 지역정책 차원에서 의의사점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농림어업의 경우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0.5%로 매우 미약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책적 의의가 크지 않다. 조사업체들은 소재지역(수도권, 지방), 조직특성(규모, 투자연한, 생산공정, 기업조직구성), 투자특성(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투자비율, 투자국) 차원에서 유형화하고, 이들 유형별로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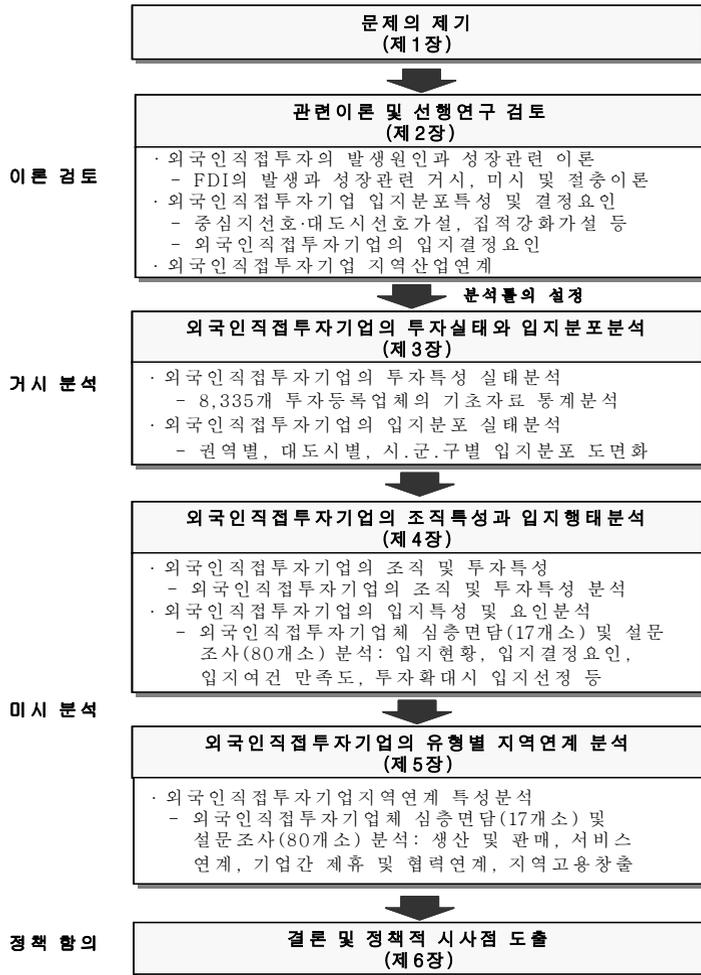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특성별로 문헌조사, 통계분석, 면담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정립과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학문적·실증적 차원에서 행해진 기존의 국내외 문헌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정책 차원에서 입지결정요인, 입지분포 및 행태 특성, 그리고 지역연계에 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실태와 입지분포의 일반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국내투자신고 자료인 「외국인투자기업현황(산업자원부, 2001)」 중에서 투자등록을 완료한 업체 8,335개소의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계분석 및 ArcView GIS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간분포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분포분석은 시·군·구별로 공간단위를 세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별·업종별 공간분포와 변화추이를 도면화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투자특성에 의한 유형분류와 유형별 입지 특성 및 지역연계 분석을 위해 8,335개의 외국인투자등록업체 중에서 제조업 부문 2,621개소에 일일이 전화를 하여 업체의 실체가동·업종전환여부와 조사를 위한 전화작업을 실시하였다. 742개의 조사대상 기업목록을 작성하여 이들 기업에 팩스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⁶⁾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운용실태 심층분석과 기업체 설문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7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림 1-2> 연구의 방법



6) 기업체 조사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 5월중 외국인직접투자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60개 업체에 조사표를 발송하였으나 10%(6개 업체)의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본 조사에서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전화하여 실제 조사대상기업 목록을 작성하였다. 사전조사시의 응답율을 감안하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업체에 조사목적 및 내용을 알리고 응답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에서는 면담조사업체(17개 업체)를 포함하여 10.8%(80개 업체)의 비교적 낮은 응답율을 나타냈다. 이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대상의 설문조사가 빈번하여 응답업체의 응력을 구하기 어려웠고, 조사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기업최고경영진이나 여러 부서를 거쳐야 조사표가 완성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에 기인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와 입지행태, 지역연계에 대한 거시·미시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CHAPTER 2

외국인직접투자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개념의 정립

1) 외국인 투자의 유형

자본은 일반적으로 그 출처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조달될 경우 내자(內資) 혹은 내국인투자라 하고 외국에서 조달될 경우 외자(外資) 혹은 외국인투자라 하며, 외국인투자는 보통 외국인의 직접투자과 차관, 증권투자, 기술이전을 총칭한다. 외국인투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외국인 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 foreign portfolio investment)로 구분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경영통제를 목적으로 국내의 실물자산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외국인 간접투자는 경영지배나 통제목적 없이 단순히 배당수익이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하는 등 보통 화폐자산만 이동하는 투자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외자도입 제도상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소유로 경

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현금·자본재 또는 산업재산권 등의 자본적 가치물을 납입하고, 그에 따라 국내법상의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7년부터 시행된 외자도입 관련법령에 의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해외모기업 및 그 관계회사로부터 도입하는 일정요건의 5년이상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하고 있다.

<표 2-1> 외국인투자의 유형: 외국인직접투자와 외국인가점투자 비교

구 분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가점투자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투자 목적	이윤 추구	자본 이득
투자 주체	개인, 기업	기관투자가
경영참여여부	경영 참여	경영참여 없음
투자 기간	원칙적으로 장기	단 기
투자 대상	주로 비상장기업 신설(greenfield investment), 기존기업합병(M&A) 등	상장기업

2)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정립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및 범위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산개념과 기업개념에 기초하여 각각 광의와 협의로 정의될 수 있다(김준동 1997, 17). 자산개념에 기초한 광의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유·무형의 자산이 이전되어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를 말하며, 기업개념에 기초한 협의의 정의에 의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경영통제를 목적으로 국내의 실물자산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행위”를 의미한다.⁷⁾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제적인 기준인 “계속적인 경제적 이해

7) 외국인 직접투자는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인 사업이익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투자이므로 순수한

관계를 설정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투자로써 당해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투자”와도 일맥상통한다(關口末大 1988, 공창석 2000, 5 재인용).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연구는 기업개념에 기초한 협의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란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경영통제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국내의 실물자산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업체” 중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투자등록을 완료하고 국내에서 실질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⁸⁾

외국인투자촉진법(1998년)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범위는 첫째,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법 제2조1항), 둘째,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 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법 제2조2항), 셋째, 10/100미만이라도 외국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시행령 제2조2항),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법 제2조1항), 다섯째, 자본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란 해외모기업의 발생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시행령 제2조3항), 여섯째,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시행령 제2조3항) 등이다.

금융적 성격의 포트폴리오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형태라 할 수 있다(김관호 외 1998).
8) 국제적 기준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서 나타나듯이 외국인직접투자의 핵심은 국내에서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영활동 참여이다.

<표 2-2>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직접투자 범위

구 분	내 용
대상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 외국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이상을 소유하고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10/100미만이라도 외국인이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당해법인 또는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기타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란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해외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해외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투자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주취득(법인신설 또는 기존법인 증자시 신주인수) · 기존주식취득(국내법인의 기발행 주식취득) · 장기차관 방식,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
투자금액 · 투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은 건당 5천만원이상(외국인투자자가 2인 또는 그이상인 경우는 1인당 2,500만원 이상)이며 투자금액의 상한은 없음 · 투자비율은 원칙적으로 10%이상. 다만, 외국인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작투자계약서 등에 나타날 경우는 10%미만도 가능
대상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8개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에서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47개업종 제외)

(2)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태 및 방식

외국인 직접투자의 투자형태는 신주취득, 기존주식취득, 장기차관, 그리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는 금액 기준으로는 건당 5천만원 이상이고, 투자비율은 10%이상의 경우를 원칙적으로 포함한다.⁹⁾ 다만, 외국인이 기업경영에 실질적

9) OECD의 정의에 따르면 대체로 외국인투자자 1인의 지분(ownership)이 10%이상인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투자로 간주한다(공창석 2000, 5).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합자투자계약서 등에 나타날 경우는 10%미만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흐름의 방향,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등에 의해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투자흐름의 방향에 따라 투자대상국의 입장에서 투자국내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inward FDI)와 투자국의 입장에서 투자국이 외국으로 투자를 행하는 해외직접투자(outward FDI)로 구분된다.

둘째, 투자동기 및 전략에 따라 시장접근형과 생산거점형, 확장형 투자와 방어형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장접근형은 투자대상국의 시장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기업특유의 비교우위(ownership advantage)를 토대로 투자대상국의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하는 유형이며, 생산거점형은 제3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생산거점으로서의 투자유치국이 지니고 있는 입지적 우위(locational advantage)를 활용하기 위하여 진출하는 형태이다. 한편, 확장형 투자는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토대로 투자하는 형태이며, 방어형 투자는 투자대상국의 낮은 임금 등에 의해 투자가 결정되는 형태이다.

셋째, 투자진출방식에 따라 현지기업의 자본소유비율을 기준으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 투자형태에 따라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와 인수합병(M&A)으로 구분된다.

<표 2-3> 투자전략 및 투자동기에 의한 유형구분

투자유형	투 자 동 기
시장지향형	· 기존의 시장과 판매망 유지 · 제3국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진출 및 현지생산 (유럽 현지법인 설립, 자동차)
생산효율지향형	· 생산요소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진출 · 노동집약적 산업(동남아, 중남미 등 개도국 합작, 전자산업)
원료지향형	· 생산원료가 풍부하고 저렴한 지역에 투자 · 생산물: 현지수요 충족 또는 수출 (자원개발 투자; 원유, 광업, 농업, 임업 등)
지식지향형	· 선진기술 및 경영관리기법 습득을 위한 투자 · 유럽계회사, 미국계회사와 M&A 등 (실리콘밸리 현지법인 설립; 현대, 삼성, LG 등 전자산업)

자료: 건설교통부, 2000.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90면.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와 행태

(1)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생원인과 성장

경제의 세계화로 경제활동공간이 확대되고 경제운영체제가 변하면서 기업의 해외투자활동이 급격히 증대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1960, 70년대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자본의 흐름과 국제거래,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초점을 둔 거시적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행태주의 영향 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관점이 국가단위에서 개별기업의 조직 및 생산특성과 입지행태 간 관계분석에 치중되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분포, 입지결정요인, 지역경제효과 등에 대하여 지역과 세부업종별 차이비교 등 실증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1980~90년대 외국인 직접투자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증대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촉진방안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특성과 지역격차 실태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표 2-4>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접근방법과 연구동향

구 분	분석단위	주요 연구초점	관련이론
거시적 접근이론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생원인 규명 -국가간 거래나 무역관계 · 국가별 이차율, 환율 등 국제경제학적 접근 	통화가치우위론, 무역보완론, 신국제분업론, 세계체계이론, 발전·종속이론
미시적 접근이론	개별 기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기업 해외시장 확장동기 · 산업조직론 및 행태주의 접근 	산업조직론, 독점적 경쟁론, 시장내부화이론, 기업성장론, 시장방어론, 제품주기이론 등
절충적 접근이론	개별 기업체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활동을 기업의 조직변화와 입지결합 설명 · 기업이론, 산업조직이론, 입지이론의 결합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와 지역연계 설명에 적용가능 	O-L-I이론 (ownership-locational-internalization advantages)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은 기업의 해외투자활동 원인규명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 배경을 설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관련이론은 연구초점, 분석단위에 따라 크게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환율, 이자율, 시장규모 등 거래와 무역관계에서 나타나는 입지상의 우위를 중시하는 거시경제적 접근이론¹⁰⁾, 개별기업의 특성이나 행태를 중시하는 미시적 접근이론¹¹⁾, 그리고 개별기업의 특성과 입지상의 우위를 결합하여 설명하는 절충적 접근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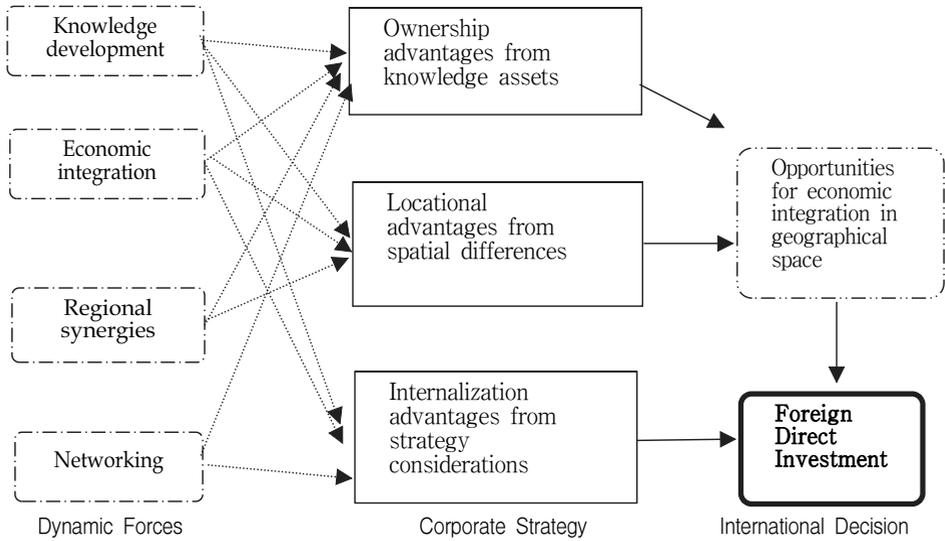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의 발생원인과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 및 가설들¹²⁾ 중에서 절충적 접근이론(eclectic approach)은 기업활동과 입지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동기와 입지요인을 규명하는데 적절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절충이론은 어느 한 접근이나 이론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다양한 행태와 측면을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여러 이론을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서 듀닝(J. Dunning)의 절충이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듀닝은 기업소유 우위(ownership advantage), 내부화 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 입지적 우위(locational advantage) 등을 결합하여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¹³⁾

10)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cycle theory, Vernon 1966)은 국제무역이론을 확대하여 기업의 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들 수 있다. 제품수명주기를 제품의 개발기, 제품의 성숙기, 제품생산의 표준화기 등 세단계로 나눈다. 세 번째 주기인 표준화기에 제품의 가격탄력성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 등 생산요소가격이 중요한 비용요인이 되면서 생산비가 저렴한 해외지역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함으로써 직접투자활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11) 미시적 접근이론의 대표이론으로는 산업조직이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독과점적 우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다른 기업에 비해 우위를 지닌 다국적 기업이 경쟁이 불완전한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행한다고 보는 이론이다(Hymer 1976). 이밖에 직접투자이론은 다국적기업이론으로서 내부화이론, 절충이론, 위험분산이론 등에 의해 연구가 전개되었다.

12)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발생요인에 관해서는 지식이전가설(knowledge transfer), 시장점유 및 잠재력가설(market share and potential), 노동비용가설(labour cost), 수익을 차등가설(return on investment), 조세차등가설(taxation differences), 교통비용가설(transport cost), 문화적 차이가설(cultural differences), 교역심화가설(trade intensity), 환율가설(exchange rate), 제품수명주기가설(product cycle) 등 다양한 가설과 이론이 있다(Morsink 1998).

13) 듀닝의 절충이론은 기업이론, 산업조직이론 및 입지이론의 결합체이다.



자료: Robert L.A. Morsink. 199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rporate networking: A framework for spatial analysis of investment conditions*. Edward Elgar. p.30

<그림 2-1> 외국인직접투자 발생원인에 관한 질충이론(O-L-I 이론)

<표 2-5>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생산유형과 결정요인

유형	ownership-specific advantages	location-specific advantages	internalization advantages	다국적기업 사례
자원지향형	자본, 기술, 시장접근성	자원보유	시장통제와 적정가격 공급의 안정성 확보	석유, 주식, 파인애플, 코코아, 차 등
수출대체 제조업	자본, 기술, 관리 및 조직숙련, R&D, 규모의 경제, trade mark	원료 및 노동비용, 시장, 정부정책(수입장벽, 투자인센티브 등)	기술우위 활용희망, 높은 거래 및 정보비용, 구매자 불확실 등	컴퓨터, 의학, 자동차, 담배 등
전문화	생산품	생산품 전문화 및 집종의 경제	기술우위 활용희망, 높은 거래 및 정보비용, 구매자 불확실, 상호의존활동 이익 등	자동차, 전기 부품, 농업기계 등
	생산과정	자본, 기술, 관리 및 조직숙련, R&D, 규모의 경제, trade mark, 시장접근성	낮은 노동비용, 투자국 정부에 의한 인센티브	수직적 통합의 경제
교역 및 배분	생산품 분배	지역시장, 소비자근접 요구, 사후서비스 등	판매처 확보 및 회사지명도 보호	소비자와의 긴밀한 관계가 요구되는 재화
서비스	시장접근성	시장	기술우위 활용희망, 높은 거래 및 정보비용, 구매자 불확실, 판매처 확보, 회사지명도 보호	보험, 금융, 상담서비스 등

자료: Peter Dicken. 1992. *Global Shif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2nd Ed.). Guilford Press. p.136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및 행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에 관련한 해외의 기존 연구는 크게 공간적 분포 및 원인규명 연구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 연구로 구분된다. 전자의 연구주제는 기존에는 제조업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다국적기업의 입지분포에 초점을 두었으나, 산업구조 변화와 서비스경제화의 진전에 따라 금융·보험·컨설팅 등 생산자서비스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점차 증대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연구주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체의 입지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면담사례 및 설문조사를, 그리고 입지에 영향을 주는 지역요인을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 등 통계적 분석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경향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를 설명하는 이론은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 주변지역 선호가설, 산업집적지 선호가설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core tendency hypothesis)은 영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분포를 설명한 Blackbourne(1978, 1982), Vernon(1974) 등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의해 제시된 가설이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은 투자초기단계에 투자대상국의 중심지 및 대도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 제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명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게 되는데,¹⁴⁾ 이들 지역들은 대개 잘 구비된 인프라시설, 대규모 시장, 그리고 집적경제기반을 갖춘 대도시나 중심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Dicken & Lloyd(1976)는 영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분포 변화분석에서 1940년대에는 주로 중심지 및 대도시에 입지하던 기업들이 입지를 점차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확산되는 경향을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

14) 산업조직이론 및 시장불완전이론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지분포에 관한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을 지지하고 있다(Glickman & Woodward 1988, 139).

자진입 초기단계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입지분포를 설명하는데 높은 설득력을 제공하고 있다(Hill & Munday 1992, 535:544, Glickman & Woodward 1988, 139:140).

둘째, 주변지역 선호가설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 증대 및 위험요인 감소, 지방입지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그리고 전원적인 생산입지(greenfield)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입지를 이전해 나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McDermott(1977)은 1960년대 영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변화분석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원지역(assisted area)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Bagchi-Sen et.al(1987)은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대도시지역(뉴욕)에서 미국내 남부 및 서부지역으로 분산하는 입지경향을 보이며, 이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업종 변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Suzman(1982), O'hUallachain(1985) 등도 미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지역에서 여타 지역으로 분산되는 입지분포경향을 밝혔다(Hill & Munday 1992, 535:544 재인용).¹⁵⁾

셋째, 집적지 선호가설은 기업간 산업연계 및 지원서비스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산업집적 및 네트워크가 형성된 지역에 입지하게 되는 경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가설은 기업 자체의 자기강화가설(self-reinforcing hypothesis)과 기업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에 토대를 두고 있다. 자기강화가설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일정지역에 입지를 확보하여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입지지역에 대한 정보구득 및 거래업체 관계 등을 활용하기 위해 입지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거나 인접지역에 제2, 3의 공장을 분포시키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기업네트워크이론은 특히 제조업부문 가운데 자동차 등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자기강화현상에 의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동일지역내에 집적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설명한다. 이와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 나타나는 입지분포경향 이외에 특별경제지역, 경제특구 및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의 지정 등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

15) 이러한 현상을 지체분산가설(lag dispersion hypothesis)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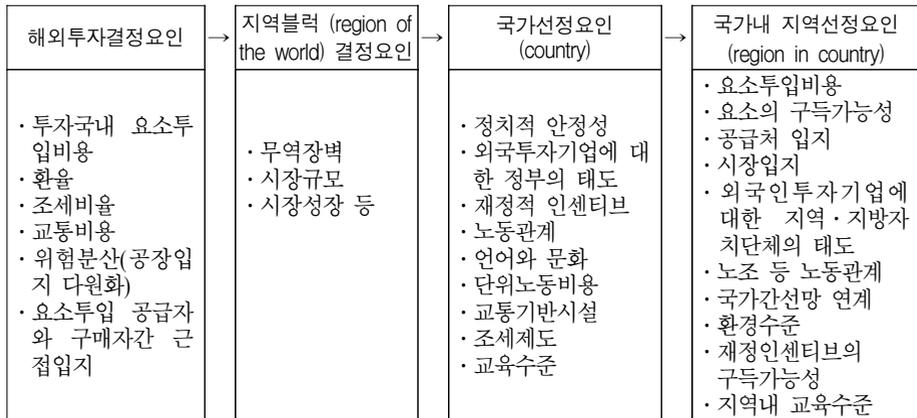
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으로 일정 지역내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집적지역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②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결정요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공간 단위별 입지결정요인 분석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특성에 따른 입지결정요인 분석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세계지역 블록, 국가, 지역 등 계층적 공간단위에 따라 상이한 입지결정요인이 작용한다. 즉 기업이 투자대상국을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1인당 GDP, 노동비용,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개방성 및 조세·관세제도를 비롯하여 투자대상국의 기업환경, 관광객수¹⁶⁾, 수출비중 등이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도 투자대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siedu 2002)

<그림 2-2> 공간단위별 입지선정을 위한 잠재적 결정요인



자료: Armstrong & Taylor. 2000.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Blackwell Publishers. p.376.

16) Kunda et.al(1991, 299:317)는 서비스부문의 증대에 따른 서비스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호텔업 등 서비스부문의 다국적기업의 유치에는 높은 수준의 GDP, 인구규모, 수출비중, 국가의 투자등급, 관광객수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지결정요인의 효과: 투자국 결정요인

FDI 결정요인	긍정적 효과 (+)	부정적 효과 (-)	무관 효과 (insignificant)
1인당 GDP	Schneider & Frey(1985) Tsai(1994), Lipsey(1999)	Edwards(1990) Jaspersen, Aylward & Knox(2000)	Loree & Guisinger(1995) Wei(2000) Hausmann & Fernandez-Arias(2000)
노동비용	Wheeler & Mody(1992)	Schneider & Frey(1985)	Tsai(1994) Loree & Guisinger(1995) Lipsey(1999)
개방성	Edwards(1990) Gastanaga et al.(1998) Hausmann & Fernandez-Arias(2000)	-	-
조세 및 관세	-	Loree & Guisinger(1995) Gastanaga et al.(1998) Wei(2000)	Wheeler & Mody(1992) Lipsey(1999)
정치적 불안정	-	Schneider & Frey(1985) Edwards(1990)	Loree & Guisinger(1995) Jaspersen, Aylward & Knox(2000) Hausmann & Fernandez-Arias(2000)
인프라 시설수준	Wheeler & Mody(1992) Kumar(1994) Loree & Guisinger(1995)	-	-

자료: Elizabeth Asiedu. 2002. "On the determinants of FDI to developing countries : is Africa different?." *World Development* vol 30, no 1. pp.107~119.

투자국내 지역단위의 입지결정요인에는 시장·고객접근성,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노동의 질 및 노동력 확보,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및 자치단체의 태도 등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단위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표 2-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지역,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한 입지결정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gchi-Sen et.al(1989)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미국내 대도시지역 입지결정시에는 인구규모, 인구성장율, 1인당 소매판매액 등을, Coughlin et.al(1991)은 미국내 주단위의 입지결정에는 시장접근성, 도로·공항·철도·항만연계성, 노동시장조건, 주정부의 유치활동, 가용토지면적, 지역산업구조를, 그리고 List(2001)는 미국내 카운티 단위의 입지결정시에는 시장규모, 접근성 및 가용토지, 투입비용, 환경규제수준 등을 주요 입지결정요인으로 지적하였다(Sun et.al 2002, 79:113 재인용).

<표 2-7>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해외 실증연구결과: 지역단위

구 분	입 지 결 정 요 인	공간선정단위
Coughlin et.al (1991)	시장접근성, 도로, 공항, 철도, 항만연계, 노동시장조건(인력구득가능성, 노동생산성), 주정부의 유치활동 및 세출규모, 가용토지면적, 지역산업구조(제조업고용)	州 (미국)
Bagchi-Sen & Wheeler (1989)	인구규모, 인구성장, 1인당 소매판매액	대도시 (미국)
Friedman et.al (1992, 1996)	해외시장에의 접근성, 대규모 국내시장, 낮은임금인상율, 낮은 주 및 지방세율, 가용인력규모/ 시장잠재력, 임금, 숙련노동자, 건설비용, 항만 등	州 (미국)
Woodward (1992)	토지면적, 인구밀도, 집적경제, 인프라수준	주, 카운티 (미국)
J.A.List (2001)	시장규모, 접근성 및 가용토지, 투입비용, 환경규제	카운티 (미국)
Xin & Ni (1995)	시장규모, 임금수준, 교육수준, 산업화정도, 교통 및 통신시설, 생활환경, 연구수준	-
PA Cambridge Economic Consultant (1995)	입지구득용이성, 노동력 구득용이성, 기존업체 존재여부, 숙련노동력, 저임금노동력, 재정인센티브, 용수·에너지 등 기반시설 활용가능성, 도로 및 철도연계, 고객접근성, 공항접근성, 훈련공급여부, 좋은 산업연계관계 정착, 공급자와의 접근성, 지역이미지 등	지역 (영국)
L.K.Cheng et.al (1987, 2000)	시장접근성, 노동비용, 실업·노조 등 노동시장여건, 인프라의 가용성 및 질적수준, 집적경제기반, 지방정부 유치정책 및 인센티브/ 대규모 지역시장(지역소득), 인프라기반시설(도로밀도), 정부지원정책	省 (중국)
Q.Sun et.al (2002)	시장수요 및 시장규모, 인프라수준, 지역산업화수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집적수준, 노동력 수준, 노동비용, 연구개발수준 등	省 (중국)
기타	인프라 구득가능성, 노동여건, 시장접근성, 재정인센티브(Little 1978, Glickman & Wooward 1988, Hill & Munday 1991 등)	지역 (영국)

영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주요 입지결정요인과 관련해 PA Cambridge Economic Consultant(1995)는 입지 및 노동력 구득용이성, 기존업체의 존재여부, 숙련 및 저임금 노동력, 재정인센티브, 기반시설 수준 및 연계, 지역이미지 등을, 그리고 Little(1978), Glickman & Woodward(1988), Hill & Munday(1991) 등은 인프라 구득가능성, 노동여건, 시장접근성, 재정인센티브를 주요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내 지역(省)의 입지결정요인 분석에서 Chung et.al(1987, 2000, 185:211)¹⁷⁾은 시장접근성, 노동비용 및 노동시장여건, 인프라수준, 집적경제기반, 지방정부의 유치정책과 인센티브 등을, 그리고 Sun et.al(2002, 79:113)¹⁸⁾은 시장수요 및 시장규모, 인프라수준, 지역산업화 수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집적도, 노동력의 질 및 노동비용 등이 입지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에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동기, 투자진입방식, 투자비용, 투자국¹⁹⁾, 생산공정단계 및 생산품²⁰⁾ 등 조직특성도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투자전략 및 동기가 생산비절감형 내지 생산거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경우는 노동력과 임금수준, 공장부지 확보 및 가격, 접근성 및 인프라수준 등이 주요한 입지 결정요인인데 비해, 시장개척형 및 판매형의 경우는 국내 관련시장규모와 대도시 근접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첨단기술 지향형의 경우는 대학 및 전문가 확보여부, 관련 첨단기술업체 및 연구기관의 집적도, 혁신지향

17) 중국 29개 省(province)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입지결정요인을 계량분석을 통해 밝혔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집적경제와 같은 강한 자기강화효과를 지니고 있어 특별경제지역(SEZs)내 외국인투자가 성공적이었음을 밝혔다.

18) 중국내 30개 省(province)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1986~1998년 기간동안의 시기 변화에 따른 입지결정요인을 밝히고 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데, 1991년 이전에는 임금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중요치 않음을 밝혔다.

19) Brannerhjen & Svensson(1996)은 스웨덴계 다국적기업의 입지결정요인으로 산업집적도, 수출비중, 연구개발비용 등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

20) Dyer(1996)는 자동차조립공장은 부품공급업체들의 클러스터와 근접할수록 많은 이익을 내는데, 이와같은 지리적 근접성 선호는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노하우의 공유, 의사소통원활 등에 기인한다.

적인 사회제도들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 스코틀랜드의 실리콘 글랜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투자진입방식에 따라 인수합병형(M&A)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신설투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는 달리 기존업체의 입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독자적인 입지결정요인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투자비용이 높을수록 투자대상국내 입지지역의 선정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와 지역화

(1) 지역산업연계 기초이론

① 산업연계의 개념과 이론체계

산업연계(industrial linkages)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과정에서 다양한 업체들과 맺게되는 관계를 일컫는다. 산업연계에 관한 연구는 제조업 공장과 산업간의 재화와 구성요소의 흐름 분석에서 비롯되었다. 이와같은 기업활동의 입지와 지역산업연계는 신고전입지이론, 신산업공간이론을 거쳐 산업지구이론, 혁신환성이론, 클러스터이론, 지역혁신체제론에 이론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표 2-8> 기업활동과 지역산업연계 관련이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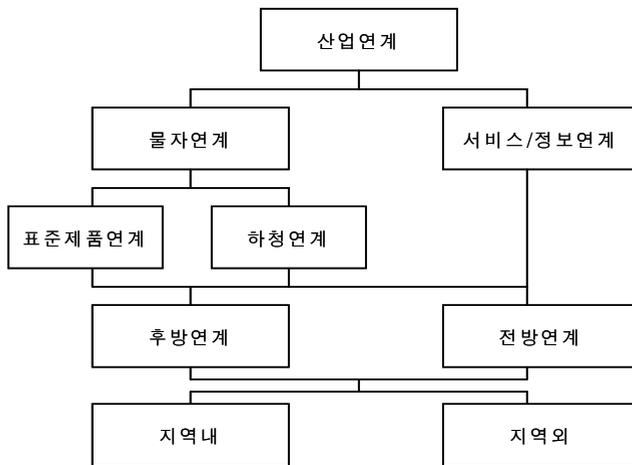
주체	신산업공간론	산업지구론	혁신환성이론	클러스터론	지역혁신체제론
공간 집적원리	산업의 수직적 분리와 공간적 집중 (산업의 논리)	초기뿌리내림 혹은 유연전문화 논의에서 국지화 논의로 전환 (영역의 논리)	지역화,네트워크 크화된 학습과정 (영역적 네트워크관점)	경쟁자, 생산자, 고객 등 국지적 상호작용	공급자와 수요자의 근접성에 기초한 제도적 결합(제도적 관점)
구조/행위자	산업-구조적 논리	사회문화환경에 뿌리내린 지역행위자	환경을 네트워크화된 행위자의 분산조직 간주	다이아몬드 환경에 영향받는 경영전략	중범위수준의 제도경제체제
최근 연구방향	비교역적 상호의존성과 관습에 초점	산업지구의 유형간 차이에 초점	제도적 측면강조	클러스터 내부 혹은 국제적 네트워크	지역 및 부문적 경험연구 강화

자료: Lagendijk, A. 1997. "From New Industrial Spaces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Beyond: How and from whom school industrial geography learn?". Working Paper. Centre for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② 산업연계의 유형과 결정요인

산업연계는 제조과정에서 관련실체(substance)의 본질, 연계흐름의 방향, 흐름의 거리나 지리적 단위 등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관련 실체의 본질에 따라 물자연계 및 서비스/정보연계로 구분되며, 물자연계는 다시 표준제품 연계와 하청연계로, 그리고 서비스연계는 서비스 구입과 기업협력, 정보 및 전략적 제휴 연계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연계흐름의 방향에 따라 후방연계(backward linkages)와 전방연계(forward linkages)로 구분되며, 흐름의 거리나 지리적 단위에 따라 지방 혹은 비 지방연계, 그리고 지방(local), 지역(region), 국가(nation)로 구분된다. 셋째, 연계정도에 따라 강한 전·후방 및 약한 전·후방연계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림 2-3> 산업연계의 유형



산업연계는 조직규모, 성숙도, 업종 및 생산공정, 기업조직구조 및 자율성, 입지지역의 특성 등 조직특성에 의해 다양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조직규모 측면에서는 규모가 큰 업체에 비해 적은 업체일수록 핵심부문 이외에는 외부업체로부터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교적 높은 산업연계 수준을 보인다. 둘째, 조직성숙도 측면에서 연한이 오래될수록 입지지역내 업체들간에 높은 연계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투자연한가설(vintage effect

hypothesis)이라고 한다. 셋째, 생산공정에 따라 단순조립 및 부품재, 최종완제품 여하에 따라 상이한 산업연계 수준을 나타낸다. 넷째, 업종에 따라 지역연계 패턴 및 수준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표 2-9 참조>.

<표 2-9> 제조업 업종별 지역산업연계 수준 비교연구

연구자	지역연계(local linkages) 수준		조사지역 (년도)	측정기준
	낮다	높다		
Keeble (1969)	·음식료 및 담배, 화학물, 목재 및 가구, 의류, 가죽, 섬유, 종이, 인쇄 및 출판, 기타 제조업	·기계 및 전자기기, 금속조립, 자동차	런던북 서부지역 (1963)	전·후방 연계효과 (50%기준)
Karaska (1969)	·섬유, 종이, 화합물, 고무, 가죽, 돌, 진흙, 유리, 금속 등	·고무, 음식, 가구, 인쇄, 전자기기, 석유	필라델피아 (1960)	전방연계 (평균34.5%)
SEJPT (1971)	·담배, 오일, 라디오제품, 의약, 조선	·목재, 가구, 의류, 가죽, 모피, 음식	대런던지역 (1966)	후방연계
SEJPT (1971)	·섬유, 가죽, 의류, 기타 제조업, 자동차	·음식료, 담배, 유리 및 도자기, 종이·인쇄·출판	S.E. 잉글랜드 (1968)	전방연계
	·기계 및 엔지니어링, 자동차	·음식료, 담배, 종이, 인쇄, 출판, 유리 및 도자기		후방연계
Lever (1974)	·유리, 종이제품, 의류	·전자기기, 소도구, 페인트	W.Central 스코틀랜드	전방연계 (평균19.98%)
Dobson (1987)	·화합물, 금속제조업, 기계엔지니어링, 전기전자, 조선, 자동차, 섬유, 가죽, 모피, 의류, 기타제조업	·광업, 음식료, 담배, 기타금속, 유리 및 도자기, 목재, 종이·인쇄·출판, 가구, 건축	Devon & Cornwall (1982)	전방연계 (지역내에서 50%이상 구매업체 37.5%)
	·화합물, 금속제조업, 전자기계, 자동차, 섬유, 가죽, 모피, 의류, 종이, 인쇄, 기타제조업	·광업, 음식료, 담배, 기계전자, 도구, 조선, 기타금속, 가구, 건축		전방연계 (지역내에서 50%이상 판매업체 27.6%)

자료:Y.W.Kim 1991. *Organisation and Industrial Linkages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Study of Less Industrial Region in Korea*.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pp. 48-49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를 밝히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개별기업의 후방연계, 즉 물자조달(sourcing)과 구매수준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경험이 축적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 투자연한, 생산공정 및 제품 등 조직특성의 비교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분석을 위한 많은 실증분석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2-1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물자조달과 구매연계 실증연구 결과

구 분	분 석 내 용	분석지역/대상
O'Farrel & O'Loughlin (1981)	· 투자연한가설(vintage effect hypothesis) -투자연한(기간)과 지역조달수준 관계분석	아일랜드 (제조업)
O'hUallachain (1985)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물자연계의 공간범역 -일리노이주(구매 34%, 판매 25%) -중서부지역(구매 58%, 판매 49.9%) -국가수준(구매 69.2%, 판매 93.0%) · Karaska(필라델피아지역내 37% 물자연계)	미국 (제조업)
Reid (1994)	· 일본계 기업의 조직특성(JIT유통체계)으로 국가수준 보다는 지역(county)수준의 물자조달비중 높음	미국 (일본계 제조업)
Turok (1993)	· 스코틀랜드내 전자업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의 지역내 물자연계수준 및 연계형태 분석: 낮은물자조달 수준(12%), 의존적 연계형태로 지역학습 및 기술이전 제한적 · 국내기업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지역내 물자조달수준이 높음 ※ developmental vs. dependency model	영국 실리콘글랜지역 (전자제조업)
Markusen et.al (1999)	·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내 업체와의 연계효과 -다국적기업의 유형별 경쟁효과,연계효과분석	-
Hiramoto (1992)	·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내 하청업체간 관계분석 -의존적 연계형태(단기적)	아시아, 유럽지역 (일본 TV, VCR업체)
Murray et.al (1995)	· 생산공정 및 제품특성과 지역연계형태 -비표준화된 부품에 대한 의존, 내부조달수준	미국 (일본계, 유럽계 업체)
Dyer (1996)	· 자동차부품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공급업체와의 공간적 근접(집적) 선호경향 분석	-
Belderbos & Sleuwagen (1996)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간 수직연계, 동일업종 집적지역 선호	아시아지역 (일본계 제조업)
N.Hood et.al (1997)	· 독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특성(자회사역할, 의사결정권한)과 지역연계 분석(지역내 물자연계, 판매연계)	영국, 아일랜드 (독일계 제조업)
기 타	· Kelegama & Foley(1999, 스리랑카내 의류FDI업체의 후방연계요인), Brannon et.al(1999, 북멕시코지역 다국적기업의 공장과 지역내 공급업체간 연계) 등	

O'Farrel & O'Loughlin(1981)은 아일랜드내에 입지한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내 투자연한과 지역조달수준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투자연한이 오래될수록 지역내 조달비율이 높다는 투자연한가설(vintage effect hypothesis)을 입증하였다. Reid(1994)는 일본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특성에 따른 지역내 하청연계 및 물자조달수준을 분석하였다. Brannon et.al(1999)과 Kelegama & Foley(1999)는 북멕시코지역과 스리랑카지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공급업체간 연계관계를 분석하였다.

Turok(1993)은 영국 스코틀랜드지역내 전자업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내 물자조달수준을 측정하였다. 이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지역내 업체들로부터 낮은 물자조달수준을 지니며, 지역연계 형태에 있어서 의존적인 연계유형으로 지역학습 및 기술이전에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과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특성에 따른 지역산업연계 행태 및 수준에 있어 다양한 연구결과를 나타낸다.

Turok은 실증분석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연계행태의 가설적인 유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업체간의 관계유형에 따라 발전모형과 의존모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지역연계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발전모형(developmental model)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내 업체간에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는 등 협력적·기술적인 형태로서, 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공급자와 긴밀하고 장기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화 수준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지역기업에 기술과 전문성을 이전하고, 고도숙련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의 고용을 창출하며, 지역경제에 대해 투자확대 등 신산업집적에 기반한 성장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 의존모형(dependency model)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비용최소화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므로 지역기업과의 하청관계 등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내 기업간에 불평등 교역관계를 주로 형성한다. 이에따라 단기계약 위주로 지역기업과 약한 유연성 정도를 지니며, 수직적인 통제에 의해 지역화 수준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지역내에 입지함에 따라 지역내에 저숙련의 고용을 창출하게 되며, 지역성장은 지역외부에 있는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1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가설적 지역연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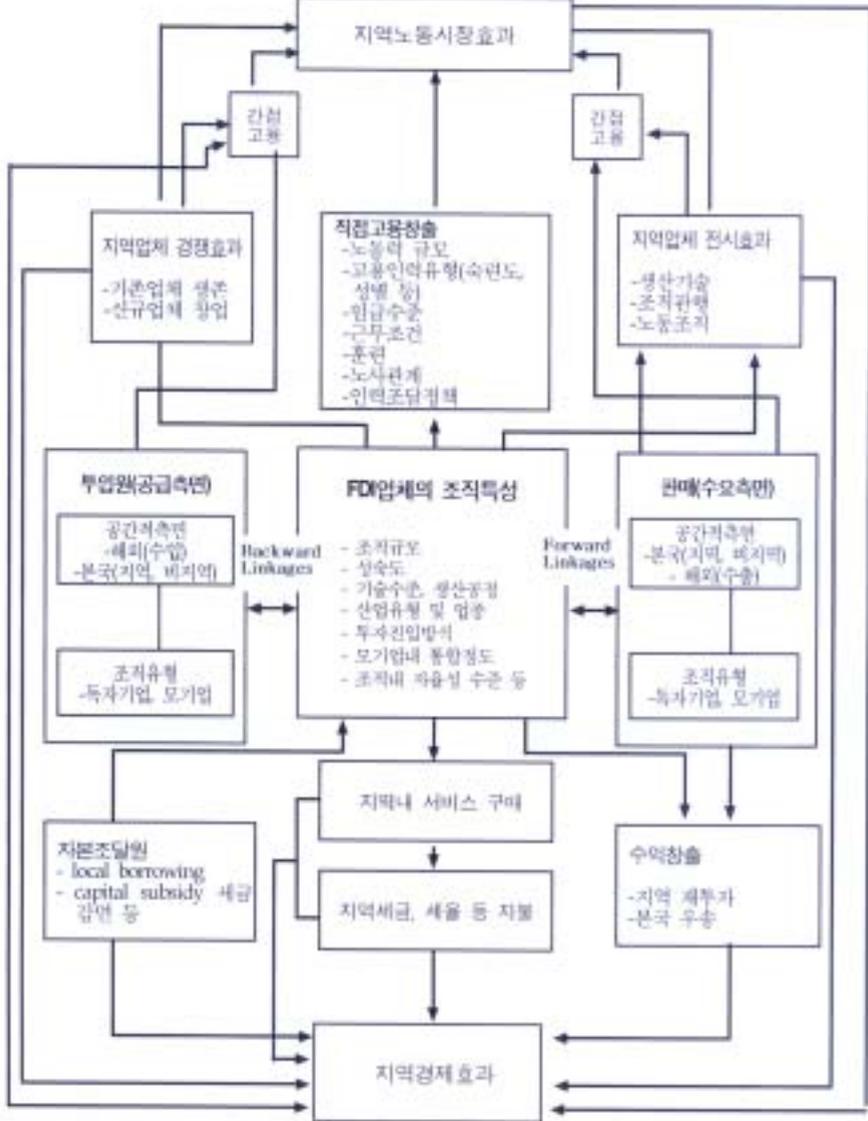
구 분	발전적 모형 (developmental model)	의존적 모형 (dependency model)
지역연계유형	· 협력적, 기술적, 신뢰 -기술과 지식공유· 협력형태	· 불평등 교역관계 · 지역기업에 하청 · 비용최소화 강조
연계의 지속도	· 장기적인 파트너쉽	· 단기계약
유연성 정도	· 제품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공급자와 긴밀한 관계유지	· 지역기업과 약한 관계
지역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연대감	· 지역화수준 높음(embedded) · 관리기능 고도분산: 기업운영에 대한 지역통제 용이	· 지역화수준 낮음 · 수직적 통제: 분공장(branch plant)이 조직내로부터 통제
지역기업에 대한 혜택	· 지역기업에 기술, 전문성 이전 · 지역기업이 제품개발 관여	· 지역기업이 낮은기술수준의 제 품을 만들기 위해 계약
창출고용인력 수준(질)	· 고도숙련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의 고용창출	· 저숙련 고용창출
지역경제 성장전망	· 자족적 성장전망(self-sustained growth): 신산업집적에 기반한 확장에 의한 성장가능 기대	· 지역성장은 지역외부의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결정에 의존

자료: Turok, 1993. Inward investment and local linkages: How deeply embedded is Silicon Glen?. *Regional Studies*, vol.27. pp.401~417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화 경로 및 효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입지는 지역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생산·판매 활동과정에서의 직·간접 산업연관효과,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입지한 지역사회 및 기관들과의 접촉과 협력을 통한 원활한 정보교류와 기술이전·기술 혁신, 교육훈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경제에 통합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2-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화 및 지역파급효과 경로



자료: Dicken, Peter. *op.cit.* p. 413 참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화 수준²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업체의 조직특성, 입지지역 특성, 기간 등을 들 수 있다. King et.al(2001)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에 따라 지역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²²⁾ 이에 의하면 헝가리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나, 자본투자 및 노동생산성 제고효과는 대규모 민영화기업과 신설투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효과는 소규모 합작투자기업이 보다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나 지역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업체를 선별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2-1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규모 및 투자진입방식 유형별 경제성장효과

유형	자본투자 (Investment Capital)	노동생산성 (Labor Productivity)	국내 수요증대 (Domestic Demand)	기업 경쟁효과 (Competition)
소규모 합작투자기업	+	+	+	++
대규모 민영화기업	++	++	+	-
신설투자(greenfield)	++	++	- / +	+
대규모 합작투자기업	+ / -	-	-	- / +

주: ++ 매우 높은 경제성장효과 + 높은 경제성장효과 - 경제성장효과가 낮거나 없음

자료: King et.al. 2001. "Beyond Manichean Economic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owth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35. issue 1. pp.1~21.

Thompson(2002, 1:17)은 중국내 홍콩 의류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집적지구내에 입지한 업체(clustered FDI)와 그렇지않은 업체(dispersed

21) 제조업체의 산업군집 단계별 구성요소로는 국지화 혹은 현지화 단계, 네트워크 단계, 착근 및 제도적 집약단계, 집단학습단계, 그리고 혁신시너지 단계 등이다. 그리고 이들 단계별 진전 여하에 따라 업체의 지역화 수준을 판별할 수 있다(김동주, 권영섭외, 2001).

22) 헝가리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경제성장간 관계분석에서 King et.al(2001)은 기업유형을 기업규모와 투자진입방식에 따라 small joint-venture, large privatized, greenfields, large joint-venture 등 4가지로 유형화하여 자본투자효과, 노동생산성 제고효과, 국내수요증대효과, 국내기업 경쟁효과를 제시하였다.

FDI)간 산업연계 및 기술이전 등 지역네트워크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재지역별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술보유수준에는 차이가 없으나 산업집적지구내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공급업체와 높은 연계관계를 유지하며 기술이전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집적지구내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수평적 확산효과에 있어서도 직원이직 등을 통한 기술확산이 활발하고, 지역업체간의 교류도 산업집적지구내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28%)이 그렇지않은 지역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16%)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의 중관촌(中關村) 혁신클러스터 지역의 경우는 다국적기업 등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기술이전 및 신경영기법의 매개자로서 지역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입지 초기단계에는 단순투자였던 것이 점차 연구개발을 병행함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유형에 있어서 변화가 이루어짐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 연구결과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정책과 지역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과의 병행 추진이 지역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책적인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Markusen et.al(1999, 335:356)은 다국적 기업들과 투자국내 지역업체간 관계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입지가 지역업체들에게 경쟁제고 및 산업연계 촉진효과를 가지며, 이에따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가 투자지역의 산업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²³⁾

3)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는 1962년 최초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유치된 이래 외자도입에 관

23) Rene Beldebos et.al(2001)의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후방연계효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인수합병형 및 합작투자형에 비해 신규투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인프라수준, 투자국의 부품공급업 규모, 본사와 지사간 관계 등 후방연계효과 결정요인에 있어서 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타났다. 이밖에 국가별 선호, 시장전략, 투자동기, 모기업의 연구개발수준, 투자연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 보다는 차관위주의 외자도입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전환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효과와 투자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히기 위한 실증연구가 중점적으로 수행되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4, 1995, 1996)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기술이전효과분석 등 외국인직접투자의 거시경제적 효과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²⁴⁾ 그리고 산업연구원(2001)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발생 경로와 거시적 국민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²⁵⁾

최근들어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국내의 연구주제와 동향에 있어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분포와 입지결정요인, 기술이전효과 및 지역연계 등 개별업체에 초점을 둔 미시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한 연구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촉진 및 제도방안에 대한 연구, 그리고 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등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건설교통부(2000)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분포와 투자동기, 입지결정요인 분석을 산업입지공급과 연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창석(2000)은 수출자유지역과 일반지역내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술이전효과 및 확산경로를 비교하고, 이병민(2001)은 서울시내 사업지원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의 기업네트워크 유형에 따른 지역화 형태에 관해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
- 24) 왕윤중(1994)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개별업체 설문조사를 통해 업체 유형별로 기술확산경로를 분석 제시하였다. 김준동(1995)은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예상되는 개방효과를 부문별로 분석하여 제시하며, 김준동(1996)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총괄적 통계자료분석과 함께 개별기업 사례조사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효과가 업종에 따라 상이할 뿐만아니라 인적자본 축적정도에 따라 상이함을 밝혔다.
- 25)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안정적인 외환확보효과, 생산 및 고용증대효과,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 개선효과, 기술력 확충효과, 산업구조조정 촉진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제시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 1%증가시 국내총생산액의 0.06%, 총요소생산성의 0.021%, 고용의 0.019%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표 2-13>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과 방법론 검토

분야	연구자	연구주제 및 내용	분석방법론	공간수준
외국인 직접 투자 요인	재무부 (1993)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국내투자 동기) ·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효과, 정책방향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설문조사	-공간단위(지역 구분)에 대한 고려없음
	구근희 (1988)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미국, 유럽 계, 일본계 등 투자국별 투자규모, 경제성장, 무역수지 등 경제효과분석)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계량분석기법 (회귀분석)	"
외국인 직접 투자 거시 효과	산업 연구원 (2001)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발생 경로와 거시경제효과분석	-외국인직접투자 기업 업체조사 및 계량경제분석	"
	김준동 (1996)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제도 개선방안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제성장효과, 산업업종별(대분류수준:제조업, 비제조업) 고용효과 및 기술이전효과 분석	-통계자료분석 -기업체조사	-업종비교분석(대분류)
	왕윤중 (1994)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 분석 · 모기업~자회사~경쟁회사 기술확산경로분석(투자동기별:생산거점형, 시장접근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사례 및 설문조사(전자산업)	-특정업종(전자산업) 분석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 입지 형태 및 지역 연계 (효과)	이병민 (200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네트워크와 지역화 · 투자동기, 조직자율성 수준과 지역화	-설문 및 면담조사(사업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공간분석단위 · 서울시 (구 단위)
	건설교통부 (200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분포 및 투자동기, 입지결정요인, 산업입지공급 정책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특성 및 결정요인, 신규투자시 입지요인 등 산업입지공급 정책방안 도출	-업체면담 및 설문조사 -제조업, 생산자서비스, 일부유통업 포함	-공간분석단위: · 시·도수준 · 수출자유지역
	이채은 (200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과 지역연계 · 투자동기, 지역연계(전후방연계)등	-설문조사(생산공장보유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공간분석단위 · 울산시
	공창석 (200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술이전효과 · 기술도입단계 비교(도입기술, 기술의 수명주기, 도입목적 및 성과, 이전방식, 도입건수, 기술격차 등) · 기술확산과정 및 경로분석	-설문조사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공간분석범위 ·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동남경제권 일반지역간 비교
	류인택 (2000)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유치의 안정적 제도화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성공 및 실패사례 요인분석	-자료/면담조사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사례조사)	-

또한 학술적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분포, 입지결정요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평가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은행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산업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외국인투자 관련기관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확대와 제도개선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투자 동기, 투자결정요인, 기업경영 실적 및 애로사항 등에 관한 설문조사와 연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효과 및 투자결정요인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거시적 관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에 따른 성장효과 측정에 중점을 두어 공간적 수준이나 업종별 구분에 대한 고려없이 총량적인 차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업종별·지역별 구분에 의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지역경제간 상호관계와 직·간접적인 파급효과에 관해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²⁶⁾

3. 본 연구의 분석틀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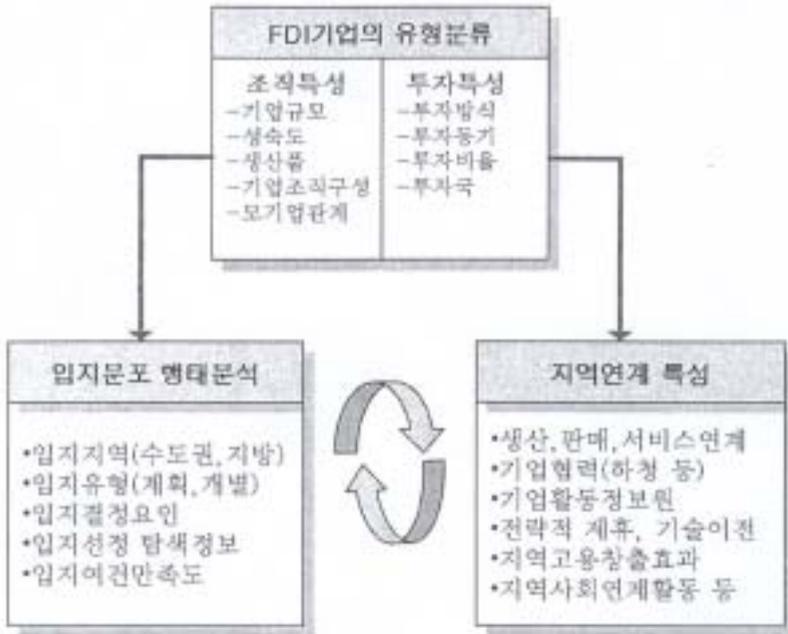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특성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분포와 지역연계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들과 연구방법, 연구내용에 있어서 몇가지 차별성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투자특성에 따른

26)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가 및 지역경제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 위주의 분석결과가 대부분이나,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유치의 부정적인 지역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Morris(1987, 205:224)는 영국 웨일즈지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를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연구개발 및 본사기능은 대도시나 중심도시 입지를 선호하는데 비해, 낙후지역내(이전의 공업지역이나 농촌지역)의 분공장(branch plant)유치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몇몇 해외선행연구들은 지역효과를 지역경제효과에 한정하지 않고 환경적인 효과를 포함하여 분석하고 있다.

유형별 입지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특히 권역별, 대도시별, 시·군·구별로 공간단위를 세분화하여 ArcView 작업절차를 거쳐 도면화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다양한 속성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규모, 성숙도, 생산품, 기업조직구성 등 조직특성과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및 전략, 투자비율, 투자국 등 투자특성을 토대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들 유형별로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행태를 미시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림 2-5>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분석틀



CHAPTER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와 입지분포 분석

1. 분석 개요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실태와 입지분포 특성을 밝히기 위해 첫째, 분석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국내투자신고 자료인 「외국인투자기업현황(산업자원부, 2001)」 중에서 투자등록을 완료한 업체 전체인 8,335개소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분석단위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자료를 토대로 통계분석 및 ArcView GIS 분석시 기초단위로 하였다. 그리고 분석목적에 따라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기업조직구성(본사, 공장), 업종별로 구분하고, 27) 공간단위는 권역별, 대도시별, 시·군·구별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3-1> 분석대상 업체수

(단위 :개소)

구 분	계	업종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분석대상 업체수	8,335	41	2,621	5,673

27) 농림수산업 부문은 전체적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분석에는 포함하였으나, 산업별 실태분석에서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 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와 변화추이

전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1980년대 중반이후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을 필두로 한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어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1990년 2,038억 달러에서 2000년 12,708억 달러로 10년간 약 6.2배가 증대했다. 이는 경제의 세계화와 개방화를 맞이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 수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²⁸⁾

<표 3-2> 전세계 외국인직접투자(inward-FDI)의 규모와 성장추이
(단위: 억달러, %)

구 분	선진국	개발도상국	중·동유럽	총 계
1983~87년	587 (76.1)	183 (23.7)	0.2 (0.2)	771 (100.0)
1988~92년	1,391 (78.5)	368 (20.8)	13.6 (0.7)	1,773 (100.0)
1990년	1,698 (83.3)	337 (16.5)	3.0 (0.2)	2,038 (100.0)
1991년	1,147 (72.2)	417 (26.3)	24.4 (1.5)	1,589 (100.0)
1992년	1,197 (68.9)	496 (28.5)	44.4 (2.6)	1,738 (100.0)
1993년	1,388 (63.6)	730 (33.5)	62.9 (2.9)	2,181 (100.0)
1994년	1,451 (56.7)	1,049 (41.0)	59.3 (2.3)	2,560 (100.0)
1995년	2,035 (61.5)	1,133 (34.2)	142.6 (4.3)	3,311 (100.0)
1996년	2,197 (57.1)	1,525 (39.6)	127.3 (3.3)	3,849 (100.0)
1997년	2,714 (56.8)	1,874 (39.2)	191.9 (4.0)	4,779 (100.0)
1998년	4,832 (69.8)	1,884 (27.2)	210.0 (3.0)	6,925 (100.0)
1999년	8,298 (77.2)	2,220 (20.7)	232.2 (2.1)	10,750 (100.0)
2000년	10,052 (79.1)	2,402 (18.9)	254.2 (2.0)	12,708 (100.0)
2001년	5,031 (68.4)	2,048 (27.9)	272.0 (3.7)	7,351 (100.0)

자료: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Annex*. 2002.

28) UNCTAD(2002)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전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2000년 대비 약 50%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총 8,335개소로 국내 총사업체수 (107,268개소)의 7.8%를 차지한다. 총 투자액은 417억달러로 국내총생산액(GDP)의 9.7%를 차지한다.²⁹⁾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실태 변화추이는 업체수 기준으로 1962~97년間に 3,047개소가 투자한데 비해, 1998~2001년간 불과 3년간 5,288개소가 투자하여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63.4%를 차지한다. 투자액 기준으로는 각각 160억 달러와 257억 달러로 1998년 이후에 투자한 업체가 전체의 61.7%를 차지하여 외환위기 이후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³⁰⁾

<표 3-3>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 현황과 변화추이

(단위: 개소, 억달러, %)

구 분	~1979년	1980~89년	1990~97년	1998~2001년	계
업체수	250 (3.0)	724 (8.7)	2,073 (24.9)	5,288 (63.4)	8,335 (100.0)
투자액	29 (7.0)	36 (8.6)	95 (22.7)	257 (61.7)	417 (100.0)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현황」 2001.

주: 2001년 6월말 기준의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업체(11,515개소) 가운데 등록을 완료한 업체(8,335개소)만을 발췌하여 분석(이후의 분석자료도 동일함)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와 조직구성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투자실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는 업체당 평균 5,004천 달러이며, 제조업

29)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8%, 1990년 2.3%, 1997년 3.4%에서 2001년 현재는 9.7%에 이르고 있다. 1997년 기준으로 FDI투자/GDP 비중은 세계평균 17.3%이며, 벨기에·룩셈부르크 35.8%, 아일랜드 21.7%, 네덜란드 14.7% 등이다(산업발전전략기획단 2002, 169)

30) 1990년대 중반이후 투자자유화 압력이 크게 확대되고 투자절차가 간소화된데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12월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1997년 2월부터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외국인직접투자자로 간주하는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하는 동시에 총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M&A를 허용하였으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전면 허용되고 토지취득에 대한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다(김진용·이정진 2000, 2).

은 8,835천 달러, 서비스업은 3,217천 달러로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비해 투자규모가 약 2.7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체가 서비스업에 비해 공장설립이나 설비투자에 보다 많은 초기투자가 소요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투자액이 수도권 외국인직접투자기업보다 약 1.3배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지방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수도권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비해 2.1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당 평균투자비율은 76.0%이며, 제조업은 59.0%, 서비스업은 84.0%이다. 서비스업은 투자규모는 적으나 투자비율이 제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경우는 생산 및 판매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와 위험부담 등으로 비교적 점진적인 투자진입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³¹⁾ 산업별 평균투자비율은 수도권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지방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비해 제조업은 약 1.03배, 서비스업은 1.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당 평균투자연한은 약 4년 9개월이며,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평균 8년 3개월,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3년 1개월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체의 평균투자연한이 평균 3년여에 불과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업종이 확대되면서 서비스부문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투자연한이 높은 것은 익산, 마산 등 수출자유지역 지정 등 정부시책의 추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수도권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비해 평균투자연한이 제조업은 약 1.2배, 서비스업은 1.1배가 오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투자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대부분 수도권내 집중 분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31) 본 조사과정에서 수행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사례조사에 의하면 투자초기에는 국내영업에서 시작하여 점차 생산활동으로 확대투자하든가, 신생투자업체의 경우는 국내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합작, 인수합병 등의 투자형태를 취하여 초기투자에 따른 위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 투자규모 현황

구 분	전 체	제조업	서비스업
업 체 수(개소)	8,335	2,621	5,673
수 도 권	7,074(84.9%)	1,537(58.6%)	5,218(91.4%)
지 방	1,261(15.1%)	1,084(41.4%)	455(8.6%)
평균투자액(천 달러)	5,004	8,835	3,217
수 도 권	4,010	7,650	2964
지 방	10,718	9,981	6257
평균투자비율(%)	76.0	59.0	84.0
수 도 권	77.6	59.1	84.2
지 방	65.7	57.3	80.3
평 균 년 한(년)	4년 9개월	8년 3개월	3년 1개월
수 도 권	4년 4개월	7년 10개월	3년 1개월
지 방	7년 2개월	9년 3개월	3년 4개월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와 구조변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는 서비스업 5,673개소(68.1%), 제조업 2,621개소(31.4%), 농림수산업 41개소(0.5%) 순이다.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79.6%에서 1990~97년 35.9%, 1998~2001년 20.4%로 급격하게 비중감소가 이루어지는데 비해, 서비스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동안 각각 19.5%, 63.8%, 79.2%로 현저하게 증대하는 경향을 띤다. 이와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 및 구조가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함은 산업 전반의 서비스경제화(tertiarization)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²⁾

32)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분포비중은 서비스업 52.6%, 제조업 31.5%, 건설업 8.2%, 농림어업 4.6%의 순이다.

<표 3-5>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산업별 분포현황과 연도별 변화

(단위: 개소, 천달러, %)

구 분	~1979년		1980~1989년		1990~1997년		1998~2001년		계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농림·어업·광업	7	38428	7	10940	6	65066	21	181785	41	296219	
제조업	소계	220 (100.0)	1471800 (100.0)	576 (100.0)	2984796 (100.0)	745 (100.0)	4740907 (100.0)	1080 (100.0)	13958054 (100.0)	2621 (100.0)	37907127 (100.0)
	기초소재형	66 (30.0)	387984 (26.4)	147 (25.5)	753306 (25.2)	190 (25.5)	1925958 (40.6)	225 (20.8)	5336739 (38.2)	628 (24.0)	23155557 (61.1)
	조립가공형	120 (54.5)	942065 (64.0)	305 (53.0)	1855098 (62.2)	430 (57.7)	1671041 (35.2)	675 (62.5)	7227139 (51.8)	1530 (58.4)	11695343 (30.8)
	생활관련형	34 (15.5)	141751 (9.6)	124 (21.5)	376392 (12.6)	125 (16.8)	1143908 (24.1)	180 (16.7)	1394176 (10.0)	463 (17.6)	3056227 (8.1)
서비스업	소계	23 (100.0)	1415157 (100.0)	141 (100.0)	589308 (100.0)	1322 (100.0)	4639980 (100.0)	4187 (100.0)	11604700 (100.0)	5673 (100.0)	18249145 (100.0)
	생산자서비스	14 (60.9)	674929 (47.7)	41 (29.1)	131723 (22.4)	356 (26.9)	1429371 (30.8)	933 (22.3)	7107487 (61.2)	1,344 (23.7)	9343510 (51.2)
	사업서비스	2 <14.3>	3016 <0.4>	27 <65.9>	30165 <22.9>	216 <60.7>	312004 <21.8>	575 <61.6>	1038763 <14.6>	820 <61.0>	1383948 <14.8>
	소비자서비스	9 (39.1)	740228 (52.3)	80 (56.7)	376591 (63.9)	876 (66.3)	2988833 (64.4)	3022 (72.2)	3286078 (28.3)	3987 (70.3)	7391730 (40.5)
	기타서비스	-	-	20 (14.2)	80994 (13.7)	90 (6.8)	221776 (4.8)	232 (5.5)	1211135 (10.5)	342 (6.0)	1513905 (8.3)
전 산업	250	2925385	724	3585044	2073	9445953	5288	25744539	8335	41700921	

주1: 제조업 기초소재형은 KSIC 20-21, 23-27, 조립가공형은 KSIC 28-35, 생활관련형은 KSIC 15-19, 22, 36, 37
 주2: 서비스업의 생산자서비스업에는 KSIC 65-67, 70-75, 소비자서비스업에는 KSIC 51, 52, 55 포함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내 세부업종별 분포를 생산품 성격에 따라 구분하면, 기초소재형 24.0%, 조립가공형 58.4%, 생활관련형 17.6%의 순이다. 그리고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소비자서비스 70.3%, 금융·보험·컨설팅·부동산 등 생산자서비스 23.7%, 그리고 기타서비스 6.0%의 순으로 국내시장개척 및 판매동기에 의한 투자업체의 증대로 소비자서비스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비율 분포실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투자비율이 50%미만 업체수는 2,000개소(24.0%), 50~99%의 업체수는 1,919개소(23.0%), 그리고 100% 투자업체수는 4,413개소

(53.0%)로 나타났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원칙적으로 투자비율 10%이상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10%미만이라도 경영참여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인정되는 업체수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3.1%인 259개소이다.

<표 3-6>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비율 현황과 연도별 추이

(단위: 개소, 천달러, %)

구 분	~1979년		1980~89년		1990~97년		1998~2001년		계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10% 미만	36 (14.4)	257642 (8.8)	24 (3.3)	148134 (4.1)	55 (2.7)	631414 (6.7)	144 (2.7)	263636 (1.0)	259 (3.1)	1300826 (3.1)
10~50%미만	110 (44.0)	817864 (28.0)	323 (44.6)	609692 (17.0)	502 (24.2)	1220120 (12.9)	806 (15.3)	5938884 (23.1)	1,741 (20.9)	8586560 (20.6)
50~75%미만	39 (15.6)	454390 (15.5)	121 (16.7)	835209 (23.3)	376 (18.1)	812616 (8.6)	581 (11.0)	6059199 (23.5)	1,117 (13.4)	8161414 (19.6)
75~100%미만	16 (6.4)	147457 (5.0)	76 (10.5)	386384 (10.8)	154 (7.4)	732510 (7.8)	556 (10.5)	2701830 (10.5)	802 (9.6)	3968181 (9.5)
100%	49 (19.6)	1248032 (42.7)	180 (24.9)	1605625 (44.8)	986 (47.6)	6049293 (64.0)	3198 (60.5)	10632489 (41.3)	4,413 (53.0)	19535439 (46.9)
차관	-	-	-	-	-	-	3 (0.1)	148,501 (0.6)	3 (0.1)	148,501 (0.6)
계	250 (100.0)	2925385 (100.0)	724 (100.0)	3585044 (100.0)	2073 (100.0)	9445953 (100.0)	5288 (100.0)	25744539 (100.0)	8335 (100.0)	41700921 (100.0)

투자비율 변화추이를 보면, 투자비율이 50%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비중이 1970년대까지 전체의 4.16%였다가 1980년대는 52.1%, 1990~97년은 73.1%, 1998~2001년 82.0%로 투자비율이 높은 업체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100% 단독투자업체는 1970년대 1.1%, 1980년대 4.1%, 1990~97년 22.3%였다가 1998~2001년 72.5%로 외환위기 이후 단독투자업체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업의 투자증대와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³³⁾

33) 투자비율 100%의 단독투자업체의 업종별 비율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1970년대 5.7%, 1980년대 17.7%, 1990~97년 28.0%, 1998~2001년 48.5% 로, 서비스업은 각각 0.1%, 1.5%, 21.3%, 77.1%로 나타났다.

(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국 분포실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국별 분포는 중국·대만 등 아시아계 2,966개소 (35.6%), 일본계 2,091개소(25.1%), 미주계 1,912개소(22.9%), 유럽계 1,109개소 (13.3%),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액 기준으로 보면, 유럽계(41.6%), 미주계(27.4%), 일본계(17.0%), 아시아계(13.7%), 기타(0.3%)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유럽, 미주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적은 편이다.³⁴⁾

<표 3-7>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국 현황과 변화

(단위: 개소, 천달러, %)

구 분	~1979년		1980~89년		1990~97년		1998~2001		계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미주계	25 (10.0)	398368 (13.6)	182 (25.1)	1613349 (45.0)	606 (29.2)	1962576 (20.8)	1099 (20.8)	7432711 (28.9)	1,912 (22.9)	11407004 (27.4)
유럽계	16 (6.4)	324568 (11.1)	97 (13.4)	954610 (26.6)	428 (20.7)	5064964 (53.6)	568 (10.7)	10990038 (42.7)	1,109 (13.3)	17334180 (41.6)
일본계	200 (80.0)	1707800 (58.4)	406 (56.1)	868115 (24.2)	664 (32.0)	1243300 (13.2)	821 (15.5)	3285631 (12.8)	2,091 (25.1)	7104846 (17.0)
아시아계	7 (2.8)	476865 (16.3)	28 (3.9)	146733 (4.1)	329 (15.9)	1163373 (12.3)	2602 (49.2)	3924875 (15.2)	2,966 (35.6)	5711846 (13.7)
기 타	2 (-)	17784 (0.6)	11 (1.5)	2237 (0.6)	46 (2.2)	11740 (0.1)	198 (3.7)	111284 (0.4)	257 (3.1)	143045 (0.3)
계	250 (100.0)	2925385 (100.0)	724 (100.0)	3585044 (100.0)	2073 (100.0)	9445953 (100.0)	5288 (100.0)	25744539 (100.0)	8335 (100.0)	417009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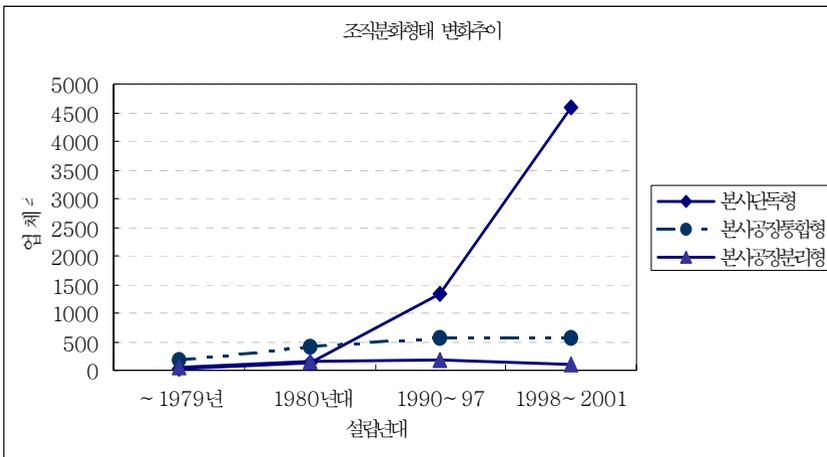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국별 분포변화 추이를 보면, 업체수 측면에서 1980년 대까지는 일본에 의한 투자비중이 높았으나 1998년 이후는 중국,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비중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국 분포는 업종별로 차이를 보인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일본(46.2%), 미주(26.3%), 유럽(17.2%), 아시아(10.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아시아(47.4%), 미주(21.4%), 유럽(15.9%), 일본(15.3%) 등으로 나타났다.

(5)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구성형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구성형태는 본사와 공장의 지리적 분포여하에 따라 본사단독형, 본사·공장통합형, 본사·공장분리형, 공장단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의 분포현황을 보면, 본사단독형 6,069개소(72.8%), 본사·공장통합형 1,726개소(20.7%), 본사·공장분리형 493개소(5.9%), 공장단독형 47개소(0.6%)의 순으로 본사단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조직구성 유형별 변화추이를 보면, 본사단독형이 1980년대 19.3%에서 1990~97년 63.8%, 1998~2001년 86.6%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증대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본사·공장통합형의 비중은 동 기간동안 58.0%, 27.5%, 10.7%로 점차 감소하였으며, 본사·공장분리형은 21.5%, 8.4%, 2.0%로 점차 감소하였다.



<그림 3-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분화형태 추이

업종별로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구성형태는 본사·공장통합형 62.5%, 본사단독형 19.8%, 본사·공장분리형 17.2%의 순인데 비해 서비스업 외

국인직접투자기업은 본사단독형 97.3%, 본사·공장통합형 1.4%, 본사·공장분리형 0.7%의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3-8>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조직구성 현황과 변화

(단위: 개소, 천달러, %)

구 분	~1979년		1980~1989년		1990~1997년		1998~2001년		계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본사 단독형	26 (10.4)	1419266 (48.5)	140 (19.4)	569308 (15.9)	1323 (63.8)	5298216 (56.1)	4580 (86.6)	11105035 (43.2)	6069 (72.8)	18391825 (44.1)
본사·공장 통합형	169 (67.6)	730383 (25.0)	420 (58.0)	1906834 (53.1)	571 (27.5)	2623412 (27.8)	566 (10.7)	9945390 (38.6)	1726 (20.7)	15206019 (36.5)
본사·공장 분리형	55 (22.0)	775736 (26.5)	156 (21.5)	1106678 (30.9)	175 (8.4)	1521010 (16.1)	107 (2.0)	4644111 (18.0)	493 (5.9)	8047535 (19.3)
공장 단독형	-	-	8 (1.1)	2224 (0.1)	4 (0.3)	3315 (-)	35 (0.7)	50003 (0.2)	47 (0.6)	55542 (0.1)
계	250 (100.0)	2925385 (100.0)	724 (100.0)	3585044 (100.0)	2073 (100.0)	9445953 (100.0)	5288 (100.0)	25744539 (100.0)	8335 (100.0)	41700921 (100.0)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실태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별 입지분포 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권역별 분포실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권역별 분포 분석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도권 집중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심화 현상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권역별 분포를 보면, 업체수 측면에서는 수도권 87.8%, 동남권 5.8%, 중부권 3.8%, 서남권 2.0%, 기타의 순이며, 투자액 측면에서는 수도권 69.6%, 동남권 10.8%, 중부권 11.9%, 서남권 6.6%, 기타 1.1% 등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비중을 국내 기업과 비교해 보면, 전체 기업체의 수도권 비중은 44.8%인데 비해,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87.8%가 수도권에

분포하여 높은 수도권 집중양상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업이 약 58.6%로 국내 제조업체의 수도권 분포비중 50.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으며,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약 92.0%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국내 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분포비중

(단위: %)

구 분	일반 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계	제조업	서비스업	계	제조업	서비스업
수도권 분포비중 (업체수 기준)	44.8	50.7	44.3	87.8	58.6	92.0

자료: 통계청, 2001.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 변화추이를 보면, 수도권과 여타 지방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산업 업체수를 기준으로 수도권 집중을 보면 지방소재업체를 1.0개소로 할 때, 1970년대 1.67개소, 1980년대 2.26개소, 1990~97년 5.19개소, 1998~2001년 7.12개소로 수도권 집중 및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 및 심화현상은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1980년대 2.17배, 1990~97년 6.13배, 1998~2001년 4.0배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투자개방과 서울 및 수도권 등 대규모 소비시장에 입지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도 (지방=1.0)

구 분	1962~1979년	1980~1989년	1990~1997년	1998~2001년	계
전 산업	1.67	2.26	5.19	7.12	5.41
제조업	1.50	2.10	2.15	2.89	2.32
서비스업	10.5	4.56	13.19	11.52	11.47

주: 업체수 기준

<표 3-1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권역별·산업별 분포실태와 추이

(단위: 개소, 천달러, %)

구 분		~1979년		1980~1989년		1990~1997년		1998~2001년		계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전 산 업	수도권	157 (62.8)	2488176 (85.6)	502 (70.1)	2641729 (75.6)	1738 (84.0)	5742124 (61.8)	4637 (88.3)	17332655 (69.8)	7034 (84.9)	28204684 (69.6)
	중부권	3 (1.2)	2806 (0.1)	47 (6.6)	265551 (7.6)	103 (5.0)	2142556 (23.0)	156 (3.0)	2425299 (9.7)	309 (3.7)	4836212 (11.9)
	동남권	83 (33.2)	407541 (14.0)	132 (18.4)	457096 (13.1)	189 (9.1)	1091275 (11.7)	333 (6.3)	2408010 (9.7)	737 (8.9)	4363922 (10.8)
	서남권	7 (2.8)	7666 (0.3)	26 (3.6)	80242 (2.3)	29 (1.4)	237928 (2.6)	95 (1.8)	2349883 (9.5)	157 (1.9)	2675719 (6.6)
	기타	-	-	9 (1.3)	51191 (1.4)	10 (0.5)	81443 (0.9)	32 (0.6)	316905 (1.3)	51 (0.6)	449539 (1.1)
	전국계	250 (100.0)	2906189 (100.0)	716 (100.0)	3495809 (100.0)	1981 (100.0)	9295326 (100.0)	5117 (100.0)	24832752 (100.0)	8288 (100.0)	40530076 (100.0)
제 조 업	수도권	132 (60.0)	1037489 (70.5)	386 (67.7)	2210970 (74.1)	507 (68.2)	2627655 (55.5)	800 (74.3)	6682930 (47.9)	1825 (69.9)	12559044 (51.8)
	중부권	3 (1.4)	2806 (0.2)	43 (7.5)	253373 (8.5)	87 (11.7)	812125 (17.1)	87 (8.1)	2174489 (15.6)	220 (8.4)	4561188 (18.8)
	동남권	80 (36.4)	425157 (28.9)	113 (19.8)	440651 (14.8)	121 (16.3)	1108751 (23.4)	134 (12.4)	2586629 (18.5)	448 (17.2)	4561188 (18.8)
	서남권	5 (2.2)	6348 (0.4)	25 (4.5)	76950 (1.5)	21 (2.7)	186105 (3.9)	47 (4.4)	2285682 (16.4)	98 (3.8)	2555085 (10.5)
	기타	-	-	3 (0.5)	1683 (0.1)	7 (0.1)	3614 (0.1)	9 (0.8)	228088 (1.6)	19 (0.7)	23385 (0.1)
	전국계	220 (100.0)	147180 (100.0)	570 (100.0)	2983627 (100.0)	743 (100.0)	4738250 (100.0)	1,077 (100.0)	13957818 (100.0)	2,610 (100.0)	24,259,890 (100.0)
서 비 스 업	수도권	21 (91.3)	1413777 (99.9)	114 (82.0)	430293 (73.1)	1227 (93.0)	3050287 (65.7)	3823 (92.0)	10475297 (90.7)	5185 (92.0)	15369654 (84.5)
	중부권	-	-	3 (2.2)	11994 (2.0)	16 (1.2)	1330431 (28.7)	68 (1.7)	248541 (2.2)	87 (1.5)	1590966 (8.7)
	동남권	2 (8.7)	1380 (0.1)	16 (11.5)	93713 (15.9)	67 (5.1)	129009 (2.8)	196 (4.7)	682784 (5.8)	281 (5.0)	906886 (5.0)
	서남권	-	-	1 (0.7)	3292 (0.7)	7 (0.5)	51766 (1.1)	46 (1.1)	59576 (0.5)	54 (1.0)	114634 (0.6)
	기타	-	-	5 (3.6)	48961 (8.3)	3 (0.2)	77829 (1.7)	22 (0.5)	88735 (0.8)	30 (0.5)	215525 (1.2)
	전국계	23 (100.0)	1,415,157 (100.0)	139 (100.0)	588,253 (100.0)	1,320 (100.0)	4,639,322 (100.0)	4,155 (100.0)	11,554,933 (100.0)	5,637 (100.0)	18,197,665 (100.0)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대도시 분포실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투자초기단계에 투자대상국에 대한 한정된 정보와 위험 부담 최소화를 위해 대도시나 중심도시에 입지하는 경향을 띤다. 2001년 현재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총 6,788개소로 전체³⁵⁾에서 84.6%를 차지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대도시 집중실태 변화추이를 보면, 지방중소도시 소재 업체를 1.0개소로 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 소재업체가 16.08개소로 뚜렷한 대도시 집중분포경향을 띤다. 또한 대도시와 기타 지방중소도시 입지분포격차도 전산업 기준으로 1970년대 2.67개소, 1980년대 3.47개소, 1990~97년 12.88개소, 1998~2001년 14.02개소로 대도시 집중분포경향이 뚜렷하다.

<표 3-1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대도시 집중도

구 분	1962~1979년	1980~1989년	1990~1997년	1998~2001년	계
전 산업	2.67	3.47	12.88	14.02	16.08
제조업	2.39	3.00	3.38	4.81	3.64
서비스업	-	9.07	44.59	25.01	26.81

주: 대도시=수도권 및 광역시 포함, 기타중소도시=1.0 (업체수 기준)

산업별로 보면, 대도시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1,460개소로 전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51.4%를, 서비스업은 5,012개소로 전체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8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공장 부지 확보와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외국인전용공단 등에 입지하거나 부지비용이 비교적 저렴하고 동종·협력업체와 근접한 지방이나 주변지역에 입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고객과의 근접성 요구와 거리극복 문제 등으로 대도시를 선호하는 등 서비스업의 일반적인 입지분포경향³⁶⁾

35) 분석대상 외국인직접투자기업 8,335개소의 자료 중에서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한 분석대상 전체업체는 8,015개소이다.

<표 3-1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대도시별 · 산업별 분포현황과 변화

(단위: 개소, 천달러, %)

구 분	~ 1979년		1980~1989년		1990~1997년		1998~2001년		계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전 산업	서울	101 (68.7)	2301263 (96.8)	298 (74.5)	2048955 (81.7)	1469 (88.4)	4965421 (70.8)	3771 (88.0)	13312666 (82.5)	5639 (83.1)	22628305 (80.7)
	부산	18 (12.2)	19196 (0.8)	31 (7.7)	87011 (3.5)	88 (5.3)	147312 (2.1)	136 (3.2)	861784 (5.3)	273 (4.0)	1115303 (4.0)
	대구	6 (4.1)	20077 (0.8)	14 (3.5)	156292 (6.2)	20 (1.2)	57949 (0.8)	63 (1.5)	35553 (0.0)	103 (1.5)	269871 (1.0)
	광주	-	-	5 (1.3)	53147 (2.1)	6 (0.4)	12336 (0.2)	36 (0.8)	618369 (3.9)	336 (4.9)	683852 (2.4)
	울산	1 (0.7)	3176 (0.1)	4 (1.0)	24987 (1.0)	7 (0.4)	38180 (0.5)	30 (0.7)	439664 (2.8)	47 (0.7)	506007 (1.8)
	대전	-	-	6 (1.5)	6821 (0.3)	14 (0.8)	1512693 (21.6)	34 (0.8)	247670 (1.6)	54 (0.8)	1767184 (6.3)
	인천	21 (14.3)	33749 (1.5)	42 (10.5)	129773 (5.2)	57 (3.5)	283591 (4.0)	216 (5.0)	620642 (3.9)	336 (5.0)	1067755 (3.8)
	대도시계	147 (100.0)	2,377,461 (100.0)	400 (100.0)	2,506,986 (100.0)	1,661 (100.0)	7,017,482 (100.0)	4,286 (100.0)	16,136,348 (100.0)	6,788 (100.0)	28,038,277 (100.0)
제조업	서울	78 (64.5)	851037 (92.0)	187 (68.0)	1623365 (81.1)	314 (74.1)	1962428 (76.3)	478 (74.7)	4119099 (69.2)	1057 (72.4)	8555929 (74.7)
	부산	16 (13.2)	17816 (1.9)	20 (7.3)	11280 (0.6)	33 (7.9)	25274 (1.0)	37 (5.8)	336298 (5.5)	106 (7.3)	390668 (3.4)
	대구	6 (5.0)	20077 (2.2)	13 (4.7)	155092 (7.8)	16 (3.8)	52259 (2.0)	17 (2.7)	18245 (0.3)	52 (3.6)	245673 (2.1)
	광주	-	-	4 (1.5)	49855 (2.5)	5 (1.2)	12279 (0.5)	16 (2.5)	615165 (10.0)	25 (1.7)	677299 (5.9)
	울산	1 (0.8)	3176 (0.3)	4 (1.5)	24987 (1.2)	7 (1.6)	38180 (1.5)	14 (2.2)	325454 (5.5)	26 (1.7)	391797 (3.4)
	대전	-	-	5 (1.8)	6419 (0.3)	7 (1.6)	216679 (8.4)	10 (1.6)	239871 (4.0)	22 (1.5)	462969 (4.0)
	인천	20 (16.5)	33317 (3.6)	42 (15.2)	129773 (6.5)	42 (9.9)	264109 (10.3)	68 (10.5)	301348 (5.2)	172 (11.8)	728547 (6.5)
	대도시계	121 (100.0)	925,423 (100.0)	275 (100.0)	2,000,771 (100.0)	424 (100.0)	2,571,208 (100.0)	640 (100.0)	5,955,480 (100.0)	1,460 (100.0)	11,452,882 (100.0)
서비스업	서울	20 (87.0)	1413345 (99.9)	109 (89.3)	425124 (84.0)	1151 (93.4)	2938811 (67.1)	3284 (90.3)	9020613 (90.1)	4564 (91.1)	13797893 (84.6)
	부산	2 (8.7)	1380 (0.1)	10 (8.3)	75631 (15.0)	55 (4.5)	122038 (2.8)	97 (2.7)	525255 (5.3)	164 (3.3)	724304 (4.4)
	대구	-	-	1 (0.8)	1200 (0.2)	4 (0.3)	5690 (0.1)	46 (1.3)	17308 (0.2)	51 (1.0)	24198 (0.1)
	광주	-	-	1 (0.8)	3292 (0.7)	-	-	20 (0.6)	3204 (-)	21 (0.4)	6496 (-)
	울산	-	-	-	-	-	-	16 (0.4)	114210 (1.1)	16 (0.3)	114210 (0.7)
	대전	-	-	1 (0.8)	402 (0.1)	7 (0.6)	1296014 (29.6)	24 (0.7)	7799 (-)	32 (0.6)	1304215 (8.0)
	인천	1 (4.3)	432 (-)	-	-	15 (1.2)	19482 (0.4)	148 (4.0)	319294 (3.3)	164 (3.3)	339208 (2.2)
	대도시계	23 (100.0)	1,415,157 (100.0)	122 (100.0)	505,649 (100.0)	1,232 (100.0)	4,382,035 (100.0)	3,635 (100.0)	10,007,683 (100.0)	5,012 (100.0)	16,310,5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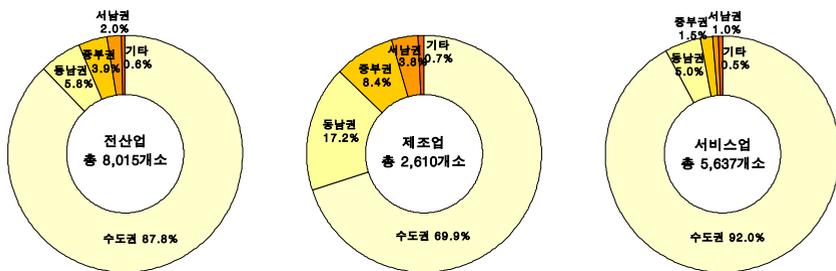
36) 생산자서비스업의 공간적인 분포특성을 보면, 첫째,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서비스는 대도시에 집중하며, 둘째, 아직도 서비스산업의 입지에는 거리극복의 문제가 상존하므로 인구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김용웅 · 차미숙 1996, 40).

과 유사한 입지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대도시 및 중심도시선호 입지경향이 더욱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본사의 권역별 분포실태

일반적으로 기업체의 본사(headquarter)는 기업운영에 관한 핵심사항, 고객업체의 영업 및 마케팅활동 등을 수행하므로 국가내 중심도시 및 대도시에 입지하는 경향을 띤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본사는 일반적인 본사기능 뿐만아니라 해외 모기업과의 교류관계가 중요하므로 해외와 접촉이 용이한 대도시나 교통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선호하게 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본사의 지역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본사의 약 88%가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대도시에 약 98%가 분포해 높은 중심도시 분포경향을 나타낸다.³⁷⁾ 한편,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본사소재지는 수도권(69.9%), 동남권(17.2%), 중부권(8.4%), 서남권(3.8%) 등의 순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광역시에 56%가 입지해 있다.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본사소재지도 수도권(92.0%), 동남권(5.0%), 중부권(1.5%), 기타(1.0%)의 순이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약 70%가 집중되어 있다.



<그림 3-2>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본사의 권역별 분포도

37) 전국 사업체 본사의 67%, 100대 기업 본사의 88%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통계청 2001).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산업별 집적실태와 추이 분석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생산 및 영업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현지화(localization)³⁸⁾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동일한 공간이나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을 띠게 마련이다. 기업이나 지사, 공장 등 동종 또는 이종업체들이 공간적으로 단순히 모여있는 지역을 산업집적(industrial agglomeration)이라 한다. 최근에는 산업집적 수준을 넘어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³⁹⁾ 여기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산업집적 실태와 변화추이를 시·군·구 공간단위로 살펴보겠다.

(1)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집적실태 분석

①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 집적실태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분포 및 집적실태를 보기 위해 시·군·구 단위로 하여 세부업종별 공간분포와 변화추이를 도면화하였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본사의 지역집적 상위 10위지역은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영등포구, 경기도 안산시, 서울시 중구, 경기도 부천시, 인천시 남동구, 서울시 구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마산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면은 부록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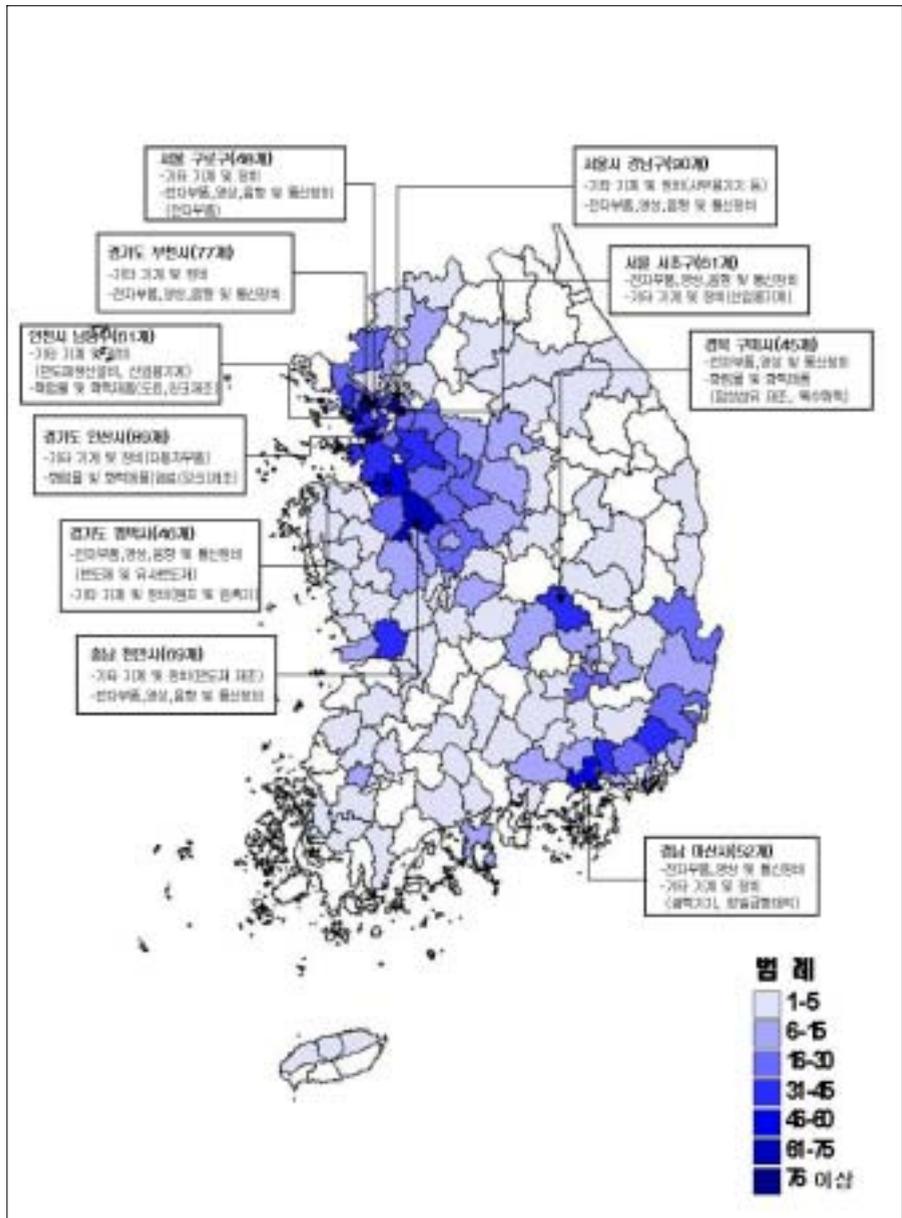
38) 현지화(localization)란 ‘동종 또는 유사한 기업들이 한 장소에 집적함으로써 얻어지는 외부경제효과’로 지역노동시장 등 요소시장의 형성과 업체간 노동분업에 의한 전문화 등을 포함한다. Marshall은 국지화의 효과로 전문적인 기능, 숙련노동력, 전문화된 기계 등 생산요소의 공동활용과 공급자 및 고객에의 근접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를 들고 있다(김동주·권영섭 외 2001, 15).

39) 산업군집의 유형 및 발전단계는 5가지 핵심요소(국지화, 네트워크,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집단학습, 혁신시너지)의 형성정도에 따라 단순집적지, 산업군집, 혁신적 산업군집의 3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한편, 지역산업군집을 “특정제품군의 공급체인과 관련된 일군의 산업이 특정공간에 집중하고, 이들 산업간을 물론 이들 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관련주체들(지원서비스제공기업, 협회, 연구소, 대학, 정부기관 등)간에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지역내 해당기업들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이 상호상승적으로 성장하거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김동주, 권영섭 외 200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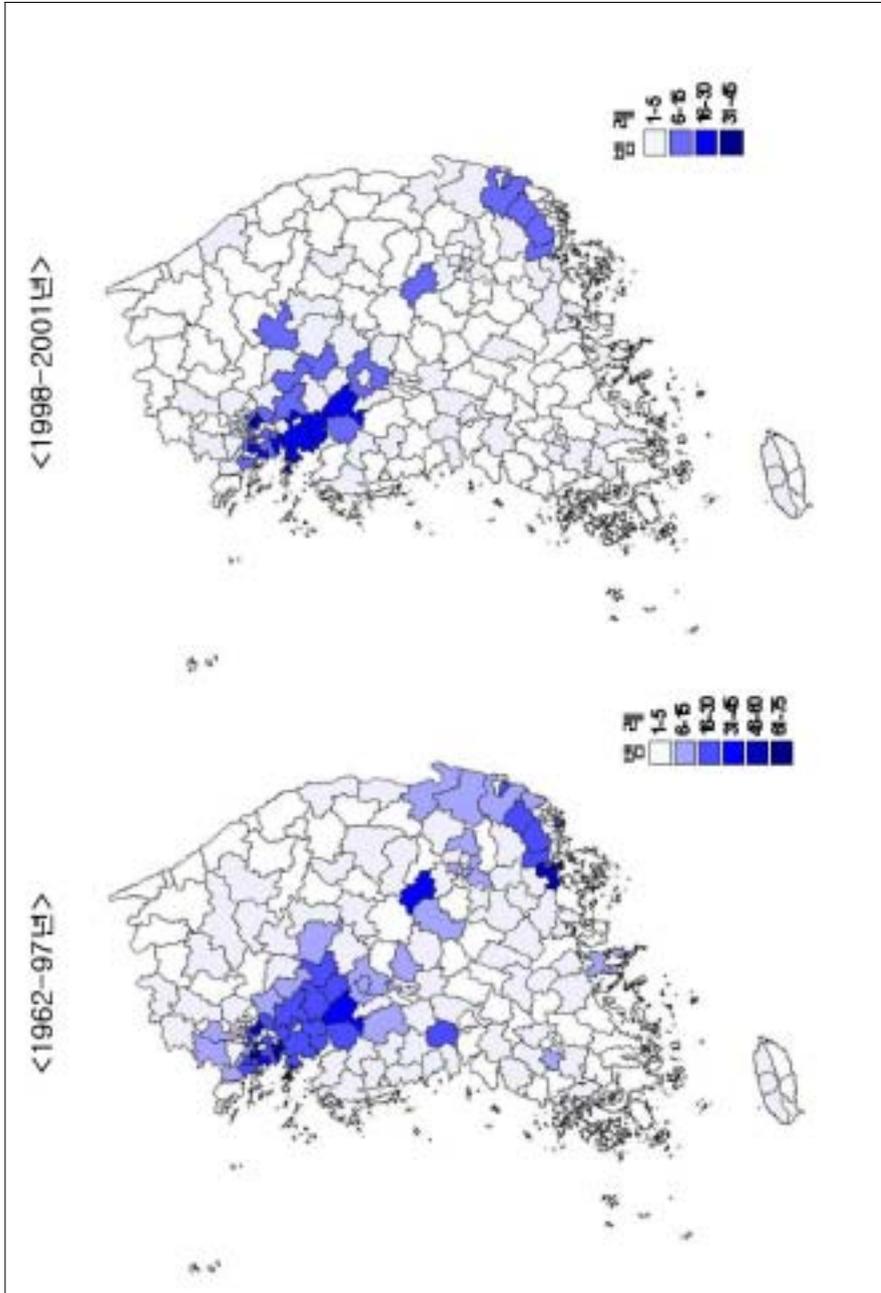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장수를 기준으로 한 집적지역 및 업종은 수도권내에는 서울시 강남구(사무용장비,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경기도 안산시(자동차부품, 염료 및 잉크제조 등 화합물과 화학제품), 경기도 부천시(기타기계 및 장비), 인천시 남동구(반도체 생산설비, 산업용기계, 도료 및 잉크제조), 서울시 서초구(전자부품·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서울시 구로구(기타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등이고, 기타 지역에서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장이 많이 분포한 지역으로는 충남 천안시(반도체 제조, 전자부품·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경남 마산시(전자부품·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광학기기, 정밀금형제작), 경북 구미시(전자부품·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합성섬유제조, 특수화학) 등이다.

<표 3-14>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공장기준)의 집적지역 상위10위지역 현황

순위	업체수 기준			투자액 기준		
	1962~1997년	1998~2001년	누 계	1962~1997년	1998~2001년	누 계
1위	경기도 안산시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경남 양산시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
2위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산시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3위	서울시 강남구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4위	경남 마산시	서울시 서초구	충남 천안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북 전주시
5위	서울시 구로구	경기도 화성시	서울시 서초구	경북 구미시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6위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평택시	인천시 남동구	울산시 남구	울산시 중구	경남 양산시
7위	충남 천안시	경기도 안산시	경남 마산시	인천시 부평구	울산시 울주군	울산시 남구
8위	인천시 남동구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구로구	전남 여주시	광주시 북구	충남 천안시
9위	경북 구미시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 평택시	대구시 달성구	충남 서산시	울산시 울주군
10위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안양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원군	경북 영주시	서울시 성동구
상위지역 비중합계	29.3%	19.7%	24.3%	43.8%	55.8%	40.9%



<그림 3-3>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도(공장수기준)



<그림 3-4>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변화추이(공장수기준)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변화추이<그림 3-4>를 보면, 1997년 이전까지는 경기도 안산시·부천시, 서울시 강남구 등에 분포하였으나 1998년 이후는 충남 천안시, 인천시 남동구 등에 집적되는 추이를 나타낸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시책의 영향도 있지만, 충남 천안시의 경우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지정과 입주업체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른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상위10위내 업체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62~97년 29.3%에서 1998~2001년 19.7%로 감소하여 지역적인 분산입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도권내 제조업 입지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시책의 일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투자액은 상위 10위 지역내의 집중경향이 오히려 심화되어 수도권 산업분산시책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인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② 국내 일반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집적분포 상관관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세부업종별 분포현황을 보면, 가장 높은 투자업종은 기타기계 및 장비가 전체의 22.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전자부품·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18.3%, 화합물 및 화학제품 13.7%의 순이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세부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은 주로 경기 부천시,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등 수도권 지역과 충남 천안시 등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전자부품·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서울시 강남구, 경북 구미시, 경남 마산시,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은 주로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안산시·안성시, 충북 음성군, 울산시 남구·울주군, 전남 여수시 등에 집적 분포하는 것으로 띠고 있다.

<표 3-15> 국내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업종비중 분포

(단위:개소, %)

구 분	국내제조업 (a)	외국인직접투자기업 (b)	b/a(%)
음·식료품 제조업	6428(6.5)	149(5.7)	2.3
담배 제조업	14(0.0)	(0.0)	0.0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9565(9.7)	78(3.0)	0.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8630(8.8)	65(2.5)	0.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704(2.8)	33(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924(2.0)	2(0.1)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660(2.7)	48(1.8)	1.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834(4.9)	18(0.7)	0.4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96(0.1)	16(0.6)	16.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3064(3.1)	360(13.7)	11.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926(7.1)	19(0.7)	0.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3552(3.6)	78(3.0)	2.2
제1차 금속산업	2248(2.3)	105(4.0)	4.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0393(10.6)	10(0.4)	0.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984(13.2)	577(22.0)	4.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817(0.8)	87(3.3)	10.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4994(5.1)	122(4.7)	2.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970(4.0)	480(18.3)	1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228(2.3)	96(3.7)	4.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04(3.3)	134(5.1)	4.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045(1.1)	24(0.9)	2.3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5477(5.6)	119(4.5)	2.2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387(0.4)	1(0.0)	0.3
합 계	98144(100.0)	2621(100.0)	2.7

자료: 음영부분은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비중(2.7%)을 상회하는 업종임

권역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업종 분포와 국내 제조업체의 업종별 분포비교는 양자간의 상관성 및 집적여부를 판단하는데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권역별로 국내 제조업 비중대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비중을 상회하는 특화업종은 <표 3-16>과 같다. 수도권은 특화업종이 업체수의 절대적인 우위로 전체 업종에서 특화도가 높으나 몇몇 업종에서는 권역별 제조업 특화업종과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타 권역에 비해 중부권

이 일반 국내 제조업체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비중(4.00)이 높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6> 권역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분포우위업종 (권역별 평균비중 이상)

권역	권역별 평균비중 상위업종	비고
수도권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13.79), 화합물 및 화학제품(9.88), 전자부품,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7.78),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7.34), 기타기계 및 장비(4.38), 자동차 및 트레일러(4.25), 제1차금속(3.88),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3.70), 음식료품(3.49). 기타 운송장비(3.45) 등 10개 업종	2.20
중부권	화합물 및 화학제품(13.62), 전자부품,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12.8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12.5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10.81), 제1차금속(9.63), 자동차 및 트레일러(7.8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7.05), 기타기계 및 장비(7.12), 기타 운송장비(6.25) 등 9개 업종	4.00
동남권	전자부품,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8.43), 화합물 및 화학제품(7.09), 가구 및 기타제품(4.72), 기타기계 및 장비(3.0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3.68), 자동차 및 트레일러(3.65),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2.26), 조립금속제품(1.83), 비금속광물제품(1.76), 가죽, 가방 및 신발(1.72) 등 10개 업종	1.71
서남권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60.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14.29), 전자부품,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12.7), 화합물 및 화학제품(10.55), 기타 운송장비(4.76), 기타 기계 및 장비(2.7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2.35), 섬유제품(2.38) 등 8개 업종	1.71
기타	제1차금속(16.6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12.50), 전자부품, 음향, 영상 및 통신장비(11.76), 섬유제품(8.0), 자동차 및 트레일러(7.69), 기타기계 및 장비(4.55), 화합물 및 화학제품(5.56),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1.79) 등 8개 업종	1.24

주1: 괄호안 수치는 권역별 (해당업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해당업종 국내 제조업체) 비중
 주2: 비고안 수치는 권역별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체 제조업체) 비중으로 특화업종을 선정한 기준비중

국내 제조업 및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권역별·업종별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업종인 고도기술수반업종이 모든 권역에 집중 분포해 있어 권역별 상위분포업종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제조, 화합물 및 화학제품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위업종 분포를 이루고 있다. 둘째, 국내 제조업의

상위업종의 권역내 분포비중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상위업종의 분포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은 상위 3위를 차지하는 업종이 전체의 약 30%이내를 차지하는데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상위업종은 대부분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권역별 국내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상위업종분포 비교

셋째, 권역별로 일부 업종의 집적분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의 경우는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종이, 서남권의 경우는 음식료품

제조관련 업종의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나 유사업종의 지역집적 양상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표 3-17> 권역별 국내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상위분포 업종

구 분	국내 제조업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수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12.9%)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12.4%) · 조립금속제품(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25.7%)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제조(18.6%) · 화합물 및 화학제품(11.7%)
중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료품 제조(14.5%)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10.4%) · 조립금속제품(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합물 및 화학제품(23.1%)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18.6%)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제조(14.8%)
동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제품(15.4%) · 조립금속제품(12.9%)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22.8%) · 화합물 및 화학제품(18.9%)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제조(11.6%)
서남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료품 제조(25.4%) · 비금속광물(9.9%)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24.8%)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제조(13.9%) · 음식료품 제조(13.9%)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료품 제조(38.5%) · 비금속광물(15.6%) · 조립금속제품(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15.8%) · 화합물 및 화학제품(15.8%)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15.8%)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11.7%) · 조립금속기계(10.9%) · 섬유제품(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23.5%)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제조(15.9%) · 화합물 및 화학제품(15.5%)

③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형태 실태분석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국내투자시 처음부터 생산활동을 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과 위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초기단계에는 영업·판매활동을 하다가 영업망 확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연후에 생산활동을 하는 점진적인 진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⁴⁰⁾

40) 2001년 현재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한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 업체들의 50%가 생산활동과 영업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사례 업체조사에서도 경기도 평택시에 입지해 있는 UV사는 국내투자당시에 서울 서초구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영업활동을 하다가, 생산활동을 본격화하면서 현재의 입지에 공장을 건축해 있는 경우가 있었다.

<표 3-18>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장소재지 분포실태와 변화

지역		년대	~ 1979년	1980 ~ 1989년	1990 ~ 1997년	1998 ~ 2001년	합계
권역별	수도권		97 (33.0)	326 (58.2)	419 (59.3)	386 (63.3)	1228 (58.6)
	동남권		103 (35.0)	133 (23.8)	134 (19.0)	112 (18.4)	482 (23.0)
	중부권		7 (2.4)	64 (11.4)	121 (17.0)	72 (11.8)	264 (12.6)
	서남권		9 (3.1)	35 (6.2)	26 (3.7)	31 (5.0)	101 (4.8)
	기 타		1 (0.4)	2 (0.4)	7 (1.0)	9 (1.5)	19 (1.0)
	전국 계		80 (100.0)	560 (100.0)	707 (100.0)	610 (100.0)	2,094 (100.0)
대도시별	서울		28 (32.2)	78 (40.4)	190 (61.4)	154 (57.0)	450 (52.2)
	부산		18 (20.7)	21 (10.9)	31 (10.0)	16 (5.9)	86 (10.0)
	대구		7 (8.1)	17 (8.8)	17 (5.5)	11 (4.1)	52 (6.1)
	인천		27 (31.0)	55 (28.5)	49 (15.8)	57 (21.1)	188 (21.9)
	광주		-	5 (2.6)	6 (1.9)	8 (3.0)	19 (2.2)
	대전		-	8 (4.1)	6 (1.9)	3 (1.1)	17 (2.0)
	울산		7 (8.0)	9 (4.7)	11 (3.5)	21 (7.8)	48 (5.6)
	대도시 계		297 (100.0)	193 (100.0)	1,414 (100.0)	1,220 (100.0)	4,188 (100.0)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수는 전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약 80%인 2,094개소이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공장의 권역별 분포현황을 보면, 수도권 58.6%, 동남권 23.0%, 중부권 12.6%, 서남권 4.8%, 기타 0.9% 순으로 나타났다(도면은 부록참조). 공장의 약 82%가 수도권과 동남권에 분포하여 국내 제조업체의 공장분포와 밀접한 상관성을 시사하고 있다.⁴¹⁾

2001년 현재 공장을 소유한 업체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체의 약 80%(2,094개소)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41) 국내 제조업체의 수도권 및 동남권 분포비중은 85.7%에 달한다(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1).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 국내 제조업의 지역분포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생산품 성격에 따라 기초소재형, 조립가공형, 생활관련형으로 구분하였다. 전반적으로 모든 권역에서 조립가공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구체적으로는 기초소재형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분포가 평균(26.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동남권(33.0%), 중부권(36.4%), 서남권(36.6%)이며, 조립가공형의 경우는 평균(57.1%)보다 높은 지역이 수도권(63.2%)이고, 그리고 생활관련형은 평균(16.7%)보다 높은 지역이 서남권(34.7%)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표 3-1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내 제조업체의 분포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3-19> 국내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업종유형별 권역분포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제조업 국내업체			
	기초소재형	조립가공형	생활관련형	계	기초소재형	조립가공형	생활관련형	계
수도권	251 (20.4)	776 (63.2)	201 (16.4)	1,228 (100.0)	10381 (18.6)	26923 (48.2)	18570 (33.2)	55874 (100.0)
동남권	159 (33.0)	247 (51.2)	76 (15.8)	482 (100.0)	7050 (25.0)	12463 (44.2)	8674 (30.8)	28187 (100.0)
중부권	96 (36.4)	134 (50.8)	34 (12.8)	264 (100.0)	2246 (34.6)	2519 (38.7)	1736 (26.7)	6501 (100.0)
서남권	37 (36.6)	29 (28.7)	35 (34.7)	101 (100.0)	1716 (29.0)	1878 (31.8)	2317 (39.2)	5911 (100.0)
기 타	6 (31.6)	10 (52.6)	3 (15.8)	19 (100.0)	476 (31.0)	358 (23.4)	700 (45.6)	1534 (100.0)
계	549 (26.2)	1,196 (57.1)	349 (16.7)	2,094 (100.0)	21869 (22.4)	44141 (45.0)	31997 (32.6)	98007 (100.0)

주: 산업분류는 기초소재형 SIC 20,21,23~27, 조립가공형 28~35, 생활관련형 15~19, 22,36, 37 포함
자료: 통계청. 2000.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 산업자원부. 2001. 「외국인투자기업현황」.

한편,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 계획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일반적인 입지유형은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나뉘며, 계획입지는 기존 국가·지방·농공단지를 비롯하여 외국인전용공단 등을 포함한다. 2001년 현재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장입지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획입지내에 분포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약 613개소로 전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약 23.5%를 차지한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의 입지유형과 비교해 보면, 2002년 8월 현재 산업단지내에 분포한 제조업체수는 13,276개소로 국내 제조업 총사업체수의 13.5%를 차지한다.

<표 3-20> 계획입지내 분포한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별·년도별 분포실태

(단위: 개소, 억달러, %)

구분	~1979년		1980~1989년		1990~1997년		1998~2001년		합계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서울	9 (9.1)	55883 (7.4)	9 (5.9)	10249 (1.3)	15 (8.3)	28736 (1.5)	18 (10.0)	117506 (2.2)	51 (8.3)	212374 (2.4)
부산	4 (4.0)	1403 (0.2)	2 (1.3)	493 (-)	5 (2.8)	11598 (0.6)	2 (1.1)	218 (-)	13 (2.1)	13712 (0.2)
대구	2 (2.0)	19438 (2.6)	2 (1.3)	1318 (0.2)	3 (1.7)	13958 (0.7)	1 (0.6)	4869 (-)	8 (1.3)	39583 (0.4)
인천	13 (13.1)	111372 (14.8)	26 (17.0)	70486 (9.1)	34 (18.8)	339271 (17.7)	41 (22.8)	179875 (3.4)	114 (18.6)	701004 (7.8)
광주	-	-	3 (2.0)	50739 (6.6)	4 (2.2)	12245 (0.6)	5 (2.8)	606361 (11.0)	12 (2.0)	669345 (7.5)
대전	-	-	4 (2.6)	34159 (4.4)	4 (2.2)	49859 (2.6)	1 (0.6)	110000 (2.0)	9 (1.5)	194018 (2.2)
울산	-	-	2 (1.3)	21503 (2.8)	1 (0.6)	1509 (-)	4 (2.2)	521378 (9.5)	7 (1.1)	544390 (6.1)
경기	8 (8.1)	75574 (10.0)	41 (26.8)	267398 (34.6)	56 (30.9)	230139 (12.0)	47 (26.1)	378525 (6.9)	152 (24.8)	951636 (10.6)
충북	5 (5.1)	39881 (5.2)	12 (7.8)	208569 (27.0)	13 (7.2)	103796 (5.4)	7 (3.9)	110790 (2.0)	37 (6.0)	463036 (5.2)
충남	-	-	4 (2.6)	2401 (0.3)	18 (9.8)	224490 (11.7)	17 (9.4)	710217 (12.9)	39 (6.4)	937108 (10.5)
전북	5 (5.1)	6055 (0.8)	13 (8.5)	5316 (0.7)	9 (4.9)	74387 (3.9)	10 (5.6)	1327033 (24.1)	37 (6.0)	1412791 (15.8)
전남	-	-	3 (2.0)	17241 (2.3)	1 (0.6)	16784 (0.9)	3 (1.7)	326605 (5.9)	7 (1.1)	360630 (4.0)
경북	12 (12.1)	218862 (29.0)	10 (6.5)	42907 (5.7)	8 (4.5)	27747 (1.5)	9 (5.0)	711658 (12.9)	39 (6.4)	1001174 (11.2)
경남	41 (41.4)	226195 (30.0)	22 (14.4)	39359 (51.0)	10 (5.5)	781887 (40.9)	15 (8.2)	394928 (7.2)	88 (14.4)	1442369 (16.1)
합계	99 (100.0)	754663 (100.0)	153 (100.0)	772138 (100.0)	181 (100.0)	1916406 (100.0)	180 (100.0)	5499963 (100.0)	613 (100.0)	8943170 (100.0)

계획입지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 152개소(24.8%), 인천시 114개소(18.6%), 경남 88개소(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기별로 보면, 외국인전용공단의 조성 및 입주시작과 입지지원시책 등의 영향으로 계획입지내에 분포한 기업의 약 59%가 199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입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유형 분석결과, 여전히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경기도(24.8%), 인천(18.6%) 등 수도권과 경남·북 등 동남권 공업지역내 계획입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이는 계획입지가 지닌 이점 뿐만아니라 기 형성되어 있는 주변의 동종 및 관련업체, 고객업체 등의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정부는 고지가에 따른 공장용지 가격의 상승이 공장설립형(greenfield) 외국인 직접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외국인기업들의 초기투자 비용을 줄임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충남 천안, 광주 평동, 전남 대불, 경남 진사 등 외국인기업 전용단지⁴³⁾를 지정하고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⁴⁴⁾

2002년 현재 국내에 지정·운영중인 4개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는 총 3,727㎡에 94개사가 입주해 있고, 고용창출규모는 1,693명, 외국인투자총액은 4억 8,277만 달러이다. 이들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가동현황을 보면, 업체수 측면에서 보면 전기·전자(29.1%), 운송장비(23.3%), 기계업종(20.9%)의 순이나, 생산액 비중으로는 목재·종이(43.4%)가 가장 크고⁴⁵⁾, 전기·전자(23.7%), 기계업종(20.9%)

42) 계획입지내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94개소가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내에 분포하고 있다. 전남·북 등 기존의 산업화에서 뒤쳐진 지역은 여전히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계획입지내 분포비율도 저조한 편인데, 이는 광주 평동공단과 전남 대불공단내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데도 기인한 것으로도 부분적으로 해석된다.

43)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기업만을 위한 입지공간 제공목적으로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을 운영하는 해외 사례는 거의 없다. 주로 국내외기업을 대상으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해주는 자유무역(free trade zone)형태로 운영하면서 외국인기업에게는 일정부분 우대조치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따라 명칭도 자유무역지역(FTZ:free trade zone), 수출가공구(EPZ:export process zone), 자유항(free port), 통과지대(transit zone), 자유구역(free perimeter) 등 다양하다.

44) 법률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안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간주한다(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3항).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목적은 외국의 첨단기술이전과 고용창출,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소득증대 등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저렴한 입지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다.

45) 목재·종이의 생산비중이 큰 이유는 대불단지내에 입주한 보위터환라제지(주)가 전체 생산의 43.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의 순이다. 그리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내 입주업체는 약 94개소로 계획입지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613개소) 중에서 15%정도를 차지한다.

<표 3-21>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지정·운영현황

단 지	충남천안 외국인전용단지	광주평동 외국인전용단지	전남대불 외국인전용단지	경남진사 외국인전용단지	
조성목적	첨단 고도기술산업 을 수반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국내 산업의 첨단 단과과학기술 상을 위해 첨단 고도기술을 유치 반한 외국인기 업의 투자유치 촉진 도모	중국, 동남아의 교역중심지로 개 발한 대불산단 활 성화, 외국 첨단 기술산업 유지로 지역산업구조고도 화, 외국기업연관 산업 육성으로 지 역경제 활성화	선진기술을 보유 한 외국인기업 투 자유치 촉진, 외 국인기업의 유치 로 지역의 고용창 출,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기간	1992~1998	1993~1996	1989~1997	1994~2002.12	
지역지정	1994.10.13	1994.10.13	1998.8.29	2001.8.17	
면적(천㎡)	714	1,234	1,614	165	
입주조건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외국인투자지분 10%이상	외국인투자지분 10%이상	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분 양 가	-분양가:151천원/㎡ -임 대:121원/㎡ (분양율 100%)	-임대:40원/㎡월 (분양율 87.8%)	-분양가:69천원/㎡ -임대:27원/㎡/월 (분양율 56.7%)	임대:86원/㎡/월 (분양율 64.2%)	
입주현황	업체수 (주요가동)	38개사 (전기전자업종)	39개사	15개사 (운송장비)	2개사
	생 산	2,367억원	131억원	2,007억원	-
	수 출	6,800만 달러	400만 달러	3,400만 달러	-
	고 용	1,187명	275명	544명	-
	외투금액	1억 3,500만 달러	1억 1,357만 달러	2억 2,570만 달러	850만 달러

주: 생산, 수출액은 2001년 누계
자료: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내부자료(2002년 5월 현재)

(2)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실태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분포 및 집적실태를 보면, 상위 10위권내 지역이 모두 서울시내 지역들이며,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 및 기타 지역내의 분포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변화추이(업체수 기준)를 보면, 1997년 이전까지는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중구, 영등포구, 종로구, 용산구, 마포구, 송파구, 강서구 등이었으나 1998년 이후는 순위상의 차이만 있을 뿐 서울지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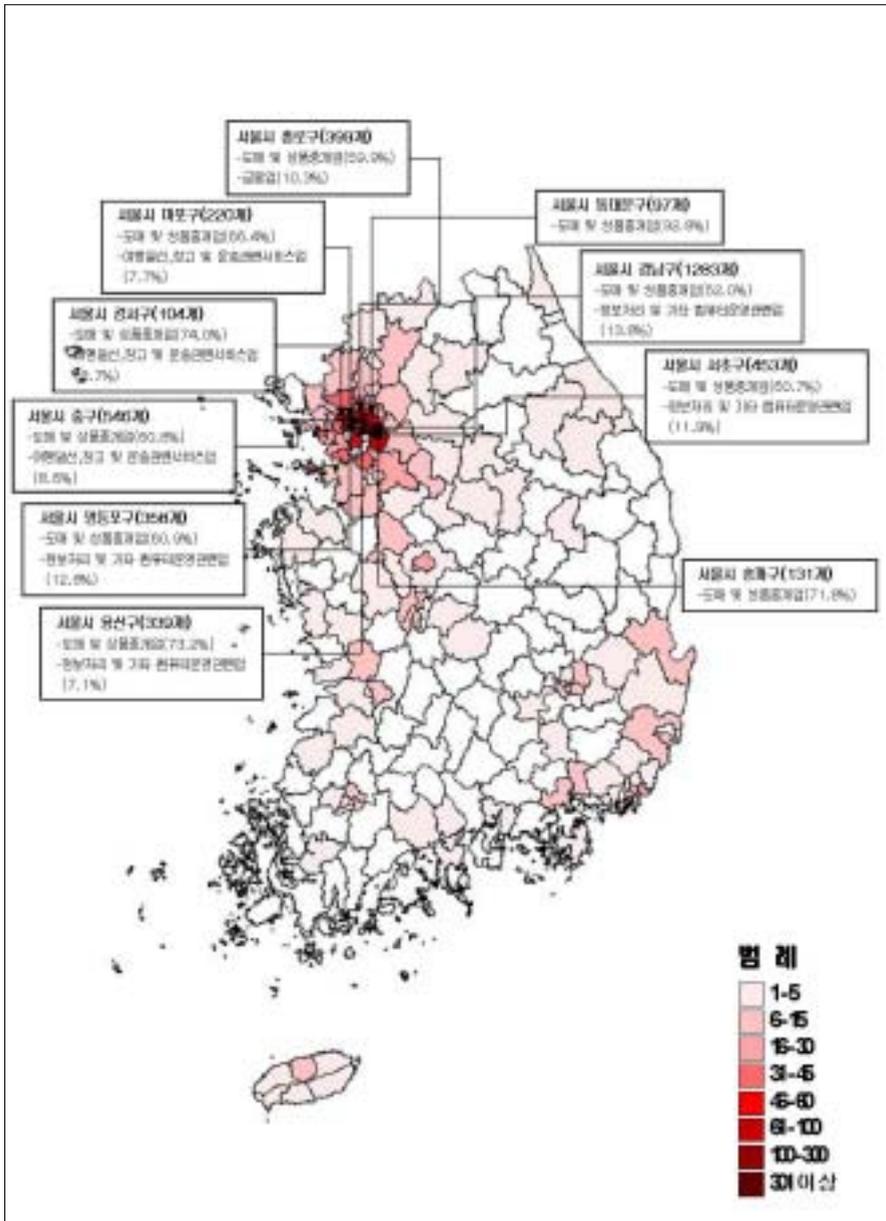
집중이 여전하다.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집적지 상위 10위지역내 업체수가 전체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이전까지 78.8%에서 1998년 이후는 65.9%로, 그리고 투자액은 동 기간동안 91.1%에서 87.0%로 감소하여 업체수 및 투자액 양 측면에서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이들 지역내 집중 분포도는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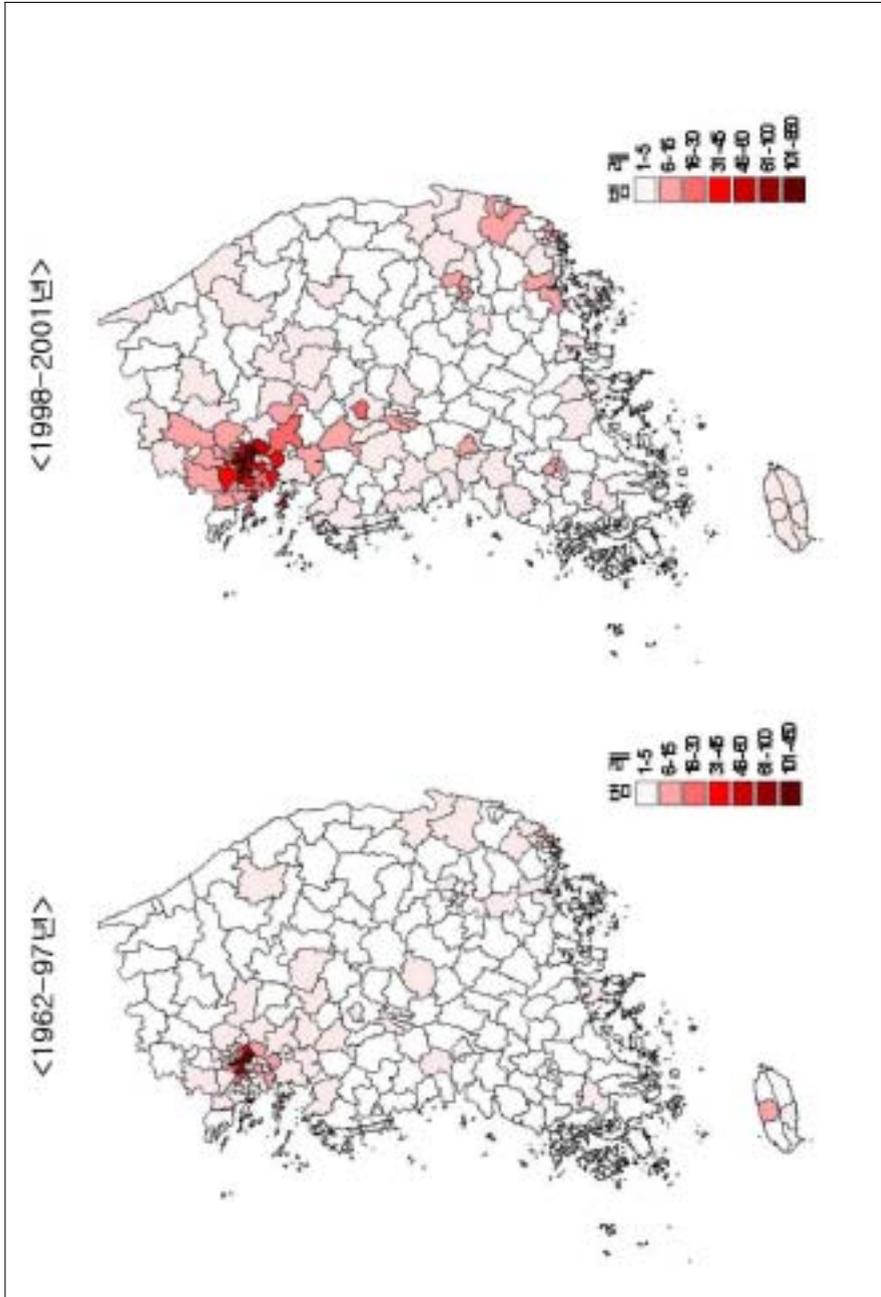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세부업종별 지역집적 현황을 보면, 가장 높은 투자업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이 3,709개소로 전체의 65.0%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이 430개소(7.5%), 사업지원서비스업 268개소(4.7%)이다. 서비스업 세부업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주로 서울시 강남구, 중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입지한 지역 또한 서울시 강남구로 서비스업의 상위 3개 업종이 가장 많이 소재한 곳은 모두 서울시 강남구로 나타났다.

<표 3-22>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상위집적 10위지역의 변화추이

순위	업체수 기준			투자액 기준		
	1962~1997년	1998~2001년	누 계	1962~1997년	1998~2001년	누 계
1위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중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2위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대전시 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 중구
3위	서울시 중구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강남구	서울시 중구	서울 영등포구
4위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서초구	서울시 서초구
5위	서울시 종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부천시	대전시 서구
6위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7위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부산 해운대구	인천시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8위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용산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시 부평구
9위	서울시 강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송파구	부산시 동구	부산 부산진구
10위	부산시 중구	서울시 강서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 마포구	충남 서산시	부산시 동두
상위10위 지역합계	78.8%	65.9%	69.1%	91.1%	87.0%	85.3%



<그림 3-6>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도



<그림 3-7>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변화추이

4. 주요 분석결과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분석에 의하면 첫째,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급속한 증대경향이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63.4%, 투자액의 62%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후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 추진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유치업종 비중증대와 투자동기의 변화이다. 투자업종에 있어서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비중(68.1%)이 현저하게 높다. 이는 국내 산업구조의 서비스 경제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동기의 변화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즉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생산거점형 투자에서 점차 시장·판로개척형 투자동기·전략을 가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증가 등 국내 투자동기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셋째, 투자비율 측면에서는 100% 단독투자업체가, 기업조직구성 형태는 본사 단독형 업체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의 증대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투자국별로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계 국가의 비중이 60%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투자액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럽계, 미주계가 약 69%를 차지하고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실태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분석에 의하면 첫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수도권에 전체 외국

인직접투자기업의 87.8%, 투자액의 약 70%가 집중해 있다. 서울 및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 분포비중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84.6%에 이른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본사의 약 70%와 서비스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수도권 및 대도시를 포함해서는 서비스업 본사의 97%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지행태분석 결과와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투자초기단계에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재와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면 지명도가 높은 대도시나 중심도시의 입지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불과 4-5년 정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초기단계로 대도시 및 중심도시에 입지를 선정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분포심화 경향이다. 수도권 집중도가 지방을 1.0개소로 할 경우 1990~97년은 5.19개소에서 1998년 이후는 수도권이 7.12개소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여타 지방과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도 1998년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입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국내 제조업의 수도권내 입지규제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과 지방간 분포격차 심화경향은 현행 산업정책 차원에서 양적 성장 및 유치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투자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지역격차 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한 지역정책적 차원의 병행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의 업종별, 지역별 일부집적 경향이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업종별로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 등 3개업종이 전체의 54%를 차지하여 동종의 국내업체 비중 20.3%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나 일부 업종에 대한 편향적인 집중투자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 업종들의 지역분포에 있어서도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은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서남권은 음식료품 제조업의 분포비

중이 높아 국내 제조업 업종 및 지역분포와도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유치정책과 지역산업 육성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일부 집적지역의 지속경향과 업종별 차별적인 분산경향이 나타난다. 즉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상위집적지역이 시기별로 다소 순위변화는 있으나 상위 집적지역이 지속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상위집적지역내 업체수 및 투자액 비중이 점차 완화되어 지역적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계획입지 선호경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지원시책 효과이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체의 ¼인 23.5%가 계획입지내에 분포해 있어 국내 제조업의 계획입지 분포비중인 13.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계획입지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개별입지에 분포하기 보다 외국인전용단지 등에 입주할 경우 공장용지 무상 및 저가제공, 조세감면,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되므로 업체들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계획입지 우위경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지원시책의 효과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년 이전에는 경기도 안산, 부천, 서울 강남구 등에 집중 분포되었으나, 1998년 이후는 충남 천안, 인천 남동구 등에 투자가 증대·집적되는 추이를 보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외국인전용단지 등 정부 입지지원시책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경향은 해외실증연구에서 제시된 입지분포 주요가설인 대도시 및 중심도시 분포선호가설, 주변 지역 분포선호가설, 집적강화가설 등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유치 초기단계인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는 대도시 및 중심도시 선호가설(core tendency hypothesis)이 매우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일부지역의 집적

강화 현상이 부분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및 향후 변화를 전망하고 입지지원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해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변화 양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CHAPTER 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특성과 유형별 입지행태 분석

1. 조사 설계

1) 조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생산·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입지행태 및 지역연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방법은 직접방문에 의한 면담사례조사와 전화·팩스조사 방법을 병행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업체 조사내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는 2002년 5월중 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와 60개 업체에 대해 팩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표의 내용을 보완한 다음, 2002년 8~10월중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742개소를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사례 조사는 조사대상업체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소재 제조업 외국인직접

투자기업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수준에서 지방의 경우는 천안, 평동, 대불, 진사 외국인전용산업단지내 입주업체를 중심으로 섭외에 응락한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회수율이 지나치게 저조하여 네 차례에 걸쳐 조사대상업체에 전화 및 팩스발송을 반복하여 응답을 독려하였다. 최종적으로 회수된 조사업체는 80개소(회수율 10.8%)이다. 지역별 설문조사의 회수현황을 보면, 수도권 38개소, 지방 42개소(중부권 13개소, 동남권 8개소, 서남권 20개소, 기타 1개소)이다.

<표 4-1> 기업체 설문조사 및 면담업체수

(단위: 개소)

구 분	수도권	지 방	계
팩스조사업체 (응답업체)	38 (47.7%)	42 (51.3%)	80 (100.0%)
면담조사업체	7 (41.2%)	10 (58.8%)	17 (100.0%)

2) 주요 조사내용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내용은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규모(고용, 매출액), 성숙도(투자연한), 생산품 성격(생산공정, 생산품 특성), 기업조직구성 등 조직특성별로 유형화하였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행태와 해외모기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투자행태는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투자비율, 투자국유, 그리고 해외모기업의 조직형태, 기업활동과정의 의사결정권 분석을 통해 해외모기업과의 관계와 조직자율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특성과 입지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입지지역 특성, 규모, 입지형태(계획입지, 개별입지),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와 입지결정요인, 입지여건 만족도 등을 설문내용으로 하고 있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원부자재 구매연계, 판매연계, 정보 및 서비스연계, 기업협력연계, 전략적 제휴연계, 기술이전 및 혁신경험, 교육훈련 등 지역연계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화 실태분석을 위해 지역고용창출효과, 정부지원시책 효과, 기타

지역사회활동 등을 조사하였다.

<표 4-2>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대상의 조사설계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목적	·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특성과 지역연계 특성분석
조사 대상	·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체 2,610개소)
조사 규모	· 기업체 면담조사: 17개소 · 기업체 설문조사: 80개소 (회수율 10.8%, 사전조사 6개소 포함) - 1차: 기업체 전체대상 전화 및 응락업체 리스트작성 (742개소) - 2차: 1차대상업체에 조사표 팩스우송(공문첨부) 및 전화요청 4회
조사방법	· 직접 면담 및 팩스조사방법 병행
주요 조사내용	· 조직 및 생산특성: 규모(고용, 매출액), 성숙도(투자연한), 생산품, 기업조직구성 등 · 투자행태 및 모기업 관계 - 투자진입방식(단독신설법인, 기존업체인수, 합작투자), 투자규모, 투자비용, 투자국, 투자동기, 해외모기업 조직형태(다국적기업, 외국투자가 등), 기업활동과정의 의사결정권(모기업 관계와 조직자율성) · 입지행태 및 결정요인 - 입지지역, 입지규모, 입지유형(계획, 개별입지), 입지선정 탐색정보 구득 경로, 입지결정요인, 입지여건 만족도 · 지역연계 및 네트워크 특성 - 생산연계(원부자재, 기계장비 공급), 하청생산관계, 사업지원서비스 제공 업체 분포, 판매연계(고객업체 규모, 지역분포), 고객확보방식, 기업활동 정보원천, 전략적 제휴관계 및 수행분야, 기술이전경험, 기술혁신네트워크, 지역업체간 교류, 교육훈련 · 지역화 수준 및 추진방안 - 지역고용창출효과, 정부지원시책 효과, 입지에 따른 지역기여효과, 기타 지역사회연계 등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 및 투자특성

1) 조사업체의 조직 특성

(1) 기업 규모

① 고용 규모

기업규모는 일반적으로 고용과 매출액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규모는 평균 117명이나 업체에 따라 최소 3명에서 최대 1,300명까지 매우 다양한 고용분포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의 고용규모별 분포를 보면, 49인 이하 기업이 조사대상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55.3%, 50~299인 기업은 37.1%, 그리고 300인 이상 기업이 7.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체의 고용규모 분포와 비교해 보면, 국내 제조업체는 49인 이하가 91.2%, 50~299인 이하 기업이 8.0%, 그리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0.8%인데 비해 조사대상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규모는 제품생산형태나 생산공정 여하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나,⁴⁷⁾ 특히 조사업체의 고용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한 VC사(1,300명), ST사(900명) 등과 같이 초대형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⁴⁸⁾

<표 4-3> 조사업체의 고용규모 분포

(단위: 개소, %)

규모별	조사업체 (개소, %)
5~9인	7 (9.0)
10~19인	12 (15.4)
20~49인	24 (30.8)
50~99인	14 (17.9)
100~199인	11 (14.1)
200~299인	4 (5.1)
300~499인	- (-)
500인 이상	6 (7.7)
총계	78 (100.0)

46) 2001년 현재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총8,335개소로 국내 총사업체수 107,268개소에서 약 7.8%를 차지한다. 기준년도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총사업체에서 7.8%를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전체 생산액(2000년)의 13%, 고용(2000년)의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매출)액 규모가 일반 국내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자원부 2002).

47)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일반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제품생산형태 및 생산공정단계상 중간·부품제 혹은 최종·완성품 여하에 따라 고용규모에 있어서 상이한 양상을 띠고있다. 즉 중간·부품제에 비해 최종·완성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있어서 고용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면담사례조사업체 가운데 VC사는 굴삭기 완성품업체로서 1,300여명의 대규모 고용을 하고 있는데 비해, 기초소재형이나 중간·부품제를 생산하는 UC사(30명), SP사(55명), HH사(27명) 등은 비교적 고용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8)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2000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총제조업체 2,525개소 가운데 조사대상업체 900개소)의 고용은 약19만 8천명으로 국내 제조업 전체고용(2,653천명)에서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의 업체자료분석에 의하면 국내 제조업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8,335개소)은 국내 제조업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매출액 규모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평균 273억원이다. 조사업체의 매출액 분포를 보면, 100억원 미만 5개소(6.8%), 100~500억원 미만 25개소(33.8%), 500~1000억원 미만 3개소(4.1%), 그리고 1,000억원 이상 41개소(55.4%) 등으로 나타났다.⁴⁹⁾

<표 4-4> 조사업체의 연간 매출액 규모분포

(단위: 개소, %)

규모별	조사업체수(비율)
100억 미만	5(6.8)
100~500억 미만	25(33.8)
500~1000억 미만	3(4.0)
1000억 이상	41(55.4)
총계	74(100.0)

(2) 조직 특성

① 성숙도(투자연한)

조사업체의 투자시기에 의한 성숙도는 평균 9년⁵⁰⁾이며, 투자시기별로 1990년 이후 국내 투자업체가 전체의 68.2%를 차지하며, 1970년대 8.9%, 1980년대 22.8%의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동 기간동안 전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시기별 분포인 8.4%, 22.0%, 69.6%와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특히 조사대상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중에서 3년이내 신생기업들이 전체의 35%이상

49) 2000년 현재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생산(매출)액은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에서 1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자원부, 2002).

50)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시기는 약 5년이내의 신생기업인데 비해, 외환위기 이후에는 주로 서비스업 위주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투자시기는 8년 3개월,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3년 1개월이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연한이 서비스업체 비해 성숙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추진시책에 의한 외국기업 유치와 정착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을 차지하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시책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5>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시기별 분포

(단위:개소, %)

구 분	~1979년	1980~1989년	1990~1997년	1998~2001년	계
전체 제조업체 ¹⁾	220 (8.4)	576 (22.0)	745 (28.4)	1,080 (41.2)	2,621 (100.0)
조사업체	7 (8.9)	18 (22.8)	26 (32.9)	28 (35.4)	79 (100.0)

주1: 2001년 6월말 현재 외국인투자신고 및 등록완료 제조업체(2,621개소)

② 기업조직구성

조사업체의 기업조직구성별 분포는 본사·공장통합형 69.2%(54개소), 본사·공장분리형 16.7%(13개소), 본사단독형 12.8%(10개소) 순이다.⁵¹⁾ 이와같이 조사 대상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69.2%가 본사·공장통합형의 기업조직구성 양상을 보이나, 대부분 영업소를 수도권이나 고객업체 근접지역에 별도로 두고 영업 및 서비스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조직구성 형태

(단위:개소, %)

구 분	본사 단독형	본사·공장 통합형	본사·공장 분리형	기타	계
전체 제조업체	519 (19.8)	1,639 (62.5)	452 (17.2)	11 (0.5)	2,621 (100.0)
조사업체	10 (12.8)	54 (69.2)	13 (16.7)	2 (1.3)	79 (100.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면담사례조사에 의하면, 지방소재 본사·공장통합형 업체들은 첫째, 서울에 영업소를 두고 해외모기업과의 교류업무 및 기획·인사·관리 등 기업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며, 둘째, 국내에 별도의 연구개

51)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조직 분화는 본사·공장통합형 62.5%, 본사단독형 19.8%, 본사·공장분리형 17.2%, 기타 0.5%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사단독형은 국내투자단계상 영업에서 점차 생산 및 영업활동으로 진전되는 형태의 초기단계의 경우에 주로 나타나는 조직분화형태이다.

발부서를 두지 않은채 해외모기업의 기술을 단순 적용하여 생산·판매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합작 및 인수합병업체들은 국내 합작·기존업체의 기업조직구성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

(3) 생산 특성

① 주요투자업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들은 반도체 장비, LCD, 자동차부품, 굴삭기, 첨단군수장비, 선박용품, 산업용 공정자동제어장치 등에서부터 김치제조, 접착제 등 생활관련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업종별 분포 현황을 보면 화합물 및 화학제품(22.8%), 기타기계 및 장비(15.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15.2%)의 순이다. 이러한 업종분포는 전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업종분포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표 4-7> 조사업체의 업종별 분포

(단위:개소, %)

업종	빈도수	업종	빈도수
음·식료품 제조업	5(6.3)	제1차 금속산업	-
담배 제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3(3.8)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2(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15.2)
봉제의복 및 포피제품 제조업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1.3)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3.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15.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12.7)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2.5)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8(22.8)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3(3.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5.0)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1.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합계	79(100.0)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2.0%,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8.3%, 화합물 및 화학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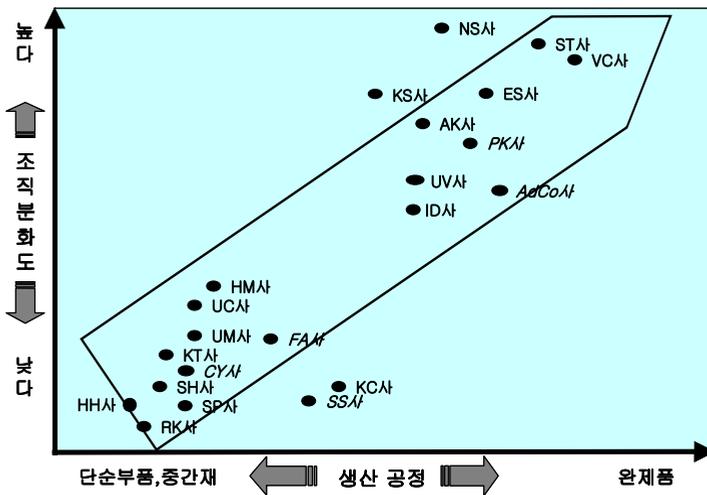
제조업 13.7%의 순이다. 이를 국내 제조업종 분포와 비교해 보면, 국내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체비중(2.67%)을 상회하는 업종은 23개 업종 가운데 기타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1차금속,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화학물 및 화학제품 등 8개 업종에서이다. 최근들어 국내 첨단기술 수준의 성장과 고도기술수반업종에 대한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지원정책 추진으로 국내 고도기술을 활용하여 첨단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합작투자하는 기업체가 점차 증대하는 경향이다.

② 생산품 성격 및 생산공정단계

조사업체들은 생산공정 단계별로 기초소재·원자재 생산업체 10개소(13.0%), 중간재·부품생산업체 23개소(29.9%), 최종재·완성품 생산업체 42개소(54.5%)로 나타나 부품·조립형과 기계장비관련 최종·완성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생산품 성격에 따라 기초소재형 23(29.1%), 조립가공형 44(55.7%), 그리고 생활관련형 12(15.2%)등이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각기 26.2%, 57.1%, 16.7%의 분포를 보이고, 국내 제조업체는 각기 22.3%, 45.0%, 32.6%로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기초소재형 및 부품조립·기계장비형 제조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기업규모, 조직특성(성숙도, 기업조직구성), 생산특성(생산제품 및 공정단계)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특성 상호간 관계를 보면, 업체의 성숙도와 규모는 유의적인 관계를 발견하기 곤란한데 비해 생산품의 특성여하와 기업규모 및 기업조직구성 간에는 어느정도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⁵²⁾ 부품이나 중간재 생산업체의 공간분화도는 최종재·완제품 생산업체에 비해 본사·공장통합형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52) 범주형 변수간의 상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χ^2 검정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상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생산품특성과 조직분화도 변수간의 교차분석결과, χ^2 값이 16.772이고 유의수준(p값)이 0.075로 10% 유의수준에서 두 변수간에 독립적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어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이텔릭체는 사전조사업체임

<그림 4-1> 사전조사 및 면담사례업체의 생산품 성격과 기업조직구성 관계

<표 4-8> 면담사례업체의 조직특성

내용	유형화 내용	사례업체 (17개 업체)
기업 규모	고용 대기업(300인 이상)	KT사(1100명), VC사(1300명), ST사(900명)
	중기업(50~299인)	UV사, ID사, NS사, ES사, KS사, NF사, SP사, SH사, AK사
	소기업(49인 이하)	RK사, HM사, UC사, KC사, HH사
조직 특성	매출액 1,000억원 이상	KT사, ST사
	100~500억원 미만	UV사, ID사, NS사, ES사, UC사, KC사, SH사
	100억원 미만	RK사, HM사, VC사, KS사, NF사, SP사, HH사, AK사
	성숙도 신생기업(1998~2001년)	ID사, ES사, ST사, VC사, UC사, KS사, NF사, HH사, SP사
	성숙기업(1997년 이전)	UV사, RK사, NS사, HM사, KC사, SH사, AK사
생산 특성	기업 조직 구성 본사·공장통합형	ID사, ES사, UC사, KS사, NF사, HH사, SP사, UV사, RK사, HM사, KC사, SH사
	본사·공장 분리 분리(※실질본사기능)	ST사, VC사
	본사, 공장 분리	NS사, KT사, AK사
생산 공정	기술 수준 첨단기술제품	UV사, RK사, KT사, ST사, SP사
	일반기술제품	VC사, ID사, NS사, ES사, KS사, NF사, SH사, AK사, HM사, UC사, KC사, HH사
	부품 및 중간재	NS사, HM사, KT사, UC사, HH사
	완제품 및 최종재	UV사, RK사, ST사, SP사, VC사, ID사, ES사, KS사, NF사, SH사, AK사, KC사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특성

(1) 투자진입방식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진입방식(mode of entry)은 단독신설투자,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 자본참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진입방식은 단독신설업체 22개소(27.8%),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업체 51개소(64.6%), 기타 6개소(7.6%) 등이다.⁵³⁾

이를 투자시기별로 보면,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투자진입방식은 주로 단독신설투자가 높으며,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업체의 약 1/3이 이 기간중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이와같이 단독신설 투자방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투자인센티브 등 외국인투자유치 시책추진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표 4-9> 조사업체의 투자진입방식과 시기별 분포

(단위:개소, %)

구 분	~ 1979년	1980~1989년	1990~2001년		계
			1990~1997년	1998~2001년	
단독신설투자형	3(13.6)	3(13.6)	8(36.3)	8(36.3)	22(100.0)
합작·합병형	4(7.8)	14(27.5)	16(31.4)	17(33.3)	51(100.0)
기 타	-	1(16.7)	2(33.3)	3(50.0)	6(100.0)
계	7(8.9)	18(22.8)	26(32.9)	28(35.4)	79(100.0)

주: 기타는 자본참여 및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형태

(2) 투자 동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투자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53)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단독신설업체 비율(투자비율 100%)은 699개소로 전체의 26.7%를 차지하며, 기타는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 자본참여 등의 투자진입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초기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을 기피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며, 초기에는 국내영업·판매활동을 하다가 점차 생산활동까지 확대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는 면담사례조사업체들(RK사, NS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다. 투자동기에 따라 조사업체들을 시장·판로개척형, 생산비 절감 및 생산거점형, 기술교류형으로 크게 유형화할 수 있다.

시장·판로개척형은 국내투자동기가 국내시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거점형은 국내의 비교적 높은 생산성이나 낮은 인건비 등을 목적으로 생산기지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기술교류형은 국내 첨단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와 해외첨단기술의 국산화를 도모하는 쌍방향의 기술교류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투자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조사업체의 투자동기별 분포는 시장·판로개척형이 전체 업체의 47.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생산비 절감 및 생산거점형 29.1%, 기술교류형 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시장·판로개척형은 1998년 이후에 투자비중이 높아졌으며, 생산비 절감 및 생산거점형은 주로 1980년대 이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주요 국내투자동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교류형은 절대 비중은 낮지만 최근에 투자비중이 증대하고 있으며 국내선진기술을 활용·협력하기 위해 투자하는 사례가 증대하고 있다. 면담사례 조사업체 가운데 첨단군수품 생산업체인 ST사는 프랑스의 군수업체인 탈레스사가 국내 대기업의 선진기술을 합작 활용하는 동시에, 국내 시장개척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합작투자한 사례이다. 한편, 진공관련 장비제조업체인 UV사 해외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내 투자가 결정된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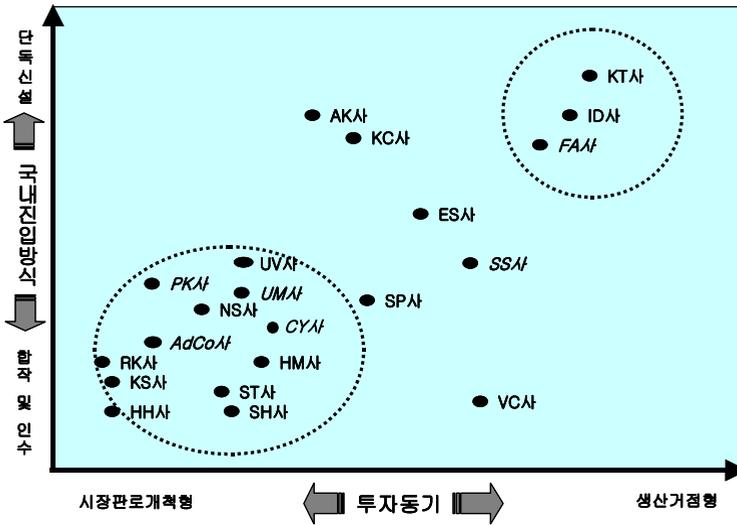
<표 4-10> 조사업체의 투자동기 변화추이

(단위:개소, %)

구 분	~1979년	1980~1989년	1990~2001년		계
			1990~1997년	1998~2001년	
시장·판로개척형	2	8	16	11	37(46.8)
생산비절감 및 생산거점형	4	7	5	7	23(29.1)
기술교류형	1(1)	4(1)	3(1)	6(3)	14(17.8)
기타	-	-	1	4	5(6.3)
계	7	19	25	28	79(100.0)

주: 괄호안은 국내 선진기술을 이용·협력하기 위해 국내투자가 이루어진 업체수이며, 음영처리된 부분은 시기별 평균투자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임

조사업체들은 투자특성 가운데 투자진입방식과 투자동기 간에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다.⁵⁵⁾ 즉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진입방식과 투자동기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생산거점형 업체의 경우는 단독신설 투자방식을 주로 취하는데 비해, 시장·관로개척형 업체들은 국내기업과의 합작투자나 인수합병 방식을 통해 기존업체의 기업이미지나 영업망을 그대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사전조사 및 면담사례업체의 투자진입방식과 투자동기간 관계

(3) 투자국 및 투자비율

조사업체의 투자국별 분포는 일본계 46.1%, 유럽계 26.9%, 미주계 17.9%, 아시아계 7.7%, 기타 1.3%의 순이다. 이를 투자시기별로 보면, 1997년 이전에는 일본, 유럽계 국가가 높은 비중을 이루었는데 비해 1998년에는 유럽 및 아시아국의 투자비중이 높아지면서 투자국에 있어서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

55) 조사업체의 투자진입방식과 투자동기간의 교차분석결과에 대해 χ^2 검정을 실시한 바에 의하면, χ^2 값이 6.825이고 유의수준(p값)이 0.067로 10% 유의수준에서 두 변수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그러나 투자액에 있어서는 유럽계와 미주계 국가의 투자규모가 현저하게 높은 편이다.

<표 4-11> 조사업체의 투자국 분포와 추이

(단위:개소, 천 달러, %)

구 분	전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			
	1997년이전		1998년이후		1997년이전		1998년이후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업체수	투자액
미주계	813 (26.7)	3974293 (24.9)	1099 (20.8)	7432711 (28.9)	8 (17.8)	46,672 (4.3)	6 (21.4)	207,561 (28.9)
유럽계	541 (17.8)	6344142 (39.8)	568 (10.7)	10990038 (42.7)	14 (31.1)	15,968 (1.5)	9 (32.1)	469,426 (65.4)
일본계	1270 (41.7)	3819215 (23.9)	821 (15.5)	3285631 (12.8)	20 (44.4)	1,031,001 (94.2)	9 (32.1)	2,519 (0.4)
아시아계	364 (11.9)	1786971 (11.2)	2602 (49.3)	3924875 (15.2)	3 (6.7)	116 (0.0)	3 (10.8)	38,269 (5.3)
기타	59 (1.9)	31761 (0.2)	198 (3.7)	111284 (0.4)	- (-)	- (-)	1 (3.6)	43 (0.0)
계	3047 (100.0)	15956382 (100.0)	5288 (100.0)	25744539 (100.0)	45 (100.0)	1,093,757 (100.0)	27 (100.0)	717,775 (100.0)

조사업체의 평균투자비율은 약 65%로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체 제조업의 평균투자비율 59%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시기별로 투자비율의 변화양상을 보면, 100% 단독투자업체는 국내 전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100% 단독투자업체의 1998년 이후 성장세(60.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997년 이전 20.8%에서 1998년 이후는 21.5%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표 4-12> 조사업체의 투자율별 분포와 추이

(단위:개소, %)

구 분	전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		
	1997년이전	1998년이후	계	1997년이전	1998년이후	계
10%미만	115(3.8)	144(2.7)	263636(1.0)	7(14.6)	3(10.7)	10(13.1)
10~50%미만	935(30.7)	806(15.3)	5938884(23.2)	17(35.4)	13(46.4)	30(39.5)
50~75%미만	536(17.6)	581(11.0)	6059199(23.7)	11(22.9)	4(14.3)	15(19.7)
75~100%미만	246(8.0)	556(10.5)	2701830(10.5)	3(6.3)	2(7.1)	5(6.6)
100%	1215(39.9)	3198(60.5)	10632489(41.6)	10(20.8)	6(21.5)	16(21.1)
계	3047(100.0)	5285(100.0)	24596038(100.0)	48(100.0)	28(100.0)	76(100.0)

<표 4-13> 면담사례업체의 투자특성별 유형화

구분	유형화내용	면담 사례업체 (17개 업체)
투자 진입 방식	단독신설투자형	ID사, KT사, UC사, KC사, AK사
	합작투자형	RK사, HM사, ES사, KS사, ST사, HH사, NF사, SP사, SH사
	인수합병(M&A)	VC사, ST사
	국내합작투자→단독투자 전환	UV사, NS사
투자 동기	시장·판로개척형	HM사, UC사, KS사, SP사, SH사, AK사, NS사
	생산비 절감·생산거점형	ID사, RK사, KT사, ES사
	기술교류형	VC사, ST사, UV사, KC사
	기 타	HH사, NF사
투자 비율	100%단독투자	UV사, ID사, KT사, NS사, VC사, UC사, KC사, AK사
	50% ~	ES사, HM사
	50%미만	RK사, ST사, KS사, NF사, SP사, SH사, HH사
투자국	미주계	NS사
	유럽계	RK사, HM사, ES사, VC사, ST사, UC사, KC사, AK사, HH사, SH사
	아시아계	UV사, KT사, KS사, NF사, SP사, ID사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분류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 및 투자특성별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분석을 통해 지역정책적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므로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 등 소재지역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의 조직·생산특성 및 투자행태를 유형화하여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4-14> 조사업체의 조직·투자특성별 유형화

구분	유형구분	유형화 내용
규모 및 조직·생산특성	기업규모	·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조직특성	· 성숙도: 성숙기업형, 신생기업형 · 기업조직구성: 본사·공장통합형, 본사·공장분리형
	생산특성	· 생산공정: 기초소재형, 부품생산·중간재형, 완제품·최종재형 · 기술수준: 첨단기술형, 일반기술형
투자특성	투자진입방식	· 단독신설형, 합작투자·인수합병형
	투자동기	· 생산거점형, 시장·관로개척형, 기술교류형
	투자비율 및 투자국	· 투자비율: 100%투자형, 50~100%미만, 50%미만 · 투자국: 유럽계, 미주계, 일본·아시아계, 기타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 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 특성

(1) 기업규모 및 조직·생산특성별 입지행태

제조업의 입지결정 및 입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으로는 기업규모, 생산제품 특성 및 공정단계, 조직성숙도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생산특성별 입지행태를 살펴보았다.

① 기업규모별 입지행태 특성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가 규모별로 대기업 6개소, 중소기업이 72개소로 규모의 비대칭성이 있어 단순비교·분석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조사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에 있어서 기업규모별 특징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겠다.

첫째,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형은 공장을 지방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고, 중소기업형은 수도권 및 중부권 등 수도권 인접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는 주변여건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주변여건에 의존성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조사업체의 경우, 대기업들은 주로 지방에 본사와 공장을 입지시키나 해외모기업과의 거래 및 인사·재무관리 등 핵심적인 본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에 영업소·사무소를 별도로 두는 경향이 높다. 그리고 면담사례업체 가운데 VC사는 본사가 경남 창원에 있으나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하는 사무소는 서울 한남동에 있으며, ST사도 경북 구미에 공장이 있으나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 두 업체는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에 의해 기존의 국내업체 공장과 사무소를 활용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본사·공장통합형으로 지방에 입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공하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내 입주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면담사례 업체조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대부분 경기도 평택 어연·한산지구, 충남 천안, 전남 대불, 광주 평동, 경남 진사산업단지 등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내 입주업체가 많은 편이다.

<표 4-15> 조사업체의 기업규모별 입지행태와 특성

(단위:개소, %)

구 분		전체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계
공장소재지	수도권	1 (16.7)	20 (30.3)	21 (29.2)
	지방	5 (83.3)	46 (69.7)	51 (70.8)
	소 계	6 (100.0)	66 (100.0)	72 (100.0)
입지유형	계획입지	4 (80.0)	41 (65.1)	45 (66.2)
	개별입지	1 (20.0)	22 (34.9)	23 (33.8)
	소 계	5 (100.0)	63 (100.0)	68 (100.0)
공장소재지의 동종업체 집적여부	예	1 (20.0)	11 (18.3)	12 (18.5)
	아니오	4 (80.0)	49 (81.7)	53 (81.5)
	소 계	5 (100.0)	60 (100.0)	65 (100.0)

둘째, 조사업체의 입지유형 분포는 계획입지 66.2%와 개별입지 33.8%로 계획입지 입주비중이 높으며,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중소기업형에 비해 계획입지내 분포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면담사례업체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기업들이 주로 국내 대기업과의 합작 및 인수합병으로 기존의 산업단지내 공장을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조사업체의 계획입지 분포비중이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비중(23.5%)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조사시 외국인전용단지업체의 응답비율이 높는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공장소재지의 집적여부에 대해 조사업체의 4/5이상이 집적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 입지해 있다고 응답했으며, 기업규모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국에 대한 정보부족과 위험최소화를 위해 지명도가 높은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영업·판매활동을 시작하다가 점차 투자국에 대한 정보획득 및 생산활동 확대를 하면서 점차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 및 이동경로 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6> 면담사례업체의 기업규모별 입지행태와 특성 분석표

기업규모별	사례업체명 (고용규모)	본사.공장지역	투자진입방식	입지행태 특성
대기업형	ST사 (900명)	본사: 경남 창원 공장: 경남 창원 사무소: 서울 강남구	합작투자	-해외모기업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사무소입지 선정경향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 핵심기능을 수행케하거나 항만(일본) 등 교류가 편리한 지역에 입지
	VC사 (1,300명)	본사: 경북 구미 공장: 경북 구미 사무소: 서울 용산구	인수합병	
	KT사 (1,100명)	본사: 경남 사천 공장: 경남 사천 (외국인전용단지)	단독신설투자	
중소기업형	ID사 (120명)	본사: 경기 평택 공장: 경기 평택 (외국인전용단지)	합작투자→ 단독투자전환	-수도권 및 지방소재의 계획입지 선호경향(외국인기업전용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에 주로 입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지원시책 영향
	AK사 (230명)	본사: 충남 천안 공장: 충남 천안 (외국인전용단지) 전국영업소(6개소)	단독신설투자	
	RK사 (3명)	본사: 경기 안양 공장: 경기 안양 (아파트형 공장)	합작투자	

☞ 면담업체 분석결과: 기업규모별 입지행태상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대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해외모기업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실질적 본사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서울이나 모기업과의 교류가 용이한 지역(항만근접지역)에 입지시키는 양상이 발견됨

② 조직성숙도별 입지행태 특성

조직성숙도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연한으로 하여 구분하였다. 투자시기 분기점을 외환위기로 보고 1962~97년 국내투자업체를 성숙기업으로, 1998~2001년 투자업체를 신생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대상업체(공장 기준)는 투자연한에 따라 성숙기업형 48개소(75.0%), 신생기업형 16개소(25.0%)이다. 이들 조직성숙도별 입지행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업체들은 투자연한에 상관없이 공장이 지방에 입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신생기업형 업체일수록 성숙기업에 비해 지방입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조성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시책의 추진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신생기업형 업체일수록 계획입지 분포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신생기업 중에서 인수합병 및 국내대기업과의 합작투자업체인 경우 기존 업체의 공장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지방산업단지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7> 조사업체의 조직성숙도(투자연한)별 입지행태 특성

(단위:개소, %)

구 분		조직성숙도별 분포		
		성숙기업형	신생기업형	계
공장소재지	수도권	15 (31.3)	3 (18.8)	18 (28.1)
	지방	33 (68.7)	13 (81.2)	46 (71.9)
	소 계	48 (100.0)	16 (100.0)	64 (100.0)
입지유형	계획입지	29 (64.4)	17 (70.8)	46 (66.7)
	개별입지	16 (35.6)	7 (29.2)	23 (33.3)
	소 계	45 (100.0)	24 (100.0)	69 (100.0)
공장소재지의 동종업체 집적여부	예	11 (25.6)	1 (4.2)	12 (17.9)
	아니오	32 (74.4)	23 (95.8)	55 (82.1)
	소 계	43 (100.0)	24 (100.0)	67 (100.0)

셋째, 성숙기업형이 신생기업형 업체에 비해 동종업체가 집적된 지역내에 공장이 소재하는 경향이 높다. 성숙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25.6%가 동

종업체 집적지에 소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신생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투자단계에 입지정보의 부족과 핵심적인 요인에 의해 입지를 결정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행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해외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투자초기단계에는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제약,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지명도가 높고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들 지역은 대체로 잘 구비된 인프라시설, 대규모 시장, 그리고 집적경제기반을 갖춘 대도시나 중심도시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⁵⁶⁾ 그러나 투자연한이 진전되면서 정보증대 및 위험요인 감소, 지방입지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전원적인 생산입지(greenfield) 수요증대 등에 의해 점차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기업확대에 따른 산업연계 및 지원서비스와의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의 증대로 산업집적과 기업네트워킹이 어느정도 형성된 지역으로 이전한다.

<표 4-18> 면담사례업체의 투자연한(성숙도)별 입지행태

기업규모별	사례업체명 (설립년도)	본사.공장지역	입지유형 (투자방식)	입지행태 특성
신생기업 (1998~ 2001년)	ID사 (2001년)	본사.공장: 경기 평택시 (어연.한산 외국인전용단지)	계획입지 (단독시설)	-신생기업일수록 외국인전용단지 등 계획입지 선 호경향
	KT사 (1999년)	본사.공장: 경남 사천시 (진사 외국인전용단지)	계획입지 (단독시설)	
	KS사 (1998년)	본사.공장: 광주광역시 (평동 외국인전용단지)	계획입지 (합작투자)	-합작투자.인수합 병업체는 기존자 산 활용 등 개별 입지 분포경향
	ST사 (2000년)	본사.공장: 경북 구미시 (기존 국내업체 자산활용)	개별입지 (합작투자)	
성숙기업 (~1997년)	HM사 (1988년)	본사.공장: 충남 천안시	개별입지 (합작투자)	-성숙기업들은 대 부분 개별입지나 지방산업단지 분 포경향
	RK사 (1990년)	본사.공장: 경기 안양시 (아파트형 공장)	개별입지 (합작투자)	

56) 창업기업의 입지행태와 관련된 기존의 해외연구들은 대부분 창업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외부 환경에의 적응능력이 취약하며 불안정한 경영기반을 지니고 있으며, 기업정보의 취약, 고객과의 접촉, 다양한 부품의 즉시적인 확보 및 제반 도시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성숙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대도시 주변이나 창업자의 거주지와 근무지 주변 등 입지선택의 폭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웅·차미숙 1994, 88).

③ 생산제품 성격별 입지행태 특성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제품 성격과 생산공정 단계별 입지행태 특성은 다음과 같다.⁵⁷⁾ 첫째, 일반적으로 제조업 공정단계와 입지행태와의 관계는 기초소재 및 부품·조립형 제조업체는 물품조달 및 공급처와의 교류가 중요하므로 가급적 물류가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다. 반면, 최종·완성품형 제조업체는 중간부품의 조달여부와 시장배후지역이 입지선정 및 탐색과정에서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조사업체의 경우, 일반 제조업의 입지행태와 유사성이 발견되나, 해외모기업과의 교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에 따라 항만, 공항과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띤다. 면담조사 사례업체 가운데 해외에서 물자조달을 주로 하는 KT사는 사천공항 및 부산항과의 접근성 등이 입지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둘째, 생산품 특성에 따라 입지유형에 있어서 그다지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공장소재지의 동종업체 집적여부에 있어서 중간·부품재형 업체(31.6%)가 기초소재형(9.1%) 혹은 최종·완성재형(15.6%) 업체에 비해서 동종업체 집적지 분포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산과정상 수요업체 및 공급업체와 밀접한 관계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9> 조사업체의 생산품 특성별 입지행태

(단위:개소, %)

구 분		조사업체의 생산품 특성별 분포			
		기초소재형	중간·부품재형	최종·완성재형	계
공장소재지	수도권	4 (36.4)	5 (21.7)	13 (33.3)	22 (34.9)
	지 방	7 (63.6)	18 (78.3)	26 (66.7)	41 (65.1)
	소 계	11 (100.0)	23 (100.0)	39 (100.0)	63 (100.0)
입지 유형	계획입지	7 (70.0)	11 (50.0)	28 (75.7)	46 (66.7)
	개별입지	3 (30.0)	11 (50.0)	9 (24.3)	23 (33.3)
	소 계	10 (100.0)	22 (100.0)	37 (100.0)	69 (100.0)
공장소재지의 동종업체 집적여부	예	1 (9.1)	6 (31.6)	5 (15.6)	12 (17.9)
	아니오	10 (91.9)	13 (68.4)	32 (86.4)	55 (82.1)
	소 계	11 (100.0)	19 (100.0)	37 (100.0)	67 (100.0)

57) 최근에 투자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정부지원시책상 고도기술수반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조사업체의 입지행태 분석을 위해 첨단기술과 일반기술로 구분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표 4-20> 심층면담 사례업체의 생산품 특성별 입지행태 특성

기업규모별	사례업체명 (생산제품)	본사.공장지역	입지유형	입지행태 특성
기초소재형	UC사 (전지양극재료)	본사.공장: 충남 천안 영업소: 서울 서초구	계획입지	-항만 등 교류용이 지역 입지경향 (경남 사천공항, 부산항만 활용)
중간·부품재	KT사 (적층세라믹콘텐서)	본사.공장: 경남 사천	계획입지	
	ES사 (대구경강관)	본사.공장: 경남 사천	계획입지	
최종·완성재	NS사 (산업용접착제 등)	본사.영업소: 서울 강남구 공장: 천안, 시화지구 연구소: 부산 등	개별입지	-납품업체, 시장 근 접지역 입지경향
	VC사 (굴삭기)	영업소*: 서울 용산구 본사.공장: 경남 창원	개별입지	
	SH사 (선박용 크레인, 갑판기계)	본사.공장: 전남 대불단지 (목포시 삼호중공업 납품) 영업소: 서울 영등포구	계획입지	

☞ 면담업체 분석결과: 생산공정단계별로 입지수요에 있어서 일반 제조업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다만, 면담사례업체 분석결과, 기초소재형 및 중간·부품재형 업체는 계획입지에 분포한 경향이 높으며, 최종·완성재형 업체는 본사.공장이 지방에 입지해 있다라도 영업소기능을 수행하는 사무소를 대도시나 시장지역에 입지시키는 경향

(2) 투자특성 유형별 입지행태 분석

① 투자진입방식별 입지행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진입방식 여하는 입지분포 및 입지행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신설투자형 업체들은 외국인전용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내에 분포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며,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업체들은 기존 국내업체의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입지분포상의 뚜렷한 특성을 발견하기는 곤란하다.

면담사례 조사업체 가운데 단독신설투자업체인 ID사는 경기도 평택의 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산업단지내에 입지한 사례이고, 합작투자기업인 HM사는 국내 대기업의 이미지를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합작한 투자업체로서 기존 국내 대기업의 공장과 사무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VC사와 같은 인수합병업체들은 대부분 본사 및 공장의 입지선정에 있어 뚜렷한 입지행태를 보이지는 않는

다. 그러나 공장이 동종업체 집적지에 분포하는 비율이 단독신설투자형 업체에 비해 약 4배에 이른다.⁵⁸⁾

한편, 합작투자에서 단독투자로 전환한 업체나 영업활동에서 생산활동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한 업체의 경우는 서울 및 수도권 중심도시에 입지하다가 점차 수도권 및 지방의 외국인전용단지로 이전하는 단계별 입지선정패턴을 보이고 있다. 면담사례업체인 UV사는 합작투자 당시(1995년)에는 서울 서초구에 입지해 있다가 2000년 생산활동을 확대·병행하면서 경기도 평택시 외국인기업 전용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사례이다.

<표 4-21> 조사업체의 투자진입방식별 입지행태 특성

(단위:개소, %)

구 분		조사업체의 생산품 특성별 분포		
		단독신설투자형	합작·인수합병형	계
공장소재지	수도권	6 (31.6)	17 (30.9)	23 (31.1)
	지 방	13 (68.4)	38 (69.1)	51 (68.9)
	소 계	19 (100.0)	55 (100.0)	74 (100.0)
입지 유형	계획입지	14 (73.7)	32 (64.0)	46 (66.7)
	개별입지	5 (26.3)	18 (36.0)	23 (33.3)
	소 계	19 (100.0)	50 (100.0)	69 (100.0)
공장소재지의 동종업체 집적여부	예	1 (5.6)	11 (22.4)	12 (17.9)
	아니오	17 (94.4)	38 (77.6)	55 (82.1)
	소 계	18 (100.0)	49 (100.0)	67 (100.0)

② 투자동기별 입지행태

조사업체의 투자동기에 따른 입지분포 및 입지행태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장소재지 분포에 있어서 조사업체들이 지방입지 비율이 높고 투자동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나, 생산거점형 업체의 수도권 입지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시장·판로개척형 업체들의 수도권 입지분포

58) 다국적기업들은 집적의 경제를 누리기 위해 특정산업의 집적지(클러스터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다국적기업은 기존 사업체의 집적, 인프라의 완비, 부품업체의 집적, 기술능력의 집중등이 가져오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집적지역으로 집중하는 특성을 보이며,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주강델타지역 등이 대표적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집적사례이다(삼성경제연구원 2002, 27:28)

가 높으리라는 가정에 상치되는 현상이나, 면담사례업체 조사결과 생산거점형 업체의 경우 대규모 생산인력의 조달이 용이한 지역을 선호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장·판로개척형 업체들은 고객업체 및 대도시와 근접하고 국내 육상교통·물류가 용이한 지역을 선호함에 따라 수도권 등에 입지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생산거점형 업체가 시장·판로개척형이나 기술교류형 업체에 비해 계획입지 선호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면담사례업체인 ID사(경기도 평택시), KT사(경남 사천시) 등은 생산거점형 업체로서 수도권 및 지방소재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내에 입지해 있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동종업체 집적지 분포여부에 있어서 조사업체들은 투자동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면담사례조사에 의하면, 산업용 및 위생용 접착제를 생산하는 NS사의 경우는 고객업체 및 대규모 시장과의 근접성으로 인해 본사를 서울 강남구에 두고 있으며, 공장은 전국적인 영업망 형성으로 인해 국내 육상교통이 용이한 천안지역에 두고 있다. 한편, 대구시에 입지한 사전조사업체인 CY사(섬유용 유연제 생산)의 경우는 계획입지는 아니지만 섬유산업 관련업종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입지해 유사·동종업체 지향적인 입지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2> 조사업체의 투자동기별 입지행태 특성

(단위:개소, %)

구 분		조사업체의 투자동기별 분포			
		시장 판로개척형	생산거점형	기술교류형	계
공장소재지	수도권	10 (30.3)	7 (43.8)	5 (35.7)	22 (34.9)
	지 방	23 (69.7)	9 (56.2)	9 (64.3)	41 (65.1)
	소 계	33 (100.0)	16 (100.0)	14 (100.0)	63 (100.0)
입지 유형	계획입지	20 (64.5)	14 (93.3)	5 (35.7)	39 (65.0)
	개별입지	11 (35.5)	1 (6.7)	9 (64.3)	21 (35.0)
	소 계	31 (100.0)	15 (100.0)	14 (100.0)	60 (100.0)
공장소재지의 동종업체 집적여부	예	4 (12.9)	2 (14.3)	2 (15.4)	8 (13.8)
	아니오	27 (87.1)	12 (85.7)	11 (84.6)	50 (86.2)
	소 계	31 (100.0)	14 (100.0)	13 (100.0)	58 (100.0)

③ 투자비율 및 투자국별 입지행태 특성

조사업체들은 투자국별 입지분포 및 행태에 있어서 유럽 및 미주계가 일본이나 아시아계 업체에 비해 해외모기업에 의한 국내기업의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과정 에 관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사 내지는 영업소를 서울에 두어 해외모기업과의 교류를 용이하게 수행하거나, 지방소재 업체의 경우는 비디오폰 등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해 매일 혹은 수시로 해외모기업과 교류관계를 맺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비율별 입지행태 특성은 투자진입방식과 상관성이 높다. 즉 합작투자에서 단독투자로 투자비율을 늘리는 경우, 면담사례업체들은 공장을 서울지역에서 수도권내 외곽이나 중부권 등 기존에 확보한 영업망을 활용하기 위해 본사 및 공장입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 평동외국인 전용단지나 전남 대불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해있는 면담사례업체의 경우는 투자비율이 10%정도에 불과하며, 외국인전용단지내 입주 및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외국인투자지분을 확보하여 외국인투자업체로 등록하였으며, 이들 업체의 경우 입지선정과정에 외국인투자자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참여만을 하고 있다.

<표 4-23> 조사업체의 투자비율 및 투자국별 입지행태 특성

(단위:개소, %)

구 분	투자비율 분포				투자국별 분포				
	~50%	50~1000	100%	소계	미주계	유럽계	아시아계	소계	
공장 소재지	수도권	11(28.9)	7(38.9)	3(21.4)	21(30.0)	6(50.0)	4(17.4)	13(34.2)	23(31.5)
	지 방	27(71.1)	11(61.1)	11(78.6)	49(70.0)	6(50.0)	19(82.6)	25(65.8)	50(68.5)
	소 계	38(100.0)	18(100.0)	14(100.0)	70(100.0)	12(100.0)	23(100.0)	38(100.0)	73(100.0)
입지 유형	계획입지	22(61.1)	4(25.0)	5(35.7)	31(47.0)	9(81.8)	16(72.7)	20(57.1)	45(66.2)
	개별입지	14(38.9)	12(75.0)	9(64.3)	35(53.0)	2(18.2)	6(27.3)	15(42.9)	23(33.8)
	소 계	36(100.0)	16(100.0)	14(100.0)	66(100.0)	11(100.0)	22(100.0)	35(100.0)	68(100.0)
공장 소재지의 동종업체 집적여부	예	8(23.5)	3(18.8)	13(59.1)	24(33.3)	1(9.0)	3(13.0)	3(13.0)	7(12.3)
	아니오	26(76.5)	13(81.2)	9(40.9)	48(66.7)	10(91.0)	20(87.0)	20(87.0)	50(87.7)
	소 계	34(100.0)	16(100.0)	22(100.0)	72(100.0)	11(100.0)	23(100.0)	23(100.0)	57(100.0)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결정요인 및 이동경로

(1) 유형별 입지결정요인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요소는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업이 실제로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양한 입지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한 두가지 핵심적인 요인만을 근거로 입지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oriarty, 1980: 김용웅외, 1992, 10면 재인용) 이와같이 종합적인 판단이 곤란한 것은 대부분의 기업인에게는 광범위한 지역입지여건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고, 입지여건의 구성요소 중에서 질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 간단히 비용으로 일반화하여 비교할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김용웅, 1992: 10면).

<표 4-24> 제조업의 입지선정요인

학자별	제조업 입지선정요인
Ziehr (1975)	· 고속도로, 부지확장 가능성, 노조활동 정도, 지역시장 접근성, 노동생산성, 지역산업여건, 용수공급, 철도, 노동비용, 숙련노동력, 원료조달처 근접성, 지방세, 공장건설비용, 천연가스공급, 공공교육훈련 지원, 기업주의 거주지, 조세감면
Nordcliffe (1975)	· 인프라시설 가용성(부지가용성, 전지 및 에너지, 철도,도로,고속도로,항만,공항과의 접근성, 용수, 폐기물처리), 규모의 외부경제성(특수제화 및 서비스의 다양성과 질, 서비스공급의 지속성과 신뢰성, 대학·정부기관을 비롯한 지역내 숙련노동력 규모와 다양성), 연계 및 접촉패턴(비즈니스 접촉)
Schmenner (1982)	· 토지비용, 건설비용, 에너지비용, 철도서비스, 시장근접성, 공급처 근접성, 노동비용, 노동조건, 대학시설, 조세, 인프라시설, 정부보조금
Smith (1981)	· 토지가용성, 토지비용, 재정자본, 자본재, 물자(원재료), 에너지, 노동숙련도, 노동비용, 관리자, 시장접근성, 교통 및 항공비용, 집적 및 외부경제성, 연계, 정부정책 및 계획
Harrington Jr. et.al (1989)	· 은행 및 신용기관, security and commodity brokers, 보험 및 부동산 등 생산자서비스(비즈니스서비스), membership 조직, 기타 다양한 서비스들
Beyer & Alvin (1985)	· 교통수단 및 서비스, 통신시설, 금융, 보험, 부동산, 자문,광고, 컴퓨터프로그래밍 서비스, 연구개발시설, 관리 및 공공관계,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법률서비스, 기계장비임대, 건축 및 엔지니어링, 회계, 기타 서비스
Debbage et.al (1991)	· 기술변화(기술적 전문성 수준, 생산혁신, 생산품의 질), 인적자원(노동비용, 노동숙련도, 관리기술), 재정자본(자본비용 및 접근성, 투자자본), 제품가격, 공간적 연계(공급자·시장 근접성, 분배네트워크 형성)
Townroe (1983)	· 노동력 가용성, 지역인센티브, 지방자치단체 지원, 교통시설, 시장접근성, 비정부기구, 관리능력, 부지특성, 회소숙련노동력, 환경, 공급업체 접근성, 공공시설 (입지선정 우선순위별)
Giahnopoulous (1983)	· 노동력 가용성, 시장근접성, 좋은 인프라시설, 토지비용, 공공기관 및 은행 서비스, 관리인력 확보가능성, 기타 인력확보 가능성, 기업주의 거주지, 항만 근접성, 원부자재 공급처, 공항 근접성, 기타 (입지선정 우선순위별)

자료: 김용웅 외. 1992. 「지역간 제조업활동여건 격차에 관한 행태분석」 국토연구원. p.11~12, p.20

국내 제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들도 지역, 시기, 대상업종 등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입지결정요인으로는 공장용지가격 및 확보의 용이성, 인력확보의 용이성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김용웅·차미숙, 1994: 11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해외의 실증연구들은 공간계층단위 및 투자대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 시기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단위의 입지결정요인으로는 시장규모, 시장·고객접근성, 국가간선망과의 연계성, 노동의 질 및 노동력 확보,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및 자치단체의 태도 등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시장규모, 시장접근성, 노동비용 및 노동시장여건, 인프라 수준, 집적경제기반, 지방정부의 유치정책과 인센티브, 지역산업화 수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집적도 등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ng et.al, 1987, 2000; Sun et.al, 2002).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의 입지결정요인은 본사와 공장이 다소 순위에 있어서 상이할 뿐 요인 자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의 입지결정요인으로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28.1%), 고객 및 시장접근성(15.8%), 편리한 교통접근(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도권 업체와 지방 업체간⁵⁹⁾의 입지결정요인도 중요도에서의 차이만 있을 뿐 이상의 세가지 요인이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중요도에 있어서 지방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공장입지를 결정하는데는 저렴한 지가와 임대료 수준이 매우 결정적인 요인으로 응답한데 비해, 수도권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저렴한 지가와 편리한 교통접근 때문에 수도권에 공장입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9) 대한상공회의소(1990)가 수도권 제조업체 대상의 입지결정요인 조사결과, 공업용지가격 및 확보용이성, 노동력 확보, 금융 및 세계상 혜택, 용수 및 전력공급, 시장 및 관련산업과의 근접성, 생활환경의 쾌적성, 생산자서비스 및 정보서비스, 수송연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1년 전국 제조업체 대상의 조사결과에서는 공장용지가격과 인력확보, 용수 및 전력공급, 원부자재 공급, 수송연계 등의 순으로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웅·차미숙 1994, 114:115).

<표 4-25> 조사업체의 입지결정요인 분석표

구 분		수도권 업체	지방 업체	전체
본사 입지결정요인	1순위	편리한 교통접근 (21.5%)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26.7%)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21.4%)
	2순위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17.7%)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25.3%)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20.8%)
	3순위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15.2%)	편리한 교통접근 (12.0%)	편리한 교통접근 (16.9%)
공장 입지결정요인	1순위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23.3%)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31.6%)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28.1%)
	2순위	편리한 교통접근 (23.3%)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15.2%)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15.8%)
	3순위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16.7%)	편리한 교통접근 (10.1%)	편리한 교통접근 (15.8%)

주: 조사업체에 대해 복수응답결과를 순위별로 정리하였음

① 기업규모 및 생산·조직특성별 입지결정요인

제조업 입지결정요인의 중요도는 기업규모⁶⁰⁾, 생산공정단계 및 생산품 성격, 성숙도 등 조직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⁶¹⁾ 조사업체의 경우도 조직특성에 따라 입지결정요인의 중요도에 있어서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⁶²⁾ 그리고 면담사례업체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용특성에 따라 생산직 고용수요가 높은 업체들은 생산

60) 상공부(1991)의 중소기업실태조사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입지결정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노동력 확보용이, 공장용지 가격의 적정성, 관련기업의 접근성이 주요 입지결정요인이나, 기업규모가 49 인이하의 소규모업체인 경우는 50인이상 업체에 비해 관련기업과의 접근성, 시장접근성, 산업서비스 이용 등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김용웅·차미숙 1994, 115:116).

61) 제조업체의 조직적 특성이 다른 국가별로도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경우, 대도시에서 지원지역으로 이주하는 제조업체는 새로운 지역내 노동력 확보가능성, 지역적 정부지원정도, 지방정부 보조, 수송시설 등이 비교적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는데 비해 원부자재 공급처, 공공서비스는 낮은 입지결정 우선순위를 보인다. 반면, 그리스의 아테네 지역내 제조업체의 경우는 노동력 확보용이, 시장접근성, 공공시설 양호, 개인소유 토지보유, 공공 및 은행서비스, 관리인력 확보용이, 원부자재 확보용이, 공항근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이전업체는 본사와 생산기능이 분리되어 지방으로는 분공장을 이전하는 반면, 그리스 아테네의 경우는 기업조직의 분화도가 높은 중소기업이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용웅외 1992, 19).

62) Dyer(1996)는 자동차 조립공장은 부품공급업자와의 근접성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력 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전문·기술인력 조달이 용이한 관련업체 밀집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생산공정단계나 생산품 성격에 따라 부품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비해 최종·소비재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대도시 및 고객업체 근접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 1998년이후 투자한 신생기업 가운데 몇몇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제공 및 행정서비스 지원 등 투자인센티브 혜택이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투자특성별 입지결정요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는 기업의 투자동기, 투자진입방식, 투자비용, 투자국 등 투자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외 실증연구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조사업체의 투자특성에 따른 유형별 입지결정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동기가 생산비 절감 내지 생산거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인 경우는 노동력과 임금수준, 공장부지 확보 및 가격, 접근성 및 인프라수준 등이 주요한 입지 결정요인인데 비해, 시장·판로개척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국내 관련시장규모와 대도시 근접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첨단기술 지향형의 경우는 대학 및 전문가 확보여부, 관련 첨단기술업체 및 연구기관의 집적도, 혁신지향적인 사회제도를 중시하고 있다.⁶³⁾ 면담 사례 업체조사에 의하면, 투자동기에 따라 시장·판로개척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수도권 및 대도시 등 시장규모와 근접성, 교통접근성 등을 중시하는데 비해, 생산거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생산인력의 조달용이성, 원부자재 구입 및 제품수출을 위한 항만, 도로 등 교통시설 접근성이 입지결정요인의 순위에서 높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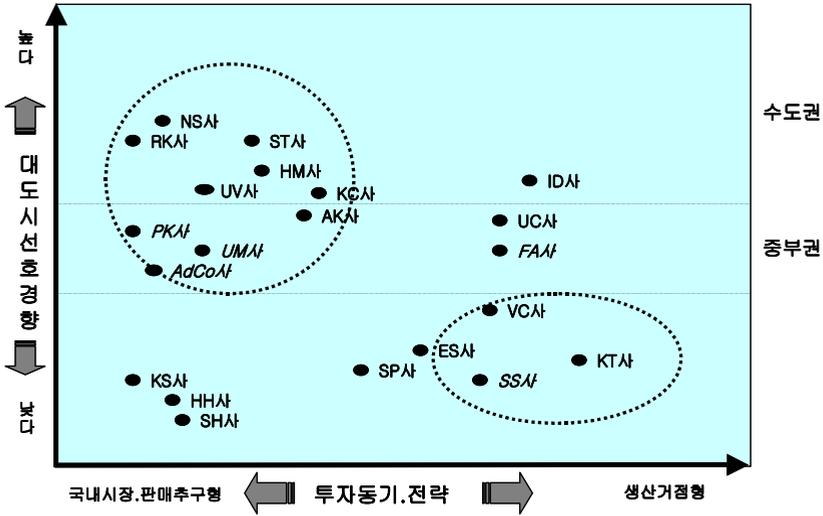
둘째, 투자진입방식에 따라 인수합병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신설투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과는 달리 기존업체의 입지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

63)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 스코틀랜드의 실리콘글랜에 입지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체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에 독자적인 입지결정요인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투자비용이 높을수록 투자 대상국내 입지지역의 선정에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사례업체 조사에 의하면, 국내업체 인수합병 및 합작투자형 외국인직접투자 기업들은 기존 국내업체의 자산을 그대로 활용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입지결정상의 특이점을 발견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이들 업체의 경우 유사동종업종의 집적지역내 입지가 투자결정에 인센티브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수도권 및 지방의 외국인전용공단내에 입지한 단독시설투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태도와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혜택이 주요한 입지결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조사업체의 유형별 입지결정요인

구 분	기업규모별		투자진입방식별		투자동기별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단독시설 투자형	합작·인수합병형	시장·판로개척형	생산거점형	기술교류형	
본사 입지 결정 요인	1순위	편리한 교통접근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주요고객, 시장접근성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편리한 교통접근
	2순위	기존업체의 공장인수	주요고객,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대도시 및 도심과의 근접성
	3순위	-	편리한 교통접근	주요고객,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	편리한 교통접근		
공장 입지 결정 요인	1순위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편리한교통 접근, 기존업체의 공장인수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생산직인력 확보용이
	2순위		주요고객,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	주요고객, 시장접근성	주요고객,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	편리한 교통접근
	3순위		편리한 교통접근	주요고객,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	편리한 교통접근,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	주요고객, 시장접근성	주요고객, 시장접근성



<그림 4-3> 사전조사 및 면담사례업체의 투자동기와 입지선호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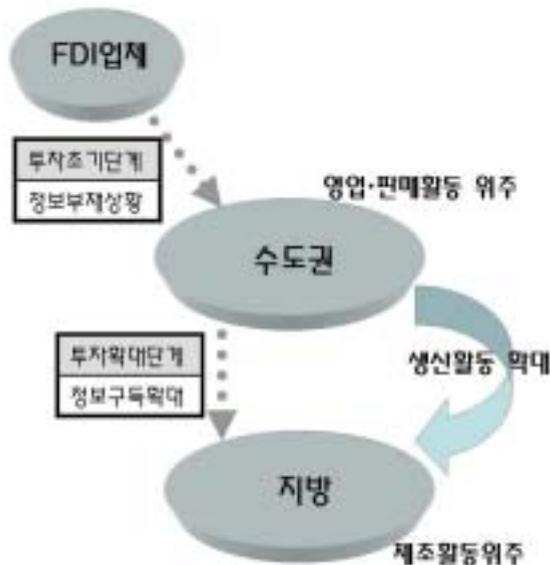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탐색경로 및 선호지역

① 입지탐색 및 이동경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국내입지 선정단계에서 정보를 얻는 주요소스나 방법은 자체조사 분석이 전체 응답업체의 5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11.1%),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및 기관(11.1%), 국내합작회사(9.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재지역에 따라 지방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 국내합작투자회사로부터 주로 정보를 얻는데 비해, 수도권 업체들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 및 기관을 주요 정보구득처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홍보와 무상임대 등 지원시책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⁴⁾

64)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촉진이 정책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었다. 외환위기와 민선 지방자치의 추진으로 지방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서 자치단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국내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이나 전문기관보다 자체조사분석에 의해 입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족 상황에서 지명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이나 대도시 선호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면담사례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대부분 투자초기단계에는 영업·판매활동에서 시작하여 주로 서울 시내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입지해 있다가, 단독투자로 전환 및 생산활동으로 진전하면서 수도권 및 지방으로 공장입지를 탐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⁶⁵⁾



<그림 4-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

체간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유치경합현상이라 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실정이며 실질적인 지역적 효과는 차치하고 지역유치에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65) 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지구에 입지해있는 UV사의 경우는 국내영업활동 수행초기단계에는 서울 서초구에 입지해있다가, 생산활동을 개시하면서 경기도 평택시의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이전하였다. 이 업체의 경우는 생산활동공간 탐색을 위해 기업종사자의 통근거리, 고객과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충남 천안지역을 입지선정 변경한계로 삼고 탐색하였다.

<표 4-27>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별 입지정보 구득 및 투자선호지역
(단위:개소, %)

구 분	기업규모별			성숙도(투자연한)			생산품 특성별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계	성숙기업형	신생기업형	계	기초소재형	중간·부품재형	최종·완성재형	계	
입지정보구득처	자체조사분석	1(12.5)	39(60.0)	40(54.7)	27(57.5)	14(53.9)	41(56.2)	6(54.5)	10(45.4)	24(61.4)	40(55.6)
	지방자치단체	2(25.0)	7(10.8)	9(12.3)	7(14.9)	2(7.7)	9(12.3)	1(9.1)	4(18.2)	4(10.3)	9(12.5)
	외투자원센터	-	8(12.3)	8(11.0)	7(14.9)	1(3.8)	8(11.0)	2(18.2)	4(18.2)	2(5.1)	8(11.1)
	기존FDI기업	-	1(1.5)	1(1.4)	1(2.1)	1(3.8)	2(2.7)	1(9.1)	-	1(2.6)	2(2.8)
	국내합작사	2(25.0)	6(9.2)	8(11.0)	4(8.5)	4(15.4)	8(11.0)	-	4(18.2)	4(10.3)	8(11.1)
	기 타	3(37.5)	4(6.2)	7(9.6)	1(2.1)	4(15.4)	5(6.8)	1(9.1)	-	4(10.3)	5(6.9)
	소계	8(100.0)	65(100.0)	73(100.0)	47(100.0)	26(100.0)	73(100.0)	11(100.0)	22(100.0)	39(100.0)	72(100.0)
투자선호지역	현재입지지역	1(50.0)	27(84.4)	28(82.4)	18(78.3)	11(91.7)	29(82.8)	6(100.0)	5(55.6)	13(86.7)	24(80.0)
	타입지 지역	1(50.0)	5(15.6)	6(17.6)	5(21.7)	1(8.3)	6(17.2)	-	4(44.4)	2(13.3)	6(20.0)
	소계	2(100.0)	32(100.0)	34(100.0)	23(100.0)	12(100.0)	35(100.0)	6(100.0)	9(100.0)	15(100.0)	30(100.0)

② 투자확대 의향 및 입지선호지역

향후 투자확대 의향 및 투자확대시 입지선호지역에 대한 질문에 대해 조사업체의 약 43.2%가 투자확대 의사를, 54.1%가 현상유지의사를, 2.7%만이 투자축소의사를 갖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투자확대 의사를 갖고있는 조사업체들은 대부분(81.6%) 현재 입지지역에서의 추가·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재 이외의 지역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18.4%에 불과하며 환경처리 문제, 인력조달 곤란, 교통접근성 및 물류비용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정부가 산업정책 차원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가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상치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외국인직접투자정책에 있어서 상이한 시책추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즉 수도권에 소재한 다수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정부지원시책이나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 대부분 현재 입지한 수도권지역내 투자확대를 고려하

고 있으므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신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유치시책 보다는 기존에 투자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확대 유도 및 업체관리(account management)위주의 시책 추진이 효과적일 수 있다.

<표 4-28>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입지정보 구득 및 투자선호지역
(단위:개소, %)

구 분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단독 신설투자형	합작· 인수합병형	계	시장 관료개척형	생산거점형	기술교류형	계	
입지정보 구득처	자체조사분석	10 (52.6)	31 (57.4)	41 (56.2)	21 (65.6)	7 (43.7)	8 (57.2)	36 (58.0)
	지방자치단체	3 (15.8)	6 (11.1)	9 (12.3)	3 (9.4)	3 (18.8)	-	6 (9.7)
	외투자원센터	4 (21.1)	4 (7.4)	8 (11.0)	2 (6.2)	2 (12.5)	3 (21.4)	7 (11.3)
	기존FDI기업	-	2 (3.7)	2 (2.7)	-	2 (12.5)	-	2 (3.2)
	국내합작회사	2 (10.5)	6 (11.1)	8 (11.0)	3 (9.4)	2 (12.5)	2 (14.3)	7 (11.3)
	기 타	-	5 (9.3)	5 (6.8)	3 (9.4)	-	1 (7.1)	4 (6.5)
소계	19 (100.0)	54 (100.0)	73 (100.0)	32 (100.0)	16 (100.0)	14 (100.0)	62 (100.0)	
(투자 확대업체 투자선호 지역	현재입지 지역	9 (69.2)	20 (90.9)	29 (82.9)	16 (84.2)	7 (87.5)	4 (66.7)	27 (81.8)
	타입지 지역	4 (30.8)	2 (9.1)	6 (17.1)	3 (15.8)	1 (12.5)	2 (33.3)	6 (18.2)
	소계	13 (100.0)	22 (100.0)	35 (100.0)	19 (100.0)	8 (100.0)	6 (100.0)	33 (100.0)

(3) 조사업체의 유형별 입지여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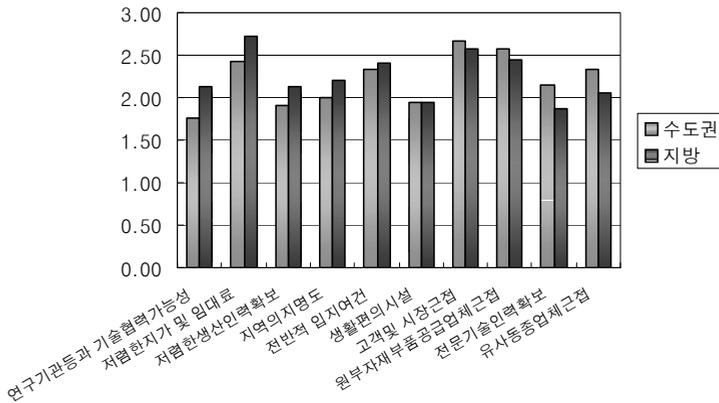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의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40점으로 다소 낮은 편이다. 특히 11개 입지요소 가운데 교육·주거 등 생활편의시설 여건(1.92점), 연구기관·대학 등과의 기술협력여건(1.97점), 경영·마케팅 지원서비스(2.04점) 등 입지요소 측면에서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은 나타났다.⁶⁶⁾ 한편, 고객 및 시장근접성, 교통 및 통신편의성,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평균 입지만족수준(2.40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업체 가운데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 계획입지내 입주비율이 높은 것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소재지역, 조직특성 등이 입지여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66) 입지요소별로 “모르겠다”고 응답한 항목을 제외하고 4점척도로 하여 입지여건 만족도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4:매우만족 3:약간만족 2:별로 만족안함 1: 전혀 만족안함).

나, 조사업체에 있어서는 입지여건 만족도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곤란하여 여기서는 조사업체를 수도권과 지방,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만 구분하여 입지여건 만족도를 비교하였다.

조사 결과, 소재지역에서 지방 외국인직접투자기업(2.42점)이 수도권 업체(2.33점)에 비해, 입지유형에서는 계획입지내 업체(2.58점)가 개별입지 업체(2.22점)에 비해 입지여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조사업체의 입지여건 만족도 (수도권, 지방업체 비교)

4. 주요 분석결과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투자특성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주요 조직특성은 첫째, 조사업체들은 고용 및 매출액 규모에 있어서 다양한 분포경향을 띤다. 그러나 고용규모 측면에서 국내 제조업체는 49인 이하 업체가 전체의 91.1%를 차지하는데 비해 조사업체는 55.3%로 낮으며, 50인 이상 및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이후에 국내에 투자한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단독신설투자 보다는 인수합병형이나 합작투자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을 그대로 승계하거나 활용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체의 평균투자연한은 8년 3개월이고 조사업체는 약 9년이며, 1998년 이후의 신생기업이 조사업체의 35%이상으로 투자시기별로는 전반적인 투자경향과 유사하다. 셋째, 조사업체들은 기업조직 구성에 있어서 본사·공장통합형이 대부분이나 해외모기업과의 교류상 서울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어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조사업체의 생산제품은 첨단기술에서부터 일반기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고도첨단기술수반업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영향으로 수도권 및 중부권에는 반도체, LCD, 진공관련 장비제조 등 첨단·고도기술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대불 및 평동외국인전용단지 등 서남권의 미분양 국가단지내 외국인전용단지 입주업체들은 입주대상업종이 선박기계, 김치제조, 상용차 등으로 업종분포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주요 투자특성은 첫째, 조사업체들은 투자진입방식에 있어서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업체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⁶⁷⁾ 이는 제조 및 생산활동을 하는 제조업이 초기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최소화 등으로 서비스업에 비해 단독투자 보다는 합작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높은 때문으로 해석된다. 둘째, 조사업체의 투자동기별 특성으로는 조사업체의 대부분이 시장·판로개척형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시기별로는 생산비 절감 및 생산거점형 업체들이 1980년대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1990년대 중반이후 시장·판로개척형과 기술교류형 업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면담업체 조사에 의하면, 기술교류형 업체의 경우는 해외기술의 국산화와 국내 선진기술의 활용이라는 쌍방향의 기술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⁸⁾

67) 세계의 외국인직접투자 흐름은 기본적으로 선진국간의 투자형태를 보이며, 선진국간의 투자형태는 M&A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15).

68) 면담사례 업체조사에 의하면, 1980년대까지 국내투자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비와 풍부한 노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분석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상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업체의 규모, 조직특성, 생산 및 투자형태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입지분포는 대기업형일수록 지방에 입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조직유형에 따른 입지행태상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같이 기업규모를 제외하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유형별로 입지분포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집적경제의 이점이 크고, 정보획득이 용이하고, 해외 모기업과 교류가 용이한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집적이익의 격차가 너무 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직, 생산 및 투자형태의 차이로 인한 입지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지방 입지를 선택한 경우도 대부분이 수도권의 집적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중부권에 집중 분포해 있다. 이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국내 입지선정을 위한 탐색단계에서 주로 입지선정을 위한 최장 반경한계로 천안(중부권)을 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원의 통근거리 전문인력 확보, 국토중심부 입지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사업체 가운데 대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방입지 분포경향이 높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주변여건에 상대적으로 독립적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주변여건에 의존성이 높은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입지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대기업은 대규모 산업용지의 필요성이 높고, 전국적인 고객연계나 시장접근이 가능하여 생산비가 저렴한 지역을 찾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대부분 서울에 실질적인 본사기

동력을 주요 국내투자요인으로 삼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요인들이 그다지 중국 등 동남아에 비해서 그다지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근에는 국내 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기술교류 및 시장개척 용이 등을 이유로 하여 국내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을 하는 영업소나 사무소를 두고 영업활동 및 해외와의 교류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에 있어서 조사업체들은 단계별·점진적인 이동 양상을 나타낸다. 투자초기단계에는 영업 및 판매활동에 치중하면서 서울지역 내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생산활동으로 확대 전환하면서 수도권 주변지역 이나 중부권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시책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연계와 협력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투자확대시 조사업체 대부분은 현재 입지하고 있는 지역내에서의 추가확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촉진 및 지원정책의 방향설정에 있어서 기존의 신규기업 유치일변도에서 신규기업 유치 및 기존업체 관리시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들은 공장입지결정요인에 있어서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고객 및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성 등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업체들은 조직특성에 상관 없이 전반적으로 외국인전용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촉진을 위해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용지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입지지원시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촉진 및 지역화를 통해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입지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입지제공⁶⁹⁾과 지원시책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69) 아일랜드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시책의 성과에 있어서 매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일랜드에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담당하는 IDA(산업개발청)는 1969년 산업성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외국기업의 입지, 기업별 재정지원규모와 토지공급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의 사전허가 또는 협의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제조업 및 국제서비스 부문의 해외투자유치 확보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아일랜드내 투자확대 유도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아일랜드에서는 모든 지역이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미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나 공장건물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따라 IDA는 10년전에 산업용 토지를 미리 확보해놓고 기업이 필요로 할때 적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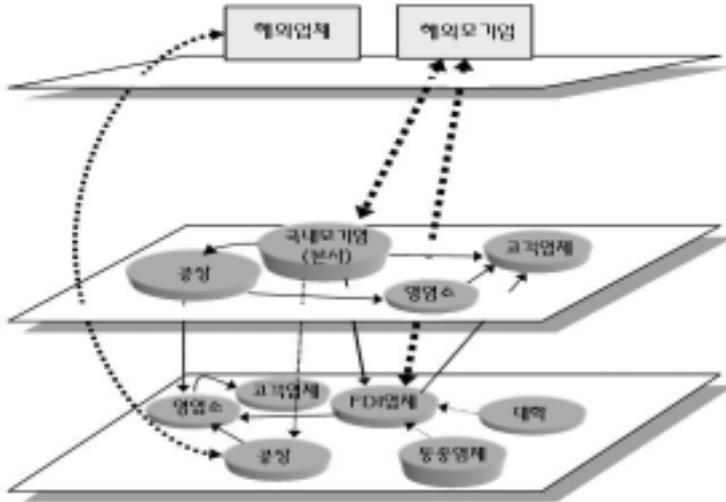
CHAPTER 5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지역연계 분석⁷⁰⁾

지역연계란 생산, 판매를 위한 산업활동 가운데 공간지리적인 차원에서 동일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원·부자재 구입, 제품생산 및 판매 등 전·후방 산업연계(backward and forward linkages) 정도를 나타낸다. 최근 산업연계분석에서는 기업활동과정의 생산·판매활동 뿐만아니라 기업간 협력, 지식교류와 서비스 공급 및 전략적 제휴, 정보연계를 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차원에서 중시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해외모기업과의 관계로 인해 공간적으로 국제·국가·지역 등 다층적(multi-level) 공간에서 생산, 판매를 위한 산업연계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띤다. 여기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 분석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입지에 따른 실질적인 지역경제효과와 통합성 여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분석을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구매·판매·서비스활동에 관한 산업연계 분석과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고용효과 등 지역효과와 지역사회활동 연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70) 이 장의 분석대상, 범위 및 방법은 제4장의 조사설계와 동일하다.



<그림 5-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다층적 지역산업연계 형태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 분석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물자조달 및 구매연계

(1) 구매연계 일반특성

제조업의 구매연계란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원부자재의 구입을 위한 기업간 연계로서, 산업연계과정에서 후방연계(backward linkage)의 역할을 한다. 후방연계는 관련분야의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고 또 다른 후방연계를 촉진하는 연쇄과정을 통해 지역의 생산, 고용,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분석을 위해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업체의 물자조달 및 구매수준을 분석하고 있다.

조사업체의 원부자재 및 기계·장비 총구입액은 연간 평균 18,111백만원이며,

이들은 원자재 54.7%, 부자재 15.6%, 기계장비 29.7%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업체의 공간지리적 구매연계를 살펴보면, 지역내(해당 시·도) 구매비율은 15.2%, 국내 타·시도는 51.2%이며, 해외구매비율은 33.6%로 나타났다. 해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실증연구와 비교하면, 미국 일리노이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물자연계 실증분석(O'huUallachain, 1985)에서는 동일 주내의 구입비율이 34%, 해외 구입비율은 30.8%로 나타났다. 한편, Turok(1993)의 영국 스코틀랜드지역내 전자업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물자구입연계에서 지역내 구매비율은 12%로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서 낮은 지역내 구매연계를 보이고 있다.⁷¹⁾

<표 5-1> 조사업체의 평균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수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업체당 연간구입액 (백만원, %)	물자조달 및 구매연계의 공간분포 비중(%)		
		국내지역		해외지역
		해당시·도	타 시·도	
원자재	9,915 (100.0)	1,086 (11.0)	8,558 (86.2)	274 (2.8)
부자재	2,823 (100.0)	1,008 (35.7)	472 (16.7)	1,343 (47.6)
기계·장비	5,373 (100.0)	666 (12.4)	241 (4.5)	4,466 (83.1)
계	18,111 (100.0)	2,760 (15.2)	9,268 (51.2)	6,085 (33.6)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구매연계 행태는 이들 업체들의 기업운영 의사결정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 업체의 기업운영과정의 의사결정권을 분석한 결과, 투자결정, 기술개발 및 시제품 생산, 전문·기술인력 채용, 제품디자인 및 설계 등 기업운영의 핵심기능에 대해서는 해외모기업과의 합의 및 협의에 의한 결정으로 해외모기업의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협력업체 선정, 마케팅 및 판매, 생산인력 채용, 교육훈련, 노사관리 등 일상적인 기업운영은 국내업체의 자율적인 결정이나 국내업체-해외모기업 간의 합의 및 협의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71) 지역내 구매비율 수준은 산업이나 지역범위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해외지역 실증결과는 기업체의 지역내 연계행태에 대한 개략적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대부분 생산활동과정에서 원부자재 구매, 마케팅 및 판매에 있어서 국내업체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해외모기업과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조사업체의 조직자율성 수준 (모기업과의 관계)

구 분	해외 모기업 전적결정	국내 모기업 전적결정	해외-국내업체간 합의	해외-국내업체간 협의	국내업체 (조사업체) 재량
투자(확대, 축소) 결정			●	○	◎
기술개발 및 시제품생산			●	○	◎
전문.기술인력 채용			◎	◎	●
제품디자인 및 설계	○		◎	○	●
원자재 구매			○	◎	●
마케팅 및 판매			○	◎	●
연봉, 노사관리		○		◎	●
협력업체 선정		◎		○	●
생산인력 채용		◎			●
교육 훈련		◎		○	●

주: 조사업체의 의사결정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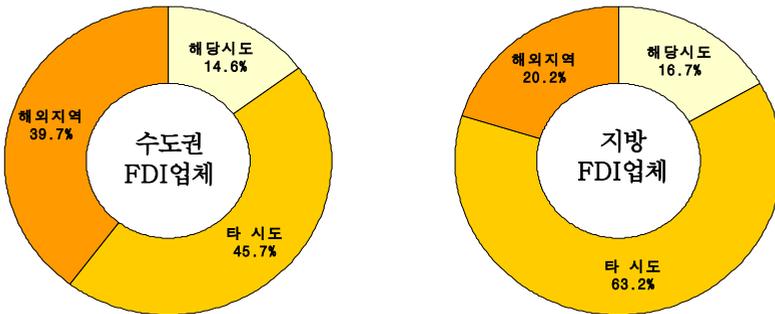
(2) 수도권 및 지방 소재지역별 구매연계

조사업체의 구매연계를 소재지역 여하에 따라 살펴보았다. 수도권 업체의 경우 지역내(해당 시·도) 구매비율 14.6%, 타지역 구매비율 45.7%, 해외 구매비율 39.7%이다.⁷²⁾ 그리고 지방 업체는 지역내(해당 시·도) 구매비율 16.7%, 수도권 및 타 시·도 구매비율 63.2%, 해외지역 구매비율 20.2%로 나타났다. 수도권 업

72)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동향에 관한 분석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글로벌소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원부자재에 대하여 여전히 본국(해외모기업)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들어 일본계 현지법인들이 조달하는 부품이나 원부자재의 본국(일본)의존도는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평균 35~4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삼성경제연구소 2002, 120:121)

체와 지방업체의 지역내 구매연계비율은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해외지역 구매비율에서는 수도권 업체 39.7%로 지방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20.2%)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의존실태에 관해 면담사례업체 가운데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내 소재한 ID사나 경남 사천의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내 소재한 KT사는 원자재 전량을 해외에서 조달하는 동시에 해외수출(판매)비율도 높게 나타나 생산연계상 해외모기업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조업체의 구입연계를 실증분석한 김용웅외(1992:80)의 연구는 제조업체의 지역별 역내 구입비율을 수도권업체와 지방업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수도권 업체의 67.5%, 지방 업체의 35.2%를 해당 권역내에서 원부자재 등 물자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 구매행태 수준에서 현격한 지역간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업체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평균 38.9%에 달하는 원부자재를 구입하고 있어 기업활동에 있어서 수도권 지역의 유리한 여건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업종이나 시기 상의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 등 소재여하에 따른 지역내 구매연계 수준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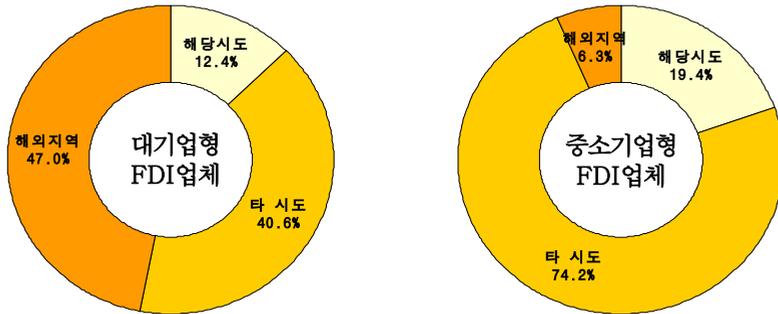
<그림 5-2> 소재지역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비율 비교

(3) 규모, 조직·생산특성 유형별 구매연계

제조업의 구매연계 행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기업 등 기업규모와 생산제품의 기술적 특성여부, 그리고 조직성숙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외 및 국내의 선행실증조사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김용웅외 1992; 김용웅·차미숙 1996; 김동주·권영섭외 2001⁷³⁾ 등).

① 기업규모별 구매연계

조사업체의 기업규모별 구매연계 행태를 보면, 대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지역내 구매비율이 12.4%인데 비해 중소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19.4%로 중소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물자조달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5-3> 기업규모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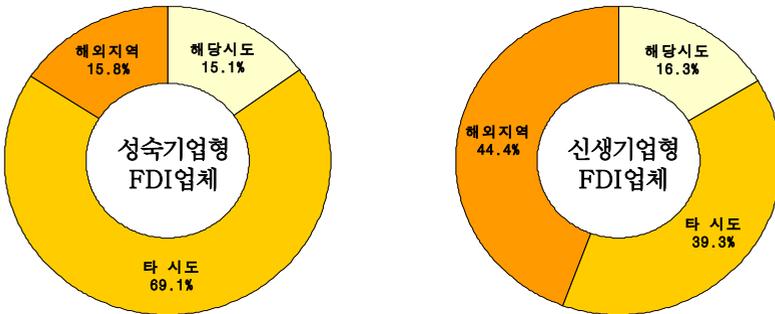
이와같은 조사업체의 기업규모별 지역구매에 관한 분석결과는 조직적응력과 안정성이 비교적 낮은 소규모업체들이 공간지리적 연계범위(industrial space)가 낮

73) 구매(공급자)연계의 수준은 산업이나 지역·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헨드리 등(Chris Hendry, 2000)에 의하면 미국의 메사추세츠주와 아리조나주, 영국 웨일즈와 이스트 안젤리아, 그리고 독일의 Thuringia와 Bavaria 등 3개국가 6개지역에서 광전자산업의 공급자연계를 비교한 결과 지역내가 30~40%, 국가내가 10~70%, 해외가 15~75%의 연계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김동주·권영섭외 2001, 98면 각주 재인용).

다는 기존의 국내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 김용웅외(1992:81)는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내 원부자재의 구입연계를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수도권 업체의 지역내(권역내) 구입비율은 영세 및 중소기업이 각각 94.4%와 80.1%이며, 대기업은 62.7%로서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역내 구매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해외지역 구매비율은 각각 47.0%와 6.3%로 나타나 대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해외 의존비율이 매우 높은데 비해, 중소기업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지역내의 구매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② 조직성숙도별 구매연계

투자시기에 따른 조직성숙도별 구매연계 분석결과, 신생기업형 업체의 지역내 구매비율은 16.3%이고, 성숙기업형 업체는 15.1%로 지역내 구매비율에 있어서 일반 제조업체에서 나타나는 바와같이 지역내 입지가 오래된 성숙기업일수록 지역내 구매연계비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경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해외구매율은 신생기업형이 44.4%인데 비해 성숙기업형 업체는 15.8%로 해외지역 구매율은 성숙기업일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⁴⁾



<그림 5-4> 조직성숙도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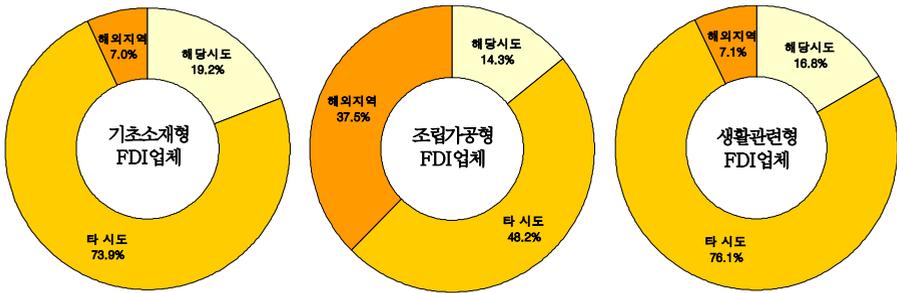
74) 김용웅외(1992)의 연구에서는 수도권내 창업 및 성숙기업의 역내구입은 각각 90.4%와 76.4%로 나타나 조직의 안정성이나 적응력이 낮을수록 산업연계공간(industrial space)이 좁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업체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범역구분의 문제와 관련해 볼 때, 해당 시·도에 한정했을 때는 일반적인 구매형태와 상이하나, 공간범역을 국내 전체로 했을 때는 성숙될수록 구매연계가 높아지는 행태를 보여 일반 제조업의 구매형태와 유사하다.

③ 생산제품 특성별 구매연계

생산품 특성에 따른 조사업체의 구매연계 분석결과, 기초소재형 업체의 지역내 구매비율은 19.2%, 국내 타시·도 73.9%, 해외 7.0%이고, 중간부품·조립형은 각각 14.3%, 48.2%, 37.5%, 그리고 최종·완성재형은 각각 16.8%, 76.1%, 7.1%로 나타났다.⁷⁵⁾

생산제품 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지역내 구매수준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으나, 해외지역 구매수준에 있어서는 기초소재형과 최종·완성재형이 7%수준인데 비해 중간부품·조립형은 37.5%에 달하여 해외지역으로부터의 물자 조달 및 구매연계가 긴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생산품 특성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수준

조사업체의 구매연계는 생산제품 특성 뿐만아니라 소재지역에 따라서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수도권 소재업체이면서 최종·완성재형의 경우는 지

75)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부품조달연계 분석에 의하면 응답업체 269개 가운데 전량 모기업 제공(1.5%), 모기업 위주 및 일부 국내조달(30.9%), 국내조달위주(48.7%),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19.0%) 등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 2001, 42)

역내 구매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지방 소재업체의 지역내 구매비율은 기초소재형을 제외하고는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간부품·조립형은 기계부품의 해외조달 및 조립과정을 거쳐 국내 판매를 하는 생산활동 특성상 다른 제품유형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해외구매비율을 보이고 있다.

(3) 투자특성 유형별 구매연계 실태

투자진입방식에 따라 단독신설투자형 조사업체의 지역내 구매비율은 7.2%인데 비해 합작투자·인수합병형 조사업체의 지역내 구매비율이 18.3%로 나타났다. 이는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업체들은 기존 업체의 국내 지역연계를 그대로 활용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면담사례 조사업체 가운데 VC사는 국내 대기업의 건설기계부문 인수합병에 의해 설립된 형태로 원자재 조달의 약 80%를 국내의 기존 협력업체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표 5-3>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 구매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간구매액 (백만원, %)	물자조달 및 구매연계의 공간분포 비중(%)		
			국내지역		해외지역
			해당시도	타 시도	
투자 진입 방식	단독신설투자	139,521(100.0)	7.2	65.8	27.0
	합작·인수합병	435,922(100.0)	18.3	52.8	28.9
투자 동 기	시장판로개척형	186,869(100.0)	14.5	78.1	7.4
	생산거점형	94,293(100.0)	7.8	57.6	34.6
	기술교류형	41,004(100.0)	39.7	57.3	3.0

투자동기 유형에 따른 구매연계의 공간연계행태를 보면, 시장·판로개척형 및 기술교류형 업체의 지역내 구매비율이 각각 23.8%와 27.7%인데 비해 생산거점형 업체의 지역내 구매비율이 42.2%에 달하며 해외지역 구매비율도 다른 유형의 거의 2배에 달하는 39.3%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징적인 점은 생산거점형 외국인직

접투자기업의 경우 해외구매 의존비율이 시장·판로개척형이나 기술교류형 업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다. 이외에 조사업체들은 투자국 및 투자비율에 따라 구매연계상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⁷⁶⁾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판매연계

(1) 조사업체의 판매연계 일반특성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들은 기업활동에서 고객업체(70.4%), 해외모기업(18.3%)을 중요한 거래관계로 하고 있으며,⁷⁷⁾ 소재지역, 기업규모 및 조직·생산 특성, 투자특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고객업체의 확보방식에 대해 조사업체들은 주로 자체 마케팅활동(47.4%)을 활용하며, 다음으로 기존기업의 거래관계(32.1%), 해외모기업에서 직접 수주를 하는 경우도 20.5%에 달하였다. 이는 조사업체의 고객 및 판매연계에 있어서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해외모기업과의 거래관계가 중시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지방소재 업체는 수도권 소재업체에 비해 해외모기업에서 직접 수주를 하는 비율이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참조).

조사업체의 판매연계의 공간지리적 분포를 보면, 해당 시·도내 42.4%, 타 시·도 28.6%, 해외(수출) 29.0%로 나타났다. 한편, 소재지역에 따라 수도권 소재업체의 경우는 지역내 69.8%인데 비해 지방 소재업체는 17.7%에 불과하여 소재지역에 따라 지역내 판매연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수도권 업체의 지역내 판매비율이 높은 것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국내투자 진입단계에 영업 및 판매활동 위주에서 점진적으로 생산활동으로 확

76) 산업연구원(보도자료, 2002년 9월)에 의하면 조사대상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입성향(매출액 대비 수입액)을 보면 전산업 평균이 36.1%로 국내 제조업평균 37.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직접투자기업 업종별로는 코크스, 석유정제 및 핵연료업이 67.4%를, 의료,정밀,광학기기가 51.9%의 순이다.

77) 김동주·권영섭의(2001, 97:98)의 연구에서는 지역별 업체의 중요한 거래관계 설문조사결과 구미 전 자산업 및 경기도 의약품 업체의 경우는 고객업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데 비해, 대전 ICT업체들은 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업체와의 거래관계가 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 투자하는 영업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외판매(수출) 비율도 수도권 업체에 비해 지방 업체가 약 3.3배 높게 나타나 지방에 입지한 업체의 경우 어느정도 생산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5-4> 조사업체의 판매연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업체당 연간매출액 (백만원)	판매의 공간분포 비중(%)		
		국내지역		해외지역
		해당시·도	타 시·도	
계	23,355(100.0%)	42.4	28.6	29.0
수도권	35,252(100.0%)	69.8	17.1	13.1
지 방	17,500(100.0%)	17.7	39.5(20.3)	42.8

(2)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 유형별 판매연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규모별 판매연계 실태를 보면, 대기업형 업체들은 지역내 판매비율 55.0%, 국내 타시·도 9.4%, 해외 35.6%인데 비해, 중소기업형 업체들은 각각 35.3%, 39.3%, 25.5%로 지역내 판매연계는 대기업형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외판매 비중에 있어서도 중소기업형 보다는 대기업형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생산품 특성에 따라 중간부품·조립형(51.0%), 최종완성품형(33.7%), 기초소재형(20.9%)의 순으로 지역내 판매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간부품·조립형은 지역내 판매와 해외지역 판매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기초소재형이나 최종완성재형의 경우는 해외판매비율⁷⁸⁾상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직성숙도에 따라 신생기업형 업체의 지역내 판매비율은 62.3%인데 비해 성

78) 산업자원부(보도자료, 2002. 9)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은 한국 33.2%, 일본 24.6%, 미국 10.6%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미국,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비해 수출지향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모기업 의존도는 수출 28.5%, 수입 34.4%로 상대적으로 생산기지 역할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숙기업형 업체는 지역내 판매 22.3%, 국내 타시·도 42.5%로 전국적인 판매연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별 판매연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간판매액 (백만원, %)	판매연계의 공간분포 비중(%)		
			국내지역		해외지역
			해당시도	타 시도	
기업 규모	대기업형	607,435(100.0)	55.0	9.4	35.6
	중소기업형	1,104,482(100.0)	35.3	39.2	25.5
조직 성숙도	성숙기업형	857,785(100.0)	22.3	42.5	35.2
	신생기업형	854,132(100.0)	62.3	14.8	22.9
생산품 특성	기초소재형	453,796(100.0)	21.0	42.0	37.0
	중간부품·조립형	1,182,237(100.0)	51.0	23.6	25.4
	최종완성재형	75,884(100.0)	33.7	28.5	37.8

(3) 투자특성 유형별 판매연계

조사업체의 투자특성 유형별 판매연계 실태를 보면, 첫째, 투자진입방식별로 단독신설투자형과 합작·인수합병형 업체의 지역내 판매연계 수준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물자조달 및 구매연계 행태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투자동기에 따라 생산거점형 업체들은 지역내 및 해외수출 위주의 극단적인 공간판매 행태를 보이는데 비해 시장·판로개척형 및 기술교류형 업체들은 지역내보다는 수도권 및 타시·도 등 전국적인 판매연계를 나타내고 있다. 면담사례 조사업체 가운데 KT사(90%)나 ID사(90%이상) 등은 생산거점형 업체로 해외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셋째, 투자국 및 투자비율에 따른 판매연계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부표 참조).

<표 5-6> 조사업체의 투자진입방식·투자동기별 판매연계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간판매액 (백만원)	판매연계의 공간분포 비중(%)		
			국내지역		해외지역
			해당시도	타 시도	
투자 진입 방식	단독신설투자형	139,521(100.0)	45.3	23.3	31.4
	합작·인수합병형	435,922(100.0)	40.7	31.5	27.8
투자 동기	시장·판로개척형	186,869(100.0)	23.8	51.3	24.9
	생산거점형	94,293(100.0)	42.2	18.5	39.3
	기술교류형	41,004(100.0)	27.8	50.6	21.6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유형화

조사업체의 물자구매와 판매율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산업연계 패턴을 유형화할 수 있다. 조사업체의 구매 및 판매 지역범위를 해당 시·도로 설정하고, 해당 권역내 평균 물자조달구매와 판매율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표 5-7> 조사업체의 구매 및 판매연계 유형

구 분	지역내 연계 비중이 평균이상 (구매비율 15.2%, 판매비율 42.4%)	해외연계 비중이 평균이상 (구매비율 33.6%, 판매비율 29.0%)
구매연계 (후방연계)	지방 소재형(16.7%), 중소기업형(19.4%), 신생기업형(16.3%), 기초소재형(19.2%) 및 생활관련형(16.8%), 합작·인수합병형(18.3%), 기술교류형(39.7%)	수도권 소재형(39.7%), 대기업형(47.0%), 신생기업형(44.4%), 조립가공형(37.5%), 생산거점형(34.6%)
판매연계 (전방연계)	대기업형(55.0%), 신생기업형(62.3%), 조립가공형(51.0%), 단독신설형(45.3%), 생산거점형(42.2%)	대기업형(35.6%), 성숙기업형(35.2%), 생활관련형(37.8%), 기초소재형(37.0%), 단독신설(31.4%), 생산거점형(39.3%)

지역내 물자조달율은 지역내 동종업체와의 교류, 기술이전 등 업체의 지역화에 영향을 줄 기초적인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조사업체들은 해외의존형, 전국·수도권업체 연계형, 지역자원 활용형 등 세가지로 크게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해외모기업 의존형은 물자조달 및 판매비용의 상당부분을 해외모기업이나 해외에서 조달하는 유형이다. 이에는 면담사례 조사업체 가운데 ID사(경기도 평택시), KT사(경남 사천시)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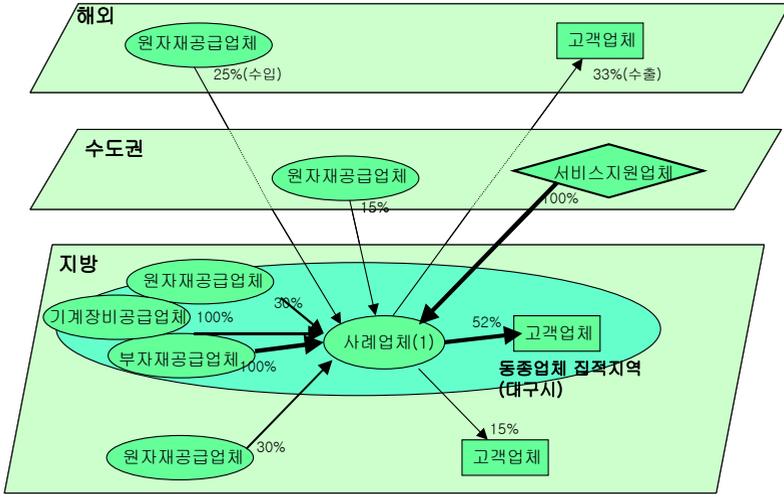
둘째, 전국·수도권업체 연계형은 물자조달 및 판매가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거나 수도권 업체와의 생산연계가 빈번한 유형이다. 면담사례 조사업체 가운데 NS사(충남 천안시), HM사(충남 천안시) 등이 해당된다.

셋째, 지역자원 활용형은 물자조달 및 판매가 주로 지역내에서 이루어져 지역내 산업연계가 매우 높은 유형이다. 면담사례 조사업체 가운데 ES사(경남 사천시), HH사(목포시)와 사전조사업체 가운데 CY사(대구시) 등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들은 구미 기계관련, 대구 섬유산업관련 업체 등 특정업종의 집적지역에 근접해 있는 업체들로 나타나 동종업체의 지역집적화 정도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간의 상관성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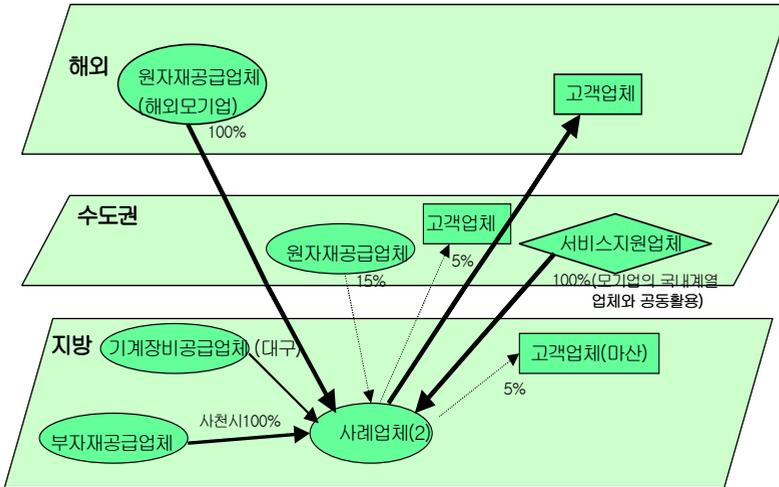
<표 5-8> 면담사례업체 및 사전조사업체의 지역연계 유형

구 분		판매연계 (판매비용)		
		Regional level	National level	International level
구매연계 (물자 조달 비용)	Regional level	HH사 (목포)	CY사 (대구) [지역자원 활용형]	ES사(사천), VC사(구미)
	National level	SH사 (목포)	NS사(천안) HM사(천안), SP사(광주), UM사(천안) [전국·수도권 연계형]	SS사(원주)
	International level	AdCo (진천)	UV사(평택), ID사(평택) RK사(안양), PK사(천안) KC사(천안), AK사(천안) FA사(천안), ST사(창원) KS사(광주)	UC사(천안) ID사(평택) KT사(사천) [해외 의존형]

주1: 조사업체의 지역내 물자조달 및 판매비용 50%기준으로 유형화 (이탤릭체는 사전조사업체)
 주2: regional level은 해당시·도, national level은 수도권 및 전국, international level은 해외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지역자원 활용형]



[해외지역 의존형]

<그림 5-6>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연계 형태

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서비스 및 정보 연계

(1) 서비스 연계

기업활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법률·세무 등 사업지원서비스⁷⁹⁾의 활용에 있어 조사업체의 약 68%가 수도권에 있는 서비스업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한 수도권 지향성을 띤다.⁸⁰⁾

소재지역별로 수도권 업체의 95.7%, 지방 업체의 55.1%가 수도권에 있는 전문 서비스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 업체의 1/3만이 권역내 서비스업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업체의 수도권 소재 사업지원서비스 활용비율이 높은 것은 해외모기업과의 관계로 인해 국제적인 업무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명도가 있는 전문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⁸¹⁾ 지방업체의 경우도 중부권이나 동남권에 소재한 조사업체들은 수도권 서비스업체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서남권에 소재한 조사업체는 지역내 서비스업체나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조사업체의 서비스 연계

(단위: 개소, %)

구 분		계	소재지역별		
			수도권	지 방	
서비스 연계	사업지원서비스 공급지역	수도권 업체	49 (68.1)	22 (95.7)	27 (55.1)
		권역내 업체	15 (20.8)	-	15 (30.6)
		해외, 타지역 업체	8 (11.1)	1 (4.3)	7 (14.3)
		소계	72 (100.0)	23 (100.0)	49 (100.0)

79) 생산자서비스(producer service)로도 불리며 이들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자원동원기능(은행, 금융업, 인력조달 및 훈련), 신상품 개발·제품개선 및 공정혁신지원기능(연구개발, 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생산조직과 경영지원기능(기업관리, 경영상담, 정보처리 및 컴퓨터관련, 회계, 법무서비스), 생산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기능(품질관리, 기계보수 및 관리, 자재조달), 생산품의 유통 및 판매촉진기능(수송, 상업적 중개기능, 마케팅, 광고) 등을 수행한다(Martinelli 1991, 21:22; 김용웅·차미숙 1996, 30면 재인용).

80)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조직이 고도화되면서 정보나 전문서비스는 제조업의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입지요소로 등장하고 있다(MacPherson 1988; 김용웅외 1992, 91면 재인용).

8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서비스업체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지역내에 전문성을 지닌 사업지원서비스 인프라의 부족과 해외모기업과의 거래관계를 들 수 있다.

(2) 정보 연계

기술개발, 원부자재 공급 및 생산, 판매처 및 거래선 확보 등 기업활동과정에서 요구되는 정보연계를 분석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는 기술개발관련 정보는 해외모기업(64.9%)에서, 원부자재 공급 및 생산관련 정보와 판매 및 거래선 관련 정보는 기업내부와 고객업체에서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활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원들이 존재하나 기술 개발에 관해서는 해외모기업이 주요 정보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업체들은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과 투자특성에 따라 서비스 및 정보연계 행태에 있어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도권 지향적인 서비스연계와 해외모기업 의존적인 기술개발 정보연계 경향을 띠고 있다(부표 참조).

<표 5-10> 조사업체의 정보연계(정보구득처)

(단위: 개소, %)

구 분		계	소재지역별		
			수도권	지 방	
정보 연계	기술개발 관련 주요정보처	해외모기업	37 (64.9)	14 (77.8)	23 (59.0)
		기업내부	12 (21.1)	2 (11.1)	10 (25.6)
		고객업체	8 (14.0)	2 (11.1)	6 (15.4)
		소계	57 (100.0)	18 (100.0)	39 (100.0)
	원부자재 공급 및 생산관련 주요 정보처	해외모기업	16 (28.6)	4 (23.5)	12 (30.8)
		기업내부	29 (51.8)	10 (58.8)	19 (48.7)
		고객업체	11 (19.6)	3 (17.7)	8 (20.5)
		소계	56 (100.0)	17 (100.0)	39 (100.0)
	판매처 및 거래선확보 관련 주요 정보처	해외모기업	7 (12.3)	1 (19.6)	6 (15.4)
		기업내부	24 (42.1)	8 (44.4)	16 (41.0)
		고객업체	26 (45.6)	9 (50.0)	17 (43.6)
		소계	57 (100.0)	18 (100.0)	39 (100.0)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기업협력 및 전략적 제휴연계

1) 기업협력 연계

(1) 조사업체의 협력연계 일반특성

하청(subcontracting)은 업체 상호간 협동적인 생산형태의 하나로서 하청을 제공하는 업체가 생산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립적인 타 업체에 생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생산형태이다. 하청은 자본투자와 상시고용 인력의 확대없이 생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시장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위험부담이 높아가는 산업여건 하에서 점차 증대되는 추세를 띤다(Kim 1991, 133).

조사업체 가운데 협력업체가 있는 업체는 전체의 66.7%이며, 협력업체에 대해 주로 기술교류 및 원부자재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조사업체 가운데 협력업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주요 이유로는 생산활동에 “별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업체의 70.0%로 가장 많았다.

한편, 소재지역에 따라 수도권 업체(77.3%)가 지방 업체(62.0%)에 비해 다소 높은 협력업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내 협력가능업체의 집적 등 상대적으로 좋은 산업집적기반 효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1> 조사업체의 기업협력연계

(단위: 개소, %)

구 분			계	소재지역	
				수도권	지방
협력 연계	협력업체 여부	있다	48 (66.7)	17 (77.3)	31 (62.0)
		없다	24 (33.3)	5 (22.7)	19 (38.0)
		소계	72 (100.0)	22 (100.0)	50 (100.0)
	협력업체 없는 경우 이유	필요없음	17 (70.8)	3 (75.0)	14 (70.0)
		기술수준 맞지않음	4 (16.7)	1 (25.0)	3 (15.0)
		기 타	3 (12.5)	-	3 (15.0)
		소계	24 (100.0)	4 (100.0)	20 (100.0)
	협력업체 있는 경우 지원사항	기술교류 및 협력	21 (35.6)	9 (36.0)	12 (35.3)
		원부자재제공	21 (35.6)	9 (36.0)	12 (35.3)
		정보제공	8 (13.6)	4 (16.0)	4 (11.8)
		자금지원,설비대여	9 (15.2)	3 (12.0)	6 (17.6)
		소계	59 (100.0)	25 (100.0)	34 (100.0)

(2) 조직특성 유형별 협력연계

조사업체들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형 조사업체의 83.3%, 중소기업형 조사업체의 64.3%가 하청생산을 위해 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하청생산방식인 업체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고, 규모가 작을수록 외부자원활용이 높아지는 현상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대기업형의 경우 응답업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업체가 포함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조직성숙도에 따라 조사업체 가운데 신생기업의 71.4%, 성숙기업의 64%가 협력업체를 가진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생산품 특성에 따라 기초소재형(43.5%)에 비해 최종완성형(63.6%)과 중간부품형(79.1%) 업체의 협력업체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생산제품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면담사례 조사업체 가운데 부품생산·조립업체인 KT사나 ID사 등은 하청생산방식을 활용하지 않은채 자체생산에 의존하는데 비해, ST사나 VC사와 같이 완성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200~35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이는 생산품의 특성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투자진입방식, 업종특성 등과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2>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별 기업협력연계 비교
(단위: 개소, %)

구 분		기업규모별		조직성숙도별		생산품 특성별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성숙기업형	신생기업형	기초소재형	중간부품형	최종완성형
협력업체 여부	있다	5(83.3)	45(64.3)	32(64.0)	20(71.4)	10(43.5)	34(79.1)	7(63.6)
	없다	1(16.7)	25(35.7)	18(36.0)	8(28.6)	13(56.5)	9(20.9)	4(36.4)
	소계	6(100.0)	70(100.0)	50(100.0)	28(100.0)	23(100.0)	43(100.0)	11(100.0)

(3) 투자특성 유형별 협력연계

투자진입방식에 따라 단독신설투자형 조사업체에 비해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조사업체가 지역내에 많은 생산협력업체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국내업체가 유지하던 생산협력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밖에 투자동기 및 전략, 투자비율 및 투자국 등 투자특성에 따라 조사업체의 생산협력연계 행태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부표 참조).

<표 5-13>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기업협력연계 비교

(단위:개소, %)

구 분		투자진입방식별		투자동기별		
		단독신설형	합작·합병형	시장판로 개척형	생산 거점형	기술 교류형
협력업체 여부	있다	10(45.5)	42(75.0)	24(66.7)	8(53.3)	10(71.4)
	없다	12(54.5)	14(25.0)	12(33.3)	7(46.7)	4(28.6)
	소계	22(100.0)	56(100.0)	36(100.0)	15(100.0)	14(100.0)

2) 전략적 제휴연계

(1) 조사업체의 전략적 제휴연계 일반특성

기술혁신, 경쟁심화 및 시장여건 등 기업체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생산 및 판매활동에 있어서 타 업체와 높은 협력 및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조사업체의 전략적 제휴연계를 보면, 응답업체의 1/3정도가 타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⁸²⁾ 전략적 제휴영역으로는 공동연구개발이 응답업체의 절반이상(47.6%)을 차지하고 설비·공간의 공동활용, 공동마케팅, 공동구매활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역에 따라 수도권 업체들이 지방 업체에 비해 다소 높은 전략적 제휴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이 많은 유사·동종업체나 대학, 연구기관들이 분포해있어 공동기술개발이나 마케팅 등 전략적 제휴를 취하기에 좋은 기업여건을 갖고있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82) 김동주, 권영섭외(2001:121-122)의 기업체 조사연구에 의하면, 구미 전자업체의 19%, 대전 ICT업체의 41.6%, 경기도 의약품업체의 35.6%가 전략적 제휴를 한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구미 전자업체들은 기술-생산의 결합,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분야에서, 대전 ICT업체들은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경기도 의약품업체들은 연구개발 및 기술협력, 제품-마케팅의 결합, 기술-생산의 결합분야에서 주로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조사업체의 전략적 제휴연계 형태

(단위: 개소, %)

구 분		계	소재지역		
			수도권	지 방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관계 경험유무	있다	22 (31.4)	8 (34.8)	14 (29.8)
		없다	48 (68.6)	15 (65.2)	33 (70.2)
		소계	70 (100.0)	23 (100.0)	47 (100.0)
	전략적 제휴활동분야	공동연구개발	10 (47.6)	3 (37.5)	7 (53.9)
		설비,공간공동활용	5 (23.8)	2 (25.0)	3 (23.1)
		공동 마케팅활동	5 (23.8)	3 (37.5)	2 (15.4)
		공동 구매활동	1 (4.8)	-	1 (7.7)
		소계	21 (100.0)	8 (100.0)	13 (100.0)

한편, 입지유형에 따라 전략적 제휴 등 기업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면담사례조사에 의하면, 입지유형에 따라 산업단지내 혹은 유사동종업체 집적지역내에 입지한 조사업체들은 산업단지내 업체간 친목교류 및 정보네트워크가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지역내 섬유유연제를 생산하는 CY사의 경우는 개별입지에 있지만 산업단지내 동종업체간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VC사는 공장이 소재한 창원지역내 대학과 기술개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NS사, KT사는 동종업체간에 교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S사는 해외모기업의 국내 계열업체들간의 판매 및 구매활동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인 부산 DS화학과 컨소시움을 형성하여 생산장비와 생산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KT사는 해외모기업의 국내 계열업체(2개 업체)들과 공동으로 마케팅과 구매활동을 하며 인력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 유형별 전략적 제휴연계

기업규모별 유형에 따른 전략적 제휴활동 여부를 보면, 대기업형 조사업체가 중소기업형 조사업체에 비해 기술교류 및 협력활동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연계를 취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조직성숙도 및 생산제품 특성에 따라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전략적 제휴

활동 수준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부표 참조).

<표 5-15>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별 전략적 제휴연계

(단위:개소, %)

구 분			기업규모별		조직성숙도별		생산품 특성별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성숙기업형	신생기업형	기초소재형	중간부품형	최종완성형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관계 경험유무	있다	3(60.0)	19(27.5)	13(33.3)	10(37.0)	7(31.8)	13(31.0)	3(27.3)
		없다	2(40.0)	50(72.5)	36(66.7)	17(63.0)	15(68.2)	29(69.0)	8(72.7)
		소계	5(100.0)	69(100.0)	39(100.0)	27(100.0)	22(100.0)	42(100.0)	11(100.0)
	전략적 제휴활동 분야	공동연구개발	2(66.7)	9(50.0)	6(50.0)	5(50.0)	2(28.6)	8(66.6)	1(33.3)
		설비·공간공동활용	-	5(27.8)	3(25.0)	2(20.0)	2(28.6)	2(16.7)	1(33.3)
		공동마케팅활동	-	4(22.2)	3(25.0)	2(20.0)	3(42.8)	2(16.7)	1(33.3)
		공동구매활동	1(33.3)	-	-	1(10.0)	-	-	-
		소계	3(100.0)	18(100.0)	12(100.0)	10(100.0)	7(100.0)	12(100.0)	3(100.0)

(3) 투자특성 유형별 전략적 제휴연계

투자진입방식에 따라 단독신설투자형 조사업체⁸³⁾의 14.3%만이 전략적 제휴연계를 가졌다고 응답한 반면,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조사업체의 경우는 3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면담조사 사례업체 가운데 국내대기업의 기술 및 시장확보 차원에서 합작투자한 ST사의 경우는 기존 국내업체의 기업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합작투자사인 NS사는 해외모기업의 국내계열업체간의 제휴활동 뿐만아니라 동종업체와 생산장비 및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매우 적극적인 전략적 제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동기에 따라 기술교류형 조사업체의 경우 시장·판로개척형이나 생산거점형에 비해 전략적 제휴연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제휴활동의 유

83) KT사는 단독신설투자업체이나 해외모기업(일본)이 이전에 국내에 투자한 계열기업과 공동마케팅 및 구매활동, 인력교류 등 계열기업간의 전략적 제휴활동을 취하고 있는 업체 사례이다.

형에 있어서는 공동연구개발이 대다수로 투자특성에 따른 유형별 차이를 발견하기는 곤란하다.

<표 5-16>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전략적 제휴연계 형태 (단위: 개소, %)

구 분		투자진입방식별		투자동기별		
		단독신설형	합작·합병형	시장 판로개척형	생산 거점형	기술 교류형
전략적 제휴관계 경험유무	있다	3(14.3)	20(36.4)	10(28.6)	4(25.0)	5(38.5)
	없다	18(85.7)	35(63.6)	25(71.4)	12(75.0)	8(61.5)
	소계	21(100.0)	55(100.0)	35(100.0)	16(100.0)	13(100.0)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고용창출효과 및 지역사회활동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화는 여타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현지화, 네트워크, 착근성 및 제도적 집약, 집단학습, 혁신시너지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화 수준을 밝히기 위해 지역고용창출효과, 기술이전 여부, 교육훈련 및 지역사회기관과의 교류 등을 살펴보았다.

1) 지역고용 창출효과

(1) 조사업체의 평균고용규모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의 업체당 평균고용규모는 현재 117명이며, 수도권 업체는 평균 80명, 지방 업체는 평균 143명으로 지방업체의 고용규모가 수도권 업체에 비해 약 1.8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수도권 업체들은 투자초기단계에 영업 및 판매활동과 병행하여 생산활동 하다가, 점차 생산활동을 확대하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생산직 고용인력이 증대한테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7> 조사업체의 업체당 평균고용규모

(단위: 인)

구 분	계	권역별		조직특성별		투자방식별		
		수도권	지 방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단독신설형	합작투자형	
평균 고용 규모	설립당시	77	87	82	1,128	27	63	84
	현 재	117	80	143	814	60	90	129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창출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는 구할 수 없지만 최근 산업자원부(2002)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규모를 약 19만 3천 명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이 국내 제조업 전체 고용의 7.3%를 차지하며, 국내제조업은 1개 업체당 고용규모가 평균 27명인데 비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평균고용규모는 74명으로 일반제조업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갖고 있다.⁸⁴⁾ 그러나 <표 5-18>에서 보는 바와같이 생산 및 고용에 있어서 업종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생산 및 고용기여도

구 분	국내 제조업(a)	외국인직접 투자기업(b)	비중(b/a)	평균비중을 상회하는 업종
생산(매출액)	564.8	73.5	13.0%	의약(30.5%), 석유정제(29.4%), 전기.전자(17.9%), 제지.목재(14.8%), 기계(14.6%)
고용	2,653 (27)	193 (74)	7.3%	석유정제(30.6%), 의약(22.0%), 전기.전자(14.4%), 운송장비(11.6%), 기계(8.6%), 식품(8.1%)

주: 괄호안은 업체당 평균고용규모

자료: 산업자원부 · 산업연구원. 2002 9월. 외국인투자기업경영실태(보도자료)

84) 산업연구원(2001)은 1997~99년간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고용이 5.1만명 증가한데 비해, 국내제조업 고용이 19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가 국내 제조업의 고용감소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01, 33).

조직특성에 따라 대기업형 업체가 814명, 중소기업형 업체가 60명이고, 투자방식별로는 단독신설형 업체가 90명,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업체가 12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자방식에 있어서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업체의 고용규모가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 국내업체의 고용을 그대로 흡수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형 조사업체의 고용규모가 설립당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 이후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⁵⁾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조사업체의 고용규모가 대부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조사업체의 지역고용 창출효과

조사업체의 지역내 인력활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고용인력의 기술수준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띠는데 전문·관리인력은 전국적인 수준에서 공개채용방식을 취하는데 비해, 생산인력은 지역내 공고 및 전문대 출신들을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사례 업체조사에 의하면, 지방업체 가운데 중부권 소재 업체들은 인력채용에 있어서 수도권 의존도가 높는데 비해 서남권 업체들은 광주 및 전남권 내에서 관리 및 생산인력을 전부 조달하고 있다. 또한 투자유형에 따라 KT사나 ID사 등 생산거점형 업체들이 시장·판로개척형 업체에 비해 지역내 특히 시·군 단위내에서 생산인력을 대부분 조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평가에 있어서는 외국인직접투자액 규모 자체가 성과의 주요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 측면에서는 일관성있는 수치를 제시하기 곤란하다. 즉 투자액당 고용창출수준이 심층면담 사례업체의 경우도 10억원당 최저 1.9명에서 최고 50명까지로 26배이상의 극심한 편차를 보인다. 이에 따라 조사업체의 투자액 규모와 고용창출 규모간에 반드시 비례하는 상관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투자업종이나 생산품 성격 등이

85)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기존업체의 고용승계 및 구조조정으로 오히려 고용규모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고용규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지유형별로 고용창출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산업단지내 투자업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9> 국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업종별 고용현황(2001)

구 분	천안 외국인전용단지	평동 외국인전용단지	대불 외국인전용단지	계
가동업체 수	27개소	11개소	6개소	44개소
고 용 규 모	1,089인	256인	348인	1,693인
가동업체당 평균고용수	40.3인	23.3인	58.0인	38.5인

주: 외국인전용단지의 산업단지별로 고용규모가 큰 업종으로는 천안은 전기.전자(402명), 기계(377명), 운송장비(238명)이고, 평동외국인전용단지는 전기전자(97명), 운송장비(67명), 섬유 의복(50명)으로, 그리고 대불외국인전용단지는 목재종이(274명), 운송장비(64명) 등임

자료: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내부자료

2) 기술이전 및 교육훈련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즉 현지국의 기업은 외국기업이 보유한 지식과 정보 습득을 통해 자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현지국 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효과를 갖는다. 반면,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연구개발의 현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첫째, 기술·생산·마케팅 자원의 유기적인 연결과 현지국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신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생산할 수 있게 되고, 둘째, 미국처럼 현지국의 기술개발관련 환경이 우수한 경우는 현지국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며, 셋째, 조세유인 등 현지국의 기술개발지원정책으로 현지 연구개발이 모국보다 경제적인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촉진시 고도기술수반업종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2, 9:10).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보유한 연구소는 1999년 현재 475개소로 국내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 전체에서 9.9%를 차지한다.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율은 각각 2.46%와 2.22%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수준이 낮으며, 특히 100%단독투자형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경우는 1.57%에 불과한 낮은 연구개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해외모기업의 핵심기술을 현지국에 이전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실태를 잘 대변하고 있다.

<표 5-2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연구소 보유현황(1999)

(단위: 개소, %)

구 분	국내 기업연구소 총계(A)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연구소				
		계(B)	100% FDI기업	기타 FDI기업	B/A	
개소수	4,810 (100.0)	475 (100.0)	60 (100.0)	415 (100.0)	9.9	
연구개발 투자액	10조1,251억원	2조 5,000억원	848억원	-	24.7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율	2.46%	2.22%	1.57%	-	-	
규모별	대기업	797 (16.6)	197 (41.5)	16 (26.7)	181 (43.6)	24.7
	중소기업	4,013 (83.4)	278 (58.5)	44 (73.3)	234 (56.4)	6.9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0.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실태분석(조사자료)

(1) 조사업체의 기술이전 효과 및 형태

조사업체의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경험여부에 대해 응답업체 전체의 약 ¼ 정도가 기술을 이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⁸⁶⁾ 그리고 기술혁신 유형에 대해 생산공정 개선 41.9%, 기존제품 개량 34.3%, 신제품개발 23.8%로 응답하여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혁신에 있어서 주로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4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해외모기업이 기술혁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32.4%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업체(30.4%)가 지방 업체(23.9%)에 비해 기술이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⁸⁷⁾

86) 면담사례 조사업체들은 조직특성이나 투자행태에 상관없이 해외모기업의 기술이전에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조사업체의 기술이전 실태

(단위: 개소, %)

구 분			계	소재지역	
				수도권	지방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경험	있다	18(26.1)	7(30.4)	11(23.9)
		없다	51(73.9)	16(69.6)	35(76.1)
		소계	69(100.0)	23(100.0)	46(100.0)
	(투자이후) 기술혁신여부 (복수응답)	신제품개발	25(23.8)	9(29.0)	16(21.6)
		기존제품개량	36(34.3)	11(35.5)	25(33.8)
		생산공정개선	44(41.9)	11(35.5)	33(44.6)
		소계	105(100.0)	31(100.0)	74(100.0)
	기술혁신 기여기관	기업단독	32(47.1)	9(37.5)	23(52.3)
		해외모기업	22(32.4)	10(41.7)	12(27.3)
		고객업체	9(13.2)	3(12.5)	6(13.6)
		원부자재공급업체	5(7.3)	2(8.3)	3(6.8)
		소계	68(100.0)	24(100.0)	44(100.0)

조사업체의 기업규모별 기술이전 경험실태는 대기업 5개소 가운데 3개소가 기술이전을 했다고 응답한데 비해, 중소기업형은 응답업체의 1/3정도가 기술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조사업체의 투자진입방식별로는 기술이전에 있어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⁸⁾

① 수도권 및 지방 소재지역별 기술이전효과

조사업체들은 수도권, 지방에 상관없이 대부분 본사·공장통합형이다. 그러나 기업조직구성에 있어서 수도권 업체(27.9%)들은 별도의 연구개발부서를 둔 업체의 비율이 낮은 반면, 지방 업체의 경우는 연구개발부서를 별도로 두고있는 비율이 52.9%로 2배정도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업체들이 영업 및 판매위주의

87)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별 연구소 설립현황을 보면 서울이 207개소로 전체의 43.6%를 차지하고, 경기(21.7%), 인천(6.7%)로 수도권 지역에 72%가 집중분포해 있다. 이밖에 경남 5.1%, 충남 4.8% 등의 순이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0).

88) 공창석(2000)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를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일반지역의 외국인직접투자 기업간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마산수출자유지역내 업체가 일반지역 업체에 비해 기술확산 및 이전에 배타적이고, 기술 enclave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따라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의 지역과급효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형 제품인데 비해, 지방 업체의 경우는 생산활동 과정에서 시제품 제작단계에 기술개발의 수정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⁸⁹⁾

② 조직·투자특성 유형별 기술이전효과

조직특성 유형별 기술이전 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업규모에 따라 대기업형(60.0%) 일수록 중소기업형(39.5%)에 비해 기술이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직성숙도에 따라 신생기업이 성숙기업에 비해 기술이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생기업형일수록 고도기술수반형 업종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생산제품 특성에 따라 중간·부품재형이 다른 생산품 유형에 비해 기술이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생산활동과정에서 시제품 생산 및 기술적용과정에서 기술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표 5-22>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별 기술이전 경험 (단위: 개소, %)

구 분			기업규모		조직성숙도		생산품특성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성숙기업형	신생기업형	기초소재형	중간부품형	최종완성형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경험	있다	3(60.0)	15(39.5)	8(16.0)	10(40.0)	1(4.8)	14(33.3)	2(20.0)
		없다	2(40.0)	23(60.5)	42(84.0)	15(60.0)	20(95.2)	28(66.7)	8(80.0)
		소계	5(100.0)	38(100.0)	50(100.0)	25(100.0)	21(100.0)	42(100.0)	10(100.0)
	기술혁신 여부	신제품개발	3(27.2)	23(24.0)	15(20.5)	11(29.8)	8(24.2)	15(24.2)	3(20.0)
		기존제품개량	4(36.4)	34(35.4)	26(35.6)	13(35.1)	12(36.4)	22(35.5)	5(33.3)
		생산공정개선	4(36.4)	39(40.6)	32(43.9)	13(35.1)	13(39.4)	25(40.3)	7(46.7)
		소계	11(100.0)	96(100.0)	73(100.0)	37(100.0)	33(100.0)	62(100.0)	15(100.0)
	기술혁신 기여기관	기업단독	3(75.0)	30(46.9)	21(44.7)	13(59.1)	8(40.0)	20(52.6)	6(60.0)
		해외모기업	1(25.0)	20(31.2)	19(40.4)	4(18.2)	8(40.0)	12(31.6)	3(30.0)
		고객업체	-	9(14.1)	4(8.5)	3(13.6)	2(20.0)	4(10.5)	-
		원부자재공급업체	-	5(7.8)	3(6.4)	2(9.1)	2(20.0)	2(5.3)	1(10.0)
		소계	4(100.0)	64(100.0)	47(100.0)	22(100.0)	20(100.0)	38(100.0)	10(100.0)

89) 연구개발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점도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답사업체 가운데 인포디스크의 경우는 1개 생산라인에서 부분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별도의 연구개발부서가 없더라도 병행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담사례 조사업체 가운데 ID사는 CD, CD-ROM 등을 생산하여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로 생산라인 중 1개 라인에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량을 통해 신 제품을 개발하였다. 넷째, 투자특성 가운데 투자진입방식에 따른 제조업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기술이전 경험여부는 단독신설 및 합작, 인수합병업체 여부는 그 다지 유의적이지 않다(부표 참조).

(2) 조사업체의 교육훈련 및 기술창업

조사업체들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직원의 이직 등에 의해 기술창업이 발생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술이전효과를 가져온다. 조사업체 및 면담사례조사에 의하면, 기술전습을 위해 기술자를 해외 모기업에 파견하거나 해외기술인력의 국내 일시상주를 통해 생산장비 이용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부표 참조). 그리고 경영·관리인력에 대해서는 해외 모기업에서 제공하는 정기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연 1~2회 정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창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이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기술이전에 매우 제한적인 특성도 있지만 조사업체의 생산특성상 한 두 부분의 기술습득만으로는 창업이 불가능한 업종인데 기인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3) 지역사회기관과의 교류 및 지역효과 전망

(1) 조사업체의 정부 및 지역사회기관과 교류

기업은 지역내에서 고용 및 생산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 외에 지역내 기업, 상공회의소,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기업문화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가 지역내 가져올 간접적인 효과로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든다. 선진경영기법은 생산과정에서의 기업간 네트워크에 의해서 뿐만아니라 지역내 다양한 기관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서 습득된다.

조사업체들은 기업활동과정에서 기업체 이외에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기관으로

지역금융기관(46.9%), 지방자치단체(32.7%),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 중앙정부 기관(20.4%)를 들고 있는데 비해⁹⁰⁾ 동종·유사업체나 대학, 연구기관, 지역내 경제·사회단체 등과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면담사례 업체조사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은 해외모기업과 고객기업 위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의 연계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가 입지한 지역이나 산업단지내 관련업체 모임에의 참여도는 응답업체의 45.7%가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참조). 이들 모임은 기술 및 경영정보 교류도 있으나, 대부분 기업체의 장이나 실무자들간의 정기적인 친목모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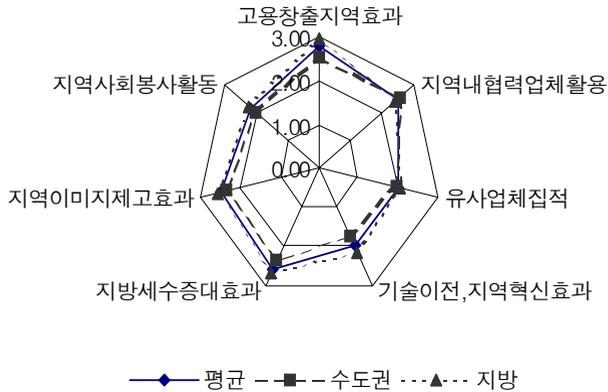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대부분 국내투자 및 지역입지시 지역화를 표방한다. 일부 면담사례업체는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이 해외모기업에 의해 업체경영평가로 활용되므로 지역봉사활동이나 환경캠페인, 장학사업 등을 통해 업체의 이미지도 제고 노력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2) 조사업체의 지역화 인지도 및 지역효과 전망

조사업체들은 지역고용창출, 생산·판매활동에서 기업협력, 지역사회기관과의 교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역화 및 지역경제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업체들이 지역내에 미치는 효과와 5년내 지역에 미칠 효과를 전망토록 하였다. 현재 당해 업체의 지역입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평균점수 2.5점을 기준으로 할 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항목으로는 고용창출효과(2.13점), 지역내 협력업체 활용(2.45점), 지방세수 증대효과(2.28점), 지역이미지 제고효과(2.44점) 등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조사업체들은 향후에는 유사업체의 집적효과 및 기술이전에 따른 지역혁신효과에 대해서만 부정적이고, 여타 모든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지역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90)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원기관)들과 공장부지물색이나 투자단계에서 빈번하게 교류를 하나, 유치 및 생산활동단계에서는 거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면담업체 조사에 의하면 조사업체들은 교류의 필요성이나 실익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역별로 지방 업체들은 지역고용창출 및 지방세수 증대와 지역이미지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며 향후 지역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입지유형에 따라 개별입지에 비해 계획입지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효과 인지 및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조사업체의 지역입지에 따른 파급효과 인식(설문조사)

(3) 조사업체의 정부시책 수혜여부

정부는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촉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촉진활동 지원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사업체의 약 73%가 정부에 의한 지원 및 인센티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정부지원 및 인센티브 가운데 기업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지원시책은 조세감면, 공장부지의 저가 및 무상지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으며, 행정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도움받았다고 응답한 업체의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표 5-23> 조사업체의 정부시책 수혜여부

(단위: 개소, %)

구	분	계	소재지역별		기업규모별		조직성숙도		생산품 특성		
			수도권	지방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성숙기업형	신생기업형	기초소재형	중간부품형	최종완성형
수혜여부	받은적 있음	48 (72.7)	13 (59.1)	35 (79.5)	5 (100.0)	48 (71.6)	34 (70.8)	21 (77.8)	15 (71.4)	32 (78.0)	7 (63.6)
	받은적 없음	18 (27.3)	9 (40.9)	9 (20.5)	-	19 (28.4)	14 (29.2)	6 (22.2)	6 (28.6)	9 (22.0)	4 (36.4)
		66 (100.0)	22 (100.0)	44 (100.0)	5 (100.0)	67 (100.0)	48 (100.0)	27 (100.0)	21 (100.0)	41 (100.0)	11 (100.0)
수혜 받은 경우	조세감면	32 (58.2)	6 (54.5)	26 (59.0)	4 (80.0)	30 (55.6)	23 (53.5)	11 (57.9)	10 (71.4)	21 (52.5)	3 (50.0)
	공장부지 저가 및 무상지원	18 (32.7)	3 (27.3)	15 (34.1)	1 (20.0)	17 (31.5)	11 (25.6)	7 (36.8)	2 (14.4)	14 (35.0)	2 (33.3)
	행정서비스 지원	3 (5.5)	2 (18.2)	1 (2.3)	-	3 (5.5)	5 (11.6)	1 (5.3)	1 (7.1)	3 (7.5)	-
	각종 보조금지원	1 (1.8)	-	1 (2.3)	-	3 (5.5)	3 (7.0)	-	-	2 (5.0)	1 (16.7)
	기술,경영컨설팅 지원	1 (1.8)	-	1 (2.3)	-	1 (1.9)	1 (2.3)	-	1 (7.1)	-	-
도움 되는 지원 시책		55 (100.0)	11 (100.0)	44 (100.0)	5 (100.0)	54 (100.0)	43 (100.0)	19 (100.0)	14 (100.0)	40 (100.0)	6 (100.0)

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및 지역화 종합특성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실태분석을 토대로 지역연계 및 지역화 단계를 특성화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해외모기업과 비교적 강한 연계를 유지하며 지역내 업체들과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협력에서도 지속적인 파트너쉽이나 기업간 협력관계를 이루기 보다는 기업 자체 내에서 해결하든가 단품, 포장 등 단기계약에 의해 일시적으로 역내 하청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개별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고용창출효과도 생산 및 매출액 증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며 주로 지역내 생산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지역연계 모형 가운데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발전적인 모형이라기 보다는, 지역내 연계수준이 낮고 해외의존경향이 높아 의존적인 지역연계모형(dependency model)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의 기술수준과 기업여건 개선으로 의존적 지연연계모형에서 초기단계의 발전적 지역연계모형(developmental model)으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는 있다.

<표 5-24> 조사업체의 지역연계 및 지역화 종합특성

구 분	면담사례 및 조사업체 일반특성
지역연계유형 (types of local linkages)	· 지역내 업체들과 기술과 지식을 공유·협력하는 협력적 관계 유형이라기 보다 · 낮은 지역내 연계 및 높은 해외의존연계 유지
연계의 지속도 (duration of local linkages)	· 지역업체와 지속적인 파트너십(partnership) 보다는 단기계약(단품, 포장제품)에 의한 일시적인 역내하청관계 유지
지역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연대감	· 지역화(뿌리내림)의 수준이 낮은 편임 · 해외모기업의 첨단기술 이전이나 협력이 매우 낮은 수준임 · 핵심기업운영에 있어 해외모기업의 결정권한(투자결정, 고급인력채용, 기술개발 등)이 높음
지역기업에 대한 효과	· 국내 및 지역기업에 기술이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기업간 네트워킹이 원활치않아 효과발생을 기대하기는 미약
고용창출수준(질)	· 대부분 지역내 생산직 고용 (경영관리직은 전국수준에서 채용)
향후 지역경제 성장전망	· 해외모기업(다국적기업)의 전략적 결정(투자축소, 확대)에 의존

4. 주요 분석결과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산업연계

(1) 물자조달 및 구매연계

제조업의 물자조달(sourcing) 및 구매연계는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을 위한 기업간 연계로서, 산업연계과정에서 후방연계(backward linkage)를 의미한다. 후방연계는 관련분야의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고, 또 다른 후방연계를 촉진하는 연쇄적인 과정을 통해 지역의 생산·고용·소득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조사업체들의 물자조달 및 구매의 지역내 연계는 15.2%이고, 국내 타 시·도는 51.2%, 그리고 해외(수입)는 33.6%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지역내 연계비율은 국내 제조업체의 실증분석 결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해외의 실증연구결과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urok의 영국 스코틀랜드지역내 전자업체의 구매연계 분석에서도 지역내 구매비율이 12%수준에 그쳐 영국의 국내기업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낮은 지역연계 정도를 유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역내 물자조달 및 구매연계에 있어서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에 따른 유형별 차이는 있지만, 기업규모 및 조직·생산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 제조업체의 구매연계 행태와 다소 상이한 조사결과를 보이는 점은 소재지역에 따라 수도권 업체(14.6%)에 비해서는 지방업체(16.7%)가, 조직성숙도에 따라 성숙기업형(15.1%)에 비해 신생기업형(16.3%)이 높은 지역내 연계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는 수도권 업체의 경우, 투자동기가 시장·판로개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에 있어서 지역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의 유형별로 해외물자조달 비율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 수도권 업체(39.7%)가 지방업체(20.2%)에 비해, 대기업형(47.0%)이 중소기업형(6.3%)에 비해, 신생기업형(44.4%)이 성숙기업형(15.8%)에 비해, 조립가공형(37.5%)이 기초소재형(7.0%)이나 생활관련형(7.1%)에 비해, 그리고 생산거점형(34.6%)이 시장·판로개척형(7.4%)이나 기술교류형(3.0%) 업체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의 해외구매 의존율을 보이고 있다. 조사업체들의 물자조달 및 구매연계의 주요 특징은 낮은 지역내 연계수준과 유

형별로 해외물자조달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모기업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다층적인(multi-level) 지역연계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차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유치시책의 추진도 관련이 있다. 즉 입지지역내 연관산업 및 중점산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없이 무차별적이고 총량 위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시책이 추진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선별적인 투자유치전략의 수립과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해질 것이다.

(2) 판매 연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판매연계는 구매연계와 마찬가지로 해외모기업과의 연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조사업체 가운데 1/5은 해외모기업의 직접수주에 의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업체의 경우 해외의존경향이 높은 편이다.

조사업체들의 판매연계를 보면, 지역내 판매비율은 평균 42.4%, 국내 타시·도 28.6%, 해외판매(수출)비율 29.0%로 지역내 판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지역내 판매연계 수준을 보면, 수도권 업체(69.8%)가 지방업체(17.7%)에 비해, 대기업형(55.5%)이 중소기업형(35.3%)에 비해, 신생기업형(62.3%)이 성숙기업형(22.3%)에 비해, 중간부품·조립형(51.0%)이 기초소재형(20.9%)이나 생활관련형(33.7%)에 비해 지역내 판매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판매비율에 있어서는 그다지 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편이다. 즉 구매 및 판매연계 행태에 있어서 조사업체들은 구매연계에서는 유형별로 지역내 연계수준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해외구매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갖는데 비해, 판매연계는 유형별로 지역내 판매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거나 해외판매비율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 서비스 및 전략적 제휴연계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률, 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 연계에 있어서 강한 수도권 지향성을 보인다. 수도권 업체는 서비스활용에 있어서 높은 지역연계를 보이는데 비해, 지방업체들은 지역내 사업지원서비스업체의 활용비율이 30%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의 사업지원서비스 기반취약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심층면담 면담조사에 의하면, 서남권 소재업체의 경우는 서남권내 사업지원서비스업체나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연계 측면에서 조사업체들은 기술개발 관련정보의 구독처로서 해외모기업에 대한 의존경향이 높은 편이다.

조사업체들은 비교적 높은 기업협력(하청) 수준을 보이며, 수도권 업체가 지방업체에 비해 높은 기업협력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이 산업집적기반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로는 조직특성에 따라 대기업형일수록, 최종완성형 제품생산업체 일수록, 그리고 투자특성에 따라 합작·인수합병형 업체일수록 기업협력(하청)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략적 제휴연계에 있어서 조사업체의 1/3정도가 전략적 제휴형태를 맺고 공동으로 기술개발 및 생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적 제휴수준은 조직성숙도, 제품특성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특성에 따라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일수록, 기술교류형 업체일수록 전략적 제휴연계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파급효과

(1) 지역고용 창출효과

조사업체의 고용규모는 평균 117명 수준으로 투자당시에 비해 평균 4.6%의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는 지방업체가 수도권 업체에 비해 약 1.8배

나 고용규모가 높게 나타났으며, 증가추이에 있어서는 수도권 업체들은 고용 감소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지방업체, 중소기업형 업체의 경우는 고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대기업형의 고용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국내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업체의 경우 구조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난 인력감축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2) 기술이전 및 지역사회기관 교류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기술이전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 조사업체 가운데 기술이전 경험을 가진 업체가 응답업체의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혁신 유형에 있어서도 생산과정에서의 공정개선이나 기존제품의 개량 위주이고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혁신단계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조사업체들은 기업활동과정에서 지역사회기관이나 관련단체 모임에 있어서 긴밀한 교류관계를 형성하지는 않으며, 교류내용에 있어서도 친목교류 등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들은 지역화 및 업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환경캠페인,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활동을 소규모나마 추진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조사업체의 지역연계 및 지역화 특성을 종합하면,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후방연계인 지역내 물자조달수준이 15.2%로 낮은 편이며, 오히려 해외지역과 높은 연계 및 의존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지역고용창출효과는 지방이 높아 지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로 고용증대효과를 직접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근 산업연계에서 중시되는 전략적 제휴, 기술이전, 지역사회기관과의 교류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CHAPTER

6

결론 및 정책 과제

1.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으로 현저한 유치성과를 거두었다. 1991년 14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2000년에는 157억 달러에 달해 이 기간동안 무려 11.2배의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경제와의 연계, 지역파급효과 등 지역화에 관한 실증분석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특성을 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선별적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연계에 관련하여 도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책적인 시사점과 과제를 살펴보겠다.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 및 행태특성

(1) 수도권 및 대도시의 집중분포와 심화 지속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를 설명하는 해외 선행연구의 분석결과는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 주변지역 선호가설, 그리고 산업집적지 선호가설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분포는 중심지 및 대도시 선호가설(core tendency hypothesis)이 높은 설명력을 지닌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87.8%, 투자액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해 있다. 서울 및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지역내 분포 비중은 전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84.6%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본사의 약 70%와 서비스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수도권 및 광역대도시를 포함할 경우는 서비스업 본사의 97%가 이들 지역에 집중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분포 변화추이를 보면, 수도권 및 대도시 등 중심지역과 기타 지방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투자시기별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지방을 1.0개소로 할 경우 1990~97년은 5.19개소에서 1998년 이후는 수도권이 7.12개소로 격차가 커져 수도권과 여타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여타 지방과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동 기간동안 2.15에서 2.89로 수도권과 지방의 입지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은 집중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분포경향⁹¹⁾ 그리고 수도권과 여타 지방과의 분포격차 심화경향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투자초기단계

91) 면담사례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 가운데 지방입지를 선택한 경우에도 대부분 수도권의 집적이익을 누릴 수 있는 중부권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국내의 지방입지 선정을 위해 최장 반경한계로 천안을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본사, 공장을 지방에 두더라도 서울에 실질적인 본사기능을 하는 영업소나 사무소를 두어 영업활동과 해외교류 네트워크 등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경향이 높다.

의 일반적인 입지분포양상과 유사하며, 새로운 지역격차요인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정책 차원에서 양적 유치 위주의 외국인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균형발전 등 지역정책적 접근의 병행 추진이 요구된다.

(2) 업종별·지역별 집적양상과 계획입지 선호경향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업종별로는 기타기계 및 장비, 전자부품·음향·영상 및 통신장비,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투자비중이 높고, 국내 유사·동종업체의 분포지역에 집적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공간적 집적양상은 일부 업종별, 지역별로 투자가 지속되는 자기강화적인 입지경향(self-reinforcing hypothesis)을 띤다.

특히,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방입지 및 분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기업 전용산업단지 등 입지지원정책의 효과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전체의 1/4인 23.5%가 계획입지내에 분포하여 국내 제조업의 계획입지내 분포비중인 13.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계획입지 분포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유치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에 입주할 경우 공장용지 무상 및 저가제공, 조세감면,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게되므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이 가급적이며 이 지역내의 입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투자진입시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재와 위험최소화를 위해 지명도가 높은 지역을 선호하는 입지분포경향을 띤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과 생산부지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내 입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사·동종업체의 지역내 산업집적기반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계획입지의 공급 및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⁹²⁾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결정요인과 단계적인 입지이동패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공장입지 선정시 주요 요인으로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편리한 교통접근성 등을 꼽고 있으며,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는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수요에 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전개하면서 단계적인 입지이동패턴을 띤다. 즉 투자초기단계에는 국내에 대한 정보부재와 위험인식으로 인해 서울에 사무소를 두어 영업 및 판매활동에 치중을 두다가, 생산활동으로 확대 전환하면서 점차 공장부지 확보가 용이한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중부권으로 이전하는 단계적인 입지이동경로를 거친다.

이와같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이동 특성은 수도권과 지방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시책에 있어서 차별화 및 협력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수도권은 신규투자기업의 유치가 수월한 반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지방은 수도권 등 국내에 기투자해 있는 기업의 추가적인 투자확대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적 연대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업체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확대시 선호지역으로 현재의 입지에서 확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기업 유치위주의 시책추진과 함께 기존 투자업체의 관리와 지방이전 및 지역화 촉진지원 등 지원시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특성

(1) 다층적·의존적 지역연계모형(dependency model)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실태분석에 의하면 다층적이고, 의존적

92) 아일랜드의 산업개발청(IDA)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는 외국기업의 입지, 기업별 재정지원규모와 토지공급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앙부처의 사전허가 또는 협의절차 없이 결정하여 제조업 및 국제서비스부문의 해외투자유치 확보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아일랜드내 투자확대 유도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입지제공과 관련해 IDA는 산업용지나 건물을 저가에 미리 매입 확보해놓아 적기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및 제공을 하고 있다.

인 지역연계모형의 특징을 지닌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원부자재 및 물자구매비율의 공간지리적 연계에 있어 지역내(해당시·도) 15.2%, 국내 타시·도 51.2%, 해외 33.6%로 나타나 국내 제조업체의 지역내 구매비율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지역내 구매연계 수준을 보였다.⁹³⁾ 한편, 기업의 유형에 따라 지역내 물자조달 및 구매연계 수준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고객수주 및 판매처 확보에 있어서 해외모기업과 긴밀한 의존관계를 지닌다. 조사업체 가운데 1/5은 해외모기업의 직접수주에 의해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업체의 해외의존경향이 보다 높은 편이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판매연계를 보면, 지역내(해당시·도) 42.4%, 국내 타시·도 28.6%, 해외(수출) 29.0%로 구매연계에 비해 지역내 연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시장·판로개척형 투자동기를 가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국내진입 증대경향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법률, 회계 등 사업지원서비스를 주로 수도권내 전문서비스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업체는 말한 것도 없고 지방업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내 서비스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해외와의 수출·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업체의 지역내 기반 취약과 이들 업체의 실질적인 본사의 서울 소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정보연계 측면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기술개발 관련정보의 구독처로서 해외모기업에 대한 의존경향이 높은 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기업조직 속성상 해외모기업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자조달 및 구매, 서비스 활용 등에 있어서 지역내 연계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유치촉진에 있어서는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93) Turok의 영국 스코틀랜드지역내 전자업체의 구매연계 분석(1993)에서는 지역내 구매비율이 12%수준에 그쳐 영국 국내기업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낮은 지역연계 수준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높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선별적인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⁹⁴⁾

(2) 한정적인 기술이전효과와 저조한 지역사회연계 행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를 통해 얻게되는 국가경제적 효과로 안정적인 외환확보, 생산·고용증대, 수출증대 및 무역수지개선, 기술력 확충, 그리고 기업·산업의 구조조정촉진효과 등을 들고 있다(산업연구원 2001). 이 가운데 지역경제와 관련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는 직접적으로는 지역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며, 간접적으로는 기술이전효과 등을 통해 지역내 생산증대와 산업개선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국내 제조업체에 비해 평균 고용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업체의 평균고용규모는 117명 수준으로 투자당시에 비해 평균 4.6%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지방 업체가 수도권 업체에 비해 약 1.8배나 고용규모가 높게 나타났으며, 증가추이에 있어서는 수도권 업체들은 고용감소경향을 보이는데 비해 지방업체, 중소기업형 업체의 경우는 고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수도권 및 대기업형 업체의 고용이 감소하는 것은 국내 대기업과의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 업체의 경우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인력감축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지역내 인력활용도 및 질적 수준을 보면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소재지역 여하에 상관없이 지역내 인력의 활용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생산직 인력의 경우는 대부분 해당지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94) 산업자원부는 향후의 외국인투자유치 추진과제의 하나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기획유치시스템의 확대 강화를 제시하였다. 즉 혁신주도형 산업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중점유치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지역별·업종별 배분을 감안하여 매년 50개 내외의 중점타겟기업을 선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정보제공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포함한 개별기업 차원의 맞춤형 투자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전담관리 및 수시점검제도를 확립, 운영토록 제시하였다(산업발전전략추진단 2002, 169).

셋째,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기술이전 경험을 갖는다. 조사업체 가운데 기술이전 경험을 가진 업체가 응답업체의 4에 불과하며, 기술혁신 유형에 있어서도 생산과정에서의 공정개선이나 기존제품 개량 위주이고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혁신단계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넷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생산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의 1/3 정도가 전략적 제휴형태를 맺고 있다. 투자특성에 따라 합작투자 및 인수합병형일수록, 기술교류형 업체일수록 전략적 제휴연계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면담사례업체 조사결과, 국내 기업체와 전략적 제휴연계 경험을 한 업체일수록 다양한 전략적 제휴활동을 수행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국내 및 지역내 기업활동과정에서 지역화를 표방하는데 비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기관이나 관련업체들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매우 한정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역사회기관이나 관련단체 모임에 있어서 긴밀한 정보, 기술교류관계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단순 친목교류가 대부분이다.

이에따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치단계⁹⁵⁾에서 뿐만아니라 투자 및 기업활동단계에서 지역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95) 미국의 조지아주는 지역내 기업유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건별로 사전에 지역내 고용증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전과급효과 분석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전문기관에 사전용역조사를 의뢰하여 신규고용창출 규모가 크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범위의 결정과 토지무상 제공, 투자입지 주변도로 건설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표 6-1>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구 분	주요 분석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외국인직접투자기업 투자실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의 급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년간투자규모의 급팽창 (GDP대비 9.7%수준) -1998년이후의 투자규모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63.4%(업체), 62%(투자액)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동기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대 생산거점형에서 1990년대 중반이후 시장·판로개척형, 기술교류형 업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정책 육성차원 -외국인직접투자 육성시책 지속추진 -투자동기 변화,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산업 연계육성 전략 수립 필요
외국인투자기업 입지분포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집중분포와 집중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집중도: 제조업체 본사의 69.9%, 서비스업 본사의 92%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심화(수도권집중지수: 1990~97년 2.15~1998년이후 2.89로 심화(제조업)) ○ 일부업종 및 지역의 집적지속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 전자부품, 화학물 등이 주요 업종이며, -국내동종·관련업체 집적지역과 유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기업 상위집적지역의 집적강화현상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심화에 따른 새로운 지역격차요인 대두예상 -산업육성 및 지역발전정책의 병행 추진필요 ○ 유형별 입지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유치시책 추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및 지원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지방의 차별적인 외국인투자유치전략 ·수도권:기존업체관리 및 확대투자 유도시책 ·지방:대기업의 집중유치추진(지방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수도권·지방의 외국인투자 유치연계협력 촉진,지원 ·신규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실시간 입지정보 제공(부동산정보업체연계) -외국인전용단지 조성및 입지지원시책 지속추진
외국인투자기업 유형별 입지행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규모, 조직, 투자속성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특성, 투자형태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님(수도권 선호경향이 조직유형별 속성상의 입지행태 차이 상쇄) ○ 입지결정요인 및 계획입지 선호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지결정요인으로 대도시 및 고객업체 근접성, 교통편의, 저렴한 공장용지 등이 핵심요인 작용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등 지방 입지지원시책 효과 ○ 단계적인 입지선정 및 이동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초기에 정보부족, 투자위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영업,판매를 위해 서울입지, 생산활동 확대시 지방이전 경로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유치시스템 추진 -지역과급효과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유치전략(사전과급효과 분석, 차등보조금 지급 등) ○ 지역산업육성시책과 병행 추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화·중점산업 클러스터 육성시책 병행 -지역내 기업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지원 ·기술개발협력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유형별 지역연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지역내 구매연계와 높은 해외의존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내 물자조달율(15.2%) 수준이 낮은 편 -물자조달, 판매비율, 기술개발관련 정보구득에 있어 해외의존경향이 높음 ○ 강한 수도권지향의 서비스연계 ○ 제한적인 기술이전효과 ○ 높은 지역고용창출효과(생산인력 위주) ○ 낮은 지역사회기관 교류 및 단순 친목활동 위주 ※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종합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전모형보다는 의존모형(dependency model) 성향 -성숙기업형, 기술교류형 업체의 지역내 전후방연계가 높게 나타나 향후 지역연계 발전모형(developmental model)으로의 전환가능성 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추진기구 구축과 기업활동여건 조성 -사업지원서비스, 주거·교육, 문화시설기반 등 조성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유치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1962년 이래 1970년대까지는 외자도입 위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다가, 1980년대 이후는 산업구조 조정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위기 극복 및 개방화에 대응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인센티브의 다양화 등 적극적인 유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6-2>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주요내용과 관련법률

구 분	정책목표	주요내용	관련법률
1962 ~72	투자재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개발에 필요한 상업차관 증신의 외자도입 수출촉진전략에 따른 수출산업, 수입대체산업육성에 활용 수출자유지역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에 관한 법률(1962) 외자도입법(1966)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
1973 ~79	외자도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 현물출자 외자도입선 다변화 도입외자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차관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73)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설치(1974) 외자도입인가 및 외화대출 방침(1978)
1980 ~89	외국인투자 유치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석유파동, 개도국 채무불이행 선언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차관방식 외자도입한계 개방업종 전환: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제한업종에 대한 일률적 50%투자비율에서 업종별 상이한 비율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자도입법 시행령개정(184, 86, 87) 외화증권발행규정(1987) 상장법인 해외증권발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1985) 상업차관도입인가방침(1986) 공공차관 자금효율화방안(1986)
1990 ~97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유치활성화 정책추진(신고제 전환) 외국인투자 자유화정책(기존주식취득방식허용, 우호적 M&A, 장기차관도입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자도입법 개정(1991, 95)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1997)
1998 ~	경제위기 극복, 경제구조개선, 개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센티브 확대: 국세 감면대상 산업지원서비스,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 포함, 지방세감면에 등록세 추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발족 M&A투자방식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투자촉진법(1998)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투자정책의 전략적 접근」 59면.

<표 6-3> 외국인직접투자기업 지원시책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년)

구 분		주 요 내 용
조세감면인센티브	지원대상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으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고도기술수반사업 -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형태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 국세(법인세·소득세) · 감면기간 :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배당금에 대해서도 동일 감면제도 적용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 감면기간·비율 : 지방자치단체가 8~15년 범위에서 조례에 의거 결정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의 감면 - 외국인투자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해 수입신고가 완료된 자본재에 대해 100% 감면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 증자분에 대해 국세, 지방세, 관세를 감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 감면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대가(로열티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면제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지원	지원대상사업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대상사업 · 투자액 1억달러 이상 · 투자비용 50% 이상 투자중 신규 상시고용 1,000명 이상 · 투자액 5,000만달러 이상중 신규 상시고용 500명 이상 · 기존 국가·지방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시 투자액 3,000만달러 이상 중 신규 상시고용 300명 이상 · 지정권자 : 시도지사(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사항)
		관광산업 및 국제회의시설 - 대상사업(투자신고마감:2001년,목적불납입마감:2005년) · 투자액 3,000만달러 이상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시설 · 투자액 5,000만달러 이상의 종합휴양업으로 제주도 또는 산업지원부령이 정하는 지역내의 것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제회의시설
	지원내용 - 지역내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세 감면 · 개발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국가산업단지 지원수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의료·교육·주택 지원도 가능 ·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제공(중소기업 고유업종, 국가유공자의무고용 적용배제)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 및 임대료감면	재산매각	매각방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대금납부 - 국유재산은 1년까지 납부기일의 연장 및 20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결정
	임대료 감면(최장 50년까지 가능)	100%까지 감면 - 고용중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법인세 등의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75%까지 감면 - i) 외국인투자금액이 1,0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ii)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50%까지 감면 - 국가산업단지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 및 기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거나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및 분양가를 인하하는 경우 소요자금을 지원할 의무를 지는 한편, 지자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비용을 국가가 용자 · 교육훈련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	
	지방정부의 고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고용보조금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행정지원 - 인·허가관련 민원의 일괄처리(one-stop) 지원 · 자동승인제도(처리기간 경과시 자동승인으로 간주) 시행 · 투자지원센터내 외국인투자기업 고충처리기구설치·운영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 지원시책 및 내용상의 문제점을 개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육성 및 외자도입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무차별적이고 총량적인 투자유치 시책이 주류를 이루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 생산 및 투자특성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유형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과급효과에 있어서도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시책은 투자비율, 투자액, 고용규모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입지지역, 유형별 지역과급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에 상응하는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이 곤란한 실정이다. 셋째, 외국인투자 유치단계에만 치중하여 지원시책을 제공하는 반면, 국내에서의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소홀한 실정이다. 기업체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업체가 투자확대시 현재 입지지역에서 희망하고 있어 신규투자유치와 함께 기존 업체의 투자확대 및 관리가 보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규제시책 위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시책으로 전환했으나⁹⁶⁾ 여전히 외국인투자유치 조직의 이원화 등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의 제공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정보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경제의 개방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 정책수단으로서 외국인투자유치의 활용도가 높이 인식되고 있다. 향후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실증연구 등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시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96)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의 외국인투자유치 및 지원체계를 운영하다가,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1998)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후보지 선정·개발·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유치노력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토록 개정하였다.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촉진전략

그동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정책은 주로 총량적인 기업유치의 확대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자본 및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위해 다소 경쟁적인 양상을 띠어 왔다. 그러나 향후 주요한 지역발전수단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투자진입단계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투자대상국에 대한 정보부재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경향이 현저하다. 또한 입지이동패턴에 있어서도 수도권에서 단계적으로 수도권 주변지역이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양상을 띤다. 이와같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 특성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별적, 협력적인 유치전략의 추진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지역별로 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 있어서 차별적·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차별화 전략은 수도권은 기존 투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투자 유도 및 관리시책 위주로, 지방은 수도권 업체 가운데 생산활동을 위해 공장용지가 필요한 업체의 이전유도시책이 가능하다. 영국의 웨일즈개발기구(WDA)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기업유치를 주요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지역내 투자업체에 대해 고객관리형(account management) 전략을 통해 유치기업의 지역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별 소재지역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방 입지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는 전략의 추진이 요구된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간에 실시간 종합입지정보시스템 등의 공동운영·제공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유치 추진이 가능하다. 즉 지방 입지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생산활동이 가능한 공장부지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와같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부지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제공

정보를 연계한 실시한 입지정보시스템 등의 공동 운영으로 적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연계 강화전략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다양한 투자동기 및 조직·투자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연계 및 지역화 수준에 있어서도 상이한 양상을 띤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의 주요 목적은 지역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물자조달 및 구매, 판매연계 촉진 및 지역고용 창출, 기술이전, 지방세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촉진을 통해 지역고용 등의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산업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특화·중점업종의 육성시책과 병행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 지역별 산업포지셔닝 전략과 산업클러스터 육성시책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종합적 분석·점검 및 경제적 파급효과 사전분석·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한다.⁹⁷⁾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구체적인 유치 목적에 따라 지방이전 보조금, 기술이전보조금, 혁신지원보조금 등의 대폭적인 지원과 지역대학-기업간의 포럼 등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 제공해야 한다.

셋째, 지역여건 및 지역의 낙후도에 따라 투자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토

97) 미국 조지아주는 지역내 기업유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유치건별로 사전에 지역내 고용증대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대효과를 분석하여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는 사전파급효과분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외부전문기관에 사전용역조사를 의뢰하여 신규고용창출규모가 크고,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범위의 결정과 토지무상제공, 투자입지 주변도로 건설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첨단과학분야의 투자유치인센티브로 기술인력 고용시 자금지원, 혁신기술개발 협력양정시 자금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록 한다. 특히 지역의 낙후도에 따른 차등적인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중심도시 집중분포의 완화 및 수도권과 지방간의 입지분포격차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⁹⁸⁾

넷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는 향후 주요한 지역발전수단으로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시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선별 유치·관리할 수 있도록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시책 추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⁹⁹⁾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어떠한 업종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지역내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높은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담기구¹⁰⁰⁾의 구축과 사업지원서비스, 교육, 주택 및 편의시설 등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98) 미국 조지아주는 지역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법인세 등을 차등감면 적용하고, 프랑스 등도 우선 개발지역, 농촌재활성화지역 등 지역낙후도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99) 현행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제도는 유치시책과 유치지원시책으로 크게 구분된다. 유치시책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유치기관이 담당하나, 유치지원시책은 주로 중앙정부 위주로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100) 지역경제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공동노력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영국은 지역경제발전을 지방정부에 일임하거나 중앙정부의 일부부처에 의해 주도하기 보다는 지역별 agency 형태의 전담기구인 지역발전기구(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y)를 두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토록 하고 있다. White Paper(1997)에서 명시한 지역발전기구(RDA)의 목적은 i) 경제발전 및 사회적·물리적 쇄신과 재개발 ii) 기업지원 및 투자·경쟁력 강화 iii) 지역내 인력개발 iv) 취업기회 창출 v) 지속가능한 개발추진 등이다(차미숙 2001, 60:67). 이밖에 벨기에 등 몇몇 유럽 국가들은 지역발전기구를 두어 지역단위의 경제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 향후의 연구과제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관계를 밝혀, 궁극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실태와 입지분포분석에서는 전체 기업체 8,33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입지행태와 지역연계 분석에 있어서는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수도권과 지방과의 비교분석 및 기업체 조사의 실질적인 한계 등을 감안하여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은 제외하였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행태와 지역연계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형별 입지행태와 지역연계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향후는 지역단위의 산업 및 유치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지역별 유치업종의 선별제시 등 구체적인 실증분석 연구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와 관련한 제도분석 및 개선을 위한 후속적인 연구수행이 기대된다.

참고 문헌

- 건설교통부. 2000. 『외국인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 공급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공창석. 2000.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 분석: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동남경제권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 구근희. 1998.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998년 12월.
- 김관호·김준동·왕운종. 1998.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김동주, 권영섭외. 2001. 『지식정보화시대의 산업입지 및 군집체계 연구』. 국토연구원.
- 김용웅외. 1992. 『지역간 제조업 활동여건 격차에 관한 행태 분석』. 국토연구원.
- 김용웅, 차미숙. 1994. 『제조업 창업행태연구』. 국토연구원.
- 김용웅, 차미숙. 1996. 『생산자서비스업의 공간적 분포와 입지전략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김준동. 1995.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추가개방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6.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우리제도의 개선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9. 「외국인직접투자의 촉진 및 해외직접투자의 효율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7. 『외국인직접투자의 장애요인과 촉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진용·이정진. 2000.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통계월보』. 2000년 5월호. 한국은행

- 노재봉 외. 1998. 「우리나라와 아세안국가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비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류인택. 200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투자유치의 안정적 제도화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박시룡. 2000. 「외국인직접투자: 패턴의 변화와 유치촉진방안」.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박영철. 1994.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 서울대 박사논문.
- 박인호. 1998. 「부산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의 실천프로그램」. 부산발전연구원.
- 산업발전전략기획단. 2002. 「2010 산업비전; 산업 4강으로의 길」.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2001. 「외국인직접투자의 일석이조 효과」.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 2000. 「외국인투자기업현황(2000. 6. 30 현재)」.
-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2002. 「2000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보도자료(2002. 9).
- 삼성경제연구소. 2002. 「Global 산업 Shift」. 삼성경제연구소
- 왕윤중. 1994. 「외국인 직접투자의 기술이전효과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_____. 1997. 「한국의 해외직접투자현황과 성과: 심층보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1998. 「외국인직접투자 업무편람」.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1.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안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1.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안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이병민. 2001.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 기업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 사업서비스 업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이상훈. 1998. 「경기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석희. 1999. 「대구·경북의 외국인 투자유치현황과 정책과제」. 대구경북개발연구원.
- 이채은. 2000.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입지요인과 지역연계에 관한 연구: 울산지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이흥구. 1995. 「외국인 직접투자와 투자정책」. 한국개발연구원.
- 재무부. 1993. 「한국외자도입 30년사」. 한국산업은행.
- 조운제. 199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와 소득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주한광·김승진. 1995.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정책대응」. 세계경제연구원.

- 차미숙. 2001. "영국의 지역발전추진 전담기구: 설립배경과 역할". 「월간 국토」 통권 233호(3월호).
- 최승철. 2001. "외국자본의 도입과 지역경제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중국의 천진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제26집 1호
- 통계청. 2001.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 통계청. 2001.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통계청.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0.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실태분석.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2. 주한 외국기업 연구소의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 한택환 외. 1999. 「전환기의 환경정책 과제와 방향 토론회: 외국인직접투자와 환경정책 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홍성웅. 2002. "외국인직접투자와 지역발전전략". 이정식·김용웅 엮음.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아카데미.

小島清. 1981. 多國籍企業の 直接投資. タイヤキン社.

- Andersson, Ulf. Mats Forsgren and Torben Pedersen. 2001. "Subsidiary performance 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embeddedness."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0. 3-23
- Armstrong, H. and Jim Taylor. 2000. *Regional Economics and Policy*. Blackwell Publishers
- Asiedu, E. 2002. "On the determinants of FDI to developing countries: is Africa different?." *World Development* vol.30. no.1. 107-119
- Bagchi-Sen, Sharmistha and James O. Wheeler. "A spatial and temporal model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S." *Economic Geography*. 113-128
- Belderbos, R. and Giovanni Capannelli. 2001. "Backward vertical linkages of foreign manufacturing affiliates: Evidence from Japanese multinationals." *World Development* vol. 29. no.1. 189-208
- Borensztein, E. J. De Gregorio and J-W. Lee. 1998.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45. 115-135

- Borensztein, E., J. De Gregorio and J-W. Lee. 1998. "How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affect economic growth?"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45. 115-135
- Brannon, J., J. Dilmus and G. W. Lucker. 1994. "Generating and sustaining backward linkages between maquiladoras and local suppliers in Northern Mexico." *World Development*. 22(12). 1933-1945
- Braunerhjelm, P. and R. Svensson. 1996. "Host country characteristics and agglomeration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Applied Economics*. 28(7).
- Capanneli, G.. 1993. "Transfer of Japanese electronics industry to Malaysia." *Keizai Bunseki(The economic analysis)*. 129. 67-118
- Chen, Tain-Jy and Ying-Hua Ku. 2000. "The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firm growth: the case of Taiwan's manufacturers."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12. 153-172
- Cheng, L.K. and Yum K. Kwan. 2000.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the location of FDI? The Chinese experi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1. 379-400
- Chung, W. 2001. "Mode, size and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and industry markup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vol.45. 185-211.
- Coughlin, C. C. J. Terza and V. Arromdee. 1991. "State characteristics and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ithin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3. no.4. 675-683.
- Das, Satya P. 2002.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relative wage in a developing econom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67. 55-77
- Dicken, P. 1992. *Global Shif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2nd ed.). Guilford Press.
- Dyer, J. H. 1996. "Specialized supplier network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Evidence from the auto industry."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7. 271-291
- Fortanier, F. 2001.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al Market Trends*. no.79. OECD

- Friedman, J., D.A. Gerloswki and J. Silberman. 1992. "What attracts foreign multinational corporations? Evidence from branch plant loc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32(4). 403-418
- Gastanaga, V., J.B.Nugent and B. Pashamova. 1998. "Host country reforms and FDI inflows: How much difference do they make?" *World Development*. 26(7). 1299-1314
- Glass, A.J. and Kamal Saggi. 1999. "FDI policies under shared factor marke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49. 309-332
- Glickman, N.J. and Douglas P. Woodward. 1988.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Patterns and determinants."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vol.11. no.2. 137-154
- Hausmann, R. and E. Fernandez-Arias. 2000. "The new wave of capital flows: Sea change or just another titl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Working Paper no.417*
- Hil, S. and Max Munday. 1992. "The UK regional distribu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alysis and determinants." *Regional Studies* vol.26.6. 535-544
- Hiramoto, A. 1992. "Subcontracting strategies of Japanese companies in Europe and Asia-A case study of the electronics industry." In S. Tokunaga. Altmann. H. Dames(Eds). *New impacts on industrial relations: Internationalization and changing production strategies*. Munchen: Deutsches Institut fur Japan Studien
- Hood, N. and James H. Taggart. 1996. "Germ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K and Ireland: Survey Evidence." *Regional studies* vol.31.2. 139-150
- Hymer, S. 1976.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The MIT Press.
- Jaspersen, F. Z., A.H. Aylward and A.D. Knox. 2000. "The effects of risk on private investment: Africa compared with other developing areas." In P. Collier. C. Pattillo(Eds.). *Investment and risk in Africa(71-95)*. New York. St. Martin's Press

- Kearns, A. and Frances Ruane. 1999. "The tangible contribution of R&D-spending foreign-owned plants to a host region: a plant level study of the Irish manufacturing sector(1980-1996)." *Research Policy* 30. 227-244
- Kelegama, S. and F. Foley. 1999. "Impediments to promoting backward linkages from garment industry in Sri Lanka." *World Development* 27(8). 1445-1460
- Kim, Y.W. 1991. "Organisation and Industrial Linkages in Developing Countries: A Case Study of Less Industrialised Region in Kore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heffield. 48-49.
- Kimura, Yui and Thomas A. Pugel. 1995. "Keiretsu and Japanese direct investment in U.S. manufacturing." *Japan and World Economy* 7. 481-503.
- King, L.P. and B. Varadi. 2001. "Beyond Manichean economic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growth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 KPMG Consul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September 2001.
- Kumar, N. 1994. "Determinants of export orientation of foreign production by US multinationals: An inter-country analysi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25(1). 141-156
- Kundu, Sumit K. and Farok J. Contractor. 1999. "Country location choices of service multinationals: An empirical study of the international hotel sector."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5. 299-317
- Lagendijke, A. 1997. "From New Industrial Spaces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nd Beyond: How and from whom school industrial geography learn?". *Working Paper*. Center for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Studies. 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
- Lim, Y. C. and P.E. Fong. 1982. "Vertical linkage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7. 585-595
- Lipsey, R. E.. 1999. "The location and characteristics of US affiliates in Asia." *NBER working paper no.6876*

- List, J.A. 2001. "US country-level determinants of inbound FDI: evidence from a two-step modified count data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19. 953-973
- Loree, D. W. and S. Guisinger. 1995. "Policy and nonpolicy determinants of US equity foreign direct investment." *Journal of Business Studies*. 26(2). 281-299
- Markusen, J.R. and Anthony J. Venables. 1999. "Foreign direct investment as a catalyst for industrial develop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vol.43. 335-356
- Mody, A. and K. Srinivasan. 1998. "Japanese and US firms as foreign investors: Do they march to the same tune?" *Th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31. 778-799
- Morris, J. L. 1987. "Industrial restructur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uneven development: the case of Wales." *Environment and Planning A*. vol.19. 205-224
- Morsink, Robert L.A. 1998.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orporate Networkings: A Framework for Spatial Analysis of Investment Conditions*. Edward Elgar.
- Moshirian, F. 2001. "International Investment in financial servic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5. 317-337
- Mudambi. R. and S. M. Mudambi. 2002. "Diversification and market entry choices in the contex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11(2002). 35-55.
- O'Farrel, P. N. and B. O'Loughlin. 1981. "New industry input linkages in Ireland: An econometric analysis." *Environment and Planning*. 13. 285-308
- O'hUallachain, B. 1984. "Linkage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Economy Geography*. 238-253
- O'hUallachain, B. 1985. "The role of FDI in the development of regional industrial systems: current knowledge and suggestions for a future american research agenda." *Regional Studies*. vol. 20. no.2. 151-162
- O'hUallachain, B. and Neil Reid. 1996. "Sectoral difference in the determinants of the loc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Papers in*

Regional Science: The Journal of the RSAI 75. 2: 201-235

- Reid, N. 1994. "Just-in-time inventory control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of Japanese-owned manufacturing plants." *Regional Studies*. 29. 345-355
- Reis, A.B. 2001. "On the welfare effects of foreign inve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4. 411-427
- Ruffin, Roy J. and Farhad Rassekh.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U.S. capital outflow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6. no.5. 1126-1130
- Schneider, F. and B.S. Frey. 1985.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orld Development*. 13(2). 161-175
- Shi, Yizhe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international production strategy of firms: the ca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Journal of World Business* 36(2). 184-204
- Sjoholm, F. 1999. "Productivity growth in Indonesia: The role of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 Sun, H. and Ashok Parikh. 2001. "Exports.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China." *Regional Studies* vol. 35.3. 187-196
- Sun, Qian and Wilson Tong, Qiao Yu. 2002.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ross China." *Journal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21. 79~113
- Tatoglu, E. and Keith W. Glaister. 1998. "An Analysis of motives for western FDI in Turkey." *International Business Review* 7. 203-230
- Tcha, Moonjoong. 1997. "A note on Australia's inward and outward direct foreign investment." *Papers in Regional Science* 78. 89-100
- Thomas, D.E. and Robert Grosse. 2001. "Country-of-origin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n emerging market: the case of Mexico." *Journal of International Management* 7. 59-79
- Thompson, E. R. 2002. "Cluster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nhanced technology transfer : Evidence from Hong Kong garment firms in China."

World Development 2002

- Tsai, P. L. 1994.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19. 137-163
- Tsai, Pan-long.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come inequality: further evidence." *World Development*. vol.23. no.3. 469-483
- Turok, I. 1993. "Inward investment and local linkages: How deeply embedded is 'Silicon Glen'?" *Regional Studies*. vol.27. 5. 401-417
- UNCTAD. 2002. *World Investment Report Annex*. UNCTAD.
- Wei, S. J. 2000.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2(1). 1-11
- Wheeler, D. and A. Mody. 1992. "International investment location decision: The case of US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33. 57-76
- Xin, X. and J. Ni. (eds.) 1995. "Dongxi Lunheng: Tianping Shang de Zhongguo (Discussion of the East and West: China on the scale)". *China Press*. Beijing.
- Young, S. and Ping Lan. 1996. "Technology transfer to China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onal Studies* vol.31.7. 669-679
- Young, S., Neil Hood and Ewen Peters. 1993.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vol.28.7. 657-677
- Zhang, K.H. and Shunfeng Song. 2000. "Promoting exports-the role of inward FDI in China." *China Economic Review* vol.11. 385-396.

SUMMARY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Local Industrial Linkag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Companies in Korea

Mi-Sook Cha, Youn Hee Jeong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the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local industrial linkag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ompanies in Korea. To accomplish this purpose, firstly the framework of study is drawn up through reviewing theories on the growth,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local industrial linkages of FDI companies. Secondly, it investigates into actual investment conditions of FDI companies and then analyzes locational distribution of FDI companies. Thirdly, with an inter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it analyzes factors of plant location decision of FDI investors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FDI companies in terms of the companies' structure, production and investment. Fourthly, it analyzes the local industrial linkage, the employment effect and networking between FDI companies and regional social institutions. From these analyses, some

policy recommendations to revitalize regional economy and strategies for attracting FDI companies to the region are deduced.

FEATURES OF FDI AND LOCATIONAL DISTRIBUTION

Main feature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FDI has been rapidly increased recently. About 63% of the total FDI registered companies(8,335) and 62% of an amount invested have been made in Korea since 1998. Second, it shows an increasing trend especially in the service sector. FDI is distributed by industry as follows: 68.1% in the service sector, 31.4%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0.5% in the agricultural and fisheries sector.

Main features of FDI locational distribution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FDI is concentrated in the capital and metropolitan regions. About 88% of FDI companies and about 70% of an amount invested are concentrated in the capital region. By industry, around 70% of FDI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92% in the service sector are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Second, the distribution gap between the capital and other regions has been widened. Looking into the extent of the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contrasted with 1.0 company unit in other regions, 5.19 units between 1990~1997 and 7.12 units since 1998 are placed in the capital region. It shows a widening gap in distribution between the capital and other regions, especial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ird, FDI companies in manufacturing sector tend to agglomerate in some regions. FDI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end to concentrate in the areas, where same or similar lines of business by Korean companies are agglomerated, especially in some industries such as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and apparatuses and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In addition, foreign companies are beings established in local areas to

exploit incentiv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particularly in the industrial parks exclusively for FDI. About 23.5% of FDI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re located in the industrial parks and this ratio is much higher than the domestic companies' ratio of location in industrial parks(13.5%).

LCCATIONAL CHARACTERISTICS AND LOCAL LINKAGE OF FDI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DI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irst, have high tendency to locate in the capital region, regardless of type of their organization structure and the features of investment. Second, low land prices and rents, easy access to customers, and convenience of transportation are important factors for location of FDI companies. Third, FDI companies show the pattern of gradual relocation from the capital region to other local areas as they expand their production. Obviously policies to induce the location of FDI companies in industrial parks exclusively for foreigners have some impact. In other words, FDI companies tend to locate in the capital region for the business and marketing activities in the initial stage, minimizing the investment risk caused by insufficient information of a target country of their investment. When they begin to extend to production activity, they gradually relocate into the suburbs of the capital region or local area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local linkages for FDI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irst, FDI companies are supplied with materials less within the regions(15.2%) than from abroad(33.6%). Second, comparing with their purchase of materials within the regions, FDI companies are selling relatively much more products within the regions(42.4%). These patterns of local purchases and sales are closely connected with FDI companies' tendency to increase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securing find a market. Third, all the FDI companies, which

are located both in the capital and other regions, tend to work with institutions placed in the capital region in reference to the business service such as legal, accounting and tax matters. Fourth, the extent of technological transfer is limited. Fifth, the employment effect of the FDI companies is higher than that of other domestic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regional employment effect is also high. An average of employment of FDI companies is 117 persons and the employment rate grows 4.6% than initial investment year. In addition, two thirds of the surveyed FDI companies have cooperated with other domestic(subcontract) firms and one third have had strategic alliances with domestic firms. Interchanges between FDI companies and regional social institutions are few and limited to mutual friendship.

STRATEGIES TO USE FDI FOR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The guidelines to invigorate the regional economy by attracting FDI companies require the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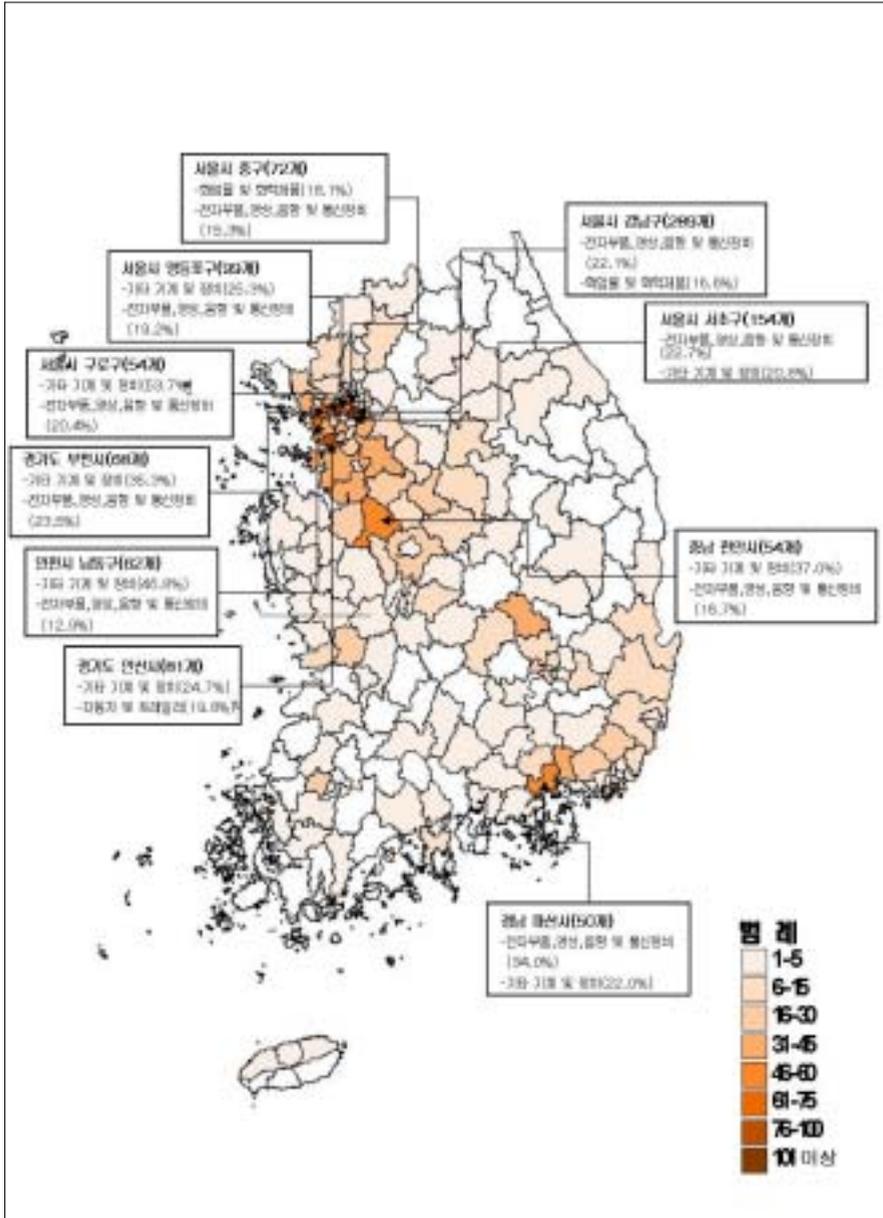
- Shift their policies from an industry focus to an industry cum regional focus so as to achieve a balanced industrial and regional development.
- Convert current policies for the inducement of new FDI companies into policies to attract new FDI companies and manage existing companies as well.
- Induce FDI companies selectively and strengthen the local authorities' self-controls. In other words,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promote systems of preferential planning, inducement and support for the FDI companies which have large impacts on the regional economy.
-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in the region such as residential, educational and cultural facilities for the convenient business activities of foreign companies.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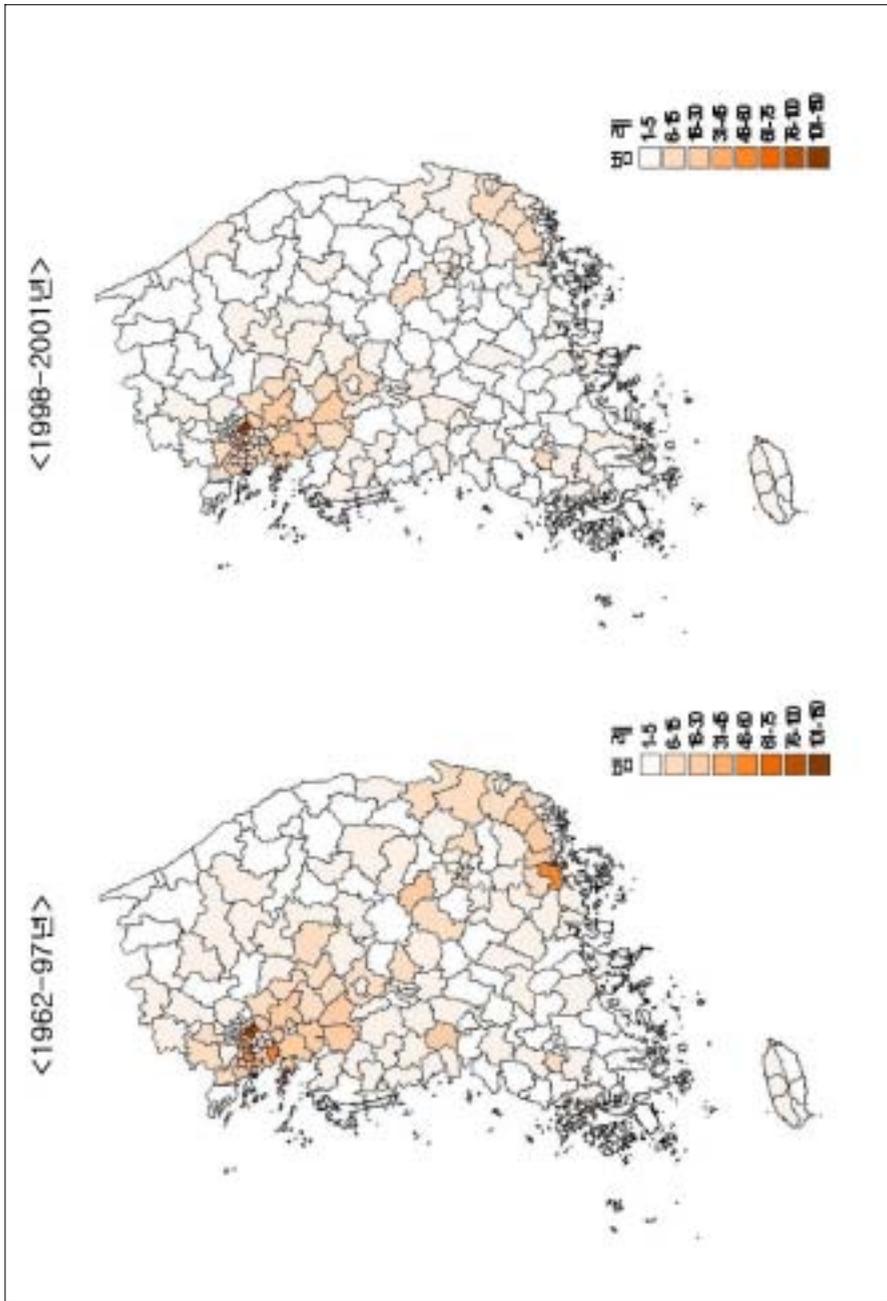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실태도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면담사례 조사내용
3.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설문조사 양식
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사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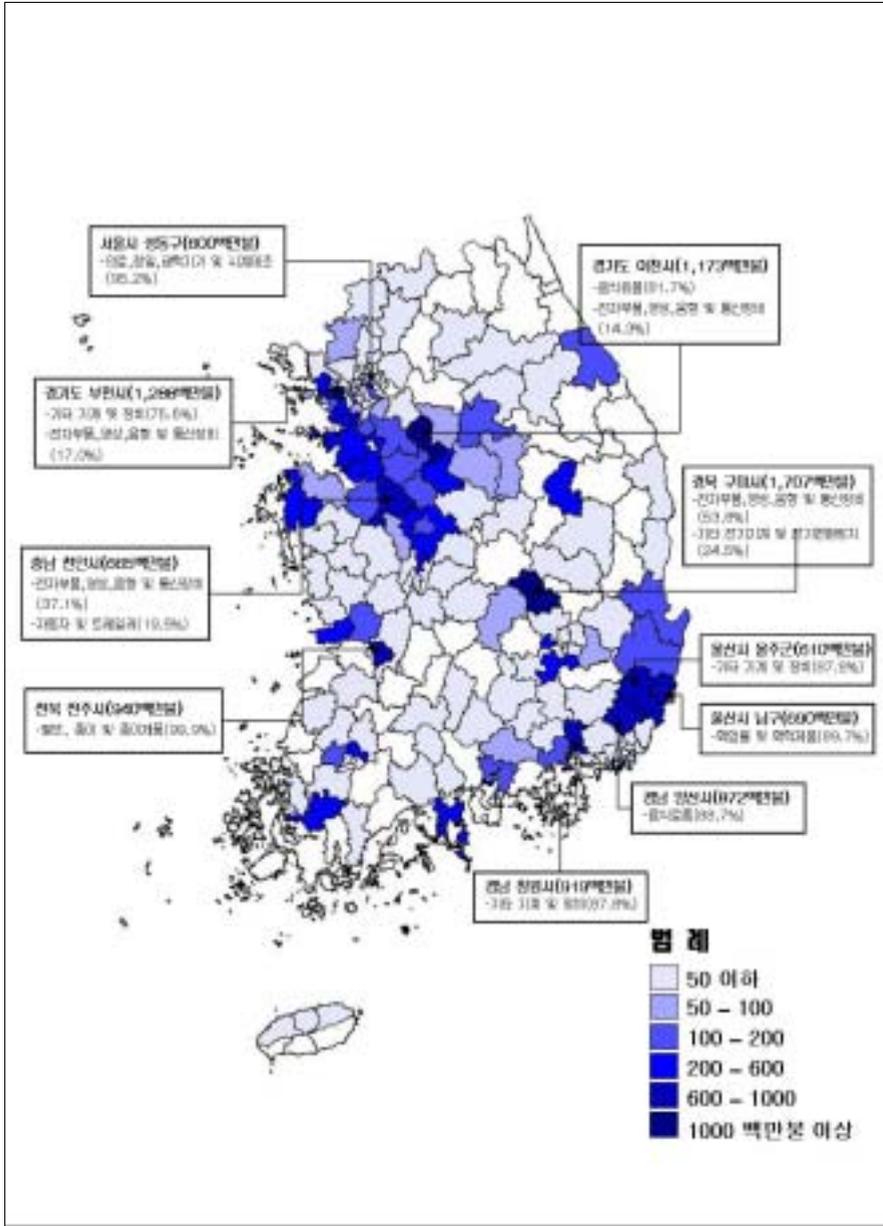
부록 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실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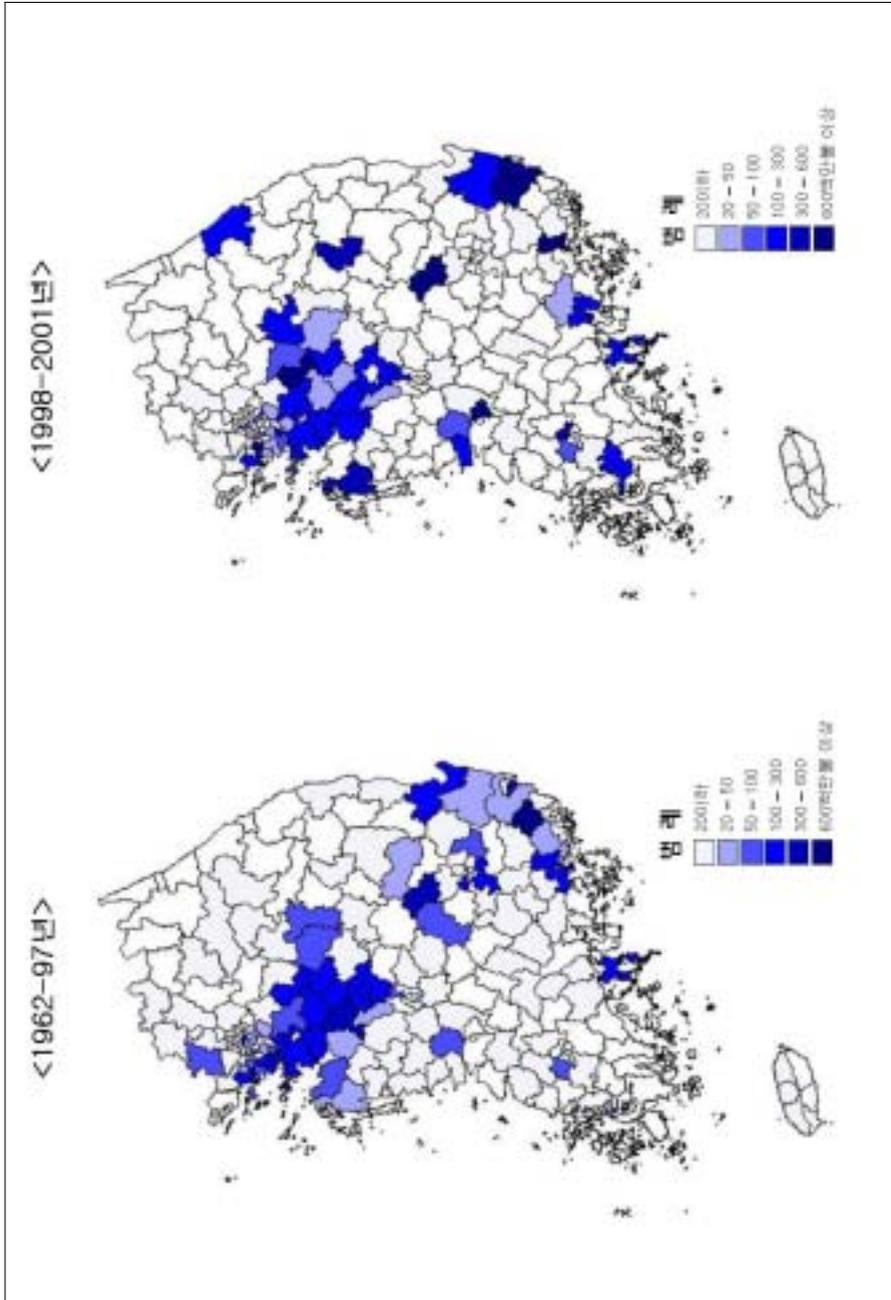
<부표 3-1>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도(본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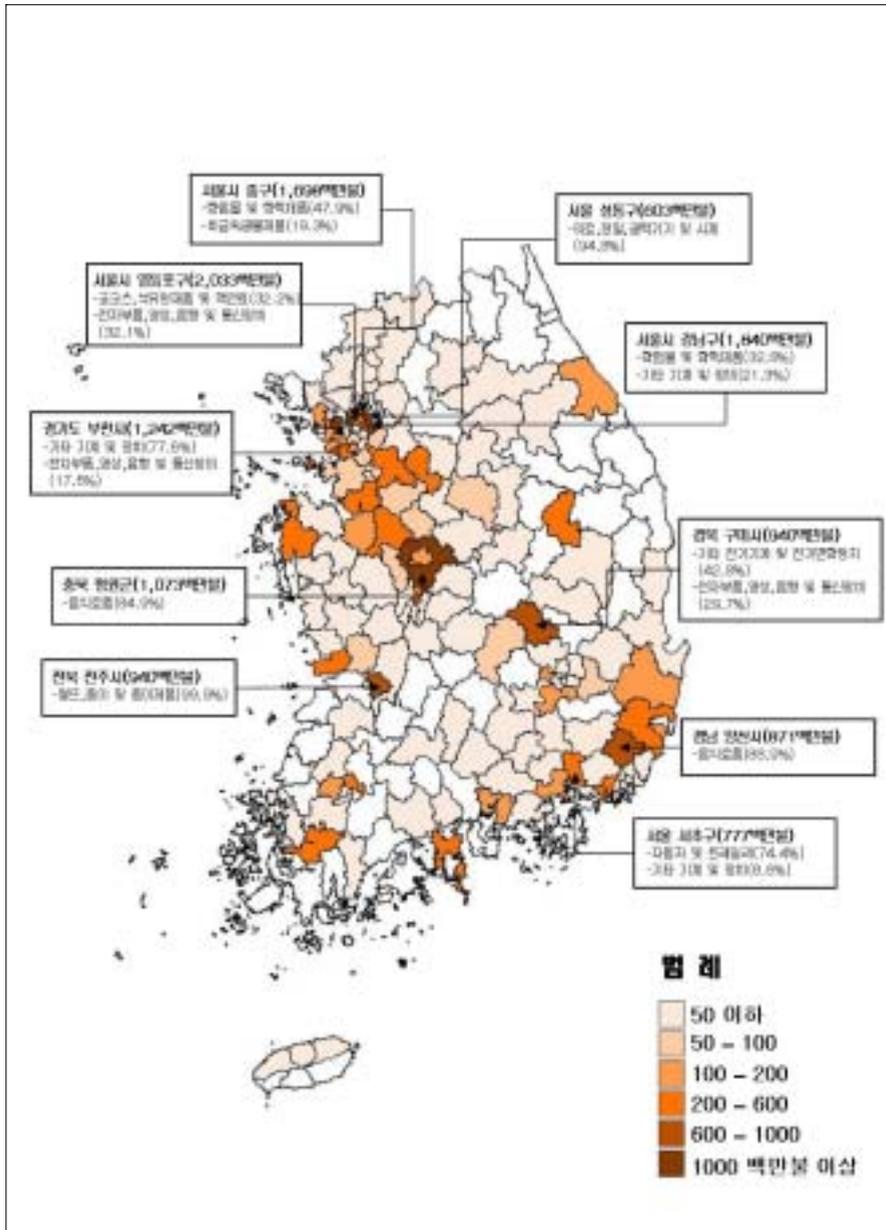
<부표 3-2>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지역집적 변화추이(본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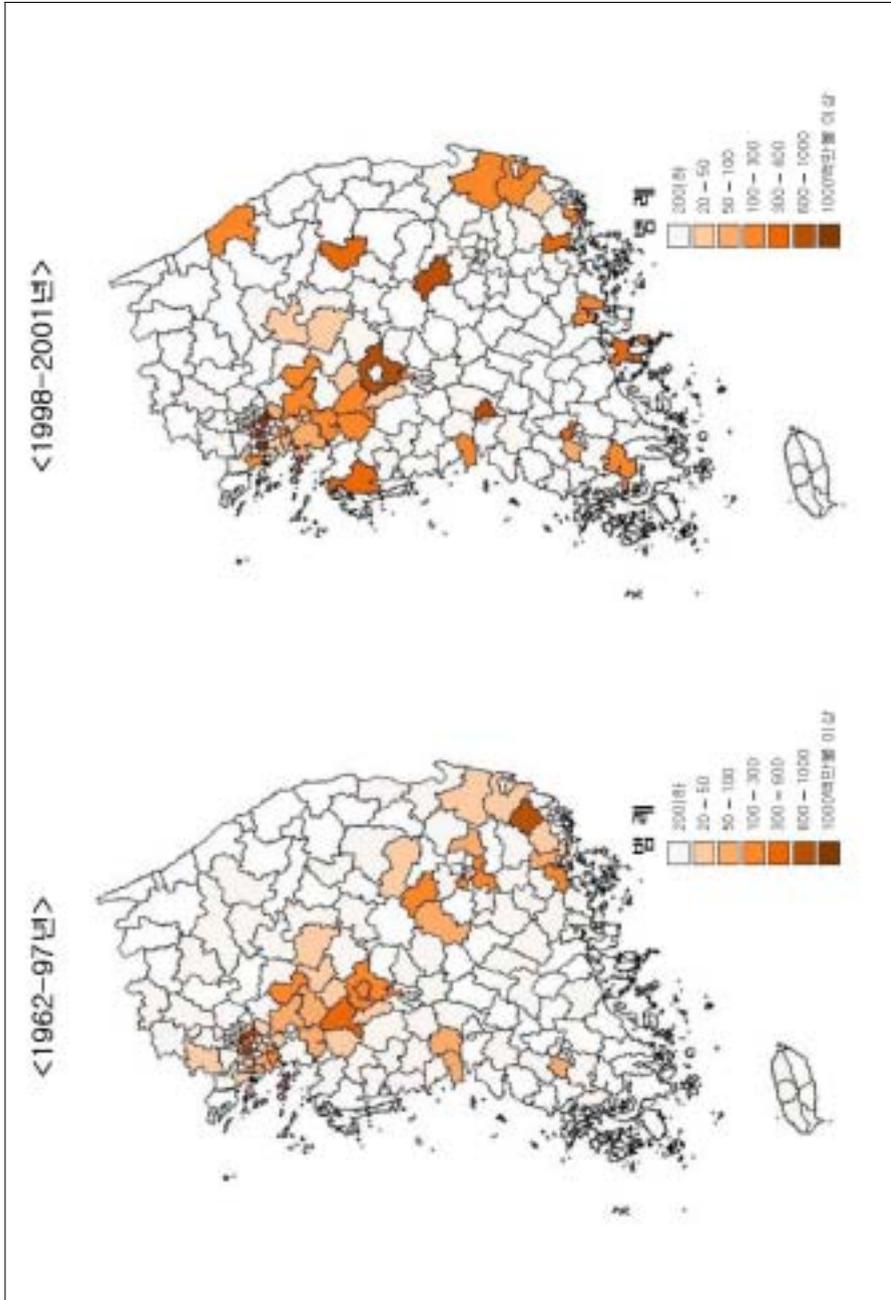
<부표 3-3>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도(공장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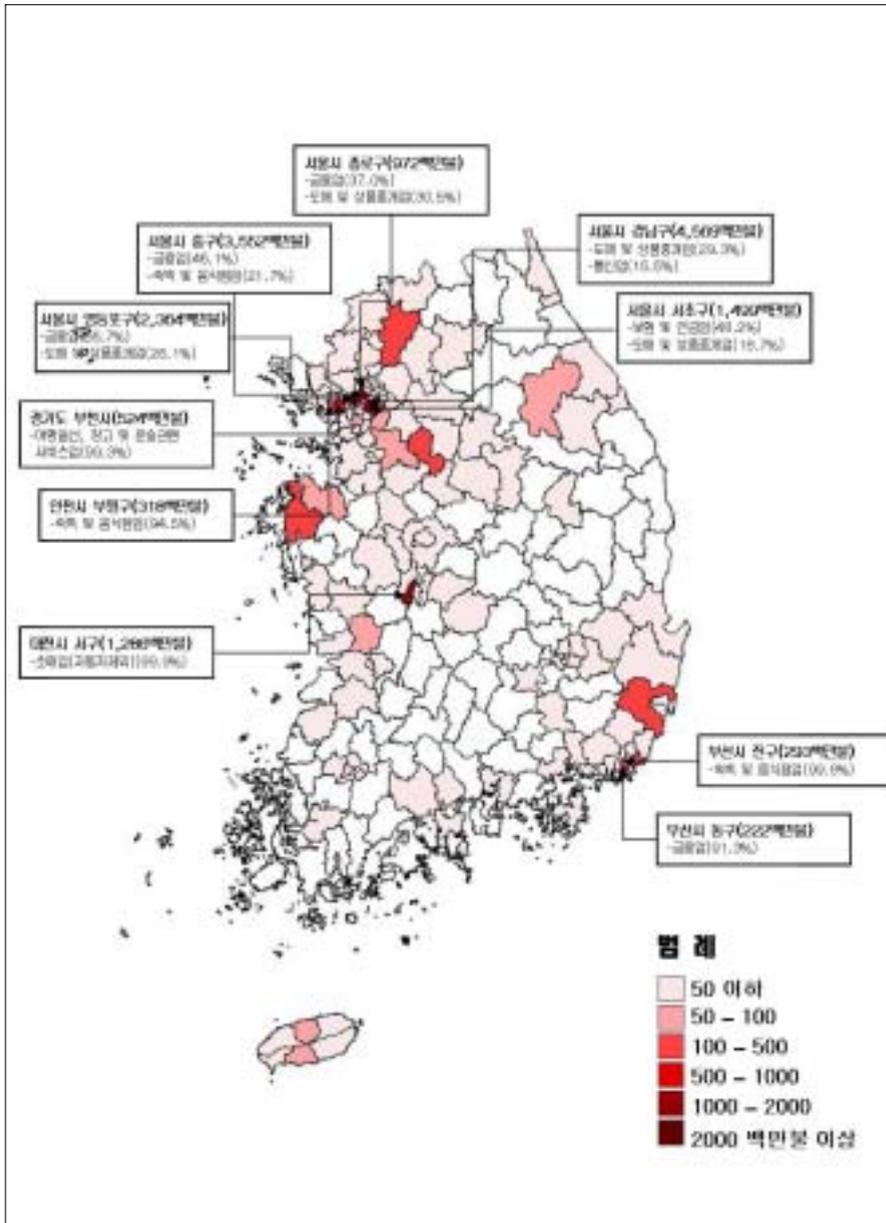
<부표 3-4>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 변화추이(공장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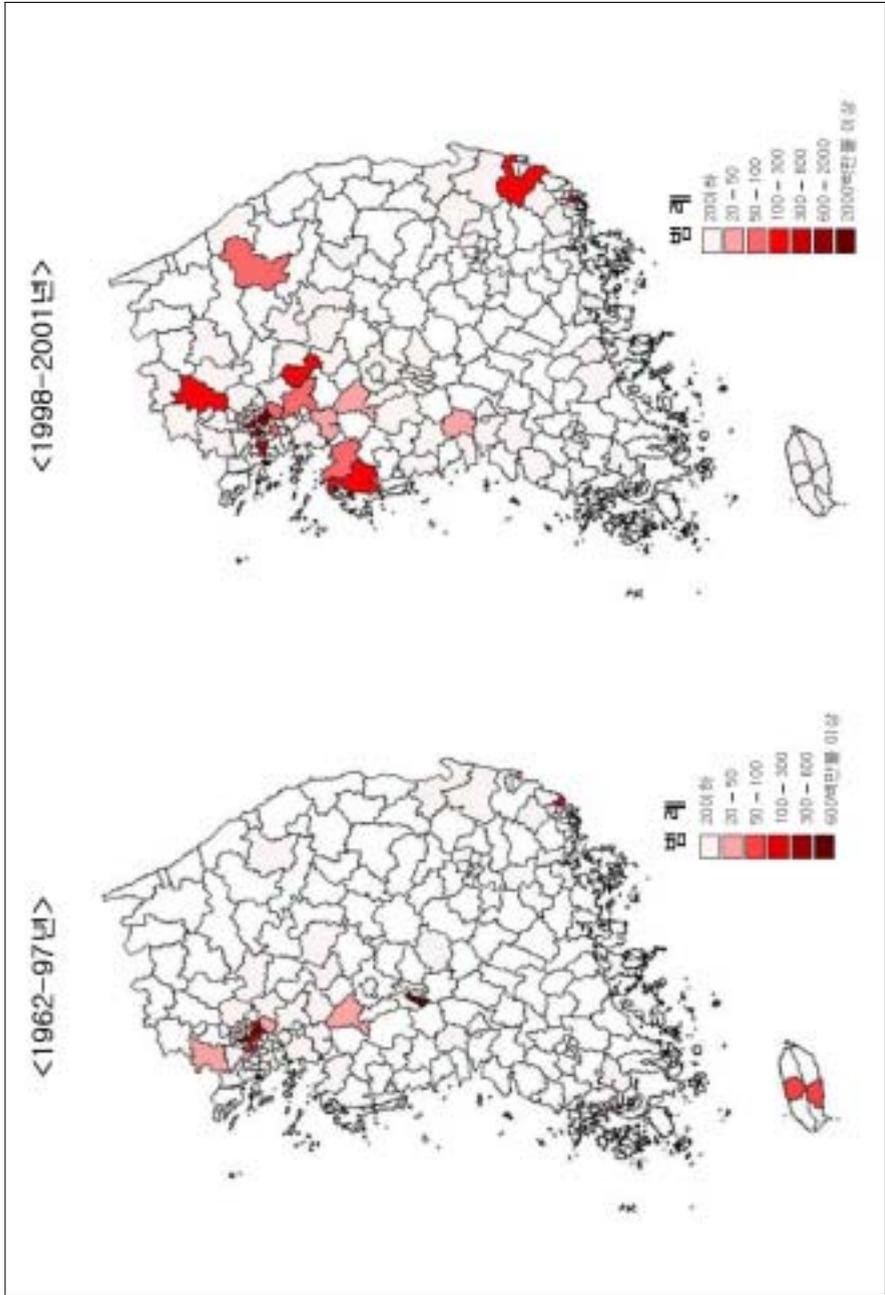
<부표 3-5>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도(본사기준)



<부표 3-6>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 변화추이(본사기준)



<부표 3-7>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도(본사기준)



<부표 3-8>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투자규모별 지역집적 변화추이(본사기준)

부록 2: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면담사례 조사내용

▣ 면담사례업체의 현황요약표

업체명	투자년도	고용 인원	투자국	투자 비율	투자형태	연간 매출액	생산제품	소재지/ 입지유형
1. UV사	1995(합작) 2000(단독)	120명	일본	100%	합작투자 →단독	180억	LCD, 진공관련 제조장비	· 본사·공장: 경기 평택시(어연· 한산외국인전용단지) · 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2. ID사	2001년	200명	대만	100%	단독설립	240억	DVD, CD-ROM	· 본사·공장: 경기 평택시(어연· 한산외국인전용단지)
3. FK사	1990년	3명	독일	23%	합작투자	45억	근접센서 광센서	· 본사·공장: 경기도 안양시
4. NS사	1986(합작) 1996(단독)	120명	영국	100%	합작투자 →단독	270억	산업용접착 제 등	· 본사(영업):서울시 강남구 · 공장: 천안 시화 · 연구소: 부산등
5. HM사	1988년	40명	벨기에	50%	합작투자	110억	자동차 내장재	· 본사·공장:충남 천안 · 본사(영업):서울시 중구
6. KT사	1999년	1,100명	일본	100%	단독설립	1500억	적층세라미 콘덴서	· 본사·공장:경남 사천 진사외국인전용단지 · 영업소: 서울, 수원, 구미, 광주
7. ES사	2000년	100명	독일	70%	단독설립 (국내업체 가자본투 자 30%)	140억	대구경 구필강관	· 본사·공장:경남 사천 진사외국인전용단지 · 영업소: 창원, 서울
8. VC사	1998년	1,300명	스웨덴	100% (단계적 투자)	기존업체 인수	5,400억	굴삭기	· 본사(영업): 서울시 용신구 · 본사·공장:경남 창원 · 물류센터:인천
9. ST사	2000년	900명	프랑스	50%	합작투자	2,400억	방위산업	· 본사(영업): 서울시 강남구 · 본사·공장:경북 구미
10. UC사	1999년	30명	벨기에	100%	단독설립	200억	Li-ion전지 양극재료	· 영업소:서울 서초구 · 본사·공장:충남 천안 외국인전용단지

업체명	투자 년도	고용 인원	투자국	투자 비율	투자형태	연간 매출액	생산제품	소재지/ 입지유형
11. KC사	1993년	9명	이태리	100%	단독설립	30억	로타베이터 등 농기계	· 본사·공장:충남 천안시 외국인전 용단지
12. KS사	1998년	64명	일본	100%	합작투자	48억	덤프트럭, 에어서스펜션	· 본사·공장:광주 광역시 평동외국 인전용공단
13. NF사	2000년	50명	일본	34%	합작투자	23억	김치,식품	· 본사·공장:광주 광역시 평동외국 인전용공단
14. SP사	2001년	55명	일본	10%	합작투자	55억	광통신부품	· 본사·공장:광주 광역시 평동외국 인전용단지
15. HH사	2001년	27명	싱가폴	10%	합작투자	12억	선박구성품	· 본사·공장:전남 영암군 대불산업 단지내 외국인전 용단지
16. SH사	1996년	73명	노르웨이	6%	합작투자	100억	크레인, 감판기계	· 본사·공장:전남 영암군 대불산업 단지내 외국인전 용단지
17. AK사	1988년	230명	스위스	100%	단독설립	12억	산업용공정자 동제어장치	· 본사·공장:충남 천안외국인전용 단지(전국6개소)

(1) UV사

□ 모기업 및 국내진입형태

- UV사의 모기업은 일본계 기업으로서 1950년대 일본진공기술로 알려진 UV JAPAN. 모기업은 현재 미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 국내에는 1995년 국내지분(삼릉엔지니어링) 25%와 UV JAPAN 75% 투자지분의 합작투자형태로 진입하였으며, 1995년 7월 설립당시는 서울시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영업활동을 전개하다, 2000년 100%의 단독투자형태로 전환하면서 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임대공단에 공장을 설립하고 생산·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조직특성 및 모기업과의 관계

- UV사는 본사와 공장은 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내에, 그리고 서울의 영업사무소(서초동), 구미시에 고객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며, 기업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권의 80~90%는 국내회사에 주어졌음
- 설립 초창기에는 일본인 주재원이 3~4명이 있었으나 현재는 자금관리와 공장장 등 2명의 일본인이 국내에 주재하고 있음

□ 생산품 및 고용

- 생산품: LCD(액정 TFT)와 반도체의 웨이퍼에 막을 입히는 진공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한 진공관련 제조장비 및 영업활동 병행
- 고용: 현재 고용인원은 120명 정도. 직종별로는 사무직 30명, 영업직 20명, 기술직 70명으로 영업직원은 서울의 서초동 사무소에 근무하고, 기타 사무직 및 기술직은 공장근무
- 인력채용: 자격조건은 전공지식(기계, 전자, 금속)과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며 정기채용과 수시채용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엔지니어의 50%는 현지조달(경기도)이나, 평택시 출신은 이 중에서 20%미만(평택시의 취업박람회

참여한 적 있으나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지역고용창출은 미미한 수준). 채용인력중 20명(엔지니어)은 일본본사(모기업)에 교육훈련연수를 보내며, 이의 20%만이 연구개발이 가능한 기술인력임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국내투자동기: 최초로 한국에 입지하게 된 주 요인은 국내인건비 저렴에 따른 비용절감과 고도첨단기술의 국산화 및 생산에 대한 한국 CEO(일본 동북대학 LCD관련대학 박사출신, 일본본사 및 삼성 근무경력)의 남다른 의욕을 가지고 있었음
- 입지선정과정: 본사는 2000년에 공장설립. 국내의 공장입지 선택시, 비용절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국내의 입지선정 한계라인으로는 천안까지를 고려하였으며, 이는 직원들의 지방이전여건, 출퇴근시간 및 고객기업의 분포(기흥, 수원, 천안, 구미)등을 고려한 결과임. 초기 입지탐색단계에서는 KOTRA로부터 사업등록에 관한 정보를 얻었으며, 이후에는 경기도 지방공사 등과 접촉하여 정보구득
- 입지결정요인: 현재의 입지(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를 선택한 것은 임대료, 관리비 면제 등의 혜택과 법인세 등 조세감면 및 인프라구축 수준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였음. 또한 현재 서초동에 입지한 영업사무소는 삼성과 LG 등 고객을 고려하여 입지·영업활동
- 입지현황: UV사는 경기도 평택시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전용공단에 입주해 있으며, 입주조건은 20년 무상임대, 법인세 감면 등을 받고 있음

□ 생산 및 판매연계

- 매출액 및 수익률: 매출액은 2000년 150억원, 2001년 180억원이었으며 금년의 매출목표는 500억원 예상(장비1대당 약 40억원). 수익률은 국내영업

활동만 할 당시에는 20%수준이었으나, 제조(생산)활동 이후에는 수익률이 0%에 가까운 수준임

- 원부자재 구입처: 평택항,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에서 주로 수입(올해 60~70%, 작년까지 80~90%)하며, 일부 국산화가 이루어진 부품은 평택시, 수원시 등에서 자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판매 및 고객업체: 장비관련 생산제품의 주요고객은 삼성, LG, 하이닉스, 동부전자 등 국내대기업체이며, 게이저, 정밀기계 등 규격품(단품)의 고객은 전국 각지(인천남동공단, 구미 등)에 분포되어 있음. 국내공장의 생산용량내에서 한국내 수주분을 생산하며, 그 이상의 수주분은 일본으로 보냄
- 사업지원서비스 연계: 수출입 무역거래 등과 관련하여 1개월에 1~2회정도 법률·회계서비스는 삼일회계법인 등 서울소재의 서비스업체를 이용하며, 금융은 지역금융기관과 거래하고 있음. 이들과는 연간 2~3회 방문하며, 주로 전화, 팩스 등으로 업무연락이 이루어짐

□ 기술개발 및 기업네트워킹

-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본사의 기술은 대규모 자본이 소요될 뿐만아니라 기술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현재 국내에서 자체 연구개발은 곤란할 뿐만아니라 이직·창업도 전무한 실정임. 현재 국내에 연구개발능력은 없지만, 생산공정단축 등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의 국산화율도 장비마다 다르나, 액정기술의 경우 약30%정도 국산화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4~5년이내에 80~90%를 국산화할 계획임
- 기업네트워크 및 협력연계: 한국진공협회와 LCD관련협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주로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기술개발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실정. 현재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연계는 없으며 향후의 연계가능성도 낮은 편임. 한편, 현재 입지한 임대공단내 관련업체들과의 교류가 친목도모 등 미미하지만 이루어지고 있음

□ 입지여건 및 개선요구

- UV사에서 필요한 기술은 독특한 첨단기술로 지역내에서 기술인력을 조달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타지역(경기도 분당, 평촌 등)에서 통근하고 있으며, 지역(평택시)의 주거환경과 교육문화수준이 높지 않아서 본 지역에 생활터전을 잡기는 어려운 실정임
-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용인들을 위한 교육·주거·문화인프라의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임

(2) ID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모기업: 모기업은 대만계 기업으로 해외본사는 대만에 소재한 DVD, CD-RW, CD-ROM 등 optical media를 생산하는 업체. 이 기업은 미국(생산공장), 독일(포장공장), 한국(생산공장) 등에 현지법인과 공장을 두고 있으며, 대만이 세계시장에서 동 분야의 80%이상 점유하고 있음
- 투자동기: 대만의 본사가 크게 성장하면서 분사(대만의 불안한 정치상황, 지진)에 대한 논의 시작.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 그러나 그보다 먼저, 현재 한국본사의 사장은 헐리웃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으로 미국메이저 영화사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대만 본사가 고객확보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사장을 스카웃하면서 한국에 대한 분사설립의 역사가 태동됨. 인건비 등 비용절감은 투자고려요인이 아니었으며, 인건비는 대만이 싸고(대만:한국=80:100) 생산성도 더 높은 수준이었음
- 투자형태: 대만이 전세계 생산점유율이 80%이상을 차지하나 동남아지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공장설립지를 모색하던 중에 현재 한국공장의 대표이사(미국거주)의 권유에 의해 한국에 공장설립 결정. 한국에는 2000년 6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법인등록, 동년 9월~2001년 3월까지 공장건축, 2001년 6월부터 생산개시, 10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투자금액은 자본금 총

460억(현금 25억, 나머지는 설비 등 현물투자)으로 단독투자기업 형태(대만 100%)

□ 생산품 및 모기업과의 네트워크

- 주요 생산품: DVD, CD-RW, CD-ROM 등 optical media 생산
- 모기업과의 관계: 대규모 설비투자계획 등에 대해서는 미국거주 사장(회사의 대표이사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SKC이사, 할리우드 영향력 보유자로서 대만 모기업에서 미국의 공장CEO로 스카우트하여 미국 대형영화사들과 긴밀한 관계보유자)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국내 운영 및 경영은 전적으로 국내 경영진에 의해 결정

□ 고용 및 교육훈련

- 고용규모: 현재 고용인원은 약 200명이며, 생산직 180명(2교대 근무제), 관리직 20명임. 생산직 직원 가운데 엔지니어(약110명)는 지역내(평택, 송탄) 공고출신들 가운데서 수시채용하며, 단순노무직(포장, 60~70명 정도)도 지역내에서 채용으로 전체 고용인력의 90%가 지역내 출신. 엔지니어의 연봉은 1,300~1,800만원, 단순노무직은 월 80~90만원 수준임
- 교육훈련: 공고출신 엔지니어들은 채용후 6개월정도 훈련을 거치게 되며, 초기에 기술인력들은 1개월간 대만연수를 받고있음(2000년 11월, 30명 채용하여 1개월간 대만 연수)

□ 기술이전 및 개발

-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 공장 및 기계설치 당시 대만 모기업에서 15명의 기술자가 내방하여 기계교육 및 실습훈련을 시켰으며, 현재는 3명의 대만기술자가 담당.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조직은 없으나 향후 계획중이며, 생산과 연구개발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상태임. 작년에 1개 생산라인에서 과일럿 시험을 통해 CR-RW 시제품을 자체생산하여 대만에 기술을 이전, 올해 6월에는 출시할 예정임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입지탐색 및 결정: KOTRA와 연계하여 입지 및 사업등록에 관한 정보를 얻었음. 서울과의 2시간내 거리, 확보가능한 부지면적, 인천공항과의 거리 등의 요인 하에서 국내 천안지역부터 입지탐색을 하던 중에 경기도지사가 외국인투자에 대해 매우 호의적이었으며, 지방공사 등과 접촉하여 정보구득
- 입지규모: 현재 대지 7,000평과 건평 5,200평을 20년간 무상임대 및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고도기술사업으로 7년간 법인세 면제대상(단지내 입주한 국내업체들은 평당 40만원의 분양가를 냄)
- 공장설립비 170억(자본금 20억원, 대만으로부터 장기차관 150억원)이고, 고도기술업종으로 등록세와 취득세 7~8억원 면제, 임대료 20년간 무상제공(현재 공장2층을 3층으로 증설, 장기적으로 연구동, 사무동 증설계획)

□ 생산 및 판매연계

- 매출 및 수익률: 월 20억원(CDR 10~11억원, DVD 10~11억원)이나 공장설립이후 2001년의 수익률은 90억원 적자상태였으나 금년 4월에 처음으로 1억 5천만원의 흑자 전환
- 생산 및 원부자재: 원부자재(폴리카보네이트)는 국내업체가 생산하지 못하여 초기에는 타일랜드 미쯔비시 공장에서 수입하다가 현재는 전량을 미국의 GE에서 수입하고 있음(P.C는 작년까지 국내생산이 안되어 전량 수입하였으며, 현재 LG-다우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여 테스트단계이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님) 1개월에 약 100여톤정도의 자재를 부산항만으로 수입하며, 화학약품 등의 원부자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수입함. 생산과 관련한 국내 및 지역내 업체와의 연계는 매우 미미한 실정임(포장박스, 포장인쇄 등)
- 국내 수요는 2~3천장에 불과하나 생산라인이 가동되면 70만장을 생산할 수 있음, 나머지는 수출할 계획임
- 고객 및 판매연계: 생산제품의 50%는 수출, 국내 50% 차지. 우리나라에서는 용산총판, 헐리우드 메이저영화 직배사 6개중 5개기업(월트디즈니는 일본업체 제공)에 공급하고 있음. 광미디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내유일 기업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음(미국에서 주문을 받아 대만, 한국에 재하청 형태)

□ 서비스연계 및 협력연계

- 사업지원서비스: 법률, 회계, 감사 등 사업서비스는 삼일회계법인 등 서울 소재업체를 이용(년 1~2회)하며, 평택관세청 출장소는 1개월에 10~30여회로 수시이용하므로 지역업체를 활용하고, 금융은 지역금융기관(평택지점)과 주로 거래하고 있음
- 기업네트워크 및 협력연계: 지역협회나 상공회의소 등과의 연계나 네트워크는 전무한 실정

□ 기업활동의 혜택 또는 애로사항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법인세 면제혜택대상이나 작년에 수익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실정. 산업자원부에 고도기술업종으로 인정되어 조세감면혜택을 받았으며, 임대료와 관리비 면제(토지분양비용 총 28억 원 규모이고, 연간이자 2억원의 혜택을 보고있음)
- 공장가동에 필요한 인프라의 구축은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되나, 운영상 건물을 담보로 융자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170억을 들여 공장을 설립했으나, 토지를 임대함에 따라 건물담보로 자본을 빌릴 수 없음)

(3) RK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모기업 및 국내투자동기: 1990년에 독일 모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 및 23%의 자본투자에 의해 설립. 독일 RK사는 1960년대 설립된 센서분야의 기술자들에 의해 창업된 회사로 센서분야의 독자적인 기술력 보유업체. 당시 독일 RK사가 한국내 판매업체를 물색하던 중(상공부 등록)에 대기업(LG)보다는 기술이전 견제가능 및 독어해독능력 등에 의해 투자결정

- 국내진입형태: 한국의 RK사는 대우자동차 엔진연구부에 근무하던 사장이 연구소 퇴직후 상공부에 한국대리점을 내고자하는 외국기업체 리스트에 있던 독일 RK사와 접촉하여 설립

□ 생산품 및 기술이전

- 주요생산품: 설비투자에 요구되는 근접센서(inductive sensor), capacitive sensor, 광센서 등 4~5백개 종류로 다품중소량생산체제. 판매의 80%는 독일 RK사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취하며, 자체 개발 또는 조립판매하는 비율은 20%수준임. 올해부터는 몇 개 품목에 대하여 OEM방식으로 생산·수출하고 있음
- 모기업과의 관계: 독일 RK사의 요구에 의해 창업은 서울 서초동에서 하였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입지나 영업 등은 일임하고 있음 (RK사는 독일 모기업의 국내판매 중개역할을 담당)
- 설립당시 1주일간 독일 RK사에서 책임자가 와서 기술교육을 시켰으며, 현재는 년 2~3일씩 독일에서 신제품교육 등에 참석하고 있음. 또한 하노버 기술박람회 등 참석

□ 고용 및 기술개발

- 현재 고용인원은 3명으로 사장, 경리, 직원(개발)임. 설립당시에는 8~10명 수준이었으며, 기술 5~6명, 영업 2명, 사무관리·경리직의 구성이다가 IMF 등의 영향으로 축소. 사장이 기술개발 및 관리를 직접 관할하며 부품조립 특성상 고용인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편임(기술자는 전자·통신분야의 기초적 지식있는 안양공고, 평촌공고 출신을 채용하나 군대, 대학입학 등으로 이직율이 높은 편임)
- 생산품이 다품중소량생산이고 기술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술이전이 어려워 동종분야로의 창업은 거의 없는 실정임
- 기술개발 및 협력: 작년 3~4개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조만간 양산계획(위조 화폐감식기, 두께측정기, 수평기): 신기술을 관련기술제작업체에 의뢰·제

작토록 함으로써 협력체제 유지(위조화폐감식기는 5개기술이 결합되어 완성되어 레시나코리아의 신기술이 그중의 하나에 해당; 수평기는 시제품을 개발하여 6월중 인천지역 업체를 통해 양산계획; 두께측정기는 1/1000의 오차측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안양 명학역 근처소재의 업체로 하여금 제작 의뢰, 현재 OEM방식으로 제품생산·판매)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1990년 국내설립 당시는 독일 RK사의 요구에 의해 서울 서초동에 40평규모(보증금 4천만원, 월 150만원 임대)의 사무실(개발실 겸용)을 임대(수제작이 대부분으로 별도의 공장이 필요없음)
- 서울 지명도, 광고·홍보효과 등을 고려하여 서울입지 요구
- 1998년 현재 소재한 경기도 안양시로 이전하였음. 입지규모는 52평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사장의 주거지근접 및 서울과의 교통편리성이 주요 요인
- 현재공장은 분양가 평당 280만원이나 3년거치 6년상환이고 시에서 70%를 보조해주는 조건. 월관리비는 인터넷망, 전기세(5만원)를 포함하여 총23만원 수준으로 저렴할 뿐만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우편서비스, 화물서비스 등이 매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생산 및 판매연계

- 매출 및 수익: 평균매출액은 3~4억 규모이고, 수익은 수입품의 경우는 1개당 20~40만원, 자체개발품의 경우는 1개당(5만원 판매, 물품 및 인건비 2만원) 3만원의 수익이 나는 편임. 2001년에는 최초로 적자였으나 신기술개발 및 양산예정으로 흑자전환 예상(매출량의 비율은 수입(영업): 개발(제조)=20:80)
- 원부자재 구입: 처음에는 전량을 독일 RK사에서 수입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독일(TR), 미국(IC) 등에서 원부자재 구매. 현재도 원부자재의 80%는 독일에서 구입하며 나머지는 일본, 미국 등에서 항공편을 통해 구입. 다만 하우스징(포장 등 단순품)은 국내업체(서울 목동, 인천, 대구 성

서공단내 정밀가공업체) 등에서 구매

- 판매 및 고객연계: 설립당시에는 기아기공, 대우중공업, 현대중공업, 구미 한국초자 등에 대리점(광주, 창원, 울산, 대구)을 통해서 판매하였음. IMF 와 어음결재문제로 인하여 현재는 유통상가(인천, 서울 청계천, 용산, 금천 구 공구상가, 안양 국제공구상가 등)와 울산, 창원(대우중공업)지역내 공단에 인터넷을 통해 판매(우편취급소에서 건당 2,500원에 택배처리 가능)

□ 서비스 및 지역사회연계

- 사업지원서비스: 수출입대행업체는 서울에 소재한 업체(세방)가 전적으로 처리해서 배달까지 해주고 있으나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변경되면서 수수료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세무서비스는 안양소재 업체가 대행처리해주고 있음
- 지역사회연계: 한국센서협회 등에 가입하여 연구개발 및 정보교류를 하고 있으며, 기술과 관련해서는 흥익대(평면TV 두께 및 평면측정) 등에서 문의가 있으나 직접적인 네트워크는 없으며 관련업체를 소개해주고 있는 실정임. 이밖에 안양시로부터 해외투자유치단 참여 및 안양벤처클럽 회원으로 주기적으로 회보, 인터넷메일 등 정보를 제공받고 있음

□ 기타 사항

- 본 회사는 1990년에 설립되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별도 혜택을 받은 적은 없으며, 당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원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음

(4) NS사

□ 회사설립 개요 및 투자형태

- 1985년 한국법인 설립(케미컬관련 무역업체): 서울에 사무실 입지
- 1986년 외국인합작투자로 법인인가
- 1988년 천안공장 확장

- 1990년 한국법인과 NK(NS의 전신) 합작투자(50:50비율의 합작투자)
- 1996년 NS사로 상호변경(M&A로 현재는 100% 외국인투자법인)
- 1999년 ICI Group(International Chemical Industry)의 한국지사인 ICI Korea가 NS사의 반도체용 접착제사업부문 인수합병
- 현재 NS사는 ICI Group Member로 경영권과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명칭이나 회사실제운영은 NS사에서 함(현재 ICI Korea는 한국내에서 폐쇄된 상태)
- 최초투자는 합작투자형태였으나 현재는 100% 단독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한 형태. 이유는 사업환경이 다른 한국투자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과, 외국기업의 자료에 근거한 투자속성상 최초지분율을 30:70에서 40:60으로, 다시 50:50에서 100%로 늘려나가는 신중한 투자전략 때문임(현재 투자금 120억원)

□ 생산품 및 모기업과의 관계

- 주요생산품: 산업용 화학제품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접착제, 여성용 화장품이나 위생용품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식품용 전분 등 (국내판매회사들 가운데 매출액 1위를 차지하며, 경쟁사로는 생산품의 분야에서 차이가 있지만 로메나스, 극동 3M 등을 들 수 있음)
- 모기업의 형태: NS사는 미국 뉴저지 브리지워터에 본사를 갖고있는 미국계 다국적기업으로 전세계 55개국에 현지법인, 아시아 15개국에 현지법인 운영
- 모기업과의 관계: ICI그룹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고용, 인사(과장급 이상 인력채용, 연봉 등), 수익 등의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NS사의 미국본사와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 region office의 통제를 받음
- 한국본사와 싱가포르 region office에 보스가 있으며, 대부분 기업운영상 결정권은 아시아 region office에서 보유하며, 기타 국내기업 운영에 대해서는 국내 경영진에 의해 결정

□ 고용 및 교육훈련

- 현재 고용인원은 120명으로 서울 사무소에 40명, 천안공장에 60명, 시화공장에 20명, 부산사무소에 2명. 외국인고용으로는 싱가포르의 Technical manager와 본사에서 파견된 한국계 미국인 과장이 연구소에 주재하고 있음
- 천안공장이 본사겸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서울사무소가 모기업과의 연락, 인력관리, 생산·구매 등 실질적인 본사기능 수행
- 기술생산직의 인력은 수시채용하고 있으며, 본사 관리직 등의 경우는 아시아 region office의 담당자가 직접 인터뷰하여 채용
- 임금수준은 국내동종업체와 비교시 10~15%정도 높은 편이나, 다른 외국 인투자기업체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없음(급여계산업체인 윌리엄머서의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
- 천안공장의 생산직과 연구직은 주로 지역출신이며, 연구직도 타지역의 연구직은 이직률이 높아 지역출신의 연구원을 선호(최근 연구직 보강시 한남대학교 대학원출신 채용)
- 기술영업직은 전공능력과 함께 탁월한 영어 능력이 요구되므로 경쟁업체나 관련업체로부터 잦은 스카웃 제의로 인해 이직률은 높은 편임(연20%)
- 직원의 교육훈련은 싱가포르의 region office에서 담당.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등의 공장에서 연구직과 기술영업직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또한 연구소장 등이 신규 부임할 시는 미국 본사에서 교육훈련이 이루어짐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서울사무소의 입지결정요인: 본사 손님들의 접견과 외국 손님들의 접대나 의전활동, 그리고 납품업체(역손)와의 근접성 등으로 강남에 입지(르네상스호텔과 인접: 당초 양재동에서 역삼동으로 이전)
- 연구소와 공장이 경기도와 지방 등에 있으므로 서울 강남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님. 서울사무소의 입지결정에 있어서도 미국본사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
- 총250평(사무공간 150평; 보증금 3억원 월임대료 1,500만원)

- 부산의 사무소는 영업기능을 수행하며,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
- 천안의 공장은 천안시 성남면 위치(총4천평 부지, 생산시설 2천평규모). 천안내에서도 외진 곳으로 초기투자비(땅값)가 저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천안은 전국적으로 볼 때 교통이 편리하고 지방고객과 연계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가 다수 있음. 또한 충남도와 천안시 등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는 등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천안과 시화공장을 합쳐서 천안이나 평택 등지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1988년 천안공장 입지시 별도의 정부혜택은 없었음)
- 시화공장은 나무용, 신발용 접착제를 주로 생산하여 부산동성화학의 공장으로 일부생산라인을 임대하여 활용하고 있음
 - 1998년 부산 DS화학과 NS사가 합작(전략적 제휴): DS 49%, NS사 51% → “NSC-DS” 신규합작투자기업 설립
 - 시화공장은 부산 DS화학 소유이나 NSC-DS 설립이후에는 80%는 NSC-DS에서, 20%는 NS사에서 사용(Inter-company 교류형태)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액 및 수익: 평균매출액은 270억원이고 수익률은 40% 수준
- 원부자재 구입: 코오롱유화나 극동유화 등의 국내업체에 발주하고 있음. 약 10여개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구매의 매출액 비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70%:30%의 비중임. 구매빈도는 중소기업이 더 잦으며, 중소기업들은 대개 경기도의 안산, 시화, 반월이나 충남 천안 등에 공장을 가지고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그 중에는 서울에 사무소만 있고, 제품은 OEM방식으로 조달 납품하는 경우도 있음. 해외와 거래할 경우는 주로 Inter-company간에 거래하며, 항만(부산, 광양)과 공항(인천)을 이용함
 - Inter-company 거래: 구매시 국내 80%, 해외 20%이며, 수출은 거의없이 전량 국내판매가 이루어짐
- 판매·고객연계: 주요 고객업체는 약30개 기업이며, 주요고객은 유한킴벌리, 대한펄프, P&G, 삼양사, 농심 등 5~6개의 대기업임. 중소기업(25개업

체)은 주로 안산, 시화, 용인, 천안, 경남, 경북 등지에 공장이 있는 업체임
 · 대기업: 중소기업의 판매비중(매출액 대비)은 80%: 20%를 차지

□ 기술개발, 서비스 및 지역사회연계

- 기술개발 및 전략적 제휴관계: 연구개발비는 전체 매출액의 5%정도를 차지. 고도기술업종이 아니므로 연구개발보다는 영업을 지원하는 연구관리 측면이 강함
 - 천안 연구소와 서울사무소와는 잦은 커뮤니케이션을 함
 - NSC-DS사와 투자비 절감과 기술교류를 위해 전략적 제휴형태를 취함
 - 유한킴벌리와 대한펄프 등과는 마케팅차원의 정보제공과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기타 연구기관이나 협회, 대학 등과의 연구 및 기술정보 교류는 없음. 화학관리협회 등에 등록되어 최신자료나 업계동향 정보는 제공받고 있음
- 사업지원서비스: 모두 서울소재의 외부기관 이용. 경리·예산은 KPMG, 인사는 현대노무법인, 급여는 타 회계법인, 구매수입 등은 관세사 등을 이용
- 지역사회연계 및 활동: 본사의 방침에 따라 지역화, 현지화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천안공장 지역에서 청소년가장돕기, 헌혈, 주변지역 청소 및 환경 캠페인 등 지역사회봉사를 하고 있음. 본사에서는 기업의 지역화를 유도하고자 하며, 이들 기준이 현지법인 경영진의 근무태도 실적평가에 활용되며 인센티브 제공

□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및 기타

- 본사(모기업)의 방침에 따라 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은 이용하지 않음. 작년에 인터넷을 통해 직원을 고용하면서, 정부의 실업지원프로그램 혜택으로 3명에 대해 600만원을 받음. 그러나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여 유용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으며, 외국기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규제나 절차가 간소화되고 완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노동문제나 정부규제에 대하여 여전

히 위험요소가 많다고 느끼고 있음.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신규 외투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기존에 입지하여 현지화가 많이 진행되어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음(본 업체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분기별로 1회씩 운영, 협의)

(5) HM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1988년 6월 벨기에의 모기업과 국내 모기업(그룹)이 50:50의 비율로 합작 투자한 자동차내장재 생산업체(자본금 32억원)
- 투자동기: 벨기에의 모기업은 국내 대기업의 기업이미지를 이용하여 한국 시장개척을 위해, 국내 모기업은 벨기에 모기업의 기술력을 이전받기 위해 합작(벨기에 모기업은 전세계 500대기업에 포함된 대기업)
- 모기업과의 관계: 50:50의 합작회사이므로 의사결정권도 절반씩 갖고 있음. 인사, 총무, 회계 등 경영전반의 문제에 대해 벨기에 본사측의 승인이 필요하며, 대표이사 2명(본사측 1인, 국내 1인), 법인인감 2개로 한쪽의 인감만으로는 유효하지 않음. 본사에서 파견한 회계전문가가 별도로 설립한 한국지사에 상주하고 있어 월 1~2회정도 회계보고를 하게 되어있음 (이 한국지사는 중간오퍼상 및 수출대행역할과 함께 합작회사인 HM사부터 회계, 업무보고를 본사에 연락·지시하는 역할수행; 벨기에 본사에서 부사장이 3개월에 1번씩 국내방문)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자동차내장재(wood stock). 1차벤더라는 중간업체에 납품하면, 1차벤더에서 자동차업체로 납품하는 형태임
- 서울사무소는 관리영업과 기술영업을 담당하며 천안 공장에서는 생산담당

□ 고용 및 기술개발

- 현재 고용인원은 천안공장에 30명, 서울사무소(본사)에 10명이 있으며, 현재 벨기에 본사의 주재원은 없고, 본사에서 부사장이 3개월마다 한번씩 방문
- 천안공장의 생산직은 지역내 공고출신을 수시로 채용. 본사의 인력은 그룹 공채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한국석유화학주식회사에서 전직한 경우도 많음
- 기술개발 및 협력: 기술영업팀에서 기술개발과 영업을 함께 담당하고 있으며, 때로 해외교육훈련이 이루어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은 크지 않으며, 몇차례 벨기에 모기업(본사)의 기술진이 국내방문하여 기술교환과 협력이 이루어짐. 1년에 1~2회 자동차업체대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음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충남 부강(조치원 근처)의 동일 계열사의 공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다 1994년 천안제2공단내 6,000평 규모로 공장 설립(생산시설 2~3천평 규모)
- 천안공장이 공장겸 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사무소가 있으나 실질적인 본사기능은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짐. 서울사무소의 임대면적은 110평으로 월 1,2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
- 천안에 입지한 것은 납품업체의 지역분포로 볼 때, 천안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서울본사는 계열그룹 본사의 방침에 따라 그룹의 사옥내에 입지하게 됨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 및 수익: 매출액은 약110억원. 수익률은 경상이익의 8%수준
- 원부자재 구입: 목분과 폴리프로필렌이 주 원자재로, 목분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며, 폴리프로필렌은 국내의 대한유화, 대림산업, 효성 등에서, 부직포는 대구, 부산 등 전국각지의 중소기업에서 납품받고 있음
- 판매 및 고객연계: 약 20여개 업체의 고객업체가 있으며, 주로 자동차생산지인 울산, 인천, 군산, 아산, 창원 등에 분포. 한일유화(현대자동차 비계열기업, 20%), 서일이화(대우자동차 계열기업), 주식회사 KDM(기아자

동차 계열기업)등이 주 고객임. 또한 일본, 대만 중국 등으로 생산의 9%정도를 수출하고 나머지 91%는 내수로 충당하고 있으나 향후 수출비중을 높여갈 계획임

□ 서비스 및 기업협력연계

- 사업지원서비스: 서울소재의 업체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기업협력 및 지역사회연계: 협력업체는 별로 없음,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의 기술교류는 필요하지 않음

□ 기업활동의 애로사항 및 기타

- HM사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로 분류되어 정부지원 제외
- 벨기에와 한국의 1:1 합작투자형태로서 의사결정(사원채용, 임금인상, 자금차입 등)의 제반 측면에서 번거로우며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함

(6) KT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본 회사는 1999년 10월, 일본계 다국적기업인 전자부품 종합메이커 일본 KT사(모기업)가 투자금 2억달러의 100% 단독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이후 설립된 제1호 회사임

□ 생산품 및 모기업과의 관계(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적층세라믹콘덴서(고도기술수반업종)를 생산하며 휴대폰, 노트북, PDA에 들어가는 부품완제품 형태. 생산량의 90%는 항공편(김해,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해외에 전량수출하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15~20%), 홍콩, 대만(30%), 싱가포르 등이며, 나머지 10%는 국내(삼성:수원.기흥, 노키아 TMC:마산)에 공급됨
- 모기업과의 관계: 일본내 모기업은 전자부품 종합회사라 할 수 있는 다국

적기업. KT사는 별도의 현지법인으로서 사장은 일본 본사의 사장이 맡고 1년에 1~2회정도 방문. 한국의 경영책임자는 일본본사 상무가 현지에 주재하며, 경영일반에 관한 주요결정은 한국에 상주하는 상무가 담당함. 사업계획보고, 결산보고, 투자계획 등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본사사장의 승인을 받고있음

□ 고용 및 기술개발

- 고용규모: 총 1,100명(과장급이상 관리직은 13명이며, 대부분 생산기술직)
- 인력채용방법: 공채로 채용되며, 종사자의 지역출신은 65%가 사천시 출신, 진주와 마산지역 출신이 35%를 차지. 대부분 주변지역의 기계,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출신임
- 설립초기, 마산 KT(동일한 일본 모기업의 계열회사)에서 45명을 선발하여 3~6개월 정도 일본본사에 연수를 보내어 초기생산기술기반 구축
- 이직율은 2~3%수준으로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님
- 노동력 수급 및 조달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으나 여직원은 약간 부족한 편임(평균임금은 100만원 수준, 평균연령은 약25세)
- 기술개발: 연구개발은 본사에서 담당하며, 기술이전은 회사설립 당시에 완료되었음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투자동기: 경남에서 지원하는 고용, 투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초기 6억원 지원), 사천지역의 공항, 고속도로, 항만 등의 잘 구축된 산업인프라와 우수한 노동력(노동력 수준은 우수하나 임금수준은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 6~7배 높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경남도지사)의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음
- 입지결정요인: 일본 KT사가 생산공장을 조기에 짓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투자지역으로 한국을 선택(시장선점전략). 일본 KT사의 한국내 생산거점(마산, 통영) 2개소의 생산기반과 경영자원 활용이 가능하

다는 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함

- KT사는 일본 KT사가 한국에 설립한 제3의 생산거점
 - 제1생산거점: 한국KT사(마산수출자유지역내 입지; 인력, 인건비 인센티브)
 - 제2생산거점: 동양KT사(55:45, 통영에 입지)
- 입지: 진사지방산업단지내 본사와 공장이 입지해 있으며 부지 52,000평, 건평은 20,000평으로 50년간 무상임차조건(평당 30~35만원 토지분양시세). 국내에 영업소가 서울(여의도, 인력 20~30명), 수원, 구미, 광주영업소가 있으나 이들은 일본 KT사가 국내 3개거점의 영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음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액: 작년 매출액은 1,500~2,000억원(목표는 2억 8천만불이었으나 IT경기불황으로 목표치 달성미흡), 수익률 15~25%수준
- 원부자재 구입연계: 원자재는 세라믹파우더로서 일본 본사로부터 부산항(2시간 소요), 마산항(1시간 소요)을 통해 전량수입하며, 첨단전자제품 생산으로 주변지역내 협력업체는 없는 실정임. 한편, 지역내 구매가능한 일상물품은 사천시에서 구입하며, 공구나 정밀가공품 등은 마산(기계부품, 가공품, 공구), 대구(기판 등) 등의 중소기업체로 부터 구매
- 판매·고객연계: 생산품의 90%는 해외로 수출(일본, 대만, 싱가포르)하며, 10%는 삼성(수원, 기흥), 노키아(마산)에 수출하고 있음

□ 서비스 및 지역사회연계

- 사업지원서비스: 마산의 한국KT사와 사업서비스는 공유. 회계법인은 서울 안건회계법인을 활용(지역내 전문서비스업체 부재)
- 지역사회연계 및 지역화: 본 회사는 사훈으로 종업원의 행복, 지역사회 공헌, 주주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에따라 지역사회공헌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마산의 교통사고유자녀장학회: 경남지역내 매년 3억원 장학금 지급)
- 지역고용창출효과가 높으며, 지방세(재산세, 소방공동시설세, 주민세, 사업

소세)로 연간 1억5천만원~2억원을 지출하며, 공장설립시 공사(설립비 500
억원 소요)에 의한 지역효과 등이 있음

□ 정부의 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정부지원사항: 토지 50년간 무상임대, 7년간 법인세 감면혜택
- 외국인 투자시 가장 큰 관심은 한국의 노사문제로, 노사문제의 국제화 필요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과 비교시, 이들 나라는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무 관세를 적용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현물출자와 더불어 차관에 대해서도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 면세되나, 이 차관으로 설비를 구입하면 관세가 부과됨(KT사도 관세를 80억 냈으며 불합리한 제도로 생각함)
- 기타 애로사항: 사천공항이 국내노선만 있어 불편. 한-일간 노선이 취항된 다면 기업운영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며, 지정폐기물처리시 사천지역 주 변에는 폐기물처리장이 없어 울산까지 폐기물을 운반하여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연간처리비용이 50%이상 상승)

(7) ES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본 회사의 모기업은 대구경구관 강관(steel pipe)의 세계최대 생산업체(설 립된지 60년이상된 업체)로서, 아시아지역의 생산 및 판매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2000년 9월 SH산업(발전설비기자재 업체, 한국의 합작업체)의 일부 자본출자에 의하여 법인 설립업체
- 모기업은 독일 에른테부르크에 본사가 있는 기업으로 생산원가절감 등의 동기로 아시아의 생산기지로 한국에 공장설립. 세계적인 영업대리점망을 가지고 있으나 생산공장은 한국에 처음 설립
- 초기투자 자본금은 공장설립비를 포함하여 100억원이며 독일 모기업과 한 국 SH산업의 출자비중은 70:30의 비중임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대구경구관 강관(유전, 교량 등의 해양구조물과 대형건물구조물 설계시 들어가는 강관으로 고도기술수반업종에 해당됨)
- 모기업과의 관계: 모기업과 독립된 별도의 현지법인이나 본사(독일)에서 영업·수주활동의 50%를 담당하고 있음

□ 고용 및 기술개발

- 인력: 현재 100명 정도로 창원영업소(주요고객: 대우조선과 해외영업담당)에 4~5명, 서울영업소(주요고객: 현대건설, 대우중공업)에 4~5명임
 - 진사지방산업단지(본사 겸 공장): 생산직 60명, 관리직 30명
- 인력의 지역분포: 생산직들의 80%가 사천시 출신이며, 20%는 진주·창원의 공업·기계고등학교 출신임. 관리직은 창원과 타지역 40%, 진주·사천지역이 60%의 비중으로 분포. 관리직 30명중 9명은 SH산업에서 이직
- 기술개발 및 협력: 연구개발투자는 하지 않고 있으며, 설립초기 독일의 기술이전이 완료된 상태. 초기의 교육훈련(자동화장비 이용)은 독일현지에서 3개월간 이루어졌으며, 독일 본사에서 수시파견(8명). 현재 주재원은 없음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입지현황: 공장부지는 13천평이며, 1차 완공된 생산시설이 27백평(내년에 2차 생산시설건설계획이 있음)
- 입지결정요인: 한국이 시장으로 중요했기 때문에(현대, 대우) 한국에 투자를 결정했으며, 사천시를 선택한 것은 자본출자업체인 SH산업이 진주에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으나, 물류비용 때문에 항만 주변부지를 원했음. 그러나 땅값이 비싸 수지타산이 안맞아 사천에 입지하게 됨(마산지역 평당 50만원, 사천지역 평당 34만원)
- 임대료는 17천원 정도로 30년간 임대조건(50%만 내는 조건)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 및 수익: 금년 매출액 목표는 140억원이며, 수익률은 7~8% 예상함
- 원부자재 구입: 원자재는 철판으로 포스코에서 60%, 일본, 유럽, 미국 등에서 40%를 수입. 가공, 소제품 일부는 하청으로, 진주와 창원 등에서 하고 있음(외주비중: 매출액 5%수준)
- 고객 및 판매연계: 90% 해외수출, 10%는 국내의 현대, 대우중공업에 납품

□ 기업네트워크

- 기업네트워크 및 지역사회연계: 국내에 대형설비를 갖추고 생산하는 업체가 없으므로 지역과의 협력 및 산업단지내 업체간 교류활동은 전혀 없는 실정임. 2001년 세금은 3~4천만원 수준(공장설립 등의 등록세 포함)

□ 정부의 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정부지원: 임대료 50%감면(외국인전용단지가 아니므로 무상임대는 아니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들어왔으므로 50%는 감면혜택), 법인세와 지방세의 일부는 7년간 면제(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하여만 해당)
- 외국인투자촉진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음. 행정력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불편한 사항이 많음

(8) VC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투자형태: 인수합병(M&A)에 의해 설립된 회사. 국내 대기업(조선, 중공업건설, 중장비, 발전설 등 4개부문)의 건설기계부문을 스웨덴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체(1927년 설립)가 인수합병
- VC그룹은 5개부문 구성(건설기계, 항공, 트럭.버스, 항공, 선박용 엔진)
- 인수동기: 국내 대기업 건설부문의 기술력과 연구개발 인수, 한국의 IMF로 인수조건 양호

- 1998년 7월, IMF이후 최대의 해외자본출자로서 1조원이 투자되었음. 기존 국내 대기업의 생산설비, 인력 등 모든 인프라를 그대로 인수
- 초기지분참여는 13(국내 대기업):87(VC사), 1999년에 추가투자로 9:91로, 그리고 현재는 VC사의 지분이 100%인 상태임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VC사의 생산품은 로다, 홀리, 굴삭기 등이나 주력생산품은 굴삭기(생산품의 97%차지)
 - 굴삭기 부문의 세계본사(아시아지역의 유일한 Global Headquarters 보유)로서 스웨덴의 공장을 폐쇄함
- 모기업과의 관계: VC사의 본사는 현재 벨기에에 주재. 부사장급이상의 임명은 본사에서 결정하며, 나머지 경영전반에 관한 결정권은 한국본사에 있음. 한국본사에서 스위스와 프랑스지사를 관장함

□ 고용 및 지역고용

- 인력규모: 인수당시의 고용인원은 1,650명이었으며, 2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1,300명임. 창원에 1,000명, 서울 100명, 나머지는 송탄교육센터와 군포서비스센터, 인천물류센터, 대전시 정비공장 등과 각도시 영업소에 근무
- 생산직은 대개 창원지역 인근주민으로 지역고용창출 효과가 큰 편임
 - 기술직은 이미 훈련되어 있으므로 자체교육훈련은 영어교육에 치중함

□ 기술개발 및 협력연계

- 기술개발 및 협력: 국내 인수업체(대기업)의 R&D인력을 그대로 받아들임, 현재 연구인력은 200여명. 외국기업들과 표준부품개발을 위한 부품공동개발을 하고 있으며, 한국건설기계공업협회에서 국내업체(현대, 대우)들과 연구개발공동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참여
 - 창원대학교와 산학협동체계를 갖춰 기술인력교류와 공동기술개발 수행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입지는 국내 인수업체(대기업)의 입지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나 2002년 4월 인천물류센타를 개소하였음
- 국내 인수업체의 창원공장 입지는 정부의 계획도시 창원의 인프라를 이용 편의에 기인
- 인천물류센타는 인천공항에서 10분거리의 서구공업단지내에 입지. 인천에 물류센타를 입지시킨 이유는 부품조달 등의 서비스(60%가 항공운송)와 관련하여 전세계로 48시간이내의 신속한 조달을 목표로 항공과의 연계가 중요하기 때문임
- 한남동(서울사무소, 실질적 본사기능 수행)에 입지한 것은 VC사 관련업체(트럭부문)가 입주해 있던 빌딩을 VC그룹 본사가 취득. VC사는 임대로 입주하고 있음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액 및 수익: 매출액은 5,400억(2001년), 이익은 550억원
- 부채비율 30%로 국내동종업체의 부채비율(평균200%)에 비해 매우 건실함
- 원부자재 구입: 부품조달 등의 국내협력업체는 350여개로 대부분 창원지역 내 업체들이며, 국내조달이 전체 원자재 조달의 80%를 차지하며 나머지 20%는 수입 의존함
- 판매 및 고객연계: 생산품의 70%는 전세계로 수출하며, 유럽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고, 25~30%는 국내 건설기계 임대업체에 판매
- 지역연계효과: 고용안정, 지방세 납부 등

□ 정부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법인세와 지방세 일부는 7년간 면제혜택, 현재까지 정부에 대한 불만없음

(9) ST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IMF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그룹별 촉구가 있었으며, 그룹 전체적으로 비수익 사업부문을 구조조정·정리하고자 했음. 한편, 1989년부터 기술협력관계(천마지대공미사일 공동개발 등)에 있었던 프랑스의 톰슨사가 한국에 투자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 톰슨사는 매출액의 70%가 해외수출에서 발생하는 세계적인 방위산업 다국적기업으로 그룹명을 변경하였음
- 2000년 2월2일, 국내 대기업(전자부문)의 방산전자산업부문의 1억불 현물출자와 톰슨사의 1억불 현금출자로 인수합병(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각각 1:1 비율로 총자본금 2,700억원 시작)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방위산업에 관련된 군수제품(통신장비, 레이저거리측정기, 광전자 등 첨단방산업체)
- 모기업과 관계: 현재 부사장과 CFO(재무), PM 등은 해외 본사에서 임명하며, 대표이사, 인사담당 및 기타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권한은 한국내 본사에 있음

□ 고용 및 기술개발

- 인력: 고용인원은 900명으로 영업, 기획, 사업관리, 구매, 재무 등을 담당하는 서울영업소(본사기능 담당)에 120명, 생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구미공장에 560명, 기흥연구소에 연구개발인력 200명 정도가 분포하고 있음(이직률은 자연감소율인 2~3%수준에 불과함)
- 합작이후 교육훈련은 프랑스의 본사에서 수시로 이루어짐
- 기술개발 및 협력: 실제 연구개발인력은 350여명으로 전자, 물리, 통신, 소프트웨어(전자), 협력업체들과 프로젝트 베이스의 기술개발협력을 하고

있음. 연구개발비는 총매출액의 5~6%수준. 업체가 선정되면 ST사와 수직
계열화 형태의 협력관계가 됨

- 합작이후 달라진 점: 교육훈련과정, 임원, 영업, 기술파트에서 1년에 1회정
도 교육훈련 실시, 회의시 영어사용 등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합작사인 국내 대기업 방위산업부문의 입지를 그대로 이용. 인수합병이후
변동사항 없으며, 서울본사의 위치에 대해서 해외 본사는 전혀 이견없음
- 본사 및 공장(7,000평)은 경북 구미의 국내 대기업(합작사)내 공장의 일부
를 임대하여 활용하며, 연구소는 기흥에 소재하며, 서울사무소는 실제로
본사기능을 수행하며 서울 강남구에 소재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액 및 수익: 2,400억원(정부를 유일한 고객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매우 낮으며 적자상태임)
- 고객 및 판매연계: 전량 정부에 납품. 일반 민간사업과는 다른 특성이 많음
- 향후 8년내에 수출비중을 30%수준으로 늘릴 계획. 기술우위는 생산품마다
다르며 삼성이 우위를 갖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한국이 생산과 수출의 거
점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원부자재 구입 및 생산연계: 원자재 수입비중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
우나 자재가격으로 볼 때, 수입원자재가 80~90%비중을 지님. 협력업체들
은 200여개 업체가 있으며, 구미지역 80%, 연구소 근처의 수도권 20%로
주로 중소기업체들임.

□ 정부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정부지원: 법인세와 지방세 일부
- 애로사항: 정부와 국민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함, 아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음

(10) UC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모기업: UC사의 모기업은 벨기에에 소재한 그룹으로 불가리아, 프랑스, 벨기에에 주공장이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는 중국과 한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
- 투자형태: 1999년 UC사의 설립이전에 한국내 판매법인이 서울 서초동에 있었으며, 당시는 6~7명의 직원들이 마케팅활동을 하고 있었음, 이 판매법인에서 외투법인 설립을 준비. 설립당시 자본금은 65억원, 벨기에 투자비율 100% 단독투자업체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핸드폰과 노트북용 배터리로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의 양극재료(부품재). 원료는 코발트 파우더이며, 현재 국내에서 이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 기존에는 일본에서 전량수입하였으나, 현재 UC사에서 전량 생산
- 모기업과의 관계: 전반적인 경영의사결정은 해외모기업과의 협의하에 국내업체가 결정, 매일 아침 모기업의 임원진과 화상회의(비디오폰 활용)

□ 고용 및 교육훈련

- 현재 고용인원은 30명으로 생산직 16명, 사무직 3명, R&D관련 5명, 설비담당 4명, 안전관리·창고관리가 2~3명. 생산직은(연봉 1600수준) 대개 천안지역의 노동력이며, 이직률은 10%정도로 상승추세에 있음. 천안지역의 지속적인 토지·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근로의욕상실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
- 연구개발인력은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캐나다에 있는 연구소를 한국으로 유치할 계획(본 회사는 캐나다의 공장이 환경비용 및 종업원복지후생 비용과다에 따라 철수하고 설립). 현재 매니저급 인력은 대부분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 직원의 교육훈련은 캐나다 현지 공장 연수 등 필요한 때마다 이루어짐

□ 기술개발 및 전략적 제휴

- 기술개발 및 협력: 연구개발인력은 품질관리와 차세대 소재개발 등의 연구를 담당하며, 현재 벨기에와 캐나다에 있는 연구인력과 긴밀한 기술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현재 3~4% 이내에서 투자
- 전략적 제휴관계는 아직 없으며, 추후 삼성과 기술개발 관련 전략적 제휴 계획이 있음(전기자동차 배터리개발 관련)
- 향후 투자확대 의향은 있으며, 천안외국인전용공단 내에서 투자할 것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입지구모: 공장규모는 5000평(건평 2,000평), 판매소는 서울 서초동에 입지 하여 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며 6~7명의 인원 소재
- 입지결정요인: 1999년 외투법인을 설립하고, 마산수출자유지역, 어연·한산 단지, 천안외국인공단을 가운데 입지탐색, 마산지역은 항구가 가깝다는 이 점이 있었으나, 외국인거주 여건이 좋지 않음. 평택은 다소 외곽지역이어서, 외국에서 파견된 프랑스계 관리자의 근무를 위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서울과 접근성이 용이한 천안외국인공단을 선택. 설립당시부터 본사를 천안에 입지시키고 2000년 공장설립을 완료하여 가동하고 있음(외국인기술자 등은 국내체류시 주거 및 외인학교 등으로 서울시 방배동 거주)
- 한편, 삼성SDI가 천안외국인공단내에 입주하고 있고, 인근 청주지역에 LG 화학이 있어 고객근접성이 큰 입지선정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천안지역 외투기업 대부분은 삼성 등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 소재관련 기업이며, 최종소비재 생산기업은 많지 않음)
-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임. 공단관리소나 중앙정부는 비교적 고객지향적으로 전환한데 비해,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통제위주로 접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할 일은 많지 않음, 중앙공무원들의 태도도 고객서비스 차원의 접근으로 변화되었음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액 및 수익: 현재 연간매출은 200억으로 수익률은 현재 0%이나, 내년 부터는 5%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원자재 구입: 주원료는 모기업에서 직접구매, 코발트는 희귀성 고가금속, 부산항만을 통해 들어옴
- 물류비: 연간 물류비는 2000만원으로 대한통운업체를 주로 활용(국내물류비 50%, 해외물류비 50%)
- 코발트 이외의 부자재 재료는 지역업체들에 하청. 설비 자재는 인천남동공단, 경기 시화공단, 내화물은 경상도에 입지한 지방업체들 이용. 포장재 등 단순자재는 수도권 업체들로부터 구매
- 고객연계: 판매는 판매법인에서 관리하며, 삼성에 공급하는 Local LC를 포함한다면 99%가 수출이라고 볼 수 있음(중국 50%, 유럽 10%, 국내 40%). 장기적으로 국내업체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면 국내 거래관계 증대할 계획

□ 서비스 및 지역연계

- 사업지원서비스: 급여산정은 아웃소싱으로 해결. 민사, 회계, 세금관련 사업서비스 업체는 수도권내 전문서비스업체를 이용 (천안지역내에서 해외 업무에 능통한 전문서비스업체가 없음)
- 지역연계: 지방세 납입규모는 연간 4~5천만원(공장건설비 120억원 소요, 취득세 5천만원은 고도기술수반업종으로 감면혜택). 산업단지내 업체들과의 친목도모 및 공단청소 등은 같이 하고 있으나 업무 및 정보교류는 공단내 업종차이로 인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향후에도 그다지 지역연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전지협회 등과는 기술정보 획득차원에서 연계를 맺고있음

□ 정부의 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공장부지 5,000평을 7년간 무상임대하고, 5천만원의 취득세 감면, 법인세 면제, 7년이후 부터는 50% 감면혜택

- 상공회의소법에 의거하여 부가세액의 0.02%를 납부하는데, 기업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우 이해하기 어려움

(11) KC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모기업: KC사는 이탈리아에서 직접투자 설립한 외국투자기업. 이탈리아의 모기업은 한국, 호주, 미국 등에 현지법인이 있으며, 전세계적인 판매망을 지닌 다국적 농기계 기업(국내농업기계 시장의 60~75%정도 차지)
- 투자진입형태: 1997년 외국인투자법인 KC사를 설립하였으며, 2001년 천안 백석동 외투기업 전용단지내 공장건립 및 입주
 - 1988년 국내진입 시작: 국내 농기계 대기업인 벽산그룹이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작 판매 (1989년부터 일부 국산화 및 수입)
 - 1993년 한국사무소를 서울시 남대문 근처에 개시하였으며, 주로 영업 및 연락사무소 기능을 수행
 - 1997년 11월, 현지독립법인을 청주 제2공단내 설립 (투자액 3억 2천만원)
 - 2001년 8월, 천안외국인전용공단내 이전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로타베이터가 주 생산품이며, 크랭크쟁기, 파워해로우, 제초기 등의 농업용기계, 동급 동종기계 국내시장점유율은 60~75%, 대한민국 전체 농기계 시장의 16~17% 차지. 현재 메카트로닉스를 이용한 자동경작시스템 개발중임
- 금년 상반기까지 완제품을 수입하여 유통하였으나 2002년 가을부터 부분품의 국산화 실현, 천안지역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하여 국산화가 30%정도 진행되었음. 2~3년 내에 국산화 비율을 50%로 향상 계획
- 모기업과의 관계: 인력규모, 재무제표 등 전반적인 경영의사결정은 국내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독립채산제),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높음. 투자결정과

신제품 관련사항 등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해외본사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침

□ 고용 및 기술개발

- 현재 고용인원은 9명으로 팀장급 3명(핵심인력 2명)은 수도권 지역에, 나머지는 천안지역에 거주, 경영관리팀 2명, 영업기획 2명, 생산관리 및 영업지원(A/S) 각 1명. 생산관리는 국산화, 조립, 검사, 자산관리 등을 담당 (생산직 5년 이상 경력직의 연봉은 2,700~2,800만원)
- 인력채용 및 지역분포: 인터넷의 joblink를 통해 인터뷰를 통해 채용하며, 핵심인력은 수도권, 기타는 대부분 천안시 지역분포 (고용인원 중 3명을 제외하고는 천안 및 대전시 출신으로 충원)
- 연구개발인력은 향후 확충할 계획이며, 연구개발에 있어서 현재 모기업과의 기술연계가 큰 편, 연구소는 이탈리아 본사에 있음. 국내에서는 1년간 테스트(검정) 이후에 이태리 연구소에서 완료하고 국내양산하는 방식

□ 전략적 제휴 및 지역연계

- 전략적 제휴: 생산품이 트랙터 등과 연결된 제품으로서, 국내 농기계 대기업들과 판매, 서비스 등에서 긴밀한 제휴와 협력이 이루어짐 (국내 농기계 대기업등과 신기술 정보교류와 영업협조 필수적. 700개의 농업기계 대리점 공동활용)
- 정보획득은 자체적인 정보망을 이용하며, 산업단지관리공단과 농림부와 지속적인 교류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도 유기적인 관계에 있음(협회회원은 아니지만 관련업종에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역할)
- 향후 투자확대 의향은 있으며, 수도권 남부지역에 적절한 입지가 있다면 이전의사도 있음. 평택지역내 입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편임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입지현황: 공장규모는 2,600평(건평 600평, 사무실 150평, 공장 470평, 기계시험장 300~400평, 기타는 적재장소 등)

- 1995년말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천안외국인공단 임대분양 공고를 보고 입주를 원했으나 외환위기 등의 상황으로 여의치 않아 입주하지 못함
- 1997년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청주지역 제2공단내 공장입지(600평 임대), 제품의 무게가 400kg~1ton 가량으로 전국을 판매망으로 하므로 물류·운송의 중심지로서 청주를 선택
- 1999년 산업자원부, 충남, 천안시에 공문으로 천안외국인 공단내 임대입주를 요청. 도에서 검토 후, 재정경제부로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 이후 충청남도과 산업자원부에서 1999년 가을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여 12월에 분양용지의 임대용지 전환공고가 났으며 1호로 신청하여 입주하게 되었음
- 주요 입지결정요인은 정부규제완화, 임대료, 법인세 등 조세혜택, 그리고 외국인공단의 이미지 등이 크게 작용함
-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비즈니스 관련숙박시설이 여의치 않음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액 및 수익: 설립당시 자본금은 277,000달러로 이탈리아 투자비율 100%, 향후 약 100만불의 투자계획이 있음. 현재 농촌경제의 악화로 농기계시장 상황은 매우 악화되고 있음. 전체 시장규모는 2년전에 비하여 50%수준으로(1조 4천억~7천억), 로타베이터의 시장은 300억에서 50억시장으로 축소
- 원부자재 연계: 원자재는 반제품의 형태로 부산항을 통해 이탈리아로부터 100% 전량수입하고 있으며, 부산에 물류창고가 있음. 2002년 가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품이 30%될 것(당초는 완제품을 수입해서 유통역할을 했으나, 2002년부터 부분품의 일부국산화가 이루어짐. 향후 2~3년 이내에 50%의 국산화 예정)
- 판매는 OEM형태로 65~70%를 4대 국내기업에 상표 공급(대구의 대동공업, 옥천의 국제기계, 창원의 동양기계, 군포의 LG기계), 20%는 대체수요, 15%는 농협에 판매, 4대 국내기업의 판매망 전국 700여개 대리점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부품판매 등은 대리점과 직접 거래

- 완제품과 부품의 판매비율은 87:13 임
- 현재 호주로 10만불 수출하였으며 향후 중국, 동남아시아 북한 등의 판매를 위한 시장거점으로 육성할 계획. 또한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한 제1호 국가가 이탈리아이며, 농기계는 경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북한시장도 내다보고 있음

□ 서비스 및 지역연계

- 서비스연계: 세관은 부산관세사 사무소를 이용하며 법률, 세무 등 사업지원전문서비스는 안진회계, 대동회계법인 등 외국법인업무 처리에 전문성을 갖춘 서울소재 대형업체 활용
- 지역연계: 부분품 개발 등을 지역내 업체에 아웃소싱하여 국산화하고 있음. 가능하면 천안지역의 직원을 고용. 향후 수익창출시 지역사회봉사활동도 할 예정임

□ 정부의 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공장부지 5,000평 7년간 무상임대, 5천만원 취득세 감면, 법인세 면제, 7년 이후 50%감면
-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이 국제화될 필요가 있음. 청주 소재시 충북의 경우엔 폐쇄적인 지방색을 느꼈으며, 천안지역은 지역텃새가 있는 편임
- 외국인전용공단내에 금융기관, 정부과건시설이 필요하며, 해외본사 임원이나 외국기술자의 방문시 인근에 적절한 관광숙박시설이 없어 불편함
- 천안지역도 생활문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향후 서울지역에 의전과 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할 의향이 있음

(12) KS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모기업: 이탈리아의 피아트사의 상용차 브랜드 IVECO(토리노시 소재,

FIAT그룹)이며, IVECO는 스페인의 마드리드, 독일의 올름, 프랑스(엔진) 등 전세계 70여개 국에 현지공장이 분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자본출자는 아니며, 부분적 설비와 금융지원(물품비용 회수기한 연장 등)하는 전략적 제휴사업 파트너 형태임.

- IVECO는 1994년 한라중공업과 합작형태로 국내 진입, 이후 국내 소규모 업체와 합작형태로 국내영업활동 전개
- 자본투자는 일본 히로시마 출신의 개인투자자(자동차 사장)이며, 현재 KS사의 경영고문으로 있음. 1999년 법인설립(자본금 7억원) 당시 10%의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투자지분 참여형태
- 1998년 한국3H로 출발하여 1999년 법인등록, 2001년 KS사로 상호변경. 기아그룹의 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들이 설립한 기업으로 제조업, 도소매, 무역업을 하고 있음
- 인천, 광주, 부산에 직영공장이 있으며, 울산공장 설립 중. 8개 도시 12개의 판매네트워크(정비사업소 겸)가 있음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IVECO덤프트럭, 쓰리축, 에어서스펜션(현재 60~70% 국내시장 점유율 차지), 멀티카고, 탱크로리 등 자동차제작 및 건설기계, 판매·무역
- 외국투자자와의 관계: 경영컨설팅 및 투자확대시 협의하는 수준이며, 국내 기업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않고 투자배당 제공. 히노이자동차의 경영고문이 광주광역시에 거주

□ 고용 및 인력조달

- 고용규모: 현재 고용인원은 64명(부산 20명, 서울 6명, 광주 38명), 연구개발직 6명, 일반생산직 30명, 사무영업직 28명으로 구성(설립당시 6명)
- 인력조달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한. 조선대, 전남과학대, 여수전문대 등 대학과 협약체결하여 자동차관련학과 인력연계, 마케팅·행정 등의 인력은 경력직 구인(주로 기아, 대우 등 퇴직인력 활용)

- 향후 투자확대 의향 있음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입지현황: 광주광역시내 공장규모는 5,500평(현재 임대료는 10년단위 계약으로 월75만원으로 광주광역시내 하남 등 산업단지 임대료의 1/5~1/7로 저렴한 편임), 녹산공단 내 부산정비사업소는 1,500평(분양가는 평당 60~70만원 수준)
- 입지결정요인: 생산인력 조달용이, 관련업체 밀집 등의 이유로 입지선정(전문인력의 조달은 어려운 편임). 인근 대형상용차 브랜드 회사들의 입지로 비교적 적정한 곳으로 광주 평동외국인전용공단 선택(전주의 현대자동차, 군산의 대우상용차, 부산의 상용차, 광주의 기아·아시아상용차, 나주의 스캐니아 등 입지)
-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임.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연계는 편리하나 생활여건은 불편함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 및 수익: 연간매출액은 1998년 설립당시 5억원이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2001년 연매출액은 48억이며, 내년 50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음
- 고객연계: 판매는 차주들이 각각의 사업자임, 개별 사업자에 대한 판매(human sale)
- 물지구매: 물지구입에서 IVECO차량의 경우는 수입이 80%, 쓰리축 등의 시스템 원자재는 수입이 10%이며 나머지는 기아자동차에서 구매
- 서비스연계: 법률, 세무 등 사업지원서비스는 외부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하지않고 업체 자체내에서 해결하는 편임

□ 전략적 제휴 및 지역사회연계

- 전략적 제휴: 인천, 부산, 울산,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서비스 센터는 지역에 따라 협약계약을 맺어 공동 이용
- 기업협력연계: 외국인전용공단내 업체간의 교류는 거의 없음. 설계는 KS사

- 에서 직접하며, 나머지 생산은 아웃소싱. 현대와 기아를 비롯한 20~30여개의 협력업체가 있음. 현재는 하청구매의 80~90%를 기아에서 차지함
- 지역사회연계: 지역화를 위한 노력은 활발한 편임, 현재 IVECO사의 본사가 있는 이태리 토리노시와 광주시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의 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임대료와 세금감면 혜택, 건설·시설투자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

(13) NF사

□ 설립배경 및 투자진입형태

- 1998년 11월 개인무역을 설립하여 라면, 잡하 등 수출시작
- 2000년 법인회사 변경,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 (자본금 1억5천만원→ 현재 3억 2천만원). 김치제조공장을 설립하여 김치생산 시작. 2001년 NF사로 법인명 변경
- 투자형태: 일본의 개인사업가가 설립당시 10%의 지분투자 형태. 현재는 33%의 지분소유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김치와 반찬류 제조생산 및 식품류 수출무역
- 모기업과의 관계: 외국인직접투자지분은 외국개인투자자의 지분으로 경영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배당수익 제공. 다만, 일본으로 수출하는 제품들에 대한 고문역할을 하기도 함

□ 고용 및 기술개발

- 고용규모: 현재 고용인원은 45~50명으로 생산인력이 15명(일용직), 수수료 매장의 판매서원이 25명, 경영관리인력은 5명, 15명만 정규직이며, 일용직

의 채용은 지역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하여 수시채용(설립당시 15명)

- 고용인력은 100% 광주광역시 출신임
- 생산직의 연봉은 평균 월 70~80만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인력 확보 애로
- 연구개발인력은 없으나 광주과학기술원과 산학 연구협력으로 김치숙성상태 표시계 연구 진행중
- 무역·공산품 판매와 관련한 전략적 제휴는 있음, 김치생산제조와 관련한 전략적 제휴는 없음
- 정보획득은 기업자체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향후 판매부문의 투자를 확대할 의향은 있음

□ 입지선정 및 결정요인

- 1999년 광주시내 하남 농수산물유통에 입지하다가 2000년 본 입지(외국인 전용공단 입지를 위해 사장이 외국인투자자 물색)로 이전: 공장규모는 2000평, 건물 400평, 임대료는 160만원/년
- 광주에 14개 수수료 매장 있음
-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 통근교통은 불편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 및 수익: 설립당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에서 현재는 3억으로 증가되었음. 현재 연간 매출액은 23억원 정도 (수익율 10% 수준)
- 원부자재 연계: 원자재는 농수산물시장 중개인으로부터 전량 구입하며, 포장재, 부자재 등은 광주소재업체에서 전량 구입 (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 고객연계: 김치수출 16억원, 상품(유자차, 외주제작)수출은 홍콩·대만수출(7억원), 수출에는 부산항을 이용함
- 관세, 세무 등 사업지원서비스는 광주광역시내의 업체 이용

□ 정부의 지원 및 기타사항

- 임대료 감면과 취득세 경감 등의 조세혜택을 받고 있음

(14) SP사

□ 설립배경 및 일반 현황

- 설립연혁
 - 1995년 SP사 전신 회사설립(취급품목: LAN), 1996년 상호변경 및 법인등록(자본금 1억)
 - 2000년 광주첨단산업단지 내 광통신부품 공장신축 이전, 광네트워크 연구소 설립
 - 2001년 일본 개인자본유치, 현재의 SP사로 상호변경, 평동외국인전용단지로 본점 및 공장 이전
- 설립당시 자본금은 1억, 현재 자본금은 15억원, 외국인투자비율은 10%
- 투자동기: 제품(기술)수명주기상 신기술 이후의 일반기술단계로서 한국 투자유리 판단하고 투자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제조, 도소매, 서비스, 건설업으로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전기통신공사, 컴퓨터, 통신기기, 광케이블, 광통신장비, 소프트웨어개발(주생산품은 광통신 patch cord로, 고도기술수반업종이 아닌 기술수준 5~7년된 업종으로 분류)
- 모기업과의 관계: 일본의 법인 및 개인컨소시엄 형태의 투자로 경영권에 대한 참여는 하지 않음, 배당수익 위한 투자(현재 자본금 15억원)

□ 고용 및 기술개발

- 고용규모: 현재 고용인원은 55명으로(설립당시 20명), 연구개발직 6명, 기술직 13명, 사무영업직 12명, 일반생산직 24명으로 구성. 직원들에 대한

- 자체교육은 없으며, 외부실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케 하기도 함
- 전략적 제휴: 광주대, 호남대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기술혁신개발사업)을 통한 연구, 산자부 산업기술과제 수행 등 기술개발 노력
- 정보획득은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짐
-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매출액 대비 1.43%
- 향후 투자는 현재상태를 유지할 계획

□ 입지선정 및 결정

- 입지현황: 1996년 설립당시는 광주광역시 하남 무역회관내(500평 규모)에 입지하였으나 2001년 8월 외국인전용공단으로 이전(공장규모는 3,000평 대지에 1,000평 건물)
- 입지결정요인: 넓은 공장부지가 필요하며, 평동공단의 임대료가 1/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수준이었으므로 평동공단으로 이전 결정
- 동종업종인 광산업 관련업종은 대부분 광주 첨단산업단지내에 입지하고 있음. 광산업진흥협회에는 140여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30여개 업체가 실제 활발히 생산활동 전개
-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인 편이나 교통 및 물류가 불편한 실정임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 및 수익: 현재 매출액은 55억원으로 1996년 설립당시 대비 평균수익을 500%의 신장세를 나타냄
- 원부자재 연계: 원자재 구입비중은 해외수입 10%(optic), 수도권지역에서 구입 45%(cable), 수도권 이외 타 시·도 40%, 해당 시·도 5%미만
- 하청연계: 5개 생산품목 가운데 1개 품목만 외부에 하청을 주며, 매출액의 약 3%에 불과함
- 고객연계: 완제품 판매는 수도권 지역으로 50%, 해외로 수출 50%
- 서비스연계: 법률·회계 등의 사업서비스는 자체 해결하며, 별도의 아웃소싱을 하지는 않고 있음

- 기업네트워크: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외국인전용공단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나 아직 이용하지는 않음
- 지역연계: 광주광역시 국제통상과와 함께 해외바이어 발굴 등을 함

□ 정부의 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외국인전용공단에 대한 임대료 감면정책의 혜택을 받음

(15) HH사

□ 설립배경 및 투자진입형태

- 2000년 12월 HH사 전신이 되는 주식회사 설립
 - 2001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10%), 대불공단 공장설립
 - 2001년 법인명 변경(현재의 HH사)
- 투자형태: 자본금 15억원 가운데 10%를 싱가포르 업체로부터 투자받음
- 선박 block 절단전문, 현재 삼호중공업(주)의 물량 생산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선박부품, 선박 block 절단전문, plasma cutting, f/p cutting 등 선박관련 중간부품재
- 모기업과의 관계: 싱가포르 업체에서 10%투자로 직접적인 경영활동에서의 의사 참여는 하지 않음 (삼호중공업의 알선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 고용 및 기술개발

- 현재 고용인원은 8명으로, 임원진 2명 사원관리직 6명과 절단용역업체 직원 22명(생산품의 특성 및 지속성 등의 문제로 하위 용역업체가 본 회사 내에서 직접생산·납품. 본 회사는 이들 용역업체의 생산 등 관리역할)
 - 인력의 출신지는 광주 및 전남권에서 100% 조달
- 용접 등 교육훈련은 삼호중공업(조선)에서 수행하여 활용함

- 정보획득은 기업내부의 자체활동을 통한
- 향후 투자확대 의향은 있으며, 현재 입지에서 이루어질 것임

□ 입지선정 및 결정

- 2000년 대불산업단지내 타 부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다가 2001년 외국인투자유치이후 외국인전용단지내로 공장설립·이주
- 공장규모는 11,000평(년간 임대료는 1,000만원)
- 입지여건은 교통 등의 입지여건은 불편, 대체적으로는 만족함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액 및 수익: 현재 매출액은 연간 12억원, 평균수익률은 20%수준
- 원부자재 연계: 원부자재는 대개 인근 삼호중공업에서 구입하며, 매출액의 20%는 광주에서 가스, 산소 등을 구입하며, 일반소모품은 목포에서 구입(원부자재의 구입비율이 매출액의 20% 차지)
- 고객연계: 판매는 목포시의 2차 가공업체(목포시 삼진농공단지 3개업체, 대불산업단지내 업체 2개소)로 100% 납품. 현재 대불공단내에 있는 삼호중공업에 100% 의존하고 있음. 향후 투자를 확대하여 의존률을 줄여갈 계획(원청업체인 삼호중공업은 인력 10,000~15,000명의 대기업이고, 자체내 생산 및 용역을 수행; 1차 하청업체는 목포시내에 7~8개업체로 평균고용규모는 40~50명으로 주로 제작 활동을 수행; 2차 용역업체는 1차 용역업체당 3~4개업체로 각기 상이한 부품제작 및 납품)
- 서비스연계: 세무 등 사업지원서비스는 목포시내 업체 활용

□ 정부의 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외국인전용단지내 임대료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혜택

(16) SH사

□ 설립배경 및 투자진입형태

- 1996년 SH사(목포시 하당지구 인근 1500평) 설립, 노르웨이 관련업체(HM사)와 M.A. 체결(cranes): SH사는 1977년부터 목포시내 어망제조업체에서 업종전환 및 분리신설 형태
- 1997년 노르웨이 관련업체(MP사)와 M.A. 체결(deck machinery)
- 2000년 외국인직접투자유치(설립당시 자본금 5천만원에서 노르웨이 조선 관련대기업인 HM사와 MP사가 각각 13%씩 투자, 현재는 국내업체의 증자에 의해 전체 자본금 8억 5천만원에서 각각 3% 지분참여형태 투자)
- 2001년 울산 제2공장 준공, 해외파견관리자 숙소 준공,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 외국인전용공단내 공장준공 입지
- 투자 및 유치동기: 외국기업투자를 유치한 동기는 외국기업(노르웨이)의 브랜드 가치이용과 전세계적인 A/S망 구축을 위함 (삼호중공업의 알선으로 외국기업투자유치)

□ 생산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크레인과 갑판기계 (선박용 기계완제품)
- 모기업과의 관계: 노르웨이의 HM사, MP사로서 연말에 재무제표를 확인을 하는 정도로 관여하며 경영전반에 관한 관여는 하지 않음. 다만, 직원의 노르웨이 현지연수를 통해 기술교육 추진

□ 고용 및 연구개발

- 고용규모: 현재 고용인원은 73명으로, 부산 5명(기술개발), 서울 2명(영업), 목포 66명(기술 6명, 사무 19명, 생산 41명)으로 생산인력은 수시로 채용, 용접관련 인력 7명은 아웃소싱 형태 (정상가동한 2000년 12월당시 40명)
- 연구개발인력은 2개월에 15일정도 노르웨이에서 파견된 기술자의 기술교육있으며, 노르웨이 현지연수도 있음. 연구개발투자비율은 매출액 대비 1%수준

□ 입지선정 및 결정

- 입지현황: 2001년 대불공단 외국인전용단지에 입주. 공장규모는 10000평으로 10년간 임대계약이며, 1회연장이 가능, 임대료는 연간 1150만원 수준
- 서울 사무소(여의도)는 각종 정보획득 통로와 의전업무 활용. 부산사무소는 인제대학내 창업보육센터내에 입지하여 항공우주 관련제품 연구개발 생산(납품실적: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1건)
- 입지여건은 물류운송이 불편하나 대체로 만족함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 및 수익: 연간매출액은 2000년 38억에서, 2002년 현재 140억원 예상
- 생산연계: 원자재는 부산항(목포항은 편수와 시간이 잘 안맞음)을 통해 수입 40%(노르웨이 MP사의 파워팩), 국내 60%(부산, 포항소재 대리점 등 200여개 업체), 볼트, 너트 등 부자재는 목포권에서 전량 구입
- 판매 및 고객연계: 판매비중은 내수 15%(울산 현대중공업), 수출 85%(삼호중공업 70%, 대우중공업 15%) 수주
- 서비스연계: 통관·세무 등 사업지원서비스는 기업내에서 해결하고 회계는 서울사무소 이용

□ 전략적 제휴 및 기업네트워킹

- 전략적 제휴: 목포 해양대와 기계제작 공동개발(김말리는 기계, 해상인명구조기 수신장치), 삼호중공업내 기술훈련소에서 직원기술훈련이 있음
- 조선기자재 협동조합, 한국추진공학회, 항공우주진흥협회 가입하여 인공위성 관련 정보교류
- 단지내 업체간 교류는 없음(타 업체는 블록.용역업체인데 비해 당사의 경우는 업종이 전혀 상이함), 삼호중공업 협력업체들간의 친목도모 차원의 모임인 삼호협의회가 있음
- 향후 투자확대 의향 있음

□ 정부의 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법인세, 재산세 50% 감면, 등록세·취득세 6천만원 면제(건물비용 28억원)
- 생산품의 부피가 굉장히 크므로 물류운송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음

(17) AK사

□ 모기업 및 투자진입형태

- 모기업: AK그룹은 현재 100여개국 1300여개의 현지법인에서 6만 5천여명의 전문인력이 송전 및 배전사업, 공장자동화, 석유화학, 건축기술과 금융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1999년 250억불 매출, 24억불의 영업이익, 16억불의 순이익을 냈으며, 연간 매출액의 8%를 연구개발비용으로 투자하고 있음
- AK사의 연혁
 - 1988년 스웨덴 및 스위스 기업의 합병업체(AK사), 서울 강남구에 본사 설립, 판매법인 형태로 진입
 - 1992년 Joint venture 설립 - Industrial Systems 부문
 - 1993년 Joint venture 설립 - Turbocharger 부문
 - 1995년 상호변경 - Industrial Systems Co. Ltd.,
 - 1995년 상호변경 - Turborcharger Co. Ltd.,
 - 1998년 Industrial Systems Co. Ltd.,과 Turborcharger Co. Ltd.가 현재의 AK사로 합병
 - 1998년 천안공장 준공
 - 2001년 회사상호변경 (현재의 AK사)
- 서울과 부산에 영업 및 서비스 사무소가 있으며, 천안에 공장이 있음. 전체 고용인원은 400여명이며, 천안공장 근무인원은 230여명
- 사업부문 구성: 각 사업부문이 다른 원자재, 생산, 판매, 고객으로 구성
 - 공정산업본부(석유화학 사업부, 프로세스 산업 사업부, 선박해양 및 터보차저 사업부)

- 제조 및 소비재산업본부(통신 및 일반제조 사업부, 자동차산업사업부)
- 실용산업본부(유틸리티 자동화사업부)
- 전력기술산업본부(수배전 사업부, 변압기 사업부)
- 자동화기술산업본부(자동화기기 사업부, 계장사업부, 형상제어사업부, 로봇 사업부)
- 본 인터뷰 내용은 AK사 대부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6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진 천안공장 관리자와 이루어진 것임. 따라서 전체 AK그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천안공장에서조차 각 사업부별로 주요생산품과 원자재 구입, 판매현황, 주요고객 등에 차이가 있음
- AK사는 1980년대초 커미션과 영업활동을 위한 판매대행사 형태로 국내 진입(서울시 강남구 입지) → 1988년 100% 외국인단독투자 법인설립

□ 생산품 및 조직특성

- 주요생산품: 차단기, 변압기, Control Products, DC 드라이브, AC 드라이브, Industrial IT, Instrumentation, 저압배전용부품, 모터, 배전반, ABB 전력 전자시스템, Power Network Management (SCADA/EMS/DMS), Energy Information Systems, Power Plant Automation, Process Analysis, 자동화 로봇시스템(자동차페인팅 용접), Sustation Automation & Relays, 몰드변압기, 터보차저 서비스, Utility Communications, Valves & Actuators, 공정제어장치 등 (1998년부터 오토메이션으로 주력업종 전환; 산업용 로봇, 공정제어자동장치, flexible automation 등 IT 생산)
- 모기업과의 관계: AK사는 AK그룹의 현지법인으로서, 그룹의 현지화 경영 방침에 따라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현지책임자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짐. 다만, 대규모의 투자결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스위스 취리히의 그룹본사에서 결재가 이루어짐

□ 고용 및 기술개발

- 고용규모: 천안공장의 총인력은 설립당시 170여명에서 현재는 230여명. 일

반생산직 90~100여명, 기술직 100여명, 관리직 30여명으로 구성. 생산직은 대개 천안지역내에서 공고 및 전문대 출신을 고용하며, 기술관리직은 전국적으로 조달

- AK그룹의 현지법인들은 본사에 기술이용에 대하여 License fee를 지불. 본사의 기술인력이 방문하여 시제품 공동제작 등 기술교육 이전이 이루어짐, 본사와 자체 현지 법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음
- 정보획득은 기업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짐
- 향후 투자확대 계획이 있으며, 투자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지설계

□ 입지선정 및 결정

- 입지변동: 1988년 Comission Business 성격의 판매법인을 서울시 강남구에 설립. 생산을 개시하면서 서울과의 근접성 요인에 의해 청주시(준공업단지 내 300평)에 공장설립, 1998년 천안 외국인전용공단으로 공장설립 이전
- 입지현황: 천안 공장은 18,000여평(52,000m², 10년간 무상임대,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 7,000평 활용), 부산에는 해양 및 선박부문 공장 별도운영, 판매 및 마케팅은 서울 사무소에서 담당
- 입지여건 만족도: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편, 서울과 근거리(고속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창원의 중간 입지로 연결이 용이

□ 생산 및 판매의 지역연계

- 매출액 및 판매연계: 주요사업부문의 매출액은 약 1,200억원 수준으로, 수출과 내수의 비중이 30:70 정도. 그러나 각 사업부별로 차이가 심한 편임
- 원부자재 구입연계: 핵심부품은 대개 해외본사에서 수입하며, 구리, 철판 등의 원부자재는 대개 국내에서 조달함

□ 기업네트워킹 및 지역사회연계

- 서비스연계: 법률, 회계 등 사업서비스는 서울지역의 사업서비스를 이용함

- 기업연계: 천안공장(외국인전용공단)에서는 핵심적인 부문을 담당하며, 나머지 생산부분은 인근지역(천안, 평택, 안성 등)의 중소기업체로부터 대부분 아웃소싱하고 있음
- 지역연계: 외국인공단내에 운영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80%가 가입한 상태. 월 1회 모임으로 업체간 정보교류 및 친목도모. 또한 외국인공단내 입주업체장(사장단) 모임이 분기별로 있으며, 업체간 정보교류네트워크 기능, 기업운영시스템 지원요청 및 교육기능, 환경처리시설(비용)문제 등에 대한 공동 대응

□ 정부의 지원 및 기타 애로사항

- 공장부지 저가 임대,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음
- 외국인 전용공단내에서 가장 큰 업체로 각종 조사와 견학 등의 요구가 많아 어려움이 있음

13. 귀사는 국내 입지선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 ① 지방자치단체 ② 외국인투자지원센터·기관 ③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
④ 국내 합작투자회사 ⑤ 자체조사분석 ⑥ 기타()

14. 귀사의 입지선정시, 주요 결정요인을 우선순위별로 2가지 기입해주세요.

▪본사(혹은 영업소)의 입지선정요인: _____, _____

▪공장의 입지선정요인: _____, _____

- | | |
|------------------------|-----------------------|
| ①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 ② 지역의 명성과 지명도 |
| ③ 편리한 교통접근(공항, 항만, 도로) | ④ 주요고객 및 시장접근성 |
| ⑤ 통신망 및 하부구조 이용편리 | ⑥ 관련기업, 협회의 집적지역 |
| ⑦ 유사동종생산업체 집적지역 | ⑧ 전문인력 확보용이 |
| ⑨ 생산직 인력 확보용이 | ⑩ 쾌적한 주변지역 여건(생활환경 등) |
| ⑪ 대도시 및 도심과의 근접성 | ⑫ 기존업체의 공장인수 |
| ⑬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 ⑭ 기타() |

15. 귀사의 현재 입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매우높다 약간높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 주요고객업체 및 시장근접
- 원부자재·부품공급업체 근접
- 유사동종업체의 집적·근접
- 경영,마케팅 등 지원서비스
- 전문기술인력 확보용이
- 저렴한 생산인력 확보
- 교통 및 통신편리

매우높다 ① 약간높다 ② 별로없다 ③ 전혀없다 ④ 모르겠다 ⑤

- 연구기관, 대학 등과 기술협력교류 가능성
- 지역의 지명도·위신
- 저렴한 지가 및 임대료
- 교육·주거 등 생활편의시설
- 전반적인 입지여건

16. 향후(5년이내) 귀사의 국내투자 전망은?

- ① 현재 상태유지 ② 투자규모 확대 ③ 투자규모 축소

☞ 투자규모 확대시 입지선호지역은?

- ① 현재 입지지역
 ② 현재 입지이외의 타지역 (이전희망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

☞ 투자확대 예상지역의 주요 선호이유는? _____

♣ 생산활동 및 지역연계, 협력네트워크

17. 귀사의 기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관계는?

- ① 해외모기업 ② 원부자재 공급업체(구매거래)
 ③ 고객업체(판매거래) ④ 법률·회계 등 지원서비스
 ⑤ 연구개발·기술서비스 ⑥ 기타()

18. 귀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 분	연간 구입액	지역 분포(구입액 비중)				계
		수도권	수도권 이외지역		해외 (수입)	
			해당 사도	타 사도		
원 자 재	백만원					100.0%
부품 등 부자재	백만원					100.0%
기계·장비	백만원					100.0%

27. 귀사가 직원들의 교육훈련 및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어떤 형태를 취하십니까?

- ① 해외모기업이 주관하는 기술경영교육 프로그램에 파견한다
- ② 해외기술인력을 초청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③ 관련분야의 국내외 박람회, 워크샵, 학술대회에 직원을 참가시킨다
- ④ 고객, 공급 및 동종업체와의 세미나와 워크샵에 직원을 참가시킨다
- ⑤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⑥ 별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없다

28. 귀사의 법률, 세무, 시장조사 등 사업지원서비스 제공업체는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 ① 해외(모기업이나 타업체) ② 수도권(서울,인천,경기)
- ③ 해당 사·도(수도권외) ④ 타 사·도(수도권외) ⑤ 기 타()

♣ **업체의 지역화·지역연계 촉진방안**

29. 현재 귀사의 입지에 따른 지역효과(지역화 정도)는?

	매우높다	약간높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고용 창출효과	----- ----- ----- ----- -----				
▪지역내 협력업체 활용	----- ----- ----- ----- -----				
▪지역내 유사업체의 집적	----- ----- ----- ----- -----				
▪첨단기술이전/지역혁신효과	----- ----- ----- ----- -----				
▪지방세수 증대효과	----- ----- ----- ----- -----				
▪지역이미지 제고효과	----- ----- ----- ----- -----				
▪지역사회봉사활동	----- ----- ----- ----- -----				

30. 향후 5년 이내 귀사의 입지에 따른 지역화 정도를 **전망**해 주십시오.

	매우높다	약간높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고용 창출효과	----- ----- ----- ----- -----				
▪지역내 협력업체 활용	----- ----- ----- ----- -----				
▪지역내 유사업체의 집적	----- ----- ----- ----- -----				
▪첨단기술이전/지역혁신효과	----- ----- ----- ----- -----				
▪지방세수 증대효과	----- ----- ----- ----- -----				
▪지역이미지 제고효과	----- ----- ----- ----- -----				
▪지역사회봉사활동	----- ----- ----- ----- -----				

31.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사가 제
공받은 정부지원시책 및 인센티브 중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된 시책은?

- | | |
|--------------|--------------------|
| ① 조세감면시책 | ② 공장부지 무상·저가제공시책 |
| ③ 행정서비스 지원 | ④ 각종 보조금 |
| ⑤ 금융서비스 | ⑥ 기술 경영컨설팅 지원 서비스 |
| ⑦ 지원 받은 적 없다 | ⑧ 기타() |

32. 귀사를 비롯한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지역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
원시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귀하의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4: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조사통계표

<부표 5-1> 조사업체의 원부자재 및 물자조달수준 비교

(단위: 백만원, %)

구 분		연간구입액 (백만원, %)	지역구매연계 비중(%)		
			국내지역		해외지역
			해당시·도	타 시·도	
수도권 FDI업체	원자재	5,994(100.0)	9.65	90.18	0.26
	부자재	1,805(100.0)	34.46	7.57	57.98
	기계·장비	4,662(100.0)	13.36	3.32	83.32
	소계	12,461(100.0)	14.60	45.72	39.69
지방 FDI업체	원자재	3,921(100.0)	13.03	80.4(11.9)	6.67
	부자재	1,018(100.0)	37.94	32.9(13.7)	29.16
	기계·장비	711(100.0)	6.14	12.1(4.3)	81.77
	소계	5,650(100.0)	16.65	63.2(11.2)	20.17
기업 규모	대기업형	313,181(100.0)	12.4	40.6	47.0
	중소기업형	262,262(100.0)	19.4	74.2	6.3
조직 성숙도	성숙기업형	320,726(100.0)	15.1	69.1	15.8
	신생기업형	254,717(100.0)	16.3	39.3	44.4
생산품특성	기초소재형	135,904(100.0)	19.2	73.9	7.0
	조립가공형	405,134(100.0)	14.3	48.2	37.5
	생활관련형	34,395(100.0)	16.8	76.1	7.1
계		18,111(100.0)	15.2	51.2	33.6

주: 괄호안 수치는 지방FDI 업체의 타 시·도구매 중 수도권 지역 차지비중임

<부표 5-2> 조사업체의 기업규모, 조직·생산특성별 서비스 및 정보연계
(단위: 개소, %)

구 분		기업규모		조직성숙도		생산품 특성별			
		대기업형	중소기업형	성숙기업형	신생기업형	기초소재형	중간부품형	최종완성형	
서비스연계	사업지원 서비스 공급지역	수도권 업체	5(83.3)	46(65.7)	34(69.4)	17(68.0)	16(76.2)	26(65.0)	8(66.7)
		권역내 업체	1(16.7)	15(21.4)	11(22.4)	7(28.0)	4(19.0)	11(27.5)	3(25.0)
		해외, 타지역업체	-	9(12.9)	4(8.2)	1(4.0)	1(4.8)	3(7.5)	1(8.3)
		소계	6(100.0)	70(100.0)	49(100.0)	25(100.0)	21(100.0)	40(100.0)	12(100.0)
정보연계	기술개발 관련 주요정보처	해외모기업	4(100.0)	33(60.0)	25(65.8)	14(60.9)	11(64.7)	23(65.8)	5(62.5)
		기업내부	-	13(23.6)	6(15.8)	7(30.4)	4(23.5)	6(17.1)	2(25.0)
		고객업체	-	9(16.4)	7(18.4)	2(8.7)	2(11.8)	6(17.1)	1(12.5)
		소계	4(100.0)	55(100.0)	38(100.0)	23(100.0)	17(100.0)	35(100.0)	8(100.0)
	원부자재 공급 및 생산관련 주요 정보처	해외모기업	2(50.0)	16(29.1)	13(36.1)	5(21.7)	8(50.0)	8(23.5)	1(12.5)
		기업내부	1(25.0)	29(52.7)	15(41.7)	16(69.6)	6(37.5)	21(61.8)	4(50.0)
		고객업체	1(25.0)	10(18.2)	8(22.2)	2(8.7)	2(12.5)	5(12.5)	3(37.5)
		소계	4(100.0)	55(100.0)	36(100.0)	23(100.0)	16(100.0)	34(100.0)	8(100.0)
	판매처 및 거래선확보 관련 주요 정보처	해외모기업	1(25.0)	6(10.9)	4(11.4)	3(12.5)	1(7.1)	4(11.8)	2(20.0)
		기업내부	-	25(45.5)	13(37.1)	11(45.8)	4(28.6)	16(47.1)	3(30.0)
		고객업체	3(75.0)	24(43.6)	18(51.5)	10(41.7)	9(64.3)	14(41.1)	5(50.0)
		소계	4(100.0)	55(100.0)	35(100.0)	24(100.0)	14(100.0)	34(100.0)	10(100.0)

<부표 5-3> 조사업체의 투자진입방식 및 투자동기별 서비스 및 정보연계
(단위: 개소, %)

구 분			투자진입 방식		투자동기		
			단독 신설형	합작. 합병형	시장판로 개척형	생산 거점형	기술 교류형
서비스 연계	사업지원서비스 공급지역	수도권 업체	15(71.4)	36(63.2)	30(85.7)	7(46.7)	10(71.4)
		권역내 업체	2(9.5)	16(28.1)	4(11.4)	6(40.0)	4(28.6)
		해외, 타지역업체	4(19.1)	5(8.7)	1(2.9)	2(13.3)	-
		소계	21(100.0)	57(100.0)	35(100.0)	15(100.0)	14(100.0)
정보 연계	기술개발 관련 주요정보처	해외모기업	17(85.0)	22(53.7)	20(62.5)	11(78.6)	4(57.1)
		기업내부	2(10.0)	11(26.8)	8(25.0)	1(7.1)	1(14.3)
		고객업체	1(5.0)	8(19.5)	4(12.5)	2(14.3)	2(28.6)
		소계	20(100.0)	41(100.0)	32(100.0)	14(100.0)	7(100.0)
	원부자재 공급 및 생산관련 주요 정보처	해외모기업	9(50.0)	9(21.4)	11(36.7)	4(40.0)	2(16.7)
		기업내부	7(38.9)	24(57.2)	14(46.7)	5(50.0)	7(58.3)
		고객업체	2(11.1)	9(21.4)	5(16.7)	1(10.0)	3(25.0)
		소계	18(100.0)	42(100.0)	30(100.0)	10(100.0)	12(100.0)
	판매처 및 거래선확보 관련 주요 정보처	해외모기업	-	7(16.2)	-	4(30.8)	-
		기업내부	7(41.2)	18(41.9)	14(50.0)	3(23.1)	4(36.4)
		고객업체	10(58.8)	18(41.9)	14(50.0)	6(46.2)	7(63.6)
		소계	17(100.0)	43(100.0)	28(100.0)	13(100.0)	11(100.0)

<부표 5-4> 조사업체의 투자국 및 투자비율별 서비스 및 정보연계

(단위: 개소, %)

구 분			투자국			투자비율		
			미주계	아시아	유럽계	~50%	~99%	100%
서비스 연계	사업지원서비스 공급지역	수도권 업체	11(84.6)	23(59.0)	17(81.0)	24(68.6)	14(73.7)	12(75.0)
		권역내 업체	1(7.7)	12(30.8)	4(19.0)	9(25.7)	4(21.1)	2(12.5)
		해외, 타지역업체	1(7.7)	4(10.2)	-	2(5.7)	1(5.2)	2(12.5)
		소계	13(100.0)	39(100.0)	21(100.0)	35(100.0)	19(100.0)	16(100.0)
정보 연계	기술개발 관련 주요정보처	해외모기업	9(69.2)	19(63.3)	11(61.1)	14(50.0)	12(70.6)	10(76.9)
		기업내부	1(7.7)	7(23.3)	5(27.8)	10(35.7)	-	3(23.1)
		고객업체	3(23.1)	4(13.4)	2(11.1)	4(14.3)	5(29.4)	-
		소계	13(100.0)	30(100.0)	18(100.0)	28(100.0)	17(100.0)	13(100.0)
	원부자재 공급 및 생산관련 주요 정보처	해외모기업	5(45.5)	9(26.5)	4(28.6)	6(20.7)	5(33.3)	6(46.2)
		기업내부	4(36.4)	18(52.9)	9(64.3)	18(62.1)	6(40.0)	6(46.2)
		고객업체	2(18.1)	7(20.6)	1(7.1)	5(17.2)	4(26.7)	1(7.6)
		소계	11(100.0)	11(100.0)	14(100.0)	29(100.0)	15(100.0)	13(100.0)
	판매처 및 거래선확보 관련 주요 정보처	해외모기업	1(8.3)	5(15.6)	1(7.1)	4(13.8)	2(12.5)	1(7.7)
		기업내부	2(16.7)	14(43.8)	7(50.0)	13(44.8)	4(25.0)	7(53.8)
		고객업체	9(75.0)	13(40.6)	6(42.9)	12(41.4)	10(62.5)	5(38.5)
		소계	12(100.0)	32(100.0)	14(100.0)	29(100.0)	16(100.0)	13(100.0)

<부표 5-5> 조사업체의 투자국 및 투자비율별 기업협력연계 비교
(단위: 개소, %)

구 분			투자국별			투자비율별			
			미주계	아시아	유럽계	~50%	~99%	100%	
협력연계	협력업체 여부	있다	10(71.4)	27(64.3)	14(66.7)	29(74.4)	11(55.0)	10(62.5)	
		없다	4(28.6)	15(35.7)	7(33.3)	10(25.6)	9(45.0)	6(37.5)	
		소계	14(100.0)	42(100.0)	21(100.0)	39(100.0)	20(100.0)	16(100.0)	
	협력업체 없는 경우 이유	필요없음	3(75.0)	11(73.3)	5(71.4)	8(72.7)	7(87.5)	3(50.0)	
		기술수준 맞지않음	-	3(20.0)	1(14.3)	1(9.1)	1(12.5)	2(33.3)	
		기 타	1(25.0)	1(6.7)	1(14.3)	2(18.2)	-	1(16.7)	
		소계	4(100.0)	15(100.0)	7(100.0)	11(100.0)	8(100.0)	6(100.0)	
	협력업체 있는 경우 지원사항	기술교류 및 협력	5(33.3)	10(29.4)	7(50.0)	8(28.6)	9(39.1)	5(45.5)	
		원부자재제공	5(33.3)	15(44.1)	4(28.6)	11(39.3)	8(34.8)	3(27.3)	
		정보제공	2(13.3)	3(8.8)	2(14.3)	5(17.9)	2(8.7)	1(9.1)	
		자금지원, 설비대여	3(20.0)	6(17.6)	1(7.1)	4(14.3)	4(17.3)	2(18.2)	
		소계	15(100.0)	34(100.0)	14(100.0)	28(100.0)	23(100.0)	11(100.0)	
	전략적 제휴	전략적 제휴관계 경험유무	있다	5(35.7)	10(24.4)	8(38.1)	13(34.2)	4(20.0)	5(33.3)
없다			9(64.3)	31(75.6)	13(61.9)	25(65.8)	16(80.0)	10(66.7)	
소계			14(100.0)	41(100.0)	21(100.0)	38(100.0)	20(100.0)	15(100.0)	
전략적 제휴활동분야		공동연구개발	3(60.0)	10(50.0)	3(42.9)	6(46.2)	3(75.0)	2(50.0)	
		설비,공간공동활동	1(20.0)	4(20.0)	2(28.6)	4(30.8)	-	1(25.0)	
		공동 마케팅활동	1(20.0)	5(25.0)	1(14.3)	3(23.1)	1(25.0)	-	
		공동 구매활동	-	1(5.0)	1(14.3)	-	-	1(25.0)	
		소계	5(100.0)	20(100.0)	7(100.0)	13(100.0)	4(100.0)	4(100.0)	
기술이전 및 기술혁신		기술이전 경험	있다	6(42.9)	6(15.0)	6(28.6)	8(21.6)	4(20.0)	6(40.0)
			없다	8(57.1)	34(85.0)	15(71.4)	29(78.4)	16(80.0)	9(60.0)
	소계		14(100.0)	40(100.0)	21(100.0)	37(100.0)	20(100.0)	15(100.0)	
	기술혁신여부 (복수응답)	신제품개발	7(30.4)	11(20.0)	8(25.0)	16(30.8)	8(24.2)	2(10.0)	
		기존제품개량	9(39.1)	16(29.1)	14(43.8)	18(34.6)	12(36.4)	7(35.0)	
		생산공정개선	7(30.4)	28(50.9)	10(31.2)	18(34.6)	13(39.4)	11(55.0)	
		소계	23(100.0)	55(100.0)	32(100.0)	52(100.0)	33(100.0)	20(100.0)	
	기술혁신 기여기관	기업단독	6(35.4)	19(51.4)	9(52.9)	16(51.6)	8(36.4)	9(64.3)	
		해외모기업	5(29.4)	12(32.4)	6(35.3)	8(25.8)	8(36.4)	4(28.6)	
		고객업체	3(17.7)	5(13.5)	1(5.9)	3(9.7)	5(22.7)	1(7.1)	
		원부자재공급업체	3(17.7)	1(2.7)	1(5.9)	4(12.9)	1(4.5)	-	
		소계	17(100.0)	37(100.0)	17(100.0)	31(100.0)	22(100.0)	14(100.0)	

<부표 5-6> 조사업체의 투자특성 유형별 정부시책 수혜여부

(단위: 개소, %)

구 분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투자국			투자비율		
		단독 신설형	합작 합병형	시장 관료 개척형	생산 거점형	기술 교류형	미주계	아시아	유럽계	~50%	~99%	100%
수혜 여부	받은적 있음	18 (85.7)	36 (69.2)	26 (74.3)	11 (68.8)	7 (58.3)	9 (69.2)	30 (75.0)	16 (76.2)	25 (69.4)	14 (73.7)	14 (87.5)
	받은적 없음	3 (14.3)	16 (30.8)	9 (25.7)	5 (31.2)	5 (41.7)	4 (30.8)	10 (25.0)	5 (23.8)	11 (30.6)	5 (26.3)	2 (12.5)
		21 (100.0)	52 (100.0)	35 (100.0)	16 (100.0)	12 (100.0)	13 (100.0)	40 (100.0)	21 (100.0)	36 (100.0)	19 (100.0)	16 (100.0)
도움 되는 지원 시책	조세감면	9 (42.9)	25 (64.1)	15 (55.6)	9 (60.0)	4 (66.7)	7 (77.8)	19 (55.9)	8 (47.1)	17 (63.0)	10 (71.4)	6 (37.5)
	공정부지 저가 및 무상지원	9 (42.9)	9 (23.1)	8 (29.6)	4 (26.7)	2 (33.3)	-	10 (29.4)	8 (47.1)	6 (22.2)	3 (21.4)	8 (50.0)
	행정서비스 지원	2 (9.5)	2 (5.1)	2 (7.4)	1 (6.7)	-	1 (11.1)	3 (8.8)	-	2 (7.4)	1 (7.2)	-
	각종 보조금지원	-	3 (7.7)	1 (3.7)	1 (6.7)	-	1 (11.1)	2 (5.9)	-	2 (7.4)	-	1 (6.3)
	기술,경영 컨설팅지원	1 (4.7)	-	1 (3.7)	-	-	-	-	1 (5.8)	-	-	1 (6.3)
		21 (100.0)	39 (100.0)	27 (100.0)	15 (100.0)	6 (100.0)	9 (100.0)	34 (100.0)	17 (100.0)	27 (100.0)	14 (100.0)	16 (100.0)

<부표 5-7> 조사업체의 투자특성 유형별 기술이전 경험

(단위: 개소, %)

구 분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단독신설형	합작, 합병형	시장관료 개척형	생산거점형	기술교류형	
기술 이전 및 기술 혁신	기술이전 경험	있다	6(28.6)	12(22.2)	6(42.9)	6(15.0)	6(28.6)
		없다	15(71.4)	42(77.8)	8(57.1)	34(85.0)	15(71.4)
		소계	21(100.0)	54(100.0)	14(100.0)	40(100.0)	21(100.0)
	기술혁신여부	신제품개발	4(13.8)	22(27.2)	7(30.4)	11(20.0)	8(25.0)
		기존제품개량	12(41.4)	27(33.3)	9(39.2)	16(29.1)	14(43.8)
		생산공정개선	13(44.8)	32(39.5)	7(30.4)	28(50.9)	10(31.2)
		소계	29(100.0)	81(100.0)	23(100.0)	55(100.0)	32(100.0)
	기술혁신 기여기관	기업단독	9(42.9)	25(50.0)	6(35.3)	19(51.4)	9(52.9)
		해외모기업	8(38.1)	15(30.0)	5(29.4)	12(32.4)	6(35.3)
		고객업체	3(14.3)	6(12.0)	3(17.6)	5(13.5)	1(5.9)
		원부자재공급업체	1(4.8)	4(8.0)	3(17.6)	1(2.7)	1(5.9)
	소계	21(100.0)	50(100.0)	17(100.0)	37(100.0)	17(100.0)	

<부표 5-8> 조사업체의 유형별 교육훈련형태

(단위: 개소)

구분		교육훈련		
		국내외 박람회 및 워크숍	해외모기업주관 교육프로그램 파견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
소재 지역	수도권	10(30.3)	8(36.4)	5(31.3)
	지방	23(69.7)	14(63.6)	11(68.7)
	계	33(100.0)	22(100.0)	16(100.0)
투자 진입 방식	단독신설형	8(22.9)	6(26.1)	5(25.0)
	합작인수형	27(77.1)	17(73.9)	15(75.0)
	계	35(100.0)	23(100.0)	20(100.0)
기업 규모	대기업형	1(3.0)	1(4.4)	4(20.0)
	중소기업형	32(97.0)	22(95.6)	16(80.0)
	계	33(100.0)	23(100.0)	20(100.0)
조직 성숙도	성숙기업형	24(68.6)	14(60.9)	13(59.1)
	신생기업형	11(31.4)	9(39.1)	9(40.9)
	계	35(100.0)	23(100.0)	22(100.0)
생산품 특성	기초소재형	14(40.0)	7(30.4)	3(27.3)
	조립가공형	18(51.4)	12(52.2)	6(54.5)
	생활관련형	3(8.6)	4(17.4)	2(18.2)
	계	35(100.0)	23(100.0)	11(100.0)
투자국	미주	8(22.9)	7(30.4)	5(22.7)
	아시아	17(48.6)	8(34.8)	10(45.5)
	유럽계	10(28.6)	8(34.8)	7(31.8)
	계	35(100.0)	23(100.0)	22(100.0)
투자 비율	50%미만	16(48.5)	7(31.8)	11(50.0)
	50~100%미만	13(39.4)	10(45.5)	6(27.3)
	100%	4(12.1)	5(22.7)	5(22.7)
	계	33(100.0)	22(100.0)	22(100.0)

<부표 5-9> 조사업체의 지속적 교류기관 및 모임 참여

(단위: 개소, %)

구	분	계	소재지역별		기업규모별		조직성숙도		생산물 특성		
			수도권	지방	대기업	중소기업	성숙기업	신생기업	기초소재형	중간부품형	최종완성형
지속 교류기관	지역금융기관	23 (46.9)	9 (56.3)	14 (42.4)	-	24 (48.0)	16 (50.0)	8 (42.1)	9 (64.3)	12 (36.4)	2 (66.7)
	지방자치단체	16 (32.7)	4 (25.0)	12 (36.4)	1 (50.0)	18 (36.0)	11 (34.4)	7 (36.8)	2 (14.3)	15 (45.5)	1 (33.3)
	중앙정부기관	10 (20.4)	3 (18.8)	7 (21.2)	1 (50.0)	8 (16.0)	5 (15.6)	4 (21.1)	3 (21.4)	6 (18.1)	-
		49 (100.0)	16 (100.0)	33 (100.0)	2 (100.0)	50 (100.0)	32 (100.0)	19 (100.0)	14 (100.0)	33 (100.0)	3 (100.0)
지역 혹은 산업단지내 모임 참여	참여	32 (45.7)	9 (39.1)	23 (48.9)	4 (80.0)	27 (39.1)	24 (49.0)	9 (33.3)	9 (40.9)	21 (50.0)	3 (27.3)
	불참	38 (54.3)	14 (60.9)	24 (51.1)	1 (20.0)	42 (60.9)	25 (51.0)	18 (66.7)	13 (59.1)	21 (50.0)	8 (72.7)
		70 (100.0)	23 (100.0)	47 (100.0)	5 (100.0)	69 (100.0)	49 (100.0)	27 (100.0)	22 (100.0)	42 (100.0)	11 (100.0)

<부표 5-10> 조사업체의 투자특성별 교류기관 및 모임 참여여부

(단위: 개소, %)

구	분	투자진입방식		투자동기			투자국			투자비율		
		단독신설형	합작합병형	시장판로개척	생산거점형	기술교류형	미주계	아시아	유럽계	~50%	~99%	100%
지속 교류기관	지역금융기관	7 (35.0)	17 (54.8)	10 (55.6)	6 (40.0)	4 (50.0)	4 (36.4)	16 (59.3)	4 (30.8)	11 (40.7)	9 (69.2)	3 (37.5)
	지방자치단체	7 (35.0)	11 (35.5)	5 (27.8)	5 (33.3)	3 (37.5)	5 (45.5)	9 (33.3)	4 (30.8)	12 (44.4)	3 (23.1)	2 (25.0)
	중앙정부기관	6 (30.0)	3 (9.7)	3 (16.6)	4 (26.7)	1 (12.5)	2 (18.1)	2 (7.4)	5 (38.4)	4 (14.9)	1 (7.7)	3 (37.5)
		20 (100.0)	31 (100.0)	18 (100.0)	15 (100.0)	8 (100.0)	11 (100.0)	27 (100.0)	13 (100.0)	27 (100.0)	13 (100.0)	8 (100.0)
지역 혹은 산업단지내 모임 참여	참여	9 (42.9)	24 (43.6)	13 (36.1)	7 (43.8)	7 (53.8)	6 (46.2)	17 (41.5)	10 (45.5)	12 (32.4)	9 (45.0)	9 (56.3)
	불참	12 (57.1)	31 (56.4)	23 (63.9)	9 (56.2)	6 (46.2)	7 (53.8)	24 (58.5)	12 (54.5)	25 (67.6)	11 (55.0)	7 (43.7)
		21 (100.0)	55 (100.0)	36 (100.0)	16 (100.0)	13 (100.0)	13 (100.0)	41 (100.0)	22 (100.0)	37 (100.0)	20 (100.0)	16 (100.0)

<부표 5-11> 조사업체의 지역입지에 따른 파급효과 인식정도

(단위: 점)

구 분		전체	소재지역		입지유형	
			수도권	지방	계획입지	개별입지
현재효과	고용창출효과	2.13	2.23	2.04	2.07	2.22
	지역내 협력업체 활용	2.45	2.18	2.60	2.37	2.74
	유사업체 집적	2.80	2.82	2.87	2.77	3.13
	기술이전, 지역혁신효과	2.81	3.05	2.74	2.79	3.04
	지방세수 증대효과	2.28	2.41	2.21	2.16	2.48
	지역이미지 제고효과	2.44	2.45	2.40	2.37	2.52
	지역사회봉사활동	2.72	2.77	2.66	2.77	2.65
향후 예상효과 (5년이내)	고용창출효과	2.07	2.23	2.02	2.05	2.09
	지역내 협력업체 활용효과	2.34	2.14	2.48	2.31	2.43
	유사업체 집적효과	2.70	2.55	2.85	2.74	2.96
	기술이전, 지역혁신효과	2.62	2.55	2.70	2.69	2.78
	지방세수 증대효과	2.04	2.18	1.96	2.02	2.09
	지역이미지 제고효과	2.22	2.27	2.20	2.19	2.35
	지역사회봉사 효과	2.45	2.36	2.48	2.50	2.43

주: 입지요소점수는 조사업체들의 응답을 평균점수화 하였음(1:매우만족 2:약간만족 3:별로 만족안함 4:전혀 만족안함)

<부표 5-12> 조사업체의 입지여건 만족도

(단위: 점)

입지요소(평균)	전체	소재지역		입지유형	
		수도권	지방	계획입지	개별입지
고객 및 시장근접	2.32	2.10	2.42	2.26	2.57
원부자재부품 공급업체 근접	2.59	2.43	2.56	2.47	2.61
유사동종업체 근접	2.72	2.67	2.83	2.72	2.87
경영마케팅지원 서비스	2.96	2.95	3.00	2.81	3.26
전문기술인력확보 용이	2.95	2.86	2.92	2.86	3.00
저렴한 생산인력 확보	2.85	2.86	2.77	2.81	2.83
교통 및 통신편리	2.49	2.62	2.44	2.37	2.70
연구기관,대학 등과 기술협력가능성	2.96	3.00	2.88	2.70	3.22
지역의 지명도와 위신	2.71	3.00	2.58	2.58	2.96
저렴한지가 및 임대료	2.27	2.33	2.17	2.07	2.43
교육주거 등의 생활편의시설	3.08	3.05	3.06	2.93	3.26
전반적 입지여건	2.53	2.43	2.58	2.42	2.78

주: 입지요소점수는 조사업체들의 응답을 평균점수화 하였음(1:매우만족 2:약간만족 3:별로 만족안함 4:전혀 만족안함)